



태평동, 세월의 빛깔을 말하다 | 장노현 지음

태
평
동

사랑
이야기



“태평동은 골목의 나라였다.

베이징의 뒷골목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지만 태평동의 골목길도 뒤질 것 같지는 않다. 골목 안에는 골목만의 풍경이 있었고, 해가 나는 날은 해가 나는 대로, 또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대로 각기 다른 풍경을 연출했다.

태평동 골목길을 그는 술하게 오르내렸다.

물지게 같은 것을 만들어 좌우에 다섯 장씩 연탄을 지고 비탈진 골목을 오르내렸다.”

- 쌀가게와 연탄가게_태평동 영호씨 이야기 중에서

태 평 동 사 랑 들 의 이 사 기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태평동 이야기북 2
2009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

발행인	이대엽 · 이종덕
편집인	노재천
기획총괄	박승현
기획진행	이종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www.sncf.or.kr / www.snart.or.kr
발행일	2010. 2

지은이	장노현
일러스트&디자인	디자인 좋은날 / 김영아
인쇄	디자인 좋은날

©성남문화재단

태평동 사랑드 이야기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

장노현 지음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북을 펴내며

태평동 이야기를 영상으로, 인생드라마를 연극으로

2006년 5월, 성남문화재단과 공공예술 작가들이 함께 구성한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기획단이 태평4동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마을 주민과의 인터뷰를 기록해 나갔다. 골목길에서 만난 주민들의 이야기는 고스란히 태평동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뼈대가 되었다.

1. “서울 각지에서 왔지.. 그 때 당시에 60년대 후반에서부터 70년도 초까지 서울 변두리 같은데도 아니고 서울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때 당시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꼬방 집이 서울시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집들을 철거를 해서 이쪽으로 이주를 시킨거야. 이쪽으로 온지가 37년 정도 됐지 보상은 없고 아주 나쁜 놈들이 많았어.”

2. “내가 한이 서린 이야기를 해줄게. 여기에다가 말뚝을 하나씩 쭈욱 박아서 새끼 줄로 20평이다 하고서 주는거야.. 집을 짓는 놈들은 텐트 마냥 더 큰 거를 가지고

와서 우선 거기에 기거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몇 세대가 같이 기거를 했어 한 세대만 기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불도저로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든 정부에서 돈을 먹고 뒤로 빼돌린 놈들이 산비탈에다 새 끼줄만 쳐놓고 그냥 뉘나 가져라 그렇게 준거야.”

3. “음.. 옛날에는 철거민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쏟아 부은 장소지.. 과거에는 살기가 막막했는데 지금은 많이 살기 좋아졌지. 지금은 이 바닥이 시멘트이지만 과거에는 야산이었지.. 처음에는 산에 올라가서 서울만 쳐다보고만 있었어. 가고 싶어서 갈수도 없고 돈도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살았어. 하여튼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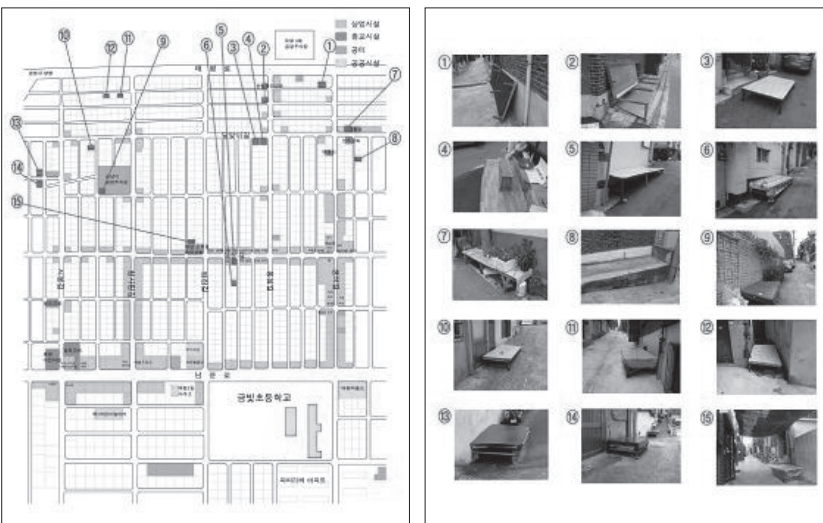
4. “그 때는 3층 같은 건물이 없잖아. 텐트로 해서 잘 지었다고 해도 고야로 기와로 지은 게 전부였지.. 언덕이고 흙바닥이라 비가 오면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 라는 말도 있었어.. 과거에는 쉴 곳도 없었고 쉴 시간도 없었지만 지금은 쉴 장소도 제법 있고 여유도 많이 생겼지 그 때는 너무 어려웠어. 오죽하면 산모가 아기를 낳고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 그만큼 생활이 어려웠다는 것이지.. 지금은 살기 좋지 얼마나 살기 좋다고 요새 아파트들 많이 선호들 하는데 우리는 아파트 소용없어. 아파트는 비둘기장이나 마찬가지야..”

5. “판거야 없고 노인네들 앉아 노는데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쪽 위에 사유지 땅이라 지금 만든다고 하네. 그냥 의자 몇 개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만 만든다고 하는거야.. 노인정 같은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태평2동은 노인정 같은 게 많지 않아서 낮에는 노인네들이 나가서 쉴 곳 이 없어.”

6. “저기 위 사유지에 무슨 나무 심는다고 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노인네들 앉아 있을 장소나 만들어 달라고 녹지과에 건의를 했어.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야. 저 밑에 가건물 같이 생긴 것도 사유지거든 그래서 거기다 만들어 주던지 위에 해주던지 해달라고 했더니 위에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 힘들어 중간 중간에 의자 같

은 게 많았으면 좋겠어.”

주민들의 가장 많은 바람은 골목길 중간 중간에 의자 같은 걸 만들어서 ‘골목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미 골목마다 별별 모양의 의자들이 낡은 모습으로 주민들의 작은 쉼터가 되고 있었지만 턱부족이었다. 기획단은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주민들의 골목쉼터, 쪽마루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태평4동의 모든 ‘쪽마루’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골목쉼터 쪽마루’ 위치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50여개에 이르는 ‘쪽마루’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다. 56만㎡ 넓이의 이 동네에는 61개 골목길이 가로세로로 엮여있다. 태평4동 골목길의 총 길이는 16.21km로 성남을 관통하는 성남대로 16km와 맞먹는다. 골목길 경사는 웬만한 등산로 수준이다. 불도저로 산을 깎고 새끼줄로 반듯반듯 골목길을 내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계획도시(?)를 탄생시켰다. 기획단은 이를 두고 ‘파도치는 골목’이라 이름 붙였다. 어마어마한 스키장을 연상시키는 슬로프 위에 꿈틀꿈틀 얇은 지붕들이 파도처럼 오르

령 거리고 있었다. 그 골목에는 이야기가 있다. 그 골목에 사람들이 살아왔고, 지금도 끈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영상에 담았다.

금빛초등학교는 태평4동의 '중심'이다. 놀이터 하나 변변히 없는 동네에 커다란 초등학교 운동장은 마을회관이자 놀이시설을 갖춘 주민 모두의 휴식처다. 그 금빛 초등학교 맞은편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면 세탁소 옥진사가 있다. 옥진사 어르신 송종식 할아버지도 태평동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기획단은 수십 차례 옥진사를 드나 들면서 할아버지와 친해진 후에야 살아오셨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 성남에 사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철거민으로 들어온 거는 아니고 부산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새로운 일을 해볼까 하고 부산에서 올라와서 30년 좀 넘었지. 처음에 들어와서 집터를 사서 성남 초창기 생길 때부터 여기에 살았어.”

2. 세탁소는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아주 오래됐지. 근데 예전처럼 경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세탁을 안 해. 성남에 들어와서 세탁소 운영하기 전에는 일본으로 돈 벌러 나갔는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집을 비워놓으니까 가정이 파괴됐어. 내가 없는 사이에 집사람이 다른 사람이라 바람이 나고 아들이고 딸이고 전부 그쪽으로 따라가서 지금은 혼자 남아버렸어. 지금 세탁소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 세탁용 솔벤트 회수가 의무화가 되서 솔벤트 회수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업장을 폐지하라는 거야. 기계 값이 400만원 이라는데 왜 자꾸 나 같은 서민들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

3. 성남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들어와서는 다른 사업 하다가 더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해외를 많이 나갔

지 사우디 아라비아도 가고 경기가 없어서 일본도 가고 그때는 이쪽에 일자리가 없었어. 그때 당시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건축 노동 일을 많이 했어.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 이상이 건축노동자라고 봐야 돼.”

4. 성남이 많이 변했나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단합이 잘되고 통·반을 통해서 청소를 하거나 하면 전부 나와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연락을 해도 한 명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 단합이 안 되지...”

5. 태평동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성남에는 노인인구가 많아.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확충해주면 좋겠어. 노인정이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그리 좋지는 않아. 노인들이 점심식사라도 할 수 있게 급식도 하는 노인정이 생겼으면 좋겠어...”

육진사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내레이션]

77번 마을버스를 타고 금빛 초등학교에서 내리면, 맞은편에 언덕이 있다. 그 언덕의 큰 능선 골목에 세탁소 육진사가 있다.

육여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신 송종식 어르신. 손이 많이 가는 세탁소 일을 하기에는 연세가 많아 보인다.

[자막]

내가 일수 이자를 87일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 수수료가 10만 원 여기 요거만 계산하면 60만 원

그럼 총 70만 원이야.
얼마나 빌리셨는데요?
200만 원

[내레이션]

밀린 집세를 내기 위해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일수 200만 원을 써야했다.
6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두 평 남짓한 이 침실에서 혼자 생활을 해왔다.

[자막]

잠자리 보면 알지 뭐 저런 데에서 자는게 길거리 노숙자하고 똑같지 안그래?
나이 들어서 나처럼 생활하는 사람 드물거야.
환갑 다 지나고 나이 70 다 돼가는 사람이 이런 생활하고, 오죽하면 이러겠어.

[내레이션]

처음부터 혼자는 아니었다. 부양해야 할 식구가 있는 책임감 많은 가장이었다. 연
이은 사업 실패로 결단을 해야 했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가방을 싸서 일본으로
떠났다. 세탁 일을 시작했고 15년 동안 그 수익금을 가족에게 보냈다. 99년 불
법체류 단속으로 체포가 됐고, 8개월 동안 독방에 감금됐다. 출감 후 한국으로
강제 출국돼 15년 만에 돌아왔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자식들에게도 외면
당한 채 홀로 남겨졌다. 모든 걸 잃은 어르신 환갑의 나이에 공사장 노동일로 자
금을 모아 지금의 옥진사 세탁소를 개업했다.

[자막]

추석에 뭐하세요?
남한산성이나 가서 바람이나 쐬고 운동하고.
쉬는 날 외롭고 하니까 (남한산성에서) 실컷 올라가 내려와 너무 적적하니까 명
절날 식구들 모여 앉아서 1년에 한번 같이 음식 먹고 그런 것 생각하면 막 눈물
이 쏟아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나 싶고
노인네들이 (외로워서) 자살하는 게 이래서 많이 하는 거 같아.

우울증이란 게 그런 게 우울증인 것 같아.

[내레이션]

추석날 모처럼 세탁소 문을 닫고 남한산성으로 향한다. 남한산성으로 갈 때면 스쳐지나가는 바람처럼 모든 걱정은 잊을 수 있다.

[자막]

우리 여기서 날 밝을 때면 저 밑에까지 보여. 저 여가 성남이거든. 성남이고 저 쪽에가 광주인데, 산에 막혀가지고... 이쪽으로는 광주 이쪽에는 성남.

[내레이션]

삼삼오오 모인 어르신들 고스톱 판이 벌어졌다. 모처럼 옥진사 어르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즐겁다. 모처럼 세탁소 새단장을 한 어르신 남다른 각오가 생긴 것 같다.

[자막]

거기 봐 여항도 싹 열대어로 바꿨다니까
아 여항 청소 하셨네요.
청소 싹 하고 고기를 (붕어에서) 열대어로 바꿨어.
언제 바꾸셨어요?
어제 싹 바꿨어.
화초가 저기 있으니깐 괜찮은데요 언제 사셨어요? 오늘 사신 거예요?
아 저거 오늘 샀고 저 나무들은 쓰레기통에 버린 거 주워다가...
아 저 뒤에 나무들이요? 예쁜데요.
내가 앞으로 저런 화초를 자주 키우려고

[내레이션]

새로운 열대 어항처럼 그리고, 새로운 화분처럼 어르신들의 생활도 한결 새롭고 가벼워지길 기도한다.



세탁소 옥진사 송종식 할아버지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 태평동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고민해왔다. 태평동의 ‘골목길 영화제’는 이렇게 탄생되었다. 금빛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의 뒷마당... 2006년 10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펼쳐진 골목길 영화제에서는 동네사람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동사무소 뒷마당이 극장이 되었다.

골목길 영화제가 시작하던 날.

영화제는 8시에 시작이고 영화제를 준비하는 팀은 설치에 분주한 가운데 한 할머니가 7시부터 뒷마당 의자에 앉아 계신다.

첫째 날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는데 날씨가 제법 쌀쌀하던 둘째날, 7시에 그 할머니가 여전히 뒷마당에서 영화제를 기다리고 계셨다.

아마도 7시 전부터 계속 그러고 계신 것 같았다.

“어.. 할머니, 어제도 오셨었죠?”

“응”

“영화제는 8시부터 시작이에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지금이 몇 신데??”

“7시예요.”

“어..”

“혼자 오셨어요?”

“아니..다른 양반 하나 또 올거야..빨래 걷고 온다고 했어..근데 자리가 어디가 좋아? 여기가 잘 보이냐 저기가 잘 보이냐”

“여기가 잘 보일거 같아요..근데...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86살..허허”

“와..그래도 밤에 영화제도 보러 오시고 정정하시네요.”

“난 정정한 게 문제야.”

“날씨도 추운데 여기서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난 머느리가 밥해주면 밥 먹고 그냥 나와서 막 돌아댱겨.. 그러다가 밤 늦게 들어가서 바로 자야지..”

“집에 계시기 불편하셔서 그러세요?”

“편하지야 않지.. 내가 집에서 뭐 일을 하나...그냥 밥만 먹고 나오면 막 돌아댱겨..”

“할아버지는요..?”

“내가 15살 때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29살 되던 해에 남편이 죽었지..

상갓집에 갔다가 음식 잘못 먹고 병 얻어서 그렇게 됐어..

남편 죽고 나니까 남편 앞으로 빛이 있어서 내가 애들 셋 키우면서 애들 키우고 빛 갖고...그랬지..”

“고생이 많으셨겠어요..혼자 어떻게 애들 셋이나 키우셨어요...”

“서울에서 머리에 이것저것 이고 땡기면서 팔았지.. 그래도 큰 놈이 9살이어서 그 놈이 아래 동생 둘 돌봐주니까 내가 돌아댱겼지..”

“성남에는 언제 오셨어요?”

“온지 오래됐지..20년도 더 된거 같은데.. 아들이 택시운전 하는데 아들이 성남으로 간다니까 나도 왔지..왜 왔는지는 모르겠어.”

“영화는 재미있으셨어요?”

“재미는 무슨...그냥 나와서 구경하는거지.. 나는 구경이라면 환장혀~”

이렇게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샘터길 장난꾸러기 3명이 다가온다.
 태평동 사랑방 ‘아트클럽’에서 매년 작가들을 귀찮게 하던 초등학교 여학생3명..
 꼬치열전 광고를 찍을 때는 꼬치열전 안에서 떠돌고 있고
 홈런 만화가게 ‘아트리폼(Art Reform)’ 할 때는 만화가게에서 작가들 귀찮게 하
 고 있고
 MBC에서 촬영왔을 때는 그 피디 앞에 붙어서 자기 찍어달라고 아우성치던 천방
 지축 3인방.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오더니
 "할머니 저희가 안마해드릴게요" 라고 하더니
 셋이 단합하여 할머니 안마를 해드린다.
 태평동 아이들에게는 서울, 소위 강남 아이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장난꾸러기여도 도무지 미워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그렇게 태평4동의 밤은 골목길 영화제와 영화제를 기다리던 86세의 할머니와
 태평4동에 무슨 일만 있다하면 나타나는 소녀3인방과 함께 무르익었다.

골목길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은 총 7편. 동네사람들 이야기를 엮은 4편의 다큐멘
 터리와 동네의 상점 광고영상(CF)이 그것이다.

〈다큐멘터리〉

- “옥진사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 동네에서 옥진사라는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세탁소 아저씨의 인생극장을 황세준 작가가 함께하며 담은 다큐멘터리
- “벽 이야기” - 성남 수정구에 있는 탈학교 공동체인 디딤돌학교 아이들이 태
평4동을 돌아다니면서 벽에 쓰여 있는 낙서들, 소통의 흔적을 담았다.
- “태평4동 사람들 이야기” -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공동체 늘봄이 태
평4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은 짧은 인터뷰 기록.
- “태평4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태평4동 골목 마다 보물 찾기처럼 발
견할 수 있는 화단 이야기와 화단을 자식처럼 가꾸는 주민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광고 영상〉

-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20년 전통의 「대성이발관」

70년대와 80년대를 풍미했던 ‘동네 이발관’. 이발관에는 으레히 ‘세계 명화’가 한 점씩 걸려있고 동네의 이야기들이 술하게 번져가는 사랑방이었다. 태평동에는 ‘동네 이발관’이 아직 몇 곳이 남아 있고, 여전히 나이 드신 주민들의 벗이 되고 있다.

- 아이들이 직접그린 메뉴판을 전시해놓은 「꼬치열전」

태평동에서 꼬치를 가장 맵고 맛있게 만드는 집... 태평4동 동사무소 맞은편 샘터길로 골장 올라가면 아이들이 항상 바글바글 대며 닭꼬치와 떡볶이를 즐겨 먹는 곳. 가게 내부의 빈 벽에는 동네 사람들 가족사진이 즐비하다. 태평4동의 가족들이 모두 좋아하는 맛집이다.

- 불어로 하얀 성탄절이란 뜻의 「블랑쉬노엘 제과점」

골목길 사거리에 위치한 블랑쉬노엘은 태평동에서 각별하다. 조그만 매장의 2층을 아이들의 생일잔치 장소로 제공한다. 태평동에서 아이들의 생일파티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제과점 사장님은 기꺼이 아이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빵 값만 받고 음료수도 무료로 제공한다. 생일날은 친구들과 엄마들이 함께 모여 블랑쉬노엘만의 특별한 빵인 ‘오이 카스테라’, ‘호빵맨’, ‘누룽지파이’, ‘사과케익’, 그리고 생일날 최고 인기인 ‘딸기와 초코 생크림 케익 파티’가 열린다.

골목길 영화제가 열리고 나서 세탁소 옥진사 앞의 골목길은 아이들의 인기 있는 놀이터가 되었다. 골목길 영화제에서 “옥진사 사장님을 소개합니다”가 인기짱이었고, 영화제 이후 송종식 할아버지는 골목길의 인기 할아버지가 되셨다. 옥진사 할아버지는 ‘인생극장’ 다큐멘터리를 통해, 잃었던 가족보다 더 많은 손자 손녀들을 얻으셨다. 할아버지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성남문화재단에서는 골목길 영화제를 마친 후 태평동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랑방’을 만들면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고, ‘20평의 태평

동 집’을 성남아트센터의 빛의계단에서 펼쳐보는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展’을 준비하자는 아이디어가 마구 쏟아졌다.

“내가 한이 서린 이야기를 해줄게. 여기애다가 말뚝을 하나씩 쭈욱 박아서 새끼 줄로 20평이다 하고서 주는거야..”

20평은 성남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의 상징이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로 태평4동의 주민들이 동네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태평동의 모습과 이야기는 ‘성남아트센터’라는 복합문화시설에서 펼쳐진다. 전시장에 서만 있었던 예술이 동네라는 삶의 현장에서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펼쳐지고, 바로 그 생생한 ‘삶의 예술’이 아트센터에 자리 잡는다.

성남문화재단은 태평4동 프로젝트에 함께했던 작가들과 추진단을 꾸리고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태평4동에 있는 실제의 집인 ‘태평4동 1712번지 주거공간 1, 2층 및 옥상’을 80% 크기로 성남아트센터 빛의계단에 재현하고, 2006년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프로젝트를 연계한다.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展

가. 전시 개요

- 제목_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展 / 일시_2007년 6월 21일~7월 6일 / 장소_성남아트센터 빛의계단
- 총괄기획_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 기획 코디네이터_김용익 / 전시기획_김태현, 조인희 / 전시 큐레이터_조인희 / 참여작가_임흥순, 민지애, 이은정, 정은영
- 내용 : ‘성남아트센터 빛의계단’ 위에 3개의 전시공간(성남 기존시가지의 20평형 주거공간을 1층, 2층, 3층(옥상)으로 만들어 전시장으로 사용)을

만들어, 성남아트센터를 찾는 시민들을 자연스럽게 전시공간으로 접근시키도록 한다.

나. 전시 방향

- 성남문화재단에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2006년도에 추진했던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를 성남아트센터로 끌어들이 전시한다. 전시물은 2006년 결과물과 본 전시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여 진행한다.
- 성남이 갖는 기존 이미지를 확장하여,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공동체적 삶 속에서의 순기능’의 유효한 지점을 전시로 보여준다. 타자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동시에 함께 가는 내용을 바탕으로 나, 타자, 공간, 그 밖의 것 등이 분리되지 않고 놀듯 자연스럽게 교차하면서 생산적인 충돌을 가질 수 있는 전시 형식이 되도록 공간구성을 한다.
- 객관적인 조사 자료와 기억 속에 존재하는 태평동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시각, 촉각, 청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 전시 구조물의 안은 집안의 풍경이 되기도 하면서 골목길 풍경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 ‘성남의 얼굴’이 되기도 하는 구성을 통해 태평동은 물론 성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연출
- 향후 진행될 성남 도시공간 속의 공공 미술이 본 전시를 통해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발시키면서, 시민들 삶의 다양한 모습이 상호 교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전시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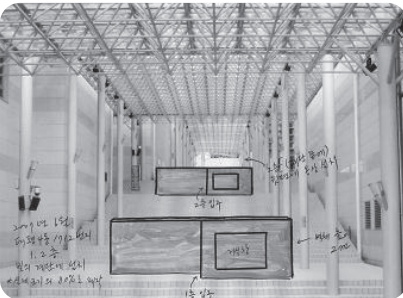
다. 공간 설치

- 전시공간으로 태평4동 1712번지 주거공간 1, 2층 및 옥상 재현
- 전시장은 통행인구 흐름을 고려하여 실제 크기의 80%로 축소
- 벽 높이는 전시 효율을 고려하여 비율에 상관없이 높게 할 수 있음
- 거실, 주방창은 테이프로 표시하고 이외 창문은 만들
- 설치 예상 크기 : 바닥면적 약 6×4m, 높이 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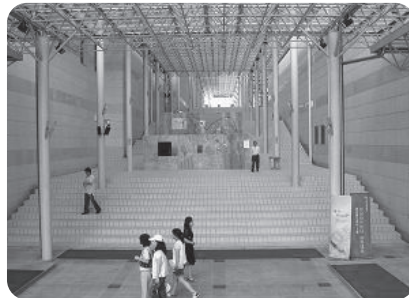
라. 공간 구성

○ 1 층

- 거 실
 - 2006년 태평동 사업 결과물 자료 전시하되 지난 전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안내문 또는 거리 아카이브 형식으로 구성
 - 사진 인화, 텍스트 시트지 출력물 전시 및 영정프로젝트, 골목길 영화제 과정 기록한 영상물 상영 등
- 안 방
 - 성남 태평동의 특징 중의 하나인 급격한 경사 지형 체험 공간
- 작은방
 - ‘움직이는 사진관’을 전시형식으로 보여주는 공간
 - 노인들의 이야기를 통한 세대 간의 차이와 태평동 역사 전달
- 화장실
 - 태평동의 소리 혹은 공간 속 낙서들을 재구성
 - 살기 어렵고 힘들었지만 따스함이 넘쳐나는 인간미 묘사
- 외 부 : 복잡한 성남 풍경을 컨투어로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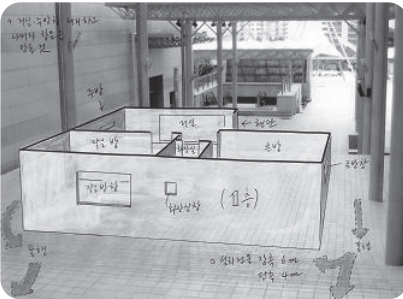
‘태평동 20평 집’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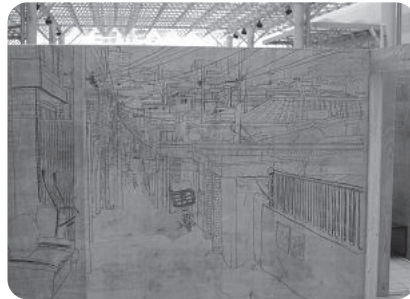
‘태평동 20평 집’ 展1

○ 2 층

- 거 실
 - ‘맨홀뚜껑 꾸미기’ 작업을 다시 보여주는 공간으로 구성
 - 집안 풍경 사진, 드로잉으로 아이들이 보는 태평동 묘사
- 안 방
 -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어린이들의 셀프 포트레이트 전시
- 작은방
 - 전시 관람객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만드는 이벤트 공간
- 화장실
 - 어린이들이 그리는 화장실 풍경
- 외 부 : 아이들이 그리는 태평4동 지도그리기 벽화
 - 자기집, 친구집 약도를 여럿이서 전시벽체 비레로 된 종이에 작업



‘태평동 20평 집’ 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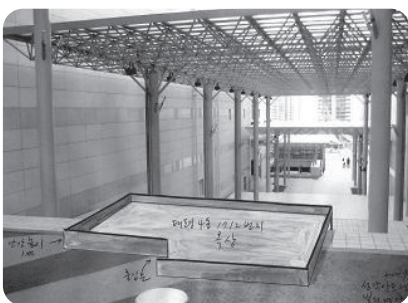
‘태평동 20평 집’ 展2

○ 3 층

- 내 부
 - ‘화단시상식’, ‘손바닥 정원 만들기’, ‘골목섬터 쪽마루 만들기’ 프로젝트 재현 공간
 - 실제 사용하는 화분, 평상 등으로 구성을 옮겨 놓음

· 외 부

- 전시 관람객 안전을 고려하여 난간을 1m 높이로 설치
- 아이들에게 성남의 역사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 할아버지의 태평동 이야기



'태평동 20평 집' 도면3



'태평동 20평 집' 展3

태평동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대는 '태평동 20평 집'의 3층 옥상이다. 우리는 이를 '이야기 옥상'이라 불렀다. '이야기 옥상'에서는 박용호(72세, 태평4동 제4노인정 회장) 할아버지께서 '태평동 이야기 할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할아버지는 1969년 성남 입주 초창기에 태평4동으로 이사를 오셨고, 현재 살고 계신 곳이 처음 이사 오셨던 그 집이다. 40년간 태평동을 지켜보신 분으로 전시기간 동안 관람객들, 특히 아이들에게 태평동의 유래와 특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이야기 옥상'에서 아이들에게 태평동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박용호 할아버지

태평동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06년의 태평동 프로젝트에 이어 2007년부터 지금까지 태평동에서는 금빛초등학교 아이들이 ‘동네신문’을 발간하고 ‘영상뉴스’를 제작하여 상영한다. 이름 하여 ‘한울신문’과 ‘한울영상뉴스’의 주인공인 ‘태평4동 어린이 기자단’이다. 기자들은 한울신문에 태평동 주민들이 살아왔던 구수한 이야기를 귀를 쫓긋 세우며 열심히 담아낸다. 그리고 맛있는 집을 소개하고, 봉사활동에 열심히인 ‘주민 봉사대’의 에피소드를 곁들이는 걸 잊지 않는다. 이젠 동네 주민들이 ‘한울신문’을 먼저 찾는다. 주민들을 모셔놓고 태평4동에서 상영되었던 ‘한울영상뉴스’는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이번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는 2009년도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이야기 북1’의 작업이었던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북이다. 성남문화재단에서는 202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1단계 3개년(2006~2008년)을 마무리 짓고, 2009년부터 2단계 5개년(2009~2013년)을 추진 중이다. 1단계에서는 성남 전체 동네를 5개 유형(골목길, 아파트, 공단, 시장, 상가)으로 분류한 후,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주로 영상작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나누었다.

태평동(골목길 유형)의 골목길 영화제 작품들과 ‘태평동 골목길 이야기’, ‘야채 가게, 그곳에는...’, ‘태평동 2009, 새로운 창조’, ‘폴장환상’ 은행동(아파트 유형)의 ‘알고 있나요?’, ‘엄마, 말하는 중이거든’, ‘상상을 꽃피우는 아파트’, ‘은행 주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콩닥콩닥 예술공단’ 상대원공단(공단유형)의 ‘메이드인 성남’, ‘직선과 곡선’, ‘88년의 세월, 김빙옥 할머니를 만나다’, ‘기업의 문화공헌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원다방’의 상대원시장(시장·상가 유형)의 ‘등나는 날’,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송년회’, ‘상대원 시장의 밤 그리고 소리’, ‘소리와 걷다’, ‘상대원시장의 하루’, ‘상대원시장을 그리다’를 통해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는 퍼져 나갔다.

2단계는 1단계의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를 통해 '우리동네 생활이야기'를 '이야기북'으로 발간한다.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에 이어, 이야기북2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 이야기북3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가 그것이다. 3단계 7개년이 끝나는 2020년까지 이야기북 시리즈는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성남문화재단은 이야기북 시리즈를 콘텐츠로 영화, 다큐멘터리, 연극, 뮤지컬, 전시, 퍼포먼스 연계사업에 들어갈 구상을 준비 중이다. 이야기북은 성남의 살아있는 역사다. 지금 주민들이 생생한 동네의 삶 속에서 펼치고 있는 인생 드라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주민이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인 동네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자기 동네 드라마의 창작 주체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0년 2월

성남문화재단

서문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위한 새로운 서사 형식을 찾아서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는 성남시 태평동 사람들의 구술 생애 자료를 서사(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이것은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북 시리즈의 두 번째 결과물이다. 이미 지난해에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가 시리즈의 첫 권으로 나온 바 있고, 시리즈의 세 번째 해당하는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가 이 책과 함께 출판되게 되었다.

우리의 삶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파편들로 이루어진다. 삶의 파편들은 스토리텔링(이야기하기)을 통해 하나의 긴밀한 이야기(서사)로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는 삶을 기억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억들은 다시 삶 그 자체가 되어 버린다. 삶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기억이 되고, 기억이 다시 삶이 되는 전화의 과정은 고리처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삶은 이야기이며 또한 기억이 되는 셈이다.

삶이 곧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하고 싶거나 말해야 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 몇 개씩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Everyone has some stories to tell. 이야기북 시리즈는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에 활용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였다. 다른 무엇을 위해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활용

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최근 들어 문화콘텐츠가 중요해지면서 이야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다. 또한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활용하는 데 너무 몰두하고 있다.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와 같은 공공적 프로젝트에서 이야기를 적절하게 활용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반면 미술이나 음악 분야의 예술 작업은 이미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공공의 삶과 공동체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스토리텔링, 즉 서사예술이 다른 분야의 예술과 달리 문화공동체만들기 같은 공공적 프로젝트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야기 형식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근대가 시작되면서 ‘근대소설’이 등장하여 가장 완벽하고 선진적인 이야기 형식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인과성과 필진성을 바탕으로 잘 짜여진 완결된 구조를 갖춘 근대소설을 이야기 완성태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소설은 지고지순한 예술품이 되었고, 더불어 소설가들은 위대한 예술가로 추앙받게 되었다.

이야기를 문화공동체만들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예술적 완결성을 추구했던 근대소설의 형식을 벗어나고, 더 나아가 소설의 사회적 가치와 기능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숙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 형식이 가능하고도 적합한 대안이 될까? 또한 이야기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기능은 무엇일까?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인과성과 필진성을 중요시하면서 전체가 하나의 구조적 덩어리가 되는 소설의 형식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형식, 즉 부분들이 파편화되는 형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파편들은 부분적 독자성을 지닌 짧은 길이의 텍스트여야 한다. 120여 자를 쓸 수 있는 트위터 만큼 짧은 글이 파편들의 가장 작은 요소를 구성해야 한다. 그것은 전체 이야기에서 분리되어 나와도 어색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와도 쉽게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디지털서사의 한 형식인 하이퍼텍

스트서사의 단위텍스트와 같은 자질을 가져야 한다.

원시부족사회에서 구술 이야기는 공동체의 가치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부족의 연장자들이 모닥불 가에서 들려주었을 자신들의 신과 조상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부족의 특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던 근대소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가치와 기능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의 이야기북은 서사 형식 면에서는 디지털서사의 파편화를 지향하면서, 구술 이야기처럼 공동체의 형성과 강화라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개인생애 자료를 구술서사 형식으로 채록하고, 다시 그것을 파편화된 작은 이야기 단위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실제로 구술이야기는, 인쇄서사와는 달라서, 이야기 구성 요소 간의 삽입, 중복, 순서의 뒤섞임 등이 심하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런 구술 이야기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파편화된 작은 부분들로 나누어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구술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구술대상자 선정 작업은 2009년 9월부터, 몇 가지 원칙 하에 진행되었다. 첫째 태평동 거주 기간이 20년 이상 된 사람으로, 둘째 태평동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부수적으로 연령과 성별, 직업, 관심사항 등에서 다양한 분포를 가져야 했다.

실제로 책에 수록된 아홉 명의 구술자들은 태평동 거주 기간이 20년 전후에서부터 많게는 40년에 이르는 사람들이다. 예외적으로 베트남 이주민으로, 거주기간 6년 차인 김유미 씨를 포함시켰다. 남녀의 비율과 연령대도 비교적 고르게 구성하였다. 선정된 구술자는 아래 표와 같으며, 대개 가명을 사용하였다.

구술자	출생연도	성별	태평동거주	하는(했던) 일
박영호	1936	남	41년	새마을운동, 방앗간
정형주	1929	남	38년	새마을운동, 인쇄업
김미경(가명)	1966	여	20년	통장, 보험업
박준규(가명)	1956	남	21년	주민자치위원장
성진원(가명)	1970	여	16년	보험업
정유재(가명)	1942	남	40년	선원, 건설업
김유미(가명)	1982	여	6년	다문화가정 주부
윤여정(가명)	1953	여	36년	부녀회장, 슈퍼
표승태(가명)	1962	남	16년	과일가게

구술자 선정이 끝나면, 채록과 전사 과정이 뒤따른다. 이 과정은 구술 서사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텍스트 자료로 옮겨내는 것이다. 구술 서사인터뷰는 조사자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구술자가 자신의 삶 전체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구술자들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생애 경험의 구성요소들을 스스로 취사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디지털 녹음기를 통해 녹음되었다. 녹음된 구술 자료는 다시 텍스트 자료로 전사되었다. 전사 과정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중복 어구 등을 삭제하지 않고, 구술 자료의 원형을 있는 그대로 살렸다.

다음은 서사의 재구성 과정으로, 구술 자료를 재구성하여 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단계이다. 재구성 작업은 각 개인들의 파편화된 삶의 경험 영역들을 결합하는 흥미롭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작업이었다. 그 경험들은 우선은 해체되어야 하고, 나중에는 결합되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북 프로젝트의 목적인 생활문화공동체의 형성과 강화에 직접 활용 가능한 새로운 이야기 형식을 찾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에 수록된 아홉 사람의 생애 이야기는 모두 20개 이내의 작은 이야기로 파

편화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파편들은 다시 몇 개의 더 작은 요소들로 이루어졌다. 이 요소들은 크게 필자가 재구성한 원고 부분과 구술자의 목소리를 직접 녹출한 부분으로 나뉘며, 그것의 분량은 대개 3:1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필자가 재구성한 원고는 허구적 내용을 배제하고 구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주로 단문을 사용하였다. 구술자의 목소리가 담긴 직접 인용 부분도 신중한 선택 과정을 거쳤다. 주로 구술자가 객관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이나 태평동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는 부분을 위주로 직접 인용 부분을 선택하였다. 선택된 부분은 최대한 원문 그대로를 살려 실되, 가독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중복어구와 단순 감탄어구를 제거하고 문장부호를 삽입하는 정도로 최소한의 정리 작업만을 거쳤다.

한편, 서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간혹 서술자가 아닌 저자의 목소리를 직접 녹출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 또한, 완벽하게 통제되는 단일한 서술자의 목소리로만 이야기하는 근대소설의 형식을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방식의 새로운 서사 형식을 찾으려는 노력의 하나였다. 저자의 목소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서사적 상황이나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거나, 관련되는 배경 지식을 삽입하거나, 여담을 늘어놓거나, 심지어는 관련되는 다른 부분으로 하이퍼링크의 연결을 지시하는 등 쓰임새가 다양하다. 필자는 이런 작업을 위해 로렌스 스톤이 쓴 「트리스트럼 샌디」의 이야기 형식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는 구술자들의 삶을 미화하여 아름답게 보여주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책은 태평동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 내의 생활문화와 삶의 방식들을 기록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책은 태평동 사람들의 기억을 보관하는 기억상자이며 기억박물관이다. 이 기억들은 태평동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이야기 되면서 생활문화공동체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태평동의 기억박물관은 향후 태평동의 스토리텔링 클럽이나 집필 커뮤니티(writing com-

munities)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함께 만든 이야기북이다. 먼저 아홉 분의 구술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구술자를 섭외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던 태평4동 유광영 동장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구술 음성 자료를 텍스트로 전사하는 작업을 도와 준 유진아, 김나연, 윤기미 씨에게도 감사드린다. 덧붙여, 사랑하는 아내 정혜영과, 딸 장강여, 아들 장이루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아내는 실제로 가장 많은 전사와 교정 작업을 맡아주었고, 아이들도 열심히 아빠의 원고를 읽어주었다.

2010년 2월 2일

장 노 현 씀



목 차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북을 펴내며 — 7

서문/새로운 서사 형식을 찾아서 — 27



쌀가게와 연탄가게 · 태평동 영호씨 이야기 — 39

낭만주의자의 삶과 실천 · 태평동 형주씨 이야기 — 59



며느리와 시어머니 · 태평동 아줌마 김씨 — 83

옥수수를 나누는 통장 · 태평동 준규씨 이야기 — 105



완구 인형 만들기 · 태평동 진원씨 이야기 — 123



고창 출신의 개목수 · 태평동 유재씨 이야기 — 143

호치민에서 태평동까지 · 태평동 유미씨 이야기 — 163



공동수도집과 야채집 · 태평동 여정씨 이야기 — 177

과일가게에서 꾸는 꿈 · 태평동 승태씨 이야기 — 195



구술자료/태평동 박영호 · 정형주 녹취록 — 217

태평동 구술대상 조사 카드 양식 — 272

구술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양식 — 273

쌀가게와 연탄가게

태평동 영호씨 이야기





쌀가게와 연탄가게

...

태평동 영호씨 이야기

1

성남에서 진천까지는 직선거리가 70km 남짓이다. 아무리 늦어도 한두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다. 아무리 가까운 길을 잡더라도 하룻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성남과 진천 사이를 처음 오가던 때는, 중부고속도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경부고속도로가 갖 개통을 보았던 시절이었다.

“정말 그 전에는 중부고속이 없고 저쪽 영등포 저쪽으로 해서 비포장으로도 땀길 적에 가까운 길이라도 하루 종일 가고 하루 종일 오고. 정말 이렇게 땀기면서, 나도 여기를 들어와 가지고서, 한 삼 년 간을 진천 가서 농사도 지며 여기 와서 장사도 하며 이렇게 왔다갔다 지내.”

그는 진천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농삿일과 산일을 하면서 잔뼈가 굵었다. 그리고 성남이 개발되던 초창기에 고모부의 소개로 우연히 태평동에 땅을 좀 사서 그곳으로 이주하였다. 그 후로 진천과 성남을 오가며 농사를 짓고 장사를 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가 진천 땅을 동생한테 넘겨주고 성남으로 완전히 옮겨 앉기까지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서른 즈음에 시작한 성남 생활은 쌀가게와 연탄가게로 20년, 떡 방앗간으로 또

20년을 보냈다. 장사를 하면서는 자유행방범이니, 새마을운동이니 봉사활동도 함께 했다. 그리고 일흔이 된 나이에 다시 태평4동 노인새마을회를 창설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2

진천은 산악지대였다. 가을 10월이 되면 산일이 시작되었다. 젊은 사람들은 여름철 작은 농사일이 끝나면 산일의 시작에 맞춰 산으로 갔다. 목상들이 허가를 내서 산 속의 나무를 베어냈다. 베어낸 나무들은 여러 용도로 팔려나갔다. 소나무는 주로 한옥의 기둥이나 서까래 감으로 골라졌고, 또 어떤 나무는 솥으로 구워졌다.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발매라고 했다. 발매는 이듬해 봄 3~4월까지 계속되었다.

“가을에 한 10월 달쯤 되면은, 산에 인저 발매라고 그래요. 저기 목상들이 허가를 내가지고 산을 발매를 해요. 그럼 뭐를 하느냐 하면은 솥도 굽고 또 소나무 같은 거는 한옥집을 짓고 서까래 감 기둥 감 이런 거를 뽑아내서. 한 3, 4월 쯤정은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게 돼요.”

겨울철 깊은 산 속의 벌목하면 어떤 이들은 정지용의 〈장수산〉이라는 시를 떠올릴 만도 하다. 시는 도끼로 나무 찍는 소리인 벌목정정(伐木丁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아름답리 큰 솔이 베어져 넘어지는 소리가 찌르렁 메아리쳤을 산 속은 곧 바로 고요에 잠기고, 종이보다 흰 눈과 밤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때를 생각하면 힘든 지게질이 우선 떠올랐다. 아름답리 소나무가 넘어지면서 내는 소리도 알지 못하고, 그 소리들이 잦아든 눈 내린 겨울밤 산속의 고요에 대해서도 그는 알지 못했다. 바쁘게 발매 현장을 쫓아다니며 그는 겨울 내내 지게를 졌다.

3

온종일 지게질에 시달리지 않으면 밥 먹고 살기 힘들었다. 발매 산을 쫓아다니며 일한 사람들은 그래도 남한테 쌀을 꾸러 다니지는 않았다. 겨울철 산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장내쌀을 먹어야 했다. 장내쌀은 이자가 비쌌다. 쌀 한 가마를 가져다 먹으면 이듬해 가을에 열닷 말로 갚았다. 열닷 말은 한 가마하고도 반이 더 있었다.

농촌에는 장내쌀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신용이 좋은 사람은 쌀 얻기가 그나마 수월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신용도 자꾸 나빠질 수 밖에 없었다. 기한에 맞춰 쌀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그는 좀 나았다. 겨울에는 산일을 하고 4월이 지나 발매가 끝나면 농삿일로 돌아왔다. 그리고 농사가 끝나면 다시 발매에 나섰다. 그는 30년이 넘도록 그것을 반복했다.

군에 갔다왔을 때 그는 이걸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살아봤자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할 것이었다. 나아지는 것 하나 없이 그저 나이만 먹어갈 것이었다. 일 년 먹고 사는 것이 노상 그 나물에 그 밥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었다. 그래서 뭔가 승부를 해보고 싶었다.

“살아봤자 참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일년 먹고 사는 게 고기서 먹고 사는 거야. 승부가 없이 그것이. (뭔가 승부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게 없어요. 농촌이라는 게 뭐 지금도 농촌이 그렇지만 그때는 더 했습니다 그렇게.”

4

안성 살던 고모부라는 양반은 장사를 하며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성남이 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한번은 처조카인 그에게 이렇게 권유했다. 너 조금

여웃돈이 있으면 성남에 땅을 좀 사 뒤라. 아무케도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지는 않을 거다. 그는 고모부의 말을 따라 1969년에 개발지 40평을 샀다. 산일을 하면서 지독하게 모아둔 돈을 모두 털었다.

사실 땅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는 많지 않았다. 그보다는 산일이 싫었다. 온종일 지게지고 나무를 저 날라야 하는 일이 싫었다. 30년이 되어도 노상 거기가 거기인 삶이 싫었다. 한번쯤은 인생의 승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넷인데 가난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는 것도 싫었다. 그래서 그는 고모부의 권유를 선뜻 받아들였다.

그는 성남으로 옮겨왔고 우선 집을 지었다. 판넬로 간단하게 얹어 만든 판잣집은 집이라고 하기에도 우스웠다. 그래도 그곳에 작은 슈퍼를 열어 생갯거리로 삼았다. 슈퍼는 짐식구가 주로 맡아보았고, 그는 가게에 채소 같은 물건을 대었다.

진천을 떠날 때, 그는 아이 둘과 조그만 논뚝이를 그곳에 남겨두고 왔다. 처음 몇 해는 논을 묵힐 수 없어서 성남과 진천을 오가며 농사를 지었다. 덕분에 아이들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진천을 오가는 길은 지금과는 사정이 너무 달랐다. 오가는 차편도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가 전부였다.

“서울루 해가지고 영등포로 해서 천안으로 해서 진천을 넘어 땡겼어요. 넘어가는데 광나루 다리라고 지금 말하자면 천호동 그쪽으로다가 광나루다리 하나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호동으로 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라니까 하루 종일이 걸리는 거예요. 진천 그 가까운 데를 가는데도, 이렇게 땡긴 것이 한 3년간 왔다갔다 농사를 지으면서 다녔지요.”

인생의 멋진 승부처로 선택한 성남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땅값 같은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아니 뭣도 모르고, 평당 만 원의 시세에 땅을 불하받았다. 20평 분양지를 두 개 붙여 40평을 사면서 40여만 원을 들었다. 하지만 그 땅은 서울시가 원주민들로부터 단돈 백 원에 수용한 땅이었다.

“서울서 이렇게 해서 땅 20평짜리 분양을 전부 요렇게 해줬는데, 그 20평짜리 분양지를 솔직히 정말 서울서 김현욱 시장님이 돈 일이백 원 주고 산 거를 20평의 분양지 땅값을 갖다가 이삼십만 원씩. 그때 이삼십만 원이면 컷습니다. 쌀 한 말에 그때 쌀 한 가마에 칠팔만 원 갈 제니까. 육칠만 원에서 크게 팔만 원 가고 그럴 땐니다. 그러니까 몇 십만 원이면 엄청 크죠.”

서울시가 그렇게 나오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1971년 8월 성남출장소 뒤편 공장은 오전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인파로 넘쳐났다.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 간간히 비가 내렸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그의 모습도 인파 속에 있었다. 집집마다 나오지 않은 집이 없었다. 그는 인파 속에 섞여서 지휘관의 지시를 받는 사병처럼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지금 인하병원 짓는데 먼저 시청이 거기 있었고, 그 뒤에가 전부 공장이었어요. 그래 거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김현욱 시장이 온다고. 와서 해명을 해 준다고 모여 있는데 안 오더라고. 그래 이제 내가 알기로는 한 2시 정도 됐을까, 시장이 못 온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라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들고 인나서 거기 바로 인하병원 자리가 시청이었어요. 그니까 뭐 젊은 애들 몇이 데모를 할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인나더라고 그것이. 젊은 애들이 갓길로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들어가서 막 시청 때려부시니까. 그 뒤에는 사람이 수천 명 모여 있으니까. 누가 뭐 직원들이 누가 뭐랄 사람이 있어 허허.”

시청은 불이 났고, 달려온 소방차는 인파에 묻혔고,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8.10 광주대단지 사태'라고 불렀다. 그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지만, 그 뒤로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 온다던 시장, 그가 김현옥인지 양택식인지, 아무튼 그는 무슨 배짱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 시장만 왔으면 그날 데모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땅값, 좀 유식하게 말하면 분양가에 대한 대화도 잘 풀렸을 것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6

세상에 어떤 일이 전념하지 않고 성공에 이를 수 있겠는가. 남 주기 싫다고 이미 마음이 떠난 땅을 경작하는 일은 번거롭기만 할 뿐, 효율은 없었다. 땅은 농사꾼의 정성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동생에게 명의를 몽땅 넘겼다. 어차피 성남에서 새로 시작할 거고 생 좀 한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었다.

그는 이제 조그만 슈퍼 말고 다른 생업이 필요했다. 여러 궁리 끝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쌀장사를 결심했다. 시골서 쌀농사 짓던 놈이니까 쌀장사라면 그런대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성남에서 쌀 판매 허가를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큰 성남 바닥에 정부에서 허가받은 쌀장사가 스무 명도 안 되던 시절이었다.

독자 여러분들 중에는 쌀을 허가받고 파는 것이 대체 어느 적 이야긴가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40년 전 우리의 모습이었다. 쌀 판매 허가를 얻으면 연탄 판매 허가는 자동으로 따라 나왔다. 성남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쌀 판매 허가를 내 주었다. 웃기는 일은 세금은 서울이 아닌 이천세무소에서 받아갔다는 사실이다.

“그 때는 전부 정부 양곡이니깐요. 그래서 성동구청에를 쫓아다니니까 시골 촌놈이 성동구청에 가서 누가 맥히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하하하. 그래두 아닌 게 아니라 자꾸 쫓아다니니까 아는 사람이 생기더라구. 그냥 안 되면 쫓아 가구 또 안 되면 또 쫓아 가구. 이래 가지구서 쌀장사를. 제일 처음 성남시에 쌀장사가 몇 명이었냐 하면 16명 밖에 없었어요. 그 때 요 밑에 백세현 씨가 제 1위루다가 쌀장사 허가를 낸 거였어요.”

그는 성동구청을 막무가내로 쫓아다녔다. 그런데 운 좋게도 정부에서 허가받은 쌀 판매소를 늘리려 하던 차였다. 성남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쌀 판매상이 태부족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120~130명에게 판매 허가를 추가로 내주게 되는데, 그는 거기 끼어둘 수 있었다.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운 것이었다.

7

쌀장사는, 받은 배급제나 마찬가지였다. 정부에서는 인구수를 헤아려 각 판매소에 정부 양곡을 내주었다. 판매소가 정부 양곡을 받아오면 주민들은 동리 이장에게 받은 전표를 들고 쌀을 사러 왔다. 전표에는 가족 수가 표기되어 있었다. 판매소에서는 전표에 적힌 가족 수에 따라 쌀을 판매했다. 돈 있는 사람이라고 많이 사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판매소 주인도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라고 쌀을 몰아줄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니었다.

태평동 사람들 중에는 별이가 시원찮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자기 몫으로 나온 쌀도 못 사먹었다. 쌀을 못 사먹는 사람이 있으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남은 쌀을 좀 더 사갔다. 성남 사람들은 일반미는 구경도 못했고, 안남미에 보리쌀을 섞어 놓은 혼합미를 주로 먹었다.

“그런 걸 잡춰보셨는지는 몰라도 혼합곡이라고 해서 보리쌀이 20%, 쌀이 80%를 이렇게 섞어서, 아주 섞어서 나와요. 혼합곡이라고. 이런데도 여기 사람들은 보리 쌀 눌린 걸 더 거기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그랬어요.”

혼합미도 나은 편이었다. 밀가루로 풀대죽을 쑤어 먹는 사람들도 많았다. 반찬으로는 콩나물이 가장 많이 상에 올랐다. 콩나물은 대개 10원 어치씩 사다 먹는데 개 중에는 양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5원 어치씩 두 번에 나누어 사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콩나물 한 관이면 100원에 우리가 나요. 그니까는 한 관이면 요만하게 요렇게 된다고 보면 열 목을 놔놓면 요만큼씩 하지. 10원씩을 받을라며는 인저 요만큼씩 양을 봐. 그러면은 그걸 조금 더 얻어갈라고 5원 어치 사가. 5원 어치를 두 번을 사가면은 1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관에서 100원이 안 나와. 모잘러 모질러. 100원이 못 나와. 5원씩 사가며는.”

8

태평동 땅값은 광주대단지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많이 떨어졌다. 그는 때를 못 맞추는 바람에 비싸게 산 것이 씁쓸했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시골 촌놈이 도시에 와서 겪은 액땀 정도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때 데모가 나가지고서는 여기 땅금이 싼어요. 푹 떨어져 가지고선 20평에 4, 5만원 가는 것이 좋은 땅이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2, 3만원 가고, 2미터 도로 같은 데는 2, 3만원 가고, 4미터 4미터 코너 같은 데가 그런 데가 5만원 가고 이렇게 갔어요. 데모 나기 전에는 10만원 20만원 가던 땅이 푹 떨어졌지요.”

태평동 사람들은 저마다 그 땅 위에 형편에 맞는 집들을 지었다. 집들은 대부분

블로크로 벽채를 만들고, 지붕은 루핑을 씌운 집이 많았다. 더 못한 사람들은 말뚝을 세우고 루핑으로 벽을 돌린 집에서 살았다. 겨울철에는 뒹뚱에 떠놓은 물이 하룻밤 자고 나면 얼어버리기 일쑤였다. 방 안이 한데나 다를 바 없는 영성한 집들이었다.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3층 다세대 주택이 지어지기 시작할 때까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집 밖으로 나르면 좁은 골목이 이어졌다. 태평동은 골목의 나라였다. 베이징의 뒷골목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지만 태평동의 골목길도 뒤질 것 같지는 않다. 골목 안에는 골목만의 풍경이 있었고, 해가 나는 날은 해가 나는 대로, 또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대로 각기 다른 풍경을 연출했다.

특히 비가 오면 골목은 진창이 되었다. 또 큰 물이 질 때마다 흙이 쓸려 내려가는 바람에 골목은 여기저기 패인 곳 투성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화가 필요했고, 짐꾼들은 지게가 필요했다. 바퀴 달린 리어카는 오히려 불편했다. 그도 장화를 신었고, 또 연탄배달에는 지게를 사용했다.

“비탈이니까 장마가 지면 흙이 패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는 패었으니까 리어커도 못 끌고 천상 지게로 연탄을 저다줘야 되니까 지게질을. 그래서 지게질을. 이렇게 지금처럼 포장에 돼 있으면 리어카라도 끌지요. 지금 같으면 차도 쪼그만 게 많으니까 오토바이도 좋고. 그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9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 그의 연탄보급소도 덩달아 바빠졌다. 사람들이 연탄을 주문하면 그는 지게에 지고 배달에 나섰다. 패이고 깎여 바퀴가 구를 수 없는 태평동 골목길을 그는 술하게 오르내렸다. 집식구도 물지게 같은 것을 만들어 좌우에 다

섯 장씩 연탄을 지고 비탈진 골목을 오르내렸다. 지게질이 지긋지긋해서 진천을 떠났는데, 그는 태평동에 와서도 지게질에 날이 섰다.

가난한 사람들은 연탄을 한 장씩 사서 썼다. 오십장 백장 단위로 연탄을 들여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연탄보급소는 다음 연탄이 들어올 때까지 이들을 위한 비축량을 남겨두어야 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탄을 한 두 장씩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가난한 이웃에 대한, 그의 남다른 배려심 때문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정부에서 쌀과 마찬가지로 연탄을 허가제로 공급하는 이유도 모자라는 물량을 안배하기 위함이었다.

“돈을 쥐서 싹 팔아버리려는 뒤에 한 장씩 때는 사람들은 추운 데서 자고 밥을 못 해 먹고 하니까는 그게 안 돼죠. 그러니깐 비축량을 항시 몇 장 얼마씩은 뒤야지요. 연탄을 도매상에서 예를 들어서 2000장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것을 열흘을 팔아라 5일을 팔아라, 거기서 그것도 배당이 되니까요.”

그는 쌀과 연탄을 팔면서 20년 세월을 보냈다. 80년대 어간에 쌀과 연탄에 대한 허가제는 신고제로 바뀌었다. 그만큼 물자가 풍부해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 즈음 그 장사를 그만두었다.

10

1970년대 태평동 사람들은 정부가 주선하는 취로사업에 자주 나갔다. 취로사업에 5일 나가면 밀가루 한 포를 품삯 대신 주었다. 그래서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을 밀가루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래도 그가 생각하기에 박정희 대통령만큼 훌륭한 대통령도 없는 것 같다.

“이게 오죽하면 여기저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밀가루 대통령. 그래두 그런 양반이 외국에서 밀가루라도 끌어다 댔으니까는 솔직히 살은 거예요. 그러해서 산 거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참 어떡하든지 국민들이 밀가루래두 먹여 살릴려고. 밀가루 대통령 아니라 무슨 대통령 소릴 들었어도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는 살렸다고 봅니다. 고속도로 닦구 이렇게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게 맨들어 준 대통령은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취로사업에 나갔을 때, 그는 성호시장 중앙시장으로 다니면서 채소 같은 것을 떼다 팔았다. 후에 허름한 오토바이 하나를 살 때까지는 순전히 지게로 겨 날랐다. 20원 30원 하는 호박을 지게로 저 봐야 천 원 어치를 못 졌다. 그래도 여러 번 오갈 수 없으니 한번 할 때 최대한 양껏 질 수밖에 없었다.

“순전히 채소 호박 콩나물 이런 거 팔았다는 것이 전부 지게루다가 저다 팔은 거지요. 저 밑에 중앙시장하고 저 너머 성호시장하고 거길 맏기면서. 시골서 지게질 하기 싫어서 올라와 가지고 성남 와서 지게질을 더 많이 했다는 게 연탄 날라야지 채소 지고 날라야지. 미구 올라와 봐야 몇 개나 미구옵니까. 호박 하나 이만큼씩한 게 그게 뭐 한 20원 30원 가는데 천 원어치를 못져. 전부 남아야 천 원인데 거기서 2-300원 냉길려고 그 짓을 할라니까 그 지게질을. 어쩔 수가 없는 지게질을 한 거지 먹고 살라니까는.”

성호시장이나 중앙시장에서 무거운 채소를 한 짐 지고 출발하면 못해도 한두 번은 쉬어야 했다. 쉬면 담배라도 한 대 꺼내 물어야 다시 출발할 힘이 생겼다. 그래서 집에 도착할 무렵이면 채소가 축 늘어져 상품 가치가 툭 떨어졌다. 그러면 밑지고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쌀과 연탄 판매는 80년대 어간까지 허가제로 이루어졌다. 그때까지는 사는 이도 파는 이도 양껏 사고 팔 수 없었다. 정해진 만큼씩만 거래되었다. 그러다가 물자가 풍부해지면서 허가제는 자연스럽게 신고제로 바뀌었다. 그렇게 넘어가는 시점에 그는 쌀과 연탄 가게를 접었다. 그리고 방앗간을 새로 열었다.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빠르게 업종 변경을 시도한 셈이었다.

1980년대 방앗간은 성황이었다.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에 등장하는 고추 방앗간 봉씨 아저씨에 따르면 이미 70년대에도 방앗간은 호황을 누렸다고 했다. 전대에 돈이 그득하고 얼마인지 헤아려 볼 시간이 없을 만큼 손님이 붐볐다고 했다. 시장통이 아닌 주택가에 자리잡은 그의 방앗간도 그때는 그렇게 호황이었다.

혼사가 있는 집에서는 많으면 두 가마까지 떡을 했다. 아무리 적게 하는 집도 다섯 말은 했다. 주말이면 방앗간은 떡을 만드느라 밤을 샜다. 손님상에 펴 놓으려면 인절미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했다. 보통 네댓 가지 정도 해야 구색이 맞았다.

“자녀들 보내면 떡 젤 조금하는 사람이 한 닢 말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가마 두 가마까지 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 5일간은 이것저것 다 하느냐고 하고, 곰방곰방 들어와요. 그냥 맨날 밤 세우는 거지 그때는. 정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한 서너 가마 할라면 밤 세워서 해야지.”

아이들의 돌이나 백일 잔치가 있으면, 어른들의 생일이나 환갑 잔치 날이 돌아오면, 사람들은 그가 운영하는 떡 방앗간으로 몰려들었다. 물론 명절에도 사람들은 방앗간을 잊지 않았다. 설이 되고 추석이 가까워지면 하얀 떡가루를 뿜아 갔다. 하얗게 뿜은 떡가루를 이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그의 얼굴에도 떡가루만큼 하얀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전에는 추석 같은 때는 송편 같은 것이 인제 빵아다가 자기네 집에서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은 빵아가는 그렇게 분들이 적어요. 지금은 그냥 조금씩 사서 그저 몇 키로씩 사다가 접시 담아놓고 제사지내고, 올해도 해보니까 올해는 더 쫄더라구. 파는 거는 그전보다 좀 더 팔고 빵아가는 양은 훨씬 줄었어요.”

12

태평동도 세월 따라 인심 따라 변해갔다.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그가 운영하는 떡 방앗간은 한가로워졌다. 명절에 떡가루를 빵아 가는 사람도, 아이들 잔치 때 떡을 주문하는 사람도 더 이상 많지 않았다. 방앗간이 근근히 유지되어 가는 것도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 덕분이다.

방앗간 손님들은 모두 고급스런 뷔페로 몰렸다. 집집마다 직접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하던 시대가 가버린 것이다. 뷔페에서 나오는 떡은 떡공장에서 공급했다. 동네 방앗간이 뷔페 떡을 떠맡기에는 규모 면에서 딸렸다.

“부페에서도 떡은 나오는데, 큰 공장 같은 데서 갖다 인제 대량으로 갖다 디밀지 인제 우리 같은 소규모에서 그런 데 디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로 말하면 저 곤지암 나가는데 이런 데 저쪽에 가면 큰 공장 같은데 이런 데서 대량으로, 일꾼 보면 몇 십 명씩 두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데 디밀고 이런 식으로다 해가지고 솔직히 소규모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은 저뿐 아니라 얼추 다 고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기호가 바뀌고, 장사는 고전을 하고, 그는 나이를 먹어갔다. 양쪽 다리는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방앗간을 처분하지 않았다. 나이가 젊다면 예전처럼 업종 전환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는 대신 아들에게 방앗간을 맡겼다. 아

들의 세대에 방앗간이 다시 호황을 맞은 일은 없을 것이다.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기계들을 놀릴 수 없어서, 혹은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적어도 품삯 안 나가고 집세 안 들어가는 것에 기대어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는 아들이 결정하고 선택할 일이었다.

13

그는 아내를 집식구라고 했다. 아내는 안성군 금강면 여자였다. 그가 태어난 진천군 백옥면 하고는 산 하나 너머였다. 처음에 처이모 되는 양반이 그를 보러 왔을 때 그는 더벅머리 총각이었다. 등걸잠방이 옷을 입고 풀을 베는 시커먼 사내였다.

“그 이모되는 양반이 왔어요. 뭐 그때야 농사짓고 한여름에 솔직히 옷이나 있었나. 등걸잠방이 입고 논두렁 깎고 풀 베고 그러는데. 시골서 머리카락을 줄 알았어, 더벅하니 하구 있는데.”

처이모는 시커먼 더벅머리 총각을 멀리서 보고나서 좋다고 했다. 친딸의 배필이 아니라서 좋다 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의 어머니도 산을 넘어가서 아가씨를 보고 왔다. 양가에서 총각과 처녀를 살펴보고 혼인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는 장가들러 갈 때까지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집식구는 시골서 농사지를 때부터 위가 좋지 않았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오백원 크기로 금방 터질 것 같은 부분이 보였다. 그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 집식구는 날로 병색이 짙어갔다. 그러다 보니 3살 된 막내는 엄마젖을 얻어먹지 못했고, 동네 사람들은 얼추 죽는다고 했다.

그가 진천을 떠나기로 한 것은 지게질이 싫어서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진천을 뜨기로 결심한 데는 아내의 병도 크게 작용했다. 물을 갈아마시면 아내의 위병이 혹시나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그것은 차라리 희망에 가까웠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했다.

집식구의 나이 일흔둘, 여전히 태평동에서 건재하다. 진천에 남아 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물을 갈아먹은 것이 적중했을 수도 있다. 물론 다른 민간요법의 덕을 보았을 수도 있다. 그냥 이것저것들이 조금씩 효과를 낸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집식구는 태평동에서도 계속된 위장병을 앓았지만 금새 쓰러지지는 않았다. 다만 평소보다 조금만 더 먹어도 쉽게 체했다. 그는 집식구를 위해 뱀을 잡아다 먹였고, 미제 암포젤도 구해다 먹였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다.

“여기 와서 미제 암포젤 그것도 참 많이. 그것도 하고 별 거 다 했는데도 별효과는 없더라고요. 누가 또 뱀을 많이 먹으면은 또 괜찮다. 그래서 70년도 그때는 여기 뱀이 많았었어요. 여기 남한산성에. 뱀 잡으러 덩기는 사람이 있었었어요. 그 래가지고 그 사람을 일 년 사가지고 뱀을 잡아다가 그것도 달여 맥여봤고. 그랬는데 별효과는 없어요.”

집식구가 마를 먹기 시작한 것은 그 후로도 한참 지나서였다. 좋기는 산에서 직접 캔 산마가 좋다. 1킬로에 3만 원 나가는 산마에 비해, 재배한 마는 5천 원이면 샀다. 모란장에 나가서 4킬로 정도 사면 한 봉지 가득 됐다. 그것이면 한 달은 족히 먹었다. 집식구는 마를 먹으면서부터 체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

“그래 마하고 우유 좀 넣고, 또 배 사과 같은 거 한 쪽씩 넣고 해서 갈아가지고,

해서 그냥 한 컵씩. 지금 그거 먹은 지가 근 칠팔년. 그거 먹고서는 젤 덜 체하는 거 같아요.”

15

그는 현재 태평동 노인새마을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가 이것을 하게 된 것도 오래 전부터 실천해 오던 봉사활동이 몸에 밴 탓이었다. 그는 1970년대부터 방범위원장이니 새마을협의회장이니 새마을지도자 같은 일을 해 왔다.

태평동이 지금과 같지 않던 시절에 그는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펼쳤다. 방범대원들은 밤마다 태평동을 순찰했다. 방범위원장을 맡고 있던 그는 대원들을 잘 챙겨야 했다. 대원들의 제복이며 봉급을 챙기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동네 한 가구당 300원씩을 걷었다.

“그때 인제 한 집에 돈 300원씩인가 한 달에 받아가지고, 집집이 그걸 받아가지고 봉급을 주고 그라는데. 그거를 인제 300원도 안내요. 솔직히 정말 저 한 집에서 돈 300원 내라는 것도 안 내면. 대원들 봉급은 줘야지, 또 일년에 하복도 동복도 옷도 해줘야 되고, 그런 애로점에 참 많이 참 있었죠.”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봉급을 주기도 하고 대원들 복장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경찰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팔시만는 대원들을 격려하는 것도 그가 맡았다. 정식 봉급을 받는 경찰들은 방범대원들을 하바리로 생각했다. 사비를 털어 파출소 뒤쪽의 창고를 개조하여 대원들을 위한 방범사무실을 만들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누가 등을 떠밀지는 않았지만 그는 방범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하루 종일 연탄 배달로 피곤한 날이라고 빠지지 않았다.

방법위원장은 밤에 하는 일이라 그나마 나왔다.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협의회장을 맡았을 적에는 생업을 해야 하는 낮에도 일을 했다. 1970년대는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의 불길이 거셌다. 태평동도 도시지역이면서 농촌 못지않았다. 그때의 사정에 대해서는 하이퍼링크를 따라 정형주 씨의 개인생애사로 넘어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그는 40년 간의 동지였다.

“그때는 일주일내 아침마다 나가서 거리질서 해야지. 또 일 년에 몇 번 연수원 교육 가야지. 갈 봄 이렇게 되면 대청소 나가야지. 밤이면 불법광고물 내는 거 차 갖고 땡기면서 들여놓고 또 거둬들여야지. 그전에는 침 단계는 일이 좀 많았었어요. 새마을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 후로 새마을운동은 세월 따라 많이 변했다. 새마을지도자도 자신이 하던 때와는 달리 일이 한가로워졌다. 그는 자신이 젊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새마을운동이 나날이 시들어가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노인들과 새마을을 다시 한 번 일으켜 보고 싶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반평생의 동지와 함께 전국 처음으로 노인새마을회를 태평4동에서 발족시켰다.

“지금 여자들은 그래도 각 동의 지도자들이 부녀회들이 있고 하는데 남자들은 지금 불이 얼추 꺼져가요. 다 그래요 어디가나. 불이 꺼져가는 새마을이 되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래가지곤 이걸 불이 꺼지는 거다. 그래가지고 야 노인네들이 한번 꺼지는 불을 한번 인나코 ((일으켜)) 보자 해서. 태평4동에서라도 노인새마을을 만들어서 참 확산해 나가보자 해가고서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

반평생의 동지 정회장은 비록 한술밥을 먹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식구와 같았고, 행동이나 생각이 잘 맞았다. 그는 집에서 얹은장사를 했지만, 정회장은 시청 옆에서 인쇄업을 했다. 주로 관공서 일을 많이 하니까 인쇄업은 규모가 컸다. 그러면서 그와 그는 새마을운동, 노인봉사대, 봉사은행, 노인새마을회 같은 일을 할 때는 같은 자리에 있었다.

반평생의 동지는 그를 이렇게 평했다.

“어머니와 같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또 얼마만큼 매사에 적극적이냐 하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한 거, 참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또 이웃 간에 하는 거, 나도 그 같이 반평생을 같이 해 보며는 고쳐줄 점이 하나도 없어. 성실하고 농촌 출신답게 소박하고 성실하고 또 깨끗하고.”

낭만주의자의 삶과 실천

태평동 형주씨 이야기





낭만주의자의 삶과 실천

...

태평동 형주씨 이야기

1

내 나이 이제 여든 하나. 꿈을 꾸는 것을 빼고, 모든 것에서 조용히 물러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이루어왔다. 그러면서도 공치사 하는 자리에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여든을 넘어서니 기억은 가물가물해진다. 내가 사는 집의 번지수도 가끔은 기억해 내기 어렵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가족들에 대한 생각은 새록새록 해진다. 좀처럼 보기 드문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 좋은 일곱 남매들. 처를 자랑하는 것은 좀 우습지만, 무슨 일에서건 불만 한 번 내보인 적 없던 순박한 처. 순박한 할머니의 성질을 닮은 손자 손녀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힘든 세월 잘 참고 살아온 아들 딸까지.

“지금 이렇게 추접하게 됐어도 손녀들이 이 늙은이에 막 뽀뽀를 하고, 그리고 애들 한 달에 한번 딱 딱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하도 좋아하고 든든하고, 그러니까 아 나는 첫째 복이 많다.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참으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랬지만 참 훌륭한 분이었다. 훌륭한 교육자고 몸으로 가르친 교육자고.”

왜정 때 나는 중학교를 다녔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장사도 조금 겸했기 때문에 중학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독립이었다. 독립만 되면 난 내일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김구 선생님처럼 나도 독립된 나라에서 살기를 희망했다. 해방이 되었을 때 그 소원은 이루어진 셈이었다.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 두 번째 소원이었다. 집안에서는 칠남매의 맏이인 나 하나만 농업학교까지 가르쳤다. 그래서 나는 굉장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모험에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던 이유였다. 누구한테 채이고 뺨 맞고 쥐어박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고, 그 험한 세상을 여든하나까지 살면서도 어디 끌려가 본 적도 없고 봉변을 당한 적도 없다. 나는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되 사회가 하지마라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1970년 초반 성남에 발을 디딘 이후로 소원이 하나 더 생겼다. 성남이 잘 되어 낙원 같은 동네가 되는 것, 그것이 내 소원 목록에 추가되었다. 중학교 때 읽은 심훈 선생의 〈상록수〉란 소설은 내 정신을 홀랑 뺏어 버렸다. 나는 그때 꼭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들뜬 열망으로 가득찼었다. 젊음이 별처럼 빛날 때 꿈을 꾸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삶이 증명해 주리라 믿었다.

“그런 때 내 마음에 와서 딱 꽃힌 것이 뭐냐 하면 조우라는, 조우는 비칠 조(照)자 구석 우(隅)자. 이제 불가에서 나온 말인데, 조우란 말이 내 귀를 평생을 지배를 해요. 구석을 비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욕심 많게 그렇게 범위만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한 군데라도 효과적으로 내 정성을 쏟아본다 그런 뜻도 있고, 또 그렇게 인제 그냥 화려하고 범위가 크고 요런 것이 아니라 비록 범위는 조그마하고 그리지만 거기서 참되게 한번 해본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나는 박회장과 함께 문상에 나섰
다. 박종근 선생님은 초등학교 시절 나에게 반일감정을 심어줬던 분이였다. 선생
님은 숙직을 설 때마다 어린 나를 불러 앉히고, 일본이 멀지 않아 망할 것이며 우
리는 독립을 할 것이라고 들려주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나는 반일감정이 충만
한 학생 시절을 보냈다.

“밤에 가서 학교에 쓸 전분이, 그 때 당시 어려운 시기니까, 전분가루가 구루마를
싣고 들어오면, 친구들과하고 같이 그 전분가루를 가지고 올라가서 학교 기왓장을
하얗게 입혀 놓는단든지.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의미있는 행동을 해.”

어느 날은 학교 교장이 나를 부르더니 내 농업학교 합격통지서를 내밀었다. 그러
면서 신중하게 처신하라고 경고했다. 중학교 진학을 취소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어린 초등생은 학교를 상대로 데모를 했다. 하지
만 그 데모는 생각으로만 치열했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않았다.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순천농업학교로 진학했다. 중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농업학교라는 곳은 공부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순전히
일만 하는 학교였다. 학교는 조용했고, 시간은 흘러갔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나서
순천농업학교는 갑작스레 변해갔다. 학교 곳곳에서 자신의 주의주장을 외쳐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순천농업학교가 공산당 소굴이여. 해방이 되니까 어디서 수염을 이렇게 기른 놈
들이, 그냥 괴상스런 놈들이 딱 강당이고 옥상이고 버티고 공산주의를 맘대로 외
치고, 그 때는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고.”

공산당이 어떤 이들인지 사전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에게 휘말리면 나와 가족이 위태로워지겠다는 것을 직감했다. 공산주의자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슬슬 꿈무늬를 빼며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여순반란사건이 있기 하루 전날 저녁에 이상한 기미를 느끼고 학교를 떠나 순천을 빠져나왔다.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다.

4

1948년 10월 여순반란사건 직전에 순천을 빠져나와 고향 화순으로 갔다. 고향에서는 잠깐이긴 하지만 낯인 생활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나서 순천이 회복되자 농업학교로 돌아가 학교를 마쳤다. 그 후 나는 광주사범학교에 들어갔다. 1년 기간으로 단기 교사양성을 하는 곳이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상록수>에 매료되어 페스탈로찌 같은 교사가 되어 보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 때만해도 친구들이 군대로 간 놈은 나중에 대한민국의 오성장군이 돼. 같이 책상에서 공부한 놈이. 그리고 뭔가 교수를 꿈꾼 놈은 연세대 대학원 원장까지 한 애도 있고. 그런데 나는 해필 선생이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 나는 새싹을 올 바로 길러야 되겠다. 그리고 교성 페스탈로찌처럼 한 생애를 보내겠다.”

단기 교사양성 과정을 끝마치기 무섭게 교사 발령이 났다. 한국전쟁 중에도 나는 학생들을 가르쳤다. 정말 열심히 하였고, 화순에서는 이름난 선생이었다. 페스탈로찌처럼, 유리조각을 줍는 교성이 된 느낌이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나의 열정과 이상을 받아주지 못했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갈수록 부패했고, 학교의 분위기도 거기에 묻어가고 있었다. 아이들마저도 세상을 따라갈 뿐, 나를 따라오진 않았다. 차츰 회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일생을 바친다면 교사로서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는가?

“어느 날 밤 학교 교장하고, 장학사가 마치고 와 있었어요. 둘이 있는데 갑자기 탁 난데없이, 선생 하면 큰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시골에선 해당인데, 한 마디 탁 던지고 나와 버려요. 나는 학교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영문들이 어리병병하지. 교사 중의 교사고, 그렇게 열성을 보이더니 나는 교사를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나와 버려 갖고.”

나는 그렇게 멋지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학교를 떠났다. 그리고 전국 일주가 아니라 전국 삼주를 하며 정처 없이 떠돌았다. 한참 후에 들은 말이지만, 학교에서 돌아오라고 몇 차례 사람이 왔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5

전국 삼주의 방향은 대전에서 멈췄다. 나는 그곳에서 요즘의 보습학원 같은 것을 열었다. 정식인가를 얻은 학원은 8년간의 호구지책이 되었다. 그러는 사이 나는 생활 기반을 닦고 결혼을 했다. 대전에서의 안정된 8년, 그 중에서도 부인을 만나 결혼을 한 것은 하느님의 섭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었다.

결혼 직전, 나는 누구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못할 곤한 사정이었다. 목 디스크가 생겨 자취 생활은 계속하기 쉽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급했다. 누구하고든 결혼을 하면 생활이 좀 더 수월하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한 여자에게 청혼을 하였다. 하지만 청혼은 유야무야 되었다.

“처음에 내가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사가 안 되고,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지금 우리 부인이지. 우리 집식군데 보니까, 요 여자는 아닌데 행위나 모든 것으로 봐서 아닌데, 저런 양반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가. 해서 참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안됐드라 이 말이어.”

집사람은 부산의 남포동 대신동에서 살다가 집안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대전까지 옮겨와 있던 때였다. 나는 처남을 통해 청혼을 넣어 보았다. 그랬더니 승낙이 돌아왔다. 평소에 나를 유심히 지켜봐 왔던 모양이었다. 나는 그 인연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했다. 큐피드의 빛나간 화살에 맞은 격이지만 집사람은 아직까지 내 맘에 어긋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6

결혼 후 집안도 안정되고 보습학원도 자리를 잡았다. 학원생이 백에서 백오십 명을 유지했다. 그때 나는 누군가의 소개로 새 사업을 시작했다. 다림질이 필요 없는 와이셔츠 사업이었는데, 당시는 옷을 빨면 일일이 풀먹여 주름을 펴야 하는 시절이었다. 대박을 예감하며 가진 전부를 투입하여 중부권 대리점을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못가고 완전히 망했다. 그때의 구차한 사정을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재미 없는 일일 것이다.

어쨌든 나는 정치 없는 처지가 되어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서울에서 주택수리 센터를 시작했다. 주변에서 만난 고향 사람들 중에는 주택 수리 일을 해 본 사람들이 몇 있었다. 그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나는 앞에 나서서 일을 따내고 그들은 따낸 일을 해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 무렵 성남 개발 소식이 들렸다. 개발 지역에 가면 주택 관련 일거리가 넘쳐날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래서 날을 잡아 사정을 둘러보러 성남으로 왔다. 성남에 첫 발을 들여놓은 순간이었다.

그 날 내가 그런 광경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내 삶은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다. 그것은 아주 우연한 마주침이었다. 그러면서도 신에 의해 예정된 사건이었다. 12월이 다 지나가던 그해 겨울날 보았던 장면 속에는, 트럭 한 대와 트럭에서 내리는 스무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박혀 있었다. 추위에 오돌오돌 떠는 입성이 허

름한 사람들이었다.

“큰 대형 트럭에다가 한 네 세대를 실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 12월 말 경에 실어다가 태평동 저 입구에다 막 동토에다가 막 푸는 거예요. 집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순간적으로 나는 이 분들과 같이 살아야겠다. 그리고 성남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내 피, 내 백골을 여기다 묻겠다. 그런 결심을 거기서 하게 되요. 아이들 오돌오돌 떨고, 실의에 빠진 아낙네와 남편. 네 가족을 한 차에다 실어다 뺐으니까. 그러니까 막 추운 동토에다가 천막만 치고.”

철거민을 실은 트럭은 그 후로도 계속 들어왔다. 봄이 되어도 끊어지지 않았다.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의 구보씨는 역수같이 봄비가 내리던 날 단대오거리에 부러졌다. 원래 서울 답십리에 살았던 구보씨는 봄비에 꽃잎이 지듯 집이 헐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트럭 짐칸에 실려 왔다. 마장동과 제기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려 왔다. 그리고 그들은 천막촌을 이루어 살았다.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빈민과 함께 하는 삶을 은근히 꿈꿔 왔던 나는 그 순간 성남을 선택했다. 성남은 주택수리센터를 하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라, 내 삶의 열정과 이상을 시험해 볼 곳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빈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낙원을 만 들어가는 낭만적인 꿈이 꿈틀거렸다.

7

서울에서 시작한 주택수리센터가 활성화되기 전 나는 성남으로 이주를 결심했다. 빈민들의 절망과 한숨이 모여들고 있던 성남이라는 도시를 낙원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꿈이 있었다. 난장이네 가족들이 살던 낙원구 행복동은 이름만 그랬지만, 나는 정말로 성남을 낙원마을로 만들고자 했다.

애들 형제와 집식구까지 네 식구가 옮겨가는 데도 돈이라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대전에서 사업에 망한 이후 서울에서는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누이동생을 찾아가 사정을 말했다. 그리고 5만원을 꾸었다.

“돈 여유가 하나도 없어. 제일 큰 누이동생 보고 5만원만 꾸주게. 내가 나중에 줄 테니까 5만원만 꾸주게 하니까. 5만원을 꾸워서 3만원은 차 빌렸고, 나머지 2만원은 우리 가족들 생명선이야. 2만원 갖고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해야지.”

내 호구지책조차 없던 때 성남을 낙원마을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다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품 나올 일이었다. 뜬금없고 난데없는 일이라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게 그것은 밤하늘의 별처럼 선명한 일이었다. 아름다운 꿈이었다.

아름다운 꿈을 가진 이도 먹고 사는 일은 문제거리였다. 아니 그런 사람일수록 먹고 사는 일이 더 문제인 법이었다. 나는 일단 주택수리센터를 열고 집 한 채를 맡아 일을 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내 전문도, 내 장래도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미련 없이 그 일을 치워버렸다. 사표를 던지고 미련없이 학교를 떠났을 때처럼.

8

성남에 들어온 후 나는 셋방에서 셋방으로 전전했다. 그러던 중에 나는 아는 사람에게 5만원을 빌려 인쇄소를 시작했다. 낡은 인쇄기계 하나가 전부였다.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해야 했고 달리 길이 없었다. 주로 찌라시를 만들었지만 항상 빚쟁이의 성화에 시달려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생업은 언제나 뒷전이었고, 내 정신은

만 데로 쏠려 있었다.

처음에 나는 동네 쓰레기를 주웠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동네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일이었다. 학교 교정에서 유리조각을 줍던 선생님이 태평동의 천막촌 골목에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소문은 빨랐다. 한낮에도 골목길이 자주 이야기판이 되던 시절에, 소문은 번개와 같이 빠른 법이었다. 더욱이 풍채 좋고 잘생긴 사람이 쓰레기를 줍고 다닌다는 소문은 다분히 고급의 이야깃거리였다.

“나는 원래 학교를 가나 어디로 가나 녀마주의마냥 줍고 쓸고 허는 것이 내 몸에 배겼어. 그래서 우리 아들도 둘 신자루 이런 거 하나씩 들리고, 나도 하나 들고, 셋이 근처 산에를 아침 등산 갔다가 오면서 쓰레기를 하나씩 주서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똥똥하고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우면 애들하고 뭐 주서가지고 다니는데 담배꽂초도 줍고.”

그때 동네에 송일선이라는 사람이 동장으로 있었다. 그가 나를 새마을지도자로 추천했다. 내 사정이 딱해 보였던 것인지, 아니면 막 시작한 새마을운동을 위해 쓰레기 줍는 고상한 정신의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모를 일이었다. 나는 웃어 넘겼고, 또 잊고 말았다.

그런데 다음 명절이 돌아왔을 때였다. 허름한 인쇄소의 내 책상에 양말 두 켤레가 올라와 있었다. 동사무소에서 새마을지도자한테 돌린 명절 선물이었다. 동장은 더 이상의 권유도 없이 나를 새마을지도자 명단에 올려놓았던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내 운명이었다. 새마을지도자가 된다면, 낙원마을에 대한 꿈을 실천해 볼 기회를 갖는 셈이었다.

“그래서 운명처럼 받아들였어요. 내가 조국을 위해서 헐 일은, 또 이 성남시를 위

해서 헐 일은 다른 게 없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없는 사람들끼리 마음 선량한 사람들이 한번 뭉쳐서 지역을 가꿔봐야겠다. 그러면서 꿈을 꾸는 것이 상향이야. 이상향.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니까 뭐 그 기간이 근 40년 돼요.”

현실 속에서 이상향을 꿈꾸다가 좌절하면 상처는 깊고 크다. 교사로서 겪었던 좌절이 떠올랐다. 그렇다고 운명처럼 다시 내 앞에 놓여진 일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에 발을 들여놓았고, 이후 40년을 한결같이 그 일에 매진하였다.

9

새마을연수원은 수원에 있었다. 새마을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그곳에 입소하여 연수를 받아야 했다. 나도 어느 날 통보를 받고 연수에 참석했다. 농촌에서도 오고 도시에서도 오고, 참석한 새마을지도자들이 수백 명이었다. 교수들, 배우들, 정치인들,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연수원으로 모여들었다.

연수 교육 첫날, 본부에서는 교육받을 12일 간 연수생들을 통솔할 학생장을 뽑아 발표했다. 직선으로 학생장을 뽑을 수도 있었지만, 연수생들이 서로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부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학생장을 삼게 되었다. 동네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로 추천되어 왔기 때문에 연수생 중에는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난데없이 본부에서는 나를 학생장으로 지명했다.

“아니 난데없이 정형주 지도자 교무실로 오라고 해서. 가니까 난 옆에 끼어 앉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를 학생장으로.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사를

했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진실할 것이고, 또 말도 그렇게 엉터리로 허지도 않을 것이고, 생각도 바를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수들끼리 골라낸 것이 나여. 그래 학생장이 돼 가지고.”

나는 12일간의 연수교육에서 학생장 역할을 당돌하게 했다. 나는 잠깐 잠깐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연수생들에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걸머진 사람들로써 새마을운동을 맹렬하게 이끄는 사람이 되자고 역설했다. 비록 독립투사가 될 기회는 없지만 새마을운동을 통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일꾼이 된 데 한껏 자부를 느꼈다. 연수 교육 이후, 나는 대한민국 새마을회가 조직될 때 조직 멤버로 활동하였고, 성남시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나는 새마을운동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다.

10

성남시새마을협의회 회장을 맡았을 때는 목숨을 걸고 했다. 그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서울이고 새마을 수도는 성남이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런 격려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모든 이들이 그것을 사실로 느끼도록 최선을 다했다.

1979년에 들어 나는 새마을협의회장으로서 우선 성남시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역량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인지 파악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다. 그래서 천 명에 이르는 지도자들 중 여자는 빼고 남자들 사백 몇 십 명 되는 집을 차례로 방문했다. 새벽에 협의회장인 내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잠이 덜 깬 부스스한 모습으로 문을 여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부분의 동네는 어수선하고 지저분했다. 그게 무슨 벼슬이나 되냐며 얼굴을 외로 굶는 이들로 없지 않았지만 상관치 않았다.

“새벽에 방문을 해요. 보면 그 집 그 주변 보고, 또 그 사람 깨워서 나오는 모습

보고, 부스스해 가지고 걸음도 똑바로 못 걷고, 집 주변 보면 전연 정비도 안 돼 있고, 인제 그것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새벽에 만나서, 다녀가지고 그 중에서 쓸 만한 사람을 체크를 해.”

가가호호에 대한 새벽 방문을 통해 쓸 만한 새마을지도자들이 골라지자, 나는 그들을 각 마을의 총무에 앉혔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환경정비기동대를 만들었다. 기동대는 총무들 중에서도 푹푹하고 힘깨나 쓰고 운동깨나 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골목 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전담요원들이었다.

“힘도 깨나 쓰고 운동깨나 한 애들을 모아 환경정비기동대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맘대로 지 맘대로 어질러놓고, 늘어놓고, 막 지어놓고, 꾸정물을 만들고, 막 해 놓은 것을 가서 전부 작살을 내버려요. 작살 뭔가 작살로 전부 해버리고, 거 싹 ~ 청소해 버리고 다시는 못 넘게.”

골목길에는 집집마다 쓰레기통을 내놓지 않은 집이 없었다. 심지어는 대문 앞을 차지하여 벽돌을 쌓고 영업장을 만들거나 연탄광을 만든 집도 있었다. 리어카도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다. 정비대는 아무 날 여길 철거한다는 통보를 미리 보내고, 그날이 되면 들이닥쳐 싹 쓸어버렸다.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 설득을 했지만, 결코 느슨하게 할 일은 아니었다. 결혼식 주례 부탁이 거의 끊어질 만큼, 나는 성남에서 악명이 높아갔다.

11

성남은 80년대 초반까지도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곳은 은행동 꼭대기하고 영장산 밑의 태평2동과 3동이었다. 그런 만큼 그곳의 생활 형편은 곤궁하고, 사람들의 삶은 피곤했다. 집 주

변이 정리가 안 되고, 골목길에 쓰레기가 쌓이고, 임시로 방치한 것들이 통행을 방해한다고 무슨 큰 일이 생길 것도 아니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동네 풍경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리고 환경정비기동대는, 그런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골목길 정비에만 전념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민들은 기동대의 활동을 마뜩잖아 하며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심지어는 한바탕 청소가 끝나면 대원들은 혼자서는 거길 가지 않았다. 주민들에게 맞아 죽을 것이 걱정되었던 것이다. 힘 좋고 깡패 같이 생긴 대원도 마찬가지로였다. 하지만 나는 이튿날이면 어김없이 현장을 다시 가 봤다.

나는 혹시 해코지를 당한다 해도 패념치 않았다. 독립투사들은 죽음으로써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에 비하면 나의 위험은 새발의 피보다 적었다. 더군다나 나는 이미 교회의 장로 반열에 올라있었고, 사회지도층이었다.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위협을 가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경우에 내 선배 투사들을 생각해요. 독립투사들. 자기 뼈도 못 찾고 자기 죽은 자리도 모르고, 그런 불우한 운동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감옥에 가서 총살당하고, 한테 나는 내가 새마을을 택한 것은 내 일신 상은 아무 일 없고, 나는 그 손해를 봐도 조국을 위해서 떳떳하게 내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내가. 후회도 안 하고.”

나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었다.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식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었고, 이것을 빨리 해결하면 할수록 성남은 빨리 발전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반발하는 주민들의 칼끝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는 내 신념을 따랐다. 하지만 나를 이어 새마을협의회장이 된 나의 후임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는 주민들의 기세를 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꺾어버렸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던 한 선배는 나에게 깊은 양심을 품고 있었다. 뜻하지 않은 사소한 일로 사이가 벌어지고 척을 지게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으려고 나에게 보증을 부탁한 사람이 있었다. 내가 어려울 때 새마을운동을 도와준 고마운 이였다. 기꺼이 대출보증을 해 주었다. 그런데 그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못 갚으니까, 우리 인쇄소, 이걸 누구도 그래선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나 하고 잘 아는 이사장인데, 양심 가지고 거기다 인쇄기계에다가, 달랑 인쇄기 5만원 짜리 가지고 찌그덕 찌그덕 먹고 사는데 차압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지.”

생업과 집을 빼앗긴 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우선 빈 사유지에 천막을 치고 안에는 모래를 깔아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하지만 어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싶었다. 창피하고 굴욕적이었다. 어떤 이는 나를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그냥 총무국장이 정 회장님 한번 만납시다. 가니까 그냥 대뜸 혼을 내고 야단을 친다고.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냐고. 자식들을 뭇 허러 놓았냐고. 뭇 허러 장가는 가가지고 아들을 나가지고 돌아보지도 않고, 시 안 해도 할 사람이 있어요. 헌데 왜 그러냐고.”

가족회의를 열었지만 집식구는 아무 말이 없었다. 살길이 막연하다는 것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나는 새마을운동을 딱 접고 이제는 뭔가 다른 생업을 찾아 전념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 놓았다. 그런데 두 아들이 뜻밖에 반응을 보였다.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하는, 묵숨처럼 아끼는 일을 어떻게 그만둔단 말입니까.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아들들은 차압 붙은 인쇄소를 인수하여 다시 내게 맡겼다.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었다. 새마을금고 대출 보증을 섰다가 생업이었던 인쇄소를 차압당했던 얼마 후, 나는 낙원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되었다. 새마을금고는 부실에 빠져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동장과 유지들이 살릴 방법을 모색하다가 나를 찾아왔다.

“83년도에 새마을금고에 차압당한 지 얼마 안 되서 바로 또 금고 이사장이 돼요. 거기엔 인제 선고를 받았지. 전국에서 태평4동 금고하고 중동에 금고 하나 하고 둘이 선고를 왔어. 여기는 더 이상 지속이 안 된다 해가지고 폐업처분이 될 상황인데 이 지역에서 동장 이하 뭔가 유지들이 그럴 수가 있냐. 동장이 내가 정형주 씨를 설득을 해볼 테니까 한번 다시 지속해보자. 다 나를 이사장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나는 새마을금고를 맡아 경영을 새롭게 하고, 월세자금 병원비 등록금 등의 무보증 신용 대출을 늘렸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쌓았다. 빚만 1억 4천이던 새마을금고는 5년 만에 튼실한 금고로 다시 태어났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꼽히는 우량 금고가 되었다. 그러는 사이 10년의 세월이 또 흘러갔다. 10년 만에 이사장 직을 내놓았다. 학교를 떠날 때처럼, 주택수리센터 일을 그만둘 때처럼 연연해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다른 일을 시작했다. 새로 시작한 일은 나를 다시 파산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다사리생협은 농촌살리기 운동의 일환이었다. 농촌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도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농촌에서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사다가 도시에서 팔게 되면 농촌도 유익하고 도시 살림도 보탬이 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해가 많았다. 전문성이 부족한 탓이었다.

“다사리생협 운동을 해요. 7년을 딱 하다가 한마디로 해서 거덜이 났지. 생협도 거덜 나고 우리 살림살이도 거덜 나고. 지금도 후유증은, 나도 200만원도 안 되는 지하서 지금 살고. 우리 큰 아들 놈도 지금 전세 집안을 다 까먹고 월세 살림 살고 있고. 우리 작은 아들은 형 아버지가 죽은데 저는 가만히 살겠어요. 보증서고 뒀히고 그러니 세 집이 다 거덜이. 원인은 생협이죠.”

14

1972년에 시작했던 인쇄소는 2002년에 그만두었다. 주로 관공서 전단지를 만들던 인쇄소는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안정적인 고객을 갖고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그만두던 그때까지도 나는 생업에 큰 삶의 비중을 두지 않았다. 집안이 거덜나고 해도 태평동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다.

태평동 환경을 가꾸려다 보니까 봉사자들이 필요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으로서 환경정비기동대를 가동하던 때와는 시대가 달라졌다. 그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환경정비에 나서기는 불가능했다. 혹시 가능하다고 해도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맞아죽거나 사유재산 손괴죄로 잡혀갈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생각해 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때였다.

“도시 정비사업을 할라고 보니까 봉사자들이 없어. 문제가 봉사자들을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봉사은행을 만들었어요. 봉사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한 몇 년간 굉장히 뭐 그냥 매스컴이란 매스컴은 다 동원됐어. 그렇게 쇼킹한 뉴스였어요.”

낙원봉사은행은 그야말로 새로운 개념의 운동이었다. 그것은 적자 상태의 새마

을금고를 자산 180억 원의 우량 금융기관으로 키운 경험에서 나왔다. 봉사은행은 돈을 맡기고 찾아가듯이 봉사 시간을 수치화해서 적립한 뒤 되돌려 받는 시스템이었다. 얼마 후엔 성남시장이 찾아왔다. 성남시가 예산을 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제안해 왔다. 그 후 봉사은행은 성남시를 넘어 경기도로,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15

태평동에는 독거노인들이 많았다.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다. 없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하층은 습기도 많고 환기도 힘들었다. 보일러는 자주 고장났다. 그런데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줘야 하는 집주인은 서울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세들어 사는 태평동 주민들은 그들이 어디 사는지도 알지 못했다.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할 전화번호 하나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러니 보일러가 고장 나서 방바닥이 얼음장 같아도 고쳐줄 사람이 없었고, 벽지에 습기가 가득해도, 곰팡이가 시커멓게 끼어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생짜로 참거나 아니면 버렸다. 태평동 독거노인들은 그런 세월을 살아냈다. 나는 그들 주변에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함께 느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이 가렵고 무엇이 괴로운지 잘 알았다.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혼자 사는데 노인네가 보름간을 떨고 잤는데, 인자 죽었구나. 그래 무슨 소리냐고. 당장 우리 멤버 불러다가 가서 밤에 고쳐. 고쳐가지고 따뜻한 방에서 자게 한다거나. 집이 막 천장이 새가지고 방에다가 수증 펌프를 두 군데다 해서 서서 다 젖고 물이 차고. 그런 것을 또 내가 알아가지고 즉시 일하는 사람 데려다가 밤부터서 그 이튿날까지 해서 물 깨끗이 잡고. 그리고 인자 메칠 후에까지 도배 다시 다 해 가지고.”

실제로 주변에는 전기기술자, 보일러기술자, 도배기술자 등 온갖 생활 속 기술자들이 많았다. 나는 그들을 조직해서 봉사단을 만들었다. 전기기술자들은 50대의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할아버지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봉사를 하기도 하고 봉사를 받기도 했다.

H-H봉사단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곧바로 해결해 주는 봉사대였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동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동에서는 그것을 접수하여 H-H봉사단에게 넘겼다. 그러면 즉시 봉사대가 출동하여 그것을 해결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천주교회의 지원을 받았다.

16

노인들의, 노인들에 의한,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생활화하기 위해 H-H봉사단, 노인봉사대, 그리고 노인새마을회까지 여러 일을 기획하고 실천했다. 그러면서 나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졌다. 줌도독질에 본드 흡입, 태평동 아이들은 사나웠다. 엇나가는 학생들이 많았다. 공부할 공간이 없어 거리를 방황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공부방과 도서관을 만들었다.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그 때 오성수 시장이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처지였어요. 건물을 하나 지어준 거예요. 정회장님 이런 좋은 일 하실라며는 건물이 필요할 거 아니냐. 지금 새마을금고 뒤에 있는 건물. 무료로 나를 보고 지어줘서 거기다가 공부방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방은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맡았고, 200명의 학생들로 활기쳤다. 방 한 칸에 여러 식구가 모여 사는 아이들에게 공부방은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공부방이 민간업자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새마을금고의 운영이 최근 들어

다시 안 좋아진 때문이었다. 적자이던 새마을금고를 흑자로 돌려놓고 그것으로 공부방 운영을 시작했던 태평하던 시절이, 나는 이제 그림다. 눈감고 생각하면 그 시절이 손에 잡힌다.

그때 우리는 동사무소 옥상에서 회의를 했다. 격에 맞지 않게 시장도 참석하고 교육장도 왔었다. 내가 제안하는 일은 언제나 반응이 크게 일었다.

“당시는 내 전성기니까. 시장하고 동사무소 옥상에서 회의해. 격에 안 맞게 시장이 오고 교육장이 오고 뭇이 오고 다 불러들여요. 내가 시장 만나서 뭇 좀 합시다 회의를 하는데. 우리 태평4동에 이것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주장하면 굉장히 반응이 컸어요. 경기도교육감한테는 또 교실 두 칸 만들어라.”

동네 골목에서 잠자고 있던 도서관을 교육감이 만들어 준 학교 교실로 옮겼다. 골목에서는 파리만 날리던 도서관이었다. 그러던 것이 학교로 옮겨가면서 학생들로 붐볐다. 매년 독서왕이 뽑혀 왕관을 썼고, 장서는 3만 권을 훌쩍 넘게 성장했다.

17

노인봉사대의 노인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나는 뽕잎을 먹어치우는 누에가 떠올랐다. 꽃 만 송이를 심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나는 노인들의 그런 힘과 정신을 믿는다. 노인들은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 보다 더 맹렬했다.

전국 삼주를 하면서 양양에 들렀다가 양양학교 교장실에서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강원도는 수복지구가 많아서 이북 출신과 이남 출신의 사람들이 섞여 살았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해도 양쪽 사람들은 전혀 달랐다. 한쪽은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고 한쪽은 지리멸렬했는데, 노인봉사대는 전자와 같았다.

“그래서 섞어 살거든. 헌데 요놈은 죽여도 살리도 못 할 정도로 자세가 틀렸고, 요놈들은 보니까 맹렬한 기세로 항상 시키는 대로 해. 이남 출신인지 이북 출신인지 환허다, 그렇듯이 지금 젊은 사람들 시켜놔 두면 꼭 이남 출신 같을 것이여. 우리 노인들 시켜놓으면 그냥 정신이 없어요.”

나는 사기와 용기가 충만해 있다. 새로 구성된 노인새마을회가 잘 되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새마을의 불길이 태평4동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비록 지금은 그 기세가 약차해도 향후는 심대할 것이다.

18

나는 이제 여든이 넘었다. 그 혼한 자가용 한번 못 타 봤고, 어린 애들도 갖고 있는 통장도 내 명의로 만들어 보질 못했다. 집안 살림은 주저앉았고, 이제는 지하 셋방 신세를 지고 있다. 그런 나를 비난하는 이도 많았다. 그런 사람들 보기 미안해서, 나는 대통령 훈장을 비롯해서 무수한 상장을 받았지만 집에는 한 장도 걸어 놓지 않았다.

아이들은 월사금을 내지 못해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도맡았다. 아들이 일기장에 적었던 글을 보면서 울기도 했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만 아니라면 나는 저분을 존경할 것이다.’ 그런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아빠였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새마을운동을 꿈꾼다. 낙원 같은 태평동을 꿈꾼다. 그래서 여든 나이에 노인새마을회를 다시 시작했다. 40년을 함께 해 온 박회장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하다.

“두 사람이 뜻이 맞으면 무서운 힘이 나옵니다. 나보고 여기까지 하라면 절반도

못 와. 아무 것도 못했을 거예요. 박회장님이 있으니까. 밤에 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혼자서는 죽어도 못 나서. 그냥 두 사람이 손을 딱 잡고 가면 되듯이, 새마을도 이렇게 난마처럼 얽혀 있는데 둘이 있으면 딱 가닥을 잡았다구요.”

나와, 박회장은, 조국과 성남을 낙원 같이 만들기 위해 독립투사처럼 일했고 또 일할 것이다. 젊음이 별처럼 빛나던 시절 꿈을 꾸며 나가는 것은 위대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 무렵에 또다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은 그보다 훨씬 위대하다. 이미 꿈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에게서 마무리될 작은 꿈이 아니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만큼 큰 꿈이기 때문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태평동 아줌마 김씨





며느리와 시어머니

...

태평동 아줌마 김씨

1

성남에 대한 그녀의 첫인상은 언덕배기였다. 남편이 살던 집은 옛날 인하병원 쪽 언덕길을 올라가야 나왔다. 그 길이 초행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택시를 타고 있었다.

“옛날 인하병원 그 언덕 있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언덕 지는 곳인데 처음에 그곳을 택시를 타고 올라갔어요. 결혼 전에, 서울에서 살다가 택시를 타고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택시가 이렇게 뒤로 자빠지는 느낌이. 언덕이 심해 가지구. 다시는 택시를 타지 말아야겠구나.”

무섭기도 하고 뭔가 편하지 않았던 느낌이 싫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후로도 그곳에서는 택시를 타지 않았다. 결혼을 하고 그곳에 살게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2

남편은 성남 토박이나 마찬가지였다. 성남은 경사가 심한 언덕배기가 많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다면 그녀는 이곳으로 시집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곤 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시동생 둘이 함께 살고 있었다. 시부모님은 원래 서울 신당동에 살았다는데, 성남 개발 초기에 이곳으로 이사하였다. 남편은 이웃에 친한 친구들도 많았다. 그 친구들은 결혼 첫날부터 장난이 심했다. 새신랑을 붙들어놓고 귀가를 가로막기 일쑤였다.

그에 비해 그녀는 성남이 처음이었다. 결혼하던 1990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지라 낯설고 물설은 곳이었다. 이웃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었다. 친구들이 새신랑을 붙들어도 그녀는 찾아 나설 곳이 막연했다. 그럴 때면 늘 시어머니가 나섰다. 시어머니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 아들을 찾아내 데려오곤 했다.

그녀는 결혼 후 그렇게 집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몇 달 뒤 이웃에 살던 남편의 친구가 결혼하면서 새로 온 새댁과 친구가 되었다.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나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시장 가는 사이가 되었다. 낯설은 동네에서 유일한 친구였다.

3

외출할 일이 별로 없는 신부들에게 외출은 그 자체로 즐거운 행사였다. 그녀는 매달 남편 월급이 들어오면 집을 나섰다. 월급을 찾으러 은행 가는 날이면 그녀는 언제나 기분이 좋았다. 차를 타지 않아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버스 노선을 아예 모르기도 했지만, 굳이 차를 탈 생각도 없었다.

“매월 월급 들어오면, 몇 십만 원 안 되는 돈 이삼십만 원 되는 돈을 찾으러, 우리은행이 지금 이쪽 세이브존 가는 쪽에 있는데, 거기를 걸어서 다녔어요. 애기 가져 갖고도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이고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굳이 택시를 타야 한다거나 버스를, 버스노선은 아예 몰라서 못 탄 거고.”

그녀는 성호시장까지도 걸어다녔다. 걸음은 세월아 네월아 느려졌고, 마음도 바쁠 일이 하나 없었다. 길가에 구경거리가 보이면 하염없이 구경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한 두 시간 정도 걸리는 것은 다반사였다.

4

그녀가 시집 왔을 때만 해도 태평동엔 아이들이 많았다. 태평동 아이들은 대부분 골목에서 놀았다. 엄마들의 마음이 맞는 날이면 영장산 영장공원으로 놀러가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기에 태평동은 쾌적하고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시멘트로 덮인 골목에서는 흙을 만질 수 없었고, 또 주변에는 마음 놓고 뛰어들 물가도 없었다. 여름이면 대야에서 물놀이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아이들이 흙을 만지면서 뛰어놀아야 할 골목길이 시멘트로 덮여갈 때, 마누라보다 귀하다는 장화도 태평동 골목에서 사라져 갔다. 그리고 한참 후 태평동의 재개발이 언급되면서, 태평동 골목에서는 아이들 보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동네는 아이들 대신 노인들 비중이 높아갔다.

“지금 재개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희 동네가. 그러다 보니깐 어르신들을 모셔다놓고 어르신들이 사시고 실제 젊은 분들이 여길 떠난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실제 젊은층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있어도 하나 내지는 뭐 거의 안 넣거나 부부가 잠시 거주하고 가는 경우. 그니까 실제 가족주가 거주하는 경우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녀의 딸들은 태평동이 그렇게 변해 가는 중에도 땅바닥을 구르면서 잘 자랐다. 시동생이 결혼하여 연달아 아들 둘을 낳자 그녀는 갑자기 아들 욕심이 났다.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셋째를 낳았다.

“저희가 딸만 둘 낳았는데. 시동생네가 결혼하면서 연달아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러구 나니까 괜히 샘이 나는 거예요. 그래 가꾸 하나를 더 놓자. 남편은 사실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더 낳야 된다. 그러구 인제 셋을 나면서 남편한테 걱정하지 말라구. 둘은 남편이 책임져야 되지만 둘하고 나까지 책임지면 셋째는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

5

셋째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던 그녀의 장담은 이후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신혼 초에 생각했던 대로, 그녀는 결혼 10년 만에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백화점에서 일을 시작한 그녀는 6년 후에 과로로 쓰러져 그만둘 때까지 일에 빠져 살았다. 그러는 사이 막내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막내가 다섯 살 되던 해부터였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막내 아이는 손가락을 빨았다.

“엄마가 일을 다니니까 애기를 할머니가 보게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애기를 보니까 잘 뻥이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애기가 이제 손을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안 됐는 게, 다른 애들은 학교 갈 때에도 내가 집에 있었으니까 내가 데리고 가구 학교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하다못해 뭐 도시락이라도 싸들고 가고, 근데 막둥이는 다섯 살 때 제가 직장을 나가면서 그런 걸 하나도 못해 준 거예요. 그래 지금도 가끔 자다 보면 손을 빨고 있어요.”

막내는 살도 찼다. 이웃들은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니까 살이 찐다고들 했다.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것을, 그녀는 한참 후에야 깨달았다. 아이는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 생각 이후로 그녀는 막내 아이한테 좀 더 많은 신경을 썼다.

명절이 오면 태평동 사람들은 한복을 차려입었다. 그리고 한 집안처럼 서로에게 세배를 다녔다. 그녀의 남편도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 뵈었다. 네댓 집을 돌고나면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그녀는 집에 남아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했다. 대개 하루 종일 손님들이 갈마들었고, 그때마다 그녀는 상을 차려 냈다.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아 복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저희 집에도 어른들 계시니까 친구 분들이나 친구 애기들이 막 한복 차려입고 세배 오고 그랬었는데. 점점 어느 날부터가 그런 문화가 싹 없어진 거예요. 2000년 되기 전까지는 제가 백화점 나가서 일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네 애기들 10명 정도 계속 비디오 찍어주고 사진 찍어주고 저는 그랬었거든요. 한복 입고 다니고 명절 때 되면 세뱃돈 받아 갖고 복주머니 넣고 다니고 그런 시절이 되게 좋았었는데.”

명절 뿐만이 아니었다. 어른들 생신상도 푸짐하게 차려졌다. 잔치 음식은 가락동이나 중앙시장에서 장을 봐온 재료들로 직접 만들었다. 그녀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경우는 3일 동안 생신상을 차렸다.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동네 어른들을 하루씩 돌아가며 식사 대접을 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생일이면 한 3일을 잔치를 했어요. 어머님 친구 분들 부녀회하고 여성회 하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친구 분들 모셔다가 하루 식사대접하구. 친척들 모셔다가 식사 대접하구. 또 동네 분들 식사 대접하고.”

2000년을 넘어서면서 태평동의 명절은 시시하고 삭막해졌다.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세배를 다니지 않았고, 또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도 없어졌다. 명절 연휴가 되면 TV에서는 해외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을 보여줬다.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와도

더 이상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패밀리 레스토랑이 붐볐다.

7

그녀는 결혼 전에 재활원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재활원은 이를 근무하고 하루를 쉬었다. 설 때는 산에 오르는 날이 많았다. 남편은 산에 다니면서 만났다.

“산악회 소속이었는데 남편이 나왔었고, 나중에 젊은 사람들끼리 다시 만나자 이래 가꼬 남편 한 여섯 일곱 명 정도가 만났는데, 막 다들 한 잔씩 하니까 인제 조금 행동이 흐트러지잖아요. 저희 남편이 술을 못 마셔요. 그니까 술을 못 마시니까 막 뒷정리를 하는데, 아 저 정도면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술을 안 먹는다는 것이 남편감을 고르는 절대 기준이 되기는 힘들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으로 남편감을 골랐다. 결혼 후에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크게 보였던 것은 친정 아버지 때문이었다. 술 많이 먹던 아버지를 친정 어머니는 늘 마뜩잖아 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술 안 먹는 사람한테 시집 가라고 했다. 어머니의 반복 학습이 그 한순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셈이었다.

결혼 전에 처음 인사하러 찾아왔을 때, 시댁은 3층 주택이었다. 서울에서 자취만 하던 그녀에게는 꽤나 커 보였다. 결혼해도 굶어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또 시어머니는 얼핏 봐도 통이 커 보였다. 자신이 나중에 어떤 외부 활동을 해도 크게 반대하고 나서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결혼 후에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시어머니는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여성회나 부녀회, 마을금고 등을 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정도였다. 상장을 받은 이력도 시장상, 동장상 등을 두루 갖추었다. 그녀가 이후에 동네 통장 일을 하게 된 것은 이런 시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시어머니는 태평동의 유명 인사였다. 그녀의 결혼식에 성남시장이며 국회의원이 참석했던 것도 모두 시어머니의 연줄이었다. 강원도가 친정이어서 하객이 많지 않던 신부 쪽 자리는 시어머니의 손님들이 채웠다. 당초 예정보다 결혼을 1년 앞당긴 것도, 본인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 결혼식을 올려야 여러 모로 좋을 것이라는 시어머니의 충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나중에 바깥 활동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시어머니를 알거나 혹은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심지어 보험회사 동료 중에는 예전에 시어머니와 함께 통반장을 했다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여기 동부화재에 저희 어머님하고 예전에 같이 통반장 하셨던 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서로 안부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어머님 그늘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고객 집을 갔는데 이 고객 분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머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남에서 얘기를 하다보면 진짜 옆에 하나 정도는 어머님하고 아는 사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녀가 처음 통장회의에 참석했는데, 주위에서 누구누구 며느리야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다. 어떤 사람은, 누구 며느리구나 잘 해 봐요 하며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녀는 덕분에 동네 일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시어머니에 대해 여러 가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야유회 갔을 때, 자네 어머님 같았으면 지금 분위기 엄청 띄웠을 건데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네 어머님한테 배운 우스갯소리를 지금 내가 하는 거야 하는 통장님도 있었다. 성남에서, 특히 태평동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그녀는 시어머니의 그늘을 실감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부담으로, 어떤 경우에는 혜택으로 그녀의 삶을 감싸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번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한 포용력을 보였다. 언변이 좋아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도 있었다. 부녀회에서 비누를 판매한다고 하면, 그녀는 판매하는 비누가 다른 어느 비누보다 좋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게 만들었다. 또한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 행사가 있으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가의 동원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옛날에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하면 나가서 봉사활동 다 하시고, 여성회지 부녀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머니 활동이 그랬어요. 올림픽 때 계속 도시락 싸고 봉사하고, 하여튼 집에를 못 들어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활동을 하시는 데, 아무튼 인원 동원하는 데도 많이 참석을 하셨던 거 같아요.”

시어머니는 정치적 관심도 남달리 많았다. 아마도 여성회 활동을 하는 동안 정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가 자주 생겼기 때문일 터였다. 특히 선거철은 시어머니의 정치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였다. 누구를 찍어야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정치적 판단이 확고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남들에게 강요했다. 특히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다른 사람을 찍는 한이 있더라도, 앞에서는 시어머니의 의견에 찬동해야 했다.

1990년대 전반을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차츰 활동의 폭이 줄어들었다. 그 무렵 시어머니의 정치적 성향을 부채질하던 성남 지역의 여성회도 바뀌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때와는 다른, 새로운 여성회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새로운 여성회에서는 아동용 도서대여나, 아이들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맞벌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책 볼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 주부들에게는 장구도 가르쳤다. 그녀도 그곳에 나가 장구를 배운 적이 있었다.

남편은 서울 신당동에서 태어났고, 성남 태평동에 와서 자랐다. 남편은 시어머니와는 달리, 동네일에 적극적인 관심은 없었다. 아무래도 출퇴근 하는 직업을 갖다 보니 그럴 수 밖에 없겠구나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남편의 직장은 육체적인 노동을 수반하는 일이어서 더욱 그랬다. 그래도 남편은 태평동 사람들의 삶을 잘 알았다.

동네에는 골목마다 작은 슈퍼들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대형 유통업체의 큰 슈퍼들이 문을 열었다. 당연히 골목 안의 작은 슈퍼들보다 가격이 싼다. 그녀는 좀 멀어도 거기 물건을 사왔다. 그러면 남편은 매번 몇 백 원 아끼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예전에는 동네 구멍가게 슈퍼가 있잖아요. 어느 날 월드마트 한국유통 이러면서 좀 더 큰 슈퍼가 동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구멍가게보다는 싸잖아요. 그니까 제가 거기 물건을 사오고 그러면 남편이 매번 그럴 때마다 했던 말이. 지금 편할라고 몇 백 원 아낄라고 니가 거기를 가면 이 가게 문 닫고, 결국은 동네 구멍가게 아주머니 손해가 아니라 니 손해다.”

아닌 게 아니라 골목 안 작은 슈퍼들은 몇 년 만에 하나 둘씩 사라졌다. 그랬더니 불편한 것은 그녀였다. 남편의 말이 맞았다. 밤에 갑자기 뭐가 필요해지면 옷을 갖춰 입고, 골목 밖 큰 슈퍼까지 나가야 했다.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아이들은 동네의 작은 서점을 이용하지 않았다. 멀리 교보문고가 있는 데까지 나가서 책을 샀다. 그녀는 요즘도 가끔씩은 아이들을 말려본다. 남편이 했던 말을 아이들에게 반복했다. 그러다가도 그런 만류가 소용없음을 알고 그만두곤 했다.

통장 일을 보는 것은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졌다. 아니 어쩌면 세상 인심이 달라졌는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시어머니처럼 주민들을 위해 통장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자네 어머니는 다 해 주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냐면 따지기도 했다.

“저도 동네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쫓아가서 해보고 이래야 하는데. 옛날하고 틀린 게 옛날하면 어려우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눈에 보였잖아요. 확실하고. 근데 지금은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렵다고 그래서 서류 뒤에서 까보면 다 돈이 나오고, 참 이게 옛날에 어머님처럼 보여서 도와드렸으면 행복한 건데. 어렵다고 그래서 도와드릴려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면 아닌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던 시절에는 뭐든지 분명하게 보였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과 별을 받아야 할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때였다. 목표를 딱 정하고 그것만 보고 나가면 전혀 어긋남이 없던 낭만적인 시대였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모든 것이 불분명해져 버렸다. 그녀는 얼마 전 뇌경색으로 남편이 쓰러진 50대 부부를 상담하고 온 일이 있었다.

그들은 50대 부부였고, 종교 활동을 하느라 경제적 수입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비조차 감당 안 되는 처지가 되자 도움을 요청해 왔다.

“실지로 그 집에 가서 상담을 했었는데 오십 대면 충분히 경제적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오십대 전후반 이예요 부부가. 진짜 노동현장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설거지를 해도 되고 동네 노인들 마냥 하다못해 종이를 주서서라도 내가 먹고 살 의지를 보인다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면 진짜 뭐 내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

드릴 수 있겠지만, 두 분 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느라고 수입이 없다면 그런 부분까지 도움을 달라면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생계를 남한테 의지한다고 그러려는 잘못된 거잖아요.”

아프고 병들어 쓰러진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면담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자세히 일러드렸지만,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골목 어귀에서 마주친 구부정한 모습의 박스 줍는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면서 어느 쪽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지 되묻고 있었다.

12

언젠가는 동장이 그녀에게 왜 통장에 지원했는지 물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두 가지 대답을 했다. 하나는 동네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 다른 하나는 아이들 학자금 보조 받고 싶은 마음.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는 학자금 보조를 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컸다. 그런데 통장 일을 시작하고 나서 동네에 관심이 많아졌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재미도 있었다.

“학자금 지원받으니까 그것도 좋고, 동네 일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가까이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하시거든요. 가끔은 회의할 때, 그러다 보면 재개발이 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뭔지, 내가 주부로만 있었더라면 전혀 몰랐을 단어들. 그런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기회. 내가 모르는 방면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아무튼 신기하기도 하고, 배울 것도 많고, 동네에 대해서 조금씩 눈이 떠지는 거죠.”

그녀가 맡고 있는 통에는 이주민 다문화가정이 예닐곱 집이고, 그 중에는 필리핀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는데, 필리핀 사람은 태평동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방송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태평동 이주민들은 안정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이 1년 사이에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일주일만 지나서 발견되었고, 한 분은 불이 났는데 한참 동안 가족을 찾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 이렇듯 가정주부로만 지냈다면 소상히 알 수 없는 동네 소식들을 접하면서 그녀는 사람 사는 세상의 이모저모를 생각하곤 했다.

13

어느 집이나 그렇듯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된다. 십중팔구 부모의 성화나 바람은 아이들이 찾아낸 길과는 다른 경우가 많았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부모들은 아이들의 독자적인 인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아이들을 놓지 못하는 소수의 부모들도 있지만 그들의 자녀가 반드시 성공시대를 구가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99%의 아이들은 평범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필부필부로 한 평생을 살아갔다.

그녀는 큰딸에게는 서예를 가르치고 싶었고, 또 둘째에게는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싶었다. 그리고 막내에게는 로봇학원을 추천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큰딸은 중앙시장에 있던 서예학원을 다니도록 했다. 집에서 중앙시장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어서 처음에는 데리고 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혼자서도 다닐만 해졌을 때 학원이 없어졌다. 그래서 큰딸은 시원한 마음으로 그만둘 수 있었다. 둘째는 욕심도 많고 도전적인 성격이라서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애가 유치원에서 바이올린을 잠깐 배운 건데, 그럼 너는 죽어도 바이올린을 배워라. 제가 좀 고집이 있어요.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그것도 또 인제 중학교 가면서 호지부지 되고, 지금 이제 가끔 어디서 연주해야 된다

하면 그냥 기본 가지고 해주는 정도 되고.”

막내 아이도 그녀의 뜻대로 로봇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역시 오래 가지는 못했다. 그 후로 그녀는 가끔씩 서점에 동행하여 읽고 싶은 책을 사주는 정도에서 아이들에 대한 욕심을 멈추었다. 필부필부로 살아가더라도 한 평생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4

그녀가 생각하기에, 세상 살아가는 데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성격이었다.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은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했다. 자신이 현재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의 좋은 성격 덕분이었다. 그녀는 좋은 성격을 가지려면, 책을 많이 보고 친구들과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해라는 소리보다는 일반 사회적인 면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좀 더 행동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친구들과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많이 터득하는 게 사회에 나왔을 때 성공 확률이. 사회에 나왔을 때 다 1등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1등하면 물론 좋겠지만 끝까지 안하고 진짜 건강하고 일단 성격이 좋아야 된다.”

아이들은 학원 공부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큰딸은 학원기피증이 있지 않나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다. 아이들에게 공부 많이 하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실제로 주위를 돌아보면 공부를 잘 하거나 못 하거나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영업을 하다 보면 학원비로 70만원 나가요. 그래서 보험 들게 없어요. 이런 애

기하시거든요. 동네도 그렇고. 많이들 그래요. 보통은 30만 원 선에서 50만 원 선으로 보내는 걸로 알아요. 저희는 학원비로는 거의 안 나가죠. 10만원도 채 안 나가죠.”

둘째 아이는 학원 대신 공부방을 다녔다. 공부방은 아이 친구의 엄마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 부족하니까 아이를 보내 달라고 해서 다니기 시작했다. 둘째가 벌써 고1이니까 5년이 된 셈이다. 그곳에서 아이는 오히려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래서 막내도 같은 공부방에 보내기 시작했다.

15

공부방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았다. 태평동 부모들도 공부방보다는 학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웃 사는 엄마들도 그랬고, 동네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 사람들은 대개 공부방을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는, 조금은 지저분하고 어수선했던 장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는 돈을 지불하고 배우는 학원보다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덜 쏟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도 하였다.

공부방에서는 학습 뿐만 아니라 고구마를 캐러 가거나 어려운 노인들한테 빵을 전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큰 아이들은 동생들의 간식도 챙겼다. 그런 수업 과정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특히 마음에 들었다. 중1이 된 막내는 막내가 아닌 형과 오빠의 역할을 그곳에서 체험했다. 그러면서 성격도 좋아졌다.

“우리 막내는 막내로 컸으니깐 다 얻어만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1이니까 초등

학생들은 동생이잖아요. 그럼 동생을 돌봐야 하는 그런 과정도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캠프를 가요. 공부방에서 캠프를 가면 거기서 인제 중학생끼리 이렇게 아니고 초등학생부터 유치원부터 짝 학년 별로 조에다 넣는 그런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서로 돌봐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우잖아요.”

태평동에는 그런 비슷한 공부방이 몇 개가 있었다. 하지만 모든 곳이 아이들에게 열정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부방은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기도 했고, 또 아이들 수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비를 타내는 데만 신경 쓰는 곳도 있었다.

16

그녀는 태평동에서 굴곡 없이 살아왔다. 태평동이 살기에 불편한 동네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었다. 그녀에게 태평동은 그야말로 태평한 동네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태평동하면 낙후된 동네, 언덕배기 정도를 먼저 떠올렸다. 그러면 그녀는 그들에게 그냥, 겨울에는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하늘 아래 첫 동네가 태평동이라고 소개하고 만다.

“실제로 고객을 만나서 주소를 써주세요. 분당 분이었거든요. 분당시라고 쓰는 거예요, 성남을 빼고. 성남시 분당구를 써야 되는데 분당시하고 동을 쓰더라구요. 그래서 참 난감한 적도 있었어요. 태평동 분도 마찬가지로 자부심이 있는 분 없는 분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태평동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성남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태평동 말 그대로 태평하잖아요.”

아이들에게 태평동은 좀 다르게 비쳤다. 태평고 다니는 큰 딸도, 이매고 다니는 둘째 딸도 가끔씩 태평동을 뜨자고 졸랐다. 학교가 멀기도 하지만 그것이 해야 할

주된 이유는 아니었다. 딸들은 태평동 어른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어르신들이 낮에, 아니면 저녁 때 동네 어귀에서 모여서 여름이면 시원한 천막 같은 해놓고 음식도 나눠드시고 술도 한 잔씩 하시고, 어르신들이 특별히 일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싫은 거예요 아이들은. 시끄럽고, 무슨 대낮부터 술이야 이런 얘기. 그런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비친 태평동 어른들은 특별한 직업 없이 60대를 살아가는 추레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언제나 골목을 점령하고 앉아서 부침개를 만들고 술을 먹다가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아는 척을 하는, 별로 신통한 것들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여기서 독자 여러분들은 곧바로 이런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생각 있는 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터이니. 태평동 아이들이 싫어하는 태평동 어른들의 골목에서의 일상, 기실은 그런 모습이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생활문화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나와 골목에서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생활문화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아이들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을 가진 독자 제위는 연락 바란다.

17

사실 사람 사는 맛이 느껴지는 생활문화공동체를 느껴보고 싶다면, 그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다. 그녀의 나이 마흔 남짓이니까, 40여 년이 흐른 것이다.

아이는 명절이 되면 좋았다. 동네에서도 맨 꼭대기가 아이의 집이었다. 거기서 내려다보면 동네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한 눈에 보였다. 저녁 무렵이면 아이는 누가 동네로 들어서는지 한참씩 내려다 보곤 했다. 그러나 동네 어른 밋이 지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동네 어귀에서는 아무런 신통한 일도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달랐다. 동네 어귀에는 손님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고모도 나타났다, 작은 아버지도 나타났다, 객지 가서 직장 다니던 큰 오빠 큰 언니도 나타났다. 아이의 집도 뒷집도 옆집도, 동네 전체가 손님들로 가득 찬 느낌이었다. 어머니는 떡틀에서 떡을 찌어내 앞뒷집으로 돌렸다.

아이의 집은 화전을 가꾸었다. 그곳에 주로 옥수수를 심었다. 엄마는 밭일 하러 나갈 때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이불 속에 묻고 갔다. 그릇 속에는 흰 쌀밥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아이에 대한 엄마의 미안함이었다.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쌀밥을 따로 조금 해서 이걸 먹으라 그러고 가세요. 그러면 저는 좁쌀밥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은 뒷집에서는 늘상 좁쌀을 농사를 해서 좁쌀밥을 많이 해요. 그럼 그 뒷집에 있는 오빠들이, 그 집은 쌀이 귀하고 저희는 좁쌀이 귀하니까. 인제 엄마 아버지 다 나간 거 알면 내려와서 쌀밥 하고 좁쌀밥 하고 바꿔 먹기도 하고.”

그녀는 가족들, 동네 어른들, 이웃집 언니 오빠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지내던 어린 시절이 그리웠다. 논두렁을 휩쓸고 다니며 개구리 잡아 먹던 시골이 좋았다. 그녀가 시집을 무렵까지는 태평동도 그런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고향 마을을 내려가 봐도 그런 분위기가 싹 가시고 없다.

그녀가 어렸을 때는 한 솥단지 가득 찼서 이웃과 나눠먹던 옥수수가 이제는 내다 파는 상품이 되었다. 학교 운동회 때가 돌아오면 아이들은 밤늦도록 한 달 이상씩 고전무용 연습을 했고, 어른들은 그것을 마을 잔치처럼 즐겼다. 결혼식이 있을 때면 마을 아줌마들이 다같이 모여 음식을 만들었다. 부침개를 담당한 아줌마의 아이는 그날 운이 좋은 아이였다.

음력 10월이 되면 시제를 지냈다. 시제 무렵이면 폭설이 내려 온산이 하얗게 변했다. 그런데도 동네 아이들은 시제 음식을 얻어먹으러 눈밭을 뚫고 다녔다.

“시제 지낸다고 산소가 짹 있으면 그 집안에서 와 가꼬 제 지내잖아요. 지금은 11월 달 눈 많이 오는 거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시제 무렵만 되면 진짜 폭설이 내렸었어요. 그런 눈이 무릎까지 오고 그래도 시제 지내면, 그때 그 당시에 어른들이 한복 하얀 거 이렇게 차려입고 고향 오륙십 명씩 와서 시제 지내고 이런 거. 동네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온 동네 애들이 그 주변에서 그거 얻어먹으러.”

요즘 아이들은 시제가 뭔지 알까? 겨울철이면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동네 이장 집으로, 엄마하고 얘기하고 아빠하고 줄줄이 밤길을 가던 정경을 이해할까? 문 활짝 열어놓고,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까?

시골 동네에서 작은 오빠는 재주 많고 똑똑한 학생이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은 애를 시골에 두지 말고 도시로 보내라고 했다. 춘천으로 나와 중학교를 다니던 오빠는 엉뚱한 일로 가출을 하였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녀의 형제들은 모두 검정

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된다.

“춘천 와서 왔는데 공부를 잘하면 옛날에는 장학금을 주잖아요. 학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풍수재해가 난 거예요 강원도에. 풍수재해가 심하게 난 사람들은 학자금을 또 면제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럼 두 개가 겹치잖아요. 오빠 생각에는 아 이거를 하나는 학교에서 면제고 하나는 장학금이니까 하나는 자기 줄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두 개가 겹치면 어찌했거나 학자금 면제인지지 돈을 주는 게 아니다. 그 래 가고 오빠가 가출을 한 거예요. 학교에 인제 반항을 한 거죠.”

오빠는 가출 후 청량리 경찰서에서 구두를 닦았다. 그녀는 집없는 아이들이 경찰서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도록 돌봐주는 무슨 제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잊어 먹었다. 어쨌든 오빠는 그러면서 검정고시를 통해 2년 만에 대학을 진학하였다. 그때 오빠가 그녀에게 검정고시를 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며 그 방법을 권유했다.

그녀는 오빠의 권유에 따라 중학교 졸업 후, 오빠가 다니던 고대 근처에 와서 자취를 하면서 신설동에 있던 입시학원을 다녔다. 친구들이 여고시절을 즐길 때, 그녀는 수도학원과 대성학원에서 검정고시와 대학입시를 준비했다. 공부를 못하고 일찍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던 언니도 나중에 학원을 다니며 검정고시를 함으로써 그녀의 3형제는, 큰 오빠만을 빼고, 모두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엄마의 이력을 보면서 자기도 검정고시를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오곤 했다. 그러면 그녀는 딸들에게, 여고시절은 그 자체로서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때 당시에는 급한 마음에. 저 어릴 때는 빨리 빨리. 결혼도 20대에 빨리 해서

빨리 애도 놓고 빨리 사회생활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좀 늦은 거죠. 스물다섯에 했으니까. 스물다섯 전에 결혼해서 애기 낳 놓고 뭐를 해도 그때 가서 해야지. 어중간하게 애기를 나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또 뒤에 심취해 있다가 결혼해서 애기를 나면 또 맥이 끊길 거고. 그런 맥락에서 검정고시를 한 거고.”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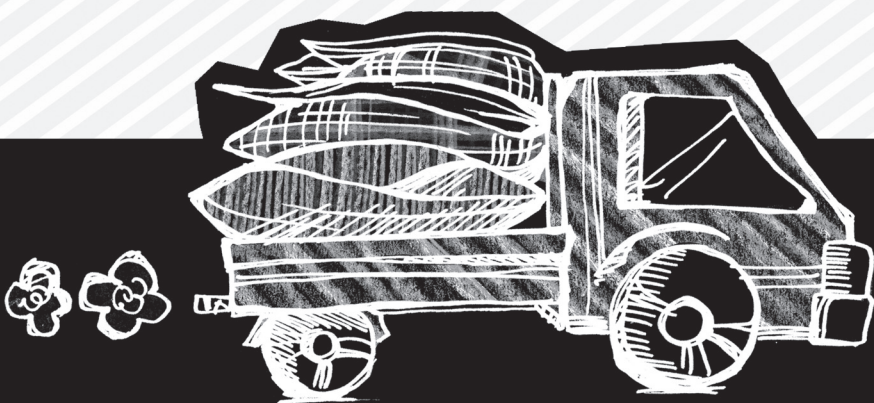
어려서부터 그녀는, 결혼도 육아도 빨리 빨리 해치운 후에 자신만의 일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고교 3년 과정을 단축시키려고 검정고시를 선택하기도 했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의 간섭을 받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에 빠져들 수 있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도 그런 생각의 연장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라든지 실지로 글을 써 본다든지 그림을 그려 본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어찌다가 애들이 11시 12시에 들어오잖아요. 때마침 제가 일찍 집에 들어가는 날이 있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집에 나 혼자만의 공간이고 시간일 때가 가끔씩 그런 시간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연락 안됐던 사람 연락도 할 수 있고, 그냥 글이 한 줄이 됐던 두 줄이 됐던 책이라도 들춰 볼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되게 좋아요.”

한번은 SBS ‘행복찾기’라는 프로에 글을 보냈는데 당첨이 되어 방송국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 경험은 행복했다. 그래서 그녀는 요즘 자신만의 책을 만들어보는 꿈을 꾸다. 그래서 카페에 사소한 일상의 글을 써 모으기도 하고, 영업일기 같은 것을 쓰기도 한다.

옥수수를 나누는 통장

태평동 준규씨 이야기





옥수수를 나누는 통장

...

태평동 준규씨 이야기

1

통장은 강원도 횡성이 고향이었다. 고향 마을에는 작은 강이 흘렀다. 마을 아이들은 강에서 수영하고 고기도 잡으며 자랐다. 요즘 들어서 통장은 좀 더 나이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횡성은 한우가 유명하니 한우를 키워도 좋겠고, 굳이 한우가 아니라도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았다. 물론 태평동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쉽겠지만, 시골의 삶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가 고향을 떠난 것은, 10대 중반이었던 1972년 무렵이었다. 형은 강원도에서 춘천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통장은 서울로 올라와 배명중학교를 다녔다. 시골아이가 대학교도 아니고 중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데는 뭔가 사연이 있을 법도 했다. 더구나 형이 학교를 다니고 있던 가까운 춘천을 건너뛰어 서울로 직행했다는 데서는 뭔가 사연이 없을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 궁금증은 그냥 독자들의 상상력에 맡기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는 주인공에 관한 비밀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알아내지 못하면 불안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아무튼 통장은 학창시절의 과거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나마 통장이 약간의 속내를 비친 것은, 학창시절 자신의 무절제한 생활, 그리고 부모님

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것이 마음 깊은 곳에 혼재되어 있다가,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순간 뭔지 모를 거부감이 뇌파에 전달된다는 정도였다.

2

통장은 원래는 착한 학생이었다. 공부도 잘 하고 말썽도 안 부리는 학생이었다. 그렇지만 노는 것을 좋아하여, 이른바 끼 많은 문제 학생이 될 유전인자를 다분히 지니고 있는 학생이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언제부턴가는 친구를 잘못 만나 놀이에 대한 끼가 한꺼번에 발동하는 바람에 크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시골서 올라오는 학비는 그의 유전인자를 발동시키는 촉매제였다. 학비는 친구들에게 베풀면서 놀고먹는 데 주로 쓰였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끼가 상당히 많았나 봐요. 노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님이 시골서 어렵사리 어렵게 시골에서 돈을 부쳐오면 저는 그걸 가지고 학비를 내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학원이 있었습니까. 학원 간다고 거짓말시켜 놓고 학원을 간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떡볶이 사먹고, 70년대에 떡볶이하고 오뎅, 튀김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그런 거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놀다 보니까 그 뭐야 수업료를 못 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정신을 차린 이후로, 통장은 그때의 친구들에 대해서 딱 두 번을 빼고는, 단 한 차례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 그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자체가 너무 싫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만 차올랐다. 수업료를 이미 부쳤는데, 학교에서 또다시 날아온 수업료 통지서를 받아 보고 부모님은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통장은 자식을 낳아본 이후에야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 시절로 돌아가면 그런 짓은 절대로 안 하겠지만, 돌아갈 수 없어서 이미 떠나버린 부모님을 다시 돌이킬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

었다.

3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통장은 오리엔트 시계회사에 다니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울 성수동에 있던 회사였는데, 1977년 무렵에 성남 상대원에 새 공장을 완공했다. 남부경찰서 요즘으로 말하면 중원경찰서 옆 자리였다. 오리엔트 시계가 상대원으로 확장해 갈 때 이야기는, 은행동 안일준 씨의 <가장 평범한 가장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독자 제위는 기억하기 바란다.

상대원 공장에 근무할 때, 통장은 한참을 서울 암사동에서 살았다. 당시에 그는 아침 6시면 출근하고 밤 10시가 넘어야 퇴근했다. 아침 점심은 물론이고 저녁까지 회사에서 해결하면서 일에 매진하는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다. 수출전선이라는 애국적 용어를 기억한다면 당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까지는 공유하는 셈이다. 출퇴근 길도 고단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집 근처에서 올라탄 버스는 잠실에서 갈아타야 했다. 그때 잠실은 롯데월드가 아니라 모래밭과 호박밭으로 싸여 있었다. 그렇지만 통장은 전선에 선 병사처럼 쉬지 않았다. 떡볶이와 튀김의 시절은 잊은 지 오래였다.

“오리엔트에 다닐 때도 제가 젊은 청년으로서 일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닌 게 아니라 산업수출전선에서 그 참 일할 때고 그랬는데, 회사 다닐 때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때는 제가 떡볶이 시절 지났고, 이제 후회한 거지. 그 때부터는 돈 벌어야겠다. 돈 써봐야 별 볼일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

통장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부터 더 이상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전선의 일이 바빠 쓸 시간도 많지 않았다. 대신 재형저축을 들어 차근차근 목돈을 모아 나갔다. 가락아파트 14평짜리는 320만원에 분양받아 아마도 천만 원에 되팔았던 것 같다.

떡볶이 시절 이후로, 통장은 돈 버는 기계처럼 일했고, 그래서 결혼 전까지 집 두 채를 소유하게 되었다.

4

통장은 사람들을 좋아했고, 그래서 퍼주기를 좋아했다. 옥수수철이 되면 통장은 매년 고향 횡성으로 갔다. 그리고 찰옥수수를 한 차 가득 싣고 돌아왔다. 가져온 찰옥수수는 이웃들에게 10개나 20개씩 돌렸다. 그렇게 50여 집에 옥수수를 돌린 지 십수 년이 되었다.

태평4동에 사비를 들여 우체통 300개를 설치한 것은 주변 사람들도 잘 아는 사실이었다. 예전에는 교회나 학원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는 우체통을 그냥 설치해 주었다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 우체통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사비를 들여 직접 설치해야 했다. 태평동은 특히 재개발 예정지역이라서 우체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태평4동에 우체함이 300개 되는데, 그것도 300개면 하나에 지금 만 원씩 갈 텐데 한 3백만 원이죠. 그것도 제가 전에 다 해놨어요. 7년 8년 전에. 개인 사비로 다 했어요. 지금도 보면 재개발이다 막 이력하고 그러는데 우체통이 저 웃동네는 형편없어요. 그래서 에~ 그거를 제가 다 해주고,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달았어요.”

이런 걸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태평동 부자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그가 총 각 시절부터, 남들은 월세방도 없던 판국에, 집을 두 채나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던 사람들은 그를 엄청난 알부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달랐다. 퍼주기 좋아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그가 부자가 될 가능성은 애당초 한쪽이 가로막혀 있었

다고 할 수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할 거냐고 물었다. 자율방범대를 만들어 독거노인들을 돌보던 은행동의 방범대장도 똑같은 질문을 받은 사실을 독자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 봉사에 대해 한번쯤 비틀어 본 후에야 순수함을 인정해 주는, 그래서 성숙이 더 필요한 사회였다. 어쨌든 봉사활동과 정치를 연결시키고야 마는 의식의 낙후성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통장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통장은 한국 사회가 지닌 의식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있는 셈이었다.

5

형성 어머니는 손이 큰 분이였다. 동네 사람들은 어머니가 인심이 넉넉하고 통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큰일이나 잔치가 있으면 시골마을 백여 세대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배불리 먹는 것은 물론이고, 돌아가는 손님들 손에는 작은 음식 꾸러미 하나씩이 들려 있기 예사였다.

통장은 어머니의 통 큰 성격을 그대로 빼닮았다. 상대원의 원다방에서 맞선을 보고 결혼했던 아내가 아무리 단속하려 해도 어찌 할 수 없었다. 한번은 시골에서 묵은쌀이 반 가마 넘게 남은 적이 있었다. 통장은 그것으로 떡을 만들 생각을 했다.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냥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떡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1970년대 상대원의 젊은이들이 원다방 앞을 지나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그곳으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겠다고 하는 무계획성과 같았다.

“그걸 떡을 해가지고 그냥 그걸 누굴 줄라 그런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해버렸어요.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 동네에다, 옆에 사람들 할머니도 주고 옆집도 주

고. 주다보니까 반 가마니가 모잘라요. 반 가마닐 또 했어요. 그래 한 가마니예요. 무지하게 많죠. 그래 돈이 얼마나 한 가마니 하는데. 그 때가 20만 원 들어갔나 그 래. 딱값만.”

떡 반 가마니를 생각 없이 돌리다 보니까, 자신이 먹을 것도 안 남았다. 더구나 반드시 떡을 돌렸어야 할 곳은 정작 빠진 곳도 있었다. 그렇게 되자 통장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면 몰라도 못 받은 사람은 서운할 것이었다. 그래서 통장은 떡을 더 해서 더 나눴다. 그리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졌다.

6

태평4동 동장의 첫째 아이는 이름이 제니퍼였다. 둘째는 아이작, 셋째는 존이다. 아이들이 자란 후에 맞이할 글로벌한 세상을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들이었다. 아 이들 이름만큼이나 파격적인 생각과 행정 스타일로, 그는 동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런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던 그에게 해결사라는 별명을 붙여 준 적이 있었다.

태평4동에는 돌봐야 할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동장은 연말이 되거나, 추석 혹은 설이 되면 고민이 많아졌다. 성금이 많이 걷혀야 어려운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진 이후로는 성금이 잘 걷히지 않았다. 그러면 동장은 마음이 무겁고 불행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통장이 나타나서 동장을 도와주 었다. 그리고 보니 통장은 동화 속에서 주인공을 돕는 우렁각시였고, 램프 속 거인 이었다.

“민예충 부장도 고민하더라구요. 이사해야 되는데, 돈은 없지. 못가는 거예요. 그 래서 제가 노인회장님한테 얘길 했어요. 회장님 노인정이 건물이 남죠. 거기 민예 충에서 신문기자하고 거기에다 영상반하고 좀 뭘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빌

려주십시오. 제가 아주 대놓고 그랬어요. 전기세 드릴 테니까. 그리구 지금 거기를 아주 장판도 깔고 도배도 하고 사무실을 아주 번듯하게 해놨어요.”

한울신문은 어린이 기자들이 만드는 태평4동 월간신문이었다. 그런데 기존에 들어있던 사무실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오갈 데 없는 딱한 상황에 처했다. 그것을 듣고 통장은 노인정의 남은 공간을 어린이 기자단에게 새로운 작업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선했 주었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것을 퍼주면서 쌓아온 그의 내공이 이런 식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데에, 통장은 즐거웠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이용해 먹으려 들었다. 그를 통하면 동네 일이 다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7

오리엔트 시계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미 총각 때 집을 두 채나 샀다는 이야기는 이미 언급했다. 그만큼 통장은 열심히 일했다. 덕분에 통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반장으로 발탁되는 영광을 누렸다. 일종의 현장 관리자 대우를 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한참 뒤, 1987년 6.29선언 무렵에, 그 일이 일어났다. 미리 얘기하지만, 파업이나 데모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고 싶지 않은 독자들은 이번 장의 나머지와의 그 다음 장까지를 건너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은 이것저것 사소한 역사적 사건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쓴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6.29 때 동시다발 데모한다. 성남시노조위원장들은 이미 회의를 했어요 비밀리에. 난 그 정보를 알고 있죠. 아침에 내가 조회를, 내가 그 때 반장이었잖아, 한 과에 350명을 다 모았다구요. 다 모아놓고 얘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는데, 한쪽에

서 징 치고 와~ 소릴 한 거예요. 한 바퀴 돌 때 한 30명이 돌더라구. 노랴 부르면서 한 바퀴 50명, 한 바퀴에 100명. 회사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세 바퀴 도니까 금방 한 천 명 돼. 당시 오리엔트 인원이 한 3천8백 명 됐어요. 관리자가 7백 명. 한 3천 명 정도가 노조원이라 보면 돼요. 근데 3천명이 거의 100프로야. 거의 다 도는데. 깜짝 놀란 거죠.”

노조원들이 점령하고 있는 회사는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파업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최소한 이삼 개월은 파업이 계속될 판이었다. 그런데 평소 사람을 좋아했던 통장은 노조집행부와도 친했기 때문에 그런 파업정보를 회사 관리자들 중에서는 제일 빨리, 제일 정확하게 주워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파업은 그 후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파업이 계속되는 동안, 통장은 금광동에 30평 땅을 사서 새집을 지었다. 살던 집이 많이 낡았던 터라 언제라도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오던 차에 뜻밖에 시간을 얻은 것이었다. 정원이 있는 깔끔한 집이 완성되어 입주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고, 그즈음에 회사의 파업도 마무리가 되었다.

8

파업 기간 중에 통장은 회사 관리자와 파업집행부를 연결하는 메신저였다. 소위 중개연락병 같은 임무를 띠고, 통장은 출입이 봉쇄된 회사로 한 발작 한 발작 들어갔다. 그때 키 2미터 되는 친구가 형님하고 달려왔다. 평소 내가 여러 가지로 돌봐주던 동생 같은 이였다. 그는 경호원처럼 통장을 감싸고 노조집행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7월과 8월의 파업현장은 더위에 녹아내렸다. 노조원들은 한 여름 내내 샤워는 고사하고 물 한 바가지 속시원하게 끼얹어 보지 못한 상태로 지쳐 있었다.

“얼마나 더웠습니까. 샤워장 목욕도 못해. 그래 나는 쭈쭈바 있잖아요. 그 때 30원인가 50원일 거예요. 그걸 한 뭉테기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노조의 집행부들이 최고로 좋아해. 거기에 다른 사람은 들어가질 못해. 거짓말이 아니라. 아유 이사들 가면 개들한테 맞아 죽어요.”

연락병 임무를 띠고 회사로 들어간 부장 몇몇은 실제로 팔이 비틀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채 나와서 인하병원에 입원하였다. 하지만 통장은 괜찮았고,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쭈쭈바를 사들고 회사로 들어갔다.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직장사수대가 필요로 하는 파업현장에 대한 정보들, 즉 화염병 보관 장소, 노조원들의 배치상황과 동태 등을 파악하여야 했다. 여러 경로로 정보가 파악되고 보고되었지만, 통장이 가져온 따끈한 정보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났다. 실제로 어떤 이는 급한 마음에 거짓 정보를 보고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통장이 온통 정보원 임무만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외부와 차단되어,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파업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이 몹시도 안타까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별 거 아니지만 시원한 쭈쭈바라도 한 개씩 먹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어느 쪽 비중이 컸냐고 물으면, 통장은 정보원으로서의 임무보다는 뒤편이 자기의 진실에 가깝다고 말했다.

9

통장은 한때 10시만 되면 태평동 일대를 한 바퀴씩 돌았다.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서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살피고 싶었다. 보통 때는 영장산 입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가끔씩은 영장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 주민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서너 시간이 금방 흘렀다. 그러니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 모르는 일이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통장이 동네에 대해 모르

는 것이 없다고 빠꿈이라 불렀다. 통장은 오리엔트 시계회사에서도 빠꿈이라고 불렀다. 아무도 못 찾는 공구의 위치를 그는 쉽게 찾아오곤 했기 때문이었다.

“성남 지역 언덕이 진짜 가파라요. 아마 대한민국 도시로 성남시처럼 이렇게 구성된 데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오면 운전하기가 겨울이 되면 엄청 어렵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 저는 저녁 때도 보면 내가 밥만 먹으면, 돌면, 소화가 다 돼요.”

70년대 초반 태평동 일대는 개발이 막 시작되기 시작한 민둥산이었다. 중간 중간 공터도 많았고 군데 군데 천막도 많았다. 교회들도 돈이 없어 천막교회였다. 태평동 일대는 전체적으로 황량한 모습이었다. 시청 앞으로 개천이 흘렀다. 폭이 2미터 되는 실개천에 물이 흐르고 그 양쪽으로 차가 다녔다. 서울 나가는 차는 우측으로, 들어오는 차는 좌측으로, 일방통행 길이었다. 개천으로는 주변 포장마차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흘러들었다. 냄새가 지독하던 시절이었다. 동춘서커스단이 들어와 시청 옆 빈터에서 한참을 공연하기도 했다.

그 후 개천이 복개되어 도로로 변했고, 시청 앞은 성남의 중심상권이 되었다. 통장은 회사 파업 때 지었던 금광동 집을 팔고 태평동으로 이사를 했다. 상대원에서 금광동으로 옮겼다가 다시 성남의 요지 태평동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10

상대원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 사람들은 태평동 사람들이 굉장한 부자라고 생각했다. 물론 요즘 들어서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분당이 들어선 이후로, 그런 생각은 실제에 부합되지 않았다. 부자들은 이미 분당으로 옮겨앉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이면 시청

앞 도로에는 사람이 넘쳐났다.

“크리스마스 때 연말 되면 시청 앞에 가면요 사람이 많아 부딪쳐 가지고 다니질 못해. 거짓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 그 당시 여긴 먹을 장소도 많고, 모든 노래 그 뭐 노는 장소가 전부 여기 다 밀집돼 있걸랑요. 그러니깐 모여서 젊은 애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장소들이 시청 이하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 있단 말이에요. 옷 살래도 전부 여기 다 있어요 그 당시에, 여기 또 한림백화점, 지금 E마트 들어 온 자리에 한림백화점이 있었걸랑요.”

서울 사람들이 강남으로 몰려가듯이, 성남 사람들은 시청 근처를 선호했다. 부자들이 사는 태평동을 선망했다. 통장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래서 태평동으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분당이 생기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부터 다른 곳이었다. 근본적으로 모든 수준이 태평동과는 달랐다. 그곳은 의료보험료를 제일 많이 내는 지역이었다. 연예인도 많이 살았고, 병원도 많고 백화점도 많았다. 태평동 사람 중에도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그쪽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몰라 여기서 생활수준이 낮고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안 살어. 불편하니까 다 분당 가서 살아. 그러니까 여기 원주민 태평4동의 원주민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분당으로 빠져어요. 진짜 돈이 없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남아 있는데.”

성남의 구시가지는 분당이 있어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분당에서

아파트 경비나 빌딩 미화원, 파출부는 구시가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도배나 잡 일을 맡는 사람들도 모두 구시가지 사람이었다. 새벽 다섯 시가 되면, 태평동에서도, 시내버스들이 사람들을 가득 싣고 출발하였다. 모두 분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아파트 경비 파출부 있죠. 다 구시가지 사람이예요. 수백 명이야. 태평역 옆 교회 가면 분당 가서 파출부하는 거기 집사들이 백 한 몇 명 돼요. 분당에서도 서울 사람 안 쓴대요. 웬만하면 구시가지 사람 내에서 쓴다고. 70대 60대 사람들 전부 여기 사람들이야. 아침에 다섯 시에 여기 저기 와서 요 앞에 버스 있죠 오걸랑요 짹 짹 차요. 그거 다 뭐 하나. 분당 일하는 사람이예요.”

12

1996년에 개통된 지하철 8호선은 원래 시청 앞을 지날 예정이었다. 통장은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 시청을 들락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태평동 사람들은 지하철이 태평동을 지나는 것을 반대했다. 정확히 반대한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말할 수도 있지만, 통장은 그것을 더 자세하게 말한 적은 없었다. 그냥 태평동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 묻어 놓았다. 아무튼 지하에 땅을 파야 되는 상황에서 태평동 사람들은 지하공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엄청난 보상비를 요구했다. 그러다 보니 태평동 앞을 지나는 지하철 건설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지하에 20미터가 그 이상은 파며는 지상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돈을 받는대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달라는 거예요. 시청에 가가지고 시청

정문 유리창을 다 부숴버렸어요. 왜 여기 지하철을 내느냐. 돈 달라. 그런데 저 쪽에는 우리 돈 이거 다 필요 없다. 지하철만 해 주쇼. 그래 탄원서를 80프로의 주민 동의를 해가지고 냈어. 수진1동 2동 신흥1동 2동 3동 쪽 저쪽에다가. 그러니 결론이 뻔하잖아.”

13

태평4동에는 골목길 벽화미술관이 만들어졌다. 2006년 여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골목미술관에는 김홍도도 있고, 신윤복도 있었다. 박수근과 이중섭은 물론 샤갈, 칸딘스키도 만날 수 있었다. 처음에 성남민예총에서 한국토지공사 초록사회 만들기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작업을 시작할 때, 통장은 벽화를 설치할 골목길과 담벼락 선정을 도왔다. 그의 시원한 성격 덕분에 작업은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그 후 골목길 벽화미술관은 SBS, YTN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한번은 방송국에서 벽화미술관을 촬영한다고 새벽 다섯 시에 들이닥친 일이 있었다. 좁은 골목에는 주차된 차들이 가득했다. 방송 차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차들을 빼야 했다. 그리고 50명이나 되는 방송 스태프들이 새벽녘의 쌀쌀한 겨울바람을 피하면서 아침 식사할 공간도 필요했다.

골목이 잠에서 깨지 않은 새벽녘에, 민방위훈련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통장은 우선 노인회장에게 연락했다. 아직 기상 전이었지만, 사정을 설명하고 노인정 열쇠를 받아다가 스태프들이 잠깐 휴식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차된 차들을 빼기 시작했다.

“방송 차 4톤 5톤 되나 봐. 그 차가 오는데 밤에 차를 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열다섯 대를 내가 다 뺐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통장입니다. 아유 죄

송합니다. 밤에 화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깜짝 놀라는 거야 사람들이. 회장님이 도대체 어떻게 동네 사람들을 관리했길래 새벽 다섯 시에 전화했는데도 화내는 사람이 없단 얘데요요.”

성질이 괴팍하다고 알고 있던 한두 사람은 화를 낼만도 했다. 그런데 그들조차 화를 내지 않았다. 통장은 그것이 신기했다. 후에 얘기를 들은 민예충 황부장은 놀랍다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다른 사람들도 놀라와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통장은 동네사람들이 자신의 위신을 세워줬구나, 고마움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태평동 사람들과 정으로 통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다.

14

집이 오래되면 새로 지어야 하는 것처럼 태평동이 재개발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였다. 하지만 통장은 이대로 좀 더 살고 싶었다. 문만 열면 이웃이 보이고 또 들리는 이 동네가 좋았다. 지나가다 보면 커피 한 잔 권하고, 과일 깎아 내놓는 동네가 태평동이었다.

“저는 이 동네가 좋아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이대호가 좋은 거 같아요. 그 아까 얘기했지만 시대의 흐름이라서 이렇지마는 전 솔직히 이게 좋아요.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아침에 꽃도 피고, 옆에 보면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하는데.”

재개발이 진행되면 동네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떠나는 사람도 있고, 새로 지은 아파트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태평동은 여전히 태평동으로 불리겠지만, 동네는 흩어져 버리고 없을 것이다. 해마다 횡성 찰옥수수를 나누던 사람들, 특별한 일 없이도 떡 한 가마니 나눠먹을 수 있고, 꼭두새벽 군소리 없이 차를 빼줄 수 있던 사람들, 그들이 가졌던 일체감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것은 쉽게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통장이 태평동에 사는 20년 동안 즐기치게 노력한 결과

였고, 또 다른 태평동 사람들이 그보다 더 오랫동안 키워왔던, 무형의 자산이었다. 한 번 사라지면 되돌이키기 어려운 것이었다.

15

재개발이 시작되면 태평동 사람들은 태평동을 떠날 것이다. 통장은 요즘 들어 떠나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볼 수 있을까 걱정이다. 같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무수한 꽃잎들이 분분히 날리면서도 아름다운 장관을 형성하듯이, 태평동 사람들도 그렇게 흩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바람을 김집사의 일이 자꾸 헤집어 놓았다.

김집사는 통장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이였다. 얼마 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김집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지경에 있었고, 사채 빚도 끌어다 썼다. 통장이 이웃들에게 주선하여 1억 8천을 담보 없이 끌어다 준 덕분에 김집사는 경매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그래도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얽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상황은 아니었다. 시가가 자꾸 떨어지는 집을 5억 3천에 팔라는 사람이 나섰지만 김집사는 6억을 받기 전에는 집을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리는 사이에 집값은 4억 밑으로 빠져버렸다.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나보고 4억에 팔아주면 천만 원주겠다고 그러더라구. 나한테 집사, 친구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여.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부동산에 얘기해서, 이거 4억 팔면 천만 원 준다니까 한번 해 보라.”

그렇게 해서 김집사의 집은 4억 5백에 팔렸다. 하지만 뒷간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이 사람 마음이었다. 김집사는 주겠다고던 천만 원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법정

수수료만 내밀면서 영수증을 써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부동산에서는 그에게 대신 천만 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통장은 좋은 일 해준다고 나섰다가 낭패를 보게 되었다. 김집사는 이미 이사를 가버렸고, 통장은 천만 원 때문에 난감하고 괴로웠다.

16

김집사의 수수료 사건 때문에 통장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 만사가 싫어졌다. 고향에 갔다 오면서도 찰옥수수를 가져오지 않았다. 십수 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해오던 일을 건너뛰었다.

“교회 갔는데, 집사님 올해는 왜 옥수수 안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해마다 줬는데. 근데 제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알아. 아 그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어버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집사람이 오히려, 김집사 일은 잊어버리고, 하던 일은 계속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나섰다. 통장도 찰옥수수는 그냥 해 줄 걸 잘못했나 하는 후회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 마음이 다시 시킬 때까지 기다려볼 생각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곤 했다.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곤궁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떠나면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던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상처받게 만들고, 더 나아가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태평동이 재개발 될 때 흩어지는 동네 사람들이 분분히 날리는 꽃잎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완구 인형 만들기

태평동 진원씨 이야기





완구 인형 만들기

...

태평동 진원씨 이야기

1

고향 마을은 그녀가 일곱 살 때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다. 형제는 2남 3녀였고, 그녀는 싼둥이 막내였다. 바로 위는 여덟 살 차이 나는 오빠였다. 전기가 처음 설치되던 날 오빠는 전기가 진짜로 들어오는지 실험해 보겠다고 젓가락으로 콘센트를 푹 찌셨다가 감전되어 혼이 나기도 했다. 시골 마을은 아늑하고 편안했다.

영월 주변의 태백, 상동, 녹전, 석항 등지는 탄광촌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검은 황금으로 영월은 번성했다. 그녀의 큰 언니는 결혼해서 영월에 살았다. 중학교 2학년이던 그녀가, 언니네 집을 찾아가다가 길을 잃을 만큼 영월은 변화한 대처였다.

“그렇게 큰 도시였대니까요. 그랬었는데 폐광되면서 영월이라는 곳이 거의 막 그거 되면서 막 동네까지. 영월 시내로 인해서 주위 동네가 다 살았었는데. 거기 수력발전소도 있었지. 저쪽에 탄광촌들이 다 밀집되어 있어 가지구. 거기가 이제 소비하러 다 영월 시내로 오는 거야. 태백, 상동, 녹전, 저기 석항 막 그런 데가 다 탄광촌이었거든요. 근데 돈 쓰러는 다 영월로 나오는 거야.”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폐광이 늘어나자 영월도 시들어갔다. 그로부터 25

년이 지나면 강원도탄광문화촌이 만들어져 석탄산업이 활황이던 1960?70년대를 추억하는 문화체험 사업들이 시작되지만, 그때까지 영월과 주변 지역은 지속적으로 추락했다. 아이들은 중학교나 혹은 고등학교를 마치면 영월을 떠나 타지로 향했다.

그녀의 형제들도 대세를 따라 영월을 떠났다. 영월 읍내에 살던 큰 언니는 성남으로 이사했고, 작은 언니와 작은 오빠는 서울 성수동으로 직장을 찾아 떠났다. 그리고 그녀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서울 성수동을 거쳐, 성남 태평동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태평동에서 완구 인형을 만드는 공장에 다녔다.

2

성남에 들어온 이후 그녀는 줄곧 태평4동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서 산성동에 신혼 방을 차렸다. 산성동과 태평동은 지척이었다. 택시로는 기본요금에서 조금 더 가는 거리였고, 버스를 타면 20분 정도였다. 그런데도 그녀에게 산성동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산성동에는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남겨졌고, 낮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도 가지고 놀지 않는, 버려진 봉제인형처럼 생각되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과 아는 언니들이 많던 태평4동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의, 물론 그것이 순전히 개인적인 느낌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런 동네였다.

그녀는 산성동에 살면서 매일 태평동을 그리워했다. 택시를 타면 바로 태평동이 다. 그곳에 가면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런 유혹이 심했다. 좀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망한 나라의 유신들이 옛 왕조의 도읍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그리워했던 것이 이보다 절실할까 싶었다.

그리움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신혼 2년을 보냈지만 산성동에서는 아이마저 들어서지 않았다. 그녀는 29살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한 것이 부담스러워 아이는 가능하면 일찍 낳고 싶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였다.

“거기서 제가 애기를 빨리 가져야 돼요. 나이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산성동 살 때는 우리 큰 딸을 계속 실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그럼 한 번 이사를 해봐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싸 잘 됐다. 그리고 이제 다시 태평4동으로 그걸 빌미삼아 왔는데.”

그녀가 돌아왔을 때 태평4동은 골목이 정겹고 이웃들도 내집 같은 느낌이었다. 편안한 고향 같은 곳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기하게도 그녀는 돌아온 지 4개월 만에 큰 아이를 가졌다.

3

그녀의 고향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외릉마을 아이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보통 서울로 떠났다. 대부분 야간 고등학교 진학을 배려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서울 회사에 취직을 해 갔다. 그래도 그녀는 영월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스무살이 되어 서울로 올라왔다.

부모는 어린 딸을 서울로 보내면서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우선은 언니와 함께 생활하도록 언니 곁으로 올려보냈다. 언니는 서울 성수동에서 가구 공장에 다니고 있었다. 언니와 같이 자취를 하면서 그녀는 작은 나염회사 경리일을 맡아 하였다. 회사에 여자라곤 그녀와 도안하는 언니 하나가 전부였다.

“남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여자들은 저 하나에다가 도안하는 언니랑 둘이

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렇게 친할 수가 없죠. 남자들만 다 있고. 그래가지고 별로 정을 못 붙였어요. 근데 그 언니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언니라서 아침에 10시에 왔다가 4시쯤에도 가고 3시쯤에도 가고.”

그녀는 회사에 정을 붙일 수 없었다. 유일한 말벗이 될 수 있었던 대학생 언니는 언제나 일찍 퇴근해 버렸다. 그래도 4년이면 오래 버텼다. 언니가 결혼하면서 같이 살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고향 친구들과 선배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 성남으로 거처를 옮겼다.

4

성남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아올라온 시골 친구들이 여럿 있었다. 성수동 살 때 몇 번 놀러와 본 적이 있었다. 언니와 단 둘이 자취하던 그녀로서는 친구들끼리 모여 사는 생활이 즐거워 보였다. 같이 밥해 먹고 빨래하고, 12시가 넘도록 쏘다니는 것도 즐거워보였다.

성남으로 옮겨온 후, 그녀는 하루하루가 즐거운 생활이었다. 언니와 단둘이 심심하게 살던 성수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그녀와 친구들은 종합시장 쪽을 쏘다니며 놀았다. 밤늦도록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고 기웃거렸다. 그것만으로도 신나는 일이었다. 나이트클럽도 단골 코스였다. 일주일이면 한번 이상을 동경나이트 클럽에 들렀다. 심하다 싶을 때는 서너 번도 갔다.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동네 골목에서 야채가게를 하는 아줌마에게 빌렸다.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놀고, 나이트에 가서 일주일에 한 두 세 번. 그래가지고 지금 저 언니도 알아요. 부녀회장님. 그 분이 저기서 야채가게를 하고 계셨었어요. 우린 돈이 없잖아요. 계속 놀러 다니니까. 그 언니한

테 돈도 2만 원 빌리는 거예요. 뭐 월급 타면 주겠단 그러구.”

야채가게 아줌마는 너무 늦게 다니지 마라는 충고와 함께 돈을 빌려주었다.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아줌마였다. 한참이 지나서 만났을 때 아줌마는 동네 부녀회장을 하고 있었다. 부녀회장은 그녀를 향해, 하도 돌아치고 다니니까 시집도 못 갈 줄 알았다면서 웃곤 하였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잘 사냐 물었다.

밤마다 몰려나와 변화한 성남 중심가로 사라지는 그녀들을 사람들은 용인군단이라고 했다. 그녀들이 옆으로 나란히 벌려 서서 터벅터벅한 걸음으로 지나간 골목에는 한동안 그녀들이 쏟아놓고 간 시끄러운 잡담들이 웅성거리는 듯했다. 그들 중 한 친구는 서울로 시집가 버렸고, 다른 한 친구는 가까운 곳에 살았다. 여태 독신으로 지내지만, 독신에 대한 특별한 신념이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독신 친구는 가끔은 아이들에 대한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5

금강산업은 완구를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였다. 종업원은 50명 정도였다. 미싱사 15명에 시다가 셋이 붙었으니, 봉제반만 해도 20명에 가까웠다. 인형 모양으로 찍어낸 원단이 재단반에서 넘어오면 봉제반에서는 미싱으로 박아냈다. 그리고 완성반으로 넘겨주었다. 완성반은 주로 아줌마들이 많았는데, 인형 배속에 솜을 채워넣고 눈이나 코, 입 등을 붙였다.

완성반은 대개 동네 아줌마들이었다. 하지만 봉제반 미싱사나 시다는 대개 열아홉에서 스물을 갓 넘은 시골 여자애들이었다. 서른이 가까이 되면 반장급들이었다. 사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골로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 좋은 말로 한다면 스카우트였다. 대개 반장 언니들이 소개해 준 동네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왔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시골학교에서

정식으로 추천을 받기도 했을 것이다. 물론 아이들을 야간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되었다.

완구가 완성되면 박스 포장을 해서 컨테이너로 실어냈다. 공장 앞 한가한 차도에 박스를 깔아놓고 인형을 분류하면서 던져 넣었다.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박스 작업만 하면 컨테이너가 와가지고 그대로 수출을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충혼탑 앞에서. 옛날에는 거기가 잔디밭이었어요. 잔디밭으로 사람들 이렇게 와 가지구 인제 막 먹구, 취사도 하구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충혼탑 바로 앞에서 박스 길게 앞에다가 좌악 깔아놓으면 인형 하나씩 막 던지면서 그런 식으로 작업 해가지구 한 컨테이너 실어서 보내고.”

6

그녀는 완구공장의 시다였다. 일은 무척 힘들어도, 왔다갔다 나대면서 일하는 것이 성미에 맞았다. 그런 면에서는 가만히 앉아하는 일이나 심부름을 주로 하던 성수동 경리 시절보다는 나았다. 반장 언니들의 지시에 따라 재단된 원단을 공급하고 미싱질이 끝난 것들은 차곡차곡 정리했다. 그녀는 그렇게 일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다.

“언니들이 여기 올려 이러면은 가서 막 올려주구. 그리구 조장 언니가 두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면 일을 많이 할려면은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과 경쟁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도 많이 나오고, 우리 시다 애들도 이제 경쟁을 붙이는 거야. 잘하는 시다들은 아무래도 잘하는 쪽에서 있었는데. 더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재밌었던 거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일하고 첫 달에 칠만오천 원을 받았다. 성수동에서는 경리로 있으

면서도 육만오천 원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시다인데도 칠만오천 원을 받았다. 그때가 94년 무렵이었고, 그녀의 나이 스물 대여섯 적이었다. 참고로, 3년이 지나고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은 십오만 오천 원이었다.

“처음에 월급 받은 게 거기서 칠만오천 원 받았어요. (칠만오천 원) 예예. (94년 즈음) 예예. (칠만오천 원) 예. 그 때는 이제 내가 시다로 왔으니까 내가 정리할 때 칠만 원인가 육만 오천 원까지 받다가 여기로 오면서 시다 하는데도 그 돈을 줬어요. 근데 일은 되게 힘들었어요.”

그녀는 스스로가 월급 액수에 만족했다. 어쨌거나 성수동 때보다는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런 만족감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독자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뜻하지 않게 그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덧붙여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극히 개인적인, 만족감이라는 감정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추정해 보는 것도 무의미하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들이 양해하기 바란다.

7

완구공장을 하는 사장은 직접 시골로 가서 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리고 방을 하나씩 얻어주었다. 기숙사는 따로 없었고, 공장 근처에서 빈방을 얻어주었다. 집 한 채를 얻어서 한 방에 서너 명씩 집단으로 기거하게 하기도 했다. 그래야 통제하기가 편했다.

사실 사장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아이들은 너무나 제멋대로였다. 아이들은 한 공장에서 진득하게 일하지 못했다. 몇 개월이 멀다 하고 공장을 옮겼다. 기분 따라 결근도 쉽게 했고, 오전에는 일 잘했는데 점심 먹다가 마음이 변해 놀러가 버리기

도 했다. 사장과 반장 언니들은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든 일에 붙들어 놓아야 했다. 아이들을 합숙시키며 철저하게 사생활까지 통제하는 것은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렇다고 합숙이 아이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이었다고만 한다면 일면적인 판단이다. 합숙은 아이들에게 일종의 복지혜택이기도 했다. 또 멀리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장과 반장 언니는 아이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챙겨주는 대부와 대모이기도 했다. 간혹 뺨을 때리고 맞는 것은 대부로서 아이들을 잘 챙기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했다. 물론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녁에 우리가 그때 저 옆에 지금 충혼탑 옆에 보면 계곡처럼 물이 내려오는 데가 있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빨래를 하러 우리가 거기엘 들고 간 거예요. 한밤중에 빨래를 한 다라를 들어서 끄끄 하면서 가지고 갔는데. 또 일하는 남자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다 보니까. 그 남자애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자기 판엔 지켜준다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는 막 빨래를 하고 막 물장난 치고 노는데 사장님이 어디 갔다가 딱 오시면서 그 장면을 본 거야. 이것들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남자랑 여기서 이렇게 장난 치고 놀고 있구나. 이래 가지구 너네 빨리 올라와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만한 손으로 따귀를 때리는데 진짜 벌이 번쩍 했대니까. 그 정도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써주시고.”

8

아이들은 합숙이 즐거웠다. 특히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생활을 즐겼다. 저녁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나이에 밤 10시까지 야근을 하고 나면 장난스런 식욕이 발동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몰래몰래 회사 식당으로 기어들었다. 양은 냄비에 밥하고 김치, 그리고 고추장을 퍼 담아 나오면 됐다. 아이들은 그것으로 그날 밤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

샌드위치에 폭 빠져 지낼 때도 있었다. 그녀는 그때 샌드위치라는 것을 처음 맛보았다. 강릉에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어느 날은 문득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겠다고 빵과 계란을 사다가 그것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가 그날 먹었던 샌드위치, 그 맛의 특별함이란 오랫동안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었다.

“빵을 사다가 계란에 이렇게 해가지구 설탕을 이렇게 발라서 그걸 먹는 거야. 그래 가지구 밤마다 개가 그거를 해주는 거야. 내가 한 달만인가 두 달만인가, 10키로 정도 살을 찐 거예요. 완전 굴러다녔대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저녁마다 먹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친구도 참 착하고 좋았던 거 같아요. 누가 그 친구를 위해서 저녁마다 사다가 그렇게 계란에 부쳐 가지구 ”

얼마 후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던 친구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강릉으로 돌아가는 친구에게는 사랑의 아픔이 있었다. 원래 그녀의 남자친구는 같은 공장 완성반에서 일했다. 고향서부터 사귀던 그들은 일거리를 찾아 같이 고향을 떠서 거기까지 왔었다. 그러다 남자친구는 공장 내의 다른 선배 언니를 만났다. 친구는 그것을 모두 지켜보았다. 공장 내에서 이런 저런 소문이 커져갈 때쯤 남자친구와 선배 언니는 결혼을 발표했고, 친구는 조용히 짐을 챙겨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

9

남자친구를 잃은 친구가 조용히 떠난 이후로도 그녀의 공장 생활은 즐겁고 재미있었다. 어떤 생각도, 어떤 계획도, 어떤 목표도 없었지만, 저녁에 놀러 나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좋았다. 아니 깜깜한 방에 음악을 틀어놓고 또래 아이들이 함께 춤추고 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또 가끔은 일하기 싫을 때면, 봉자라는 친구가 동전에 석춘호수라고 적어서 마음

맞는 친구들에게 연통을 넣었다. 그럴 때면 나는 항상 연락책이 되었다. 여전히 시다를 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동전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기가 수월했다. 평소에도 그녀는 슈퍼 가서 박카스도 사오고 배고플 때면 빵과 우유를 살짝 살짝 사오는 역할을 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동전으로 연통을 받았던 친구들 대여섯 명은 멀리 잠실 석촌 호수까지 나가 그날 오후를 즐겼다. 무슨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즐거웠다. 그렇게 오후 일을 제끼고, 저녁 7시에 돌아왔을 때 반장 언니가 우리를 불렀다. 우리들은 절망에 빠져 조용히 반장 언니에게로 갔다.

“그때는 반장 언니들 사장님이 그렇게 무서웠대니까요. 선생님들보다 더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보다. 그렇게 무서웠대니까. 엄마 아빠들은 그래두 자기 자식이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자식을 죽이기야 하겠어요. 근데 사장은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야. 이렇게 식당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무조건 거기 서서 계속 거기 서있는 거예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반장 언니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결혼을 하고 난 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무서워할 일도 아닌데, 당시 사장과 반장 언니는 너무 무서운 존재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들은 다음 번에 또 석촌호수로 나갔다. 무서운 것보다는 재밌는 것이 우선이었고 더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10

그녀는 완구인형을 만들던 금강산업에서 시다로 3년을 일했다. 원래는 1년쯤 지나면 미싱을 잡는다. 점심시간에 일찍 밥을 먹고 잠깐씩 배우면, 인형에 라벨을 붙

이는 간단한 작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었다. 다른 애들은 미싱을 빨리 타겠다고 기를 쓰고 배웠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데는 통 관심이 없었다. 빨리 A급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 같은 것이 아예 없었다. 그녀는 앉아서 하는 일이 너무 싫었다.

미싱을 잡고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사는 문을 닫았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완구인형이 수익을 못 내서 망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몇 곳을 떠돌았다. 다행히 같이 일하던 A급 미싱사들에게 물어다닐 수 있었다. 통상 이쪽 업계에서는 실력 좋은 미싱사를 한꺼번에 몇 명씩 데려갈 때는 B급도 안 되는 C급 미싱사를 끼워서 데리고 가는 관행이 있었다.

“3년인가 그렇게 지나서 다른 데로 가면서, 이제 에이급이라 그러구 나를. 나는 한 달 밖에 안 되구 애네들은 사년 오년 한 애들이잖아요. 그니까 애네들이랑 물어서 나도 에이급이라 그러구 칠십만 원 월급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이 십오만 오천 원이었던가? 그러다가 칠십만 원으로 돼버린 거예요.”

칠십만 원을 받은 첫 달은 기분이 좋았다. 돈을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지내보니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생활은 여전히 재미와 유흥을 쫓았고, 일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었다. 그렇게 2년을 더 지냈지만, 남편을 만나 결혼할 무렵에 수중에는 200만 원이 전부였다. 성수동 빼고 태평동 완구 공장에서 5년을 전전한 것이 한심할 지경이었다.

11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큰 아이는 이름이 니리였다. 출산 후 심한 하혈로 몸도 마음도 모두 쇠약해져 마지막으로 절을 찾았을 때 절집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었

다. 그녀는 니리를 보면 자신의 지난날이 보였다. 아무 생각도, 계획도 없이 살아 왔던 날들이 맑은 거울처럼 들여다보였다. 그녀는 신둥이로 태어났다. 아버지 신 여섯에 태어난 막내였다.

“우리 아버지가 오십 여섯에 나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내에다가 신둥이에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큰 거예요. 아무 그거 없이 제재도 없고. 남의 집 가면은 밥 그냥 꺼내서 먹고. 그냥 당연히 내가 편하면 남들도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완구공장에서 일할 때도 그녀는 제멋대로였다. 힘들 때는 빨래를 며칠이고 밀어두었다. 그러면 친구가 보다 못하고 대신 해줬다. 그런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힘들어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자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친하게 느끼면, 그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몰랐다. 세상물정 모르기로 친다면 그녀가 단연 으뜸이었다.

신흥동 사는 할머니는 큰 아이를 만나면 언제나 만 원씩을 쥐어주었다.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든 두 번을 만나든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새로 나온 초콜릿 폰을 갖고 싶다고 했다. 그녀가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아이는 신흥동 할머니 집에 40번만 갔다 오면 된다고 천연스레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큰 아이는 어린 시절 자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12

니리의 신흥동 할머니는 빌딩 청소를 하였다. 니리의 할머니는 새벽 다섯 시가 되면 분당 가는 시내버스에 몸을 실었다. 잠깐 이 부분 읽기를 멈추고 박준규 씨의 열한 번째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6?70대의 성남 구시가지 노인

네들은 주로 분당에서 아파트 경비, 빌딩 청소, 파출부, 도배, 그 밖의 온갖 잡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너리의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온 종일 실 틈도 없이 몸을 돌려, 지저분한 화장실이며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쓸고 닦았다. 그러면 한 달에 육십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너리에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가 너리한테 주는 돈이 은행에서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힘들게 벌어야 하는 돈이라고 알려주었다. 남들은 만지기도 싫어하는 쓰레기통을 청소해서 번 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너리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너리의 아빠는 건축 현장에서 일했다. 유리나 재료의 틈새를 메우는 코킹 작업이 전문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밧줄을 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빠는 너리에게 그런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도 그녀는 너리에게 아빠가 하는 위험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너리는 이번에도 눈물을 흘렸다.

“넘버원 같은 거 무서워서 너 못 본다 그러지. 그렇게 위험한 일도 하면서 니네 아빠가 돈 벌어 오는 거라고, 근데 니가 천 원 하나래두 백 원 한 장이라도 이렇게 그냥 막 쓰면 안 된다고.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내가 요즘 그렇게 애쓰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구요. 흘리면서 애기를 하는 거야. 엄마 알겠대구. 이제 필요한 거만 꼭 사구 이제 필요 없는 건 안 사겠다”

13

그녀는 남편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 말 많고 까불기 좋아하는 그녀와는 달리, 남편은 술을 마셔도 살짝 웃기만 할 뿐 말수가 별로 없었다.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남편을 친정에 소개했다.

친정 엄마는 언제나 그녀에게, 너는 고아한테 시집가야 된다고 했다. 막내 딸 하나 늦게 낳아놓고 고아한테 시집가라고 하는 것이 무슨 경우냐고 그녀는 신경질을 내기도 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가라고 놀려대는 부모는 있어도, 고아에게 시집가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나 친정 엄마는 형제 많은 집에서 버터 내기에는 막내딸의 껌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출한 집안으로 시집보내거나, 최소한 마음의 준비라도 단단히 시키고 싶었다.

“엄마는 맨날 나한테 왜 고아한테 시집을 가라 그러는지. 너는 시부모님 모실 줄도 모르고, 너는 밥도 못 해 먹고. 이러니까 친정 쪽으로 많이 와서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엄마가 좀 보살펴 주고 언니들이 식구들이 보살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워낙 못하니까. 근데 애네 아빠가 누나 둘에다가 아들 하나 있는 장남이잖아요. 부모님들한테도 못하고 막 이럴 텐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안 된다구.”

결혼 전 시댁으로 첫 인사를 갔을 때였다. 시댁에는 작은 아버지 세 분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큰 집의 맏며느리 감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모두가 옆으로 조금씩 틀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며느리 감이 성에 안 차서 인사 받기 싫다는 표시라는 것을 한참 후에야 알았다. 그때 그것을 알았다면 니리는 태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녀 입장에서조차 처음 들른 시댁이 너무 가난하여 결혼이 망설여지는 상황이었으니까. 결혼 이후 시댁은 재산이 조금 불었다. 집도 새로 장만하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잘 들어와 집이 잘 된다고 좋아하였다.

신혼살림을 차렸던 산성동은 신축 빌라들이 많았다. 오래된 이삼층 짜리 단독주택이 많은 태평동과는 약간 다른 느낌도 들었다. 1년 된 14평 짜리 빌라는 작지만

깨끗해서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런데도 산성동은 정이 붙지 않았다. 사실 산성동에는 시댁 쪽 고모님들이나 누님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부담감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에 비해, 태평동은 편한 곳이었다. 언제든지 찾아들어가 허물없이 ‘언니 밥 좀 줘’ 할 수 있는 이들이 있었다. 언니들은 공장 다니던 아가씨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동태찌개 끓이는 방법을 알려준 것도 태평동 사는 언니들이었다.

“내가 동태찌개를 못 끓였어요. 근데 애네 아빠가 동태찌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동태찌개를 물 넣고 하얗게 끓였거든요. 난 동태찌개가 빨갛다는 거 결혼하고 알았단니까. 결혼해서 시댁 갔는데 빨갛게 끓인 거예요. 근데 나는 하얗게 밖에 끓일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언니들이 많이 도와주고, 여기 주위에 살 때, 그래서 너무 편했던 거야.”

그중에 봉란 언니라고 있었다. 봉란 언니는 완구 인형 공장의 반장 언니였다. 사촌 언니와 너무 닮은 좋은 언니였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정을 준, 그래서 늘 엄마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언니였다. 산성동에 살면서도 태평4동이 그리워지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다. 애를 낳았을 때는 미역국을 해다 주고, 애기도 씻겨주던 언니였다.

그러던 언니가 얼마 전에 태평동을 떠났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이혼을 하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 버렸다. 봉란 언니가 요즘 들어 가끔 전화를 하면, “태평동 떠나니까 너무 좋다. 너도 빨리 떠.” 하고 말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봉란 언니의 말이라도 그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럴 때면 그녀는 “태평동이 얼마나 태평하고 좋은데.” 하면서 웃었다.

그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남들처럼 2박3일 일정이었다. 그런데 첫날 밤 난데없이 태평동이 그리워졌다. 신혼여행에서 일정을 다 못 채우고 가지가지 사연으로 돌아온 부부들이 없지 않겠지만, 그녀도 신혼여행에서 중간에 돌아올 뻔했다. 순전히 태평동이 너무 그리워서. 그리고 돌아오던 날 성남이라는 이정표를 보는 순간, 그녀는 몇 년 동안 못 보던 엄마를 만난 것처럼 좋았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는 태평동이 그리워서 신혼여행을 중도 포기하고 돌아오고 싶었다는 이야기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나도 그랬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에게서 과장의 느낌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 말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도 짙은 베일 뒤에 신비스럽게 숨겨진 개인적인 신념, 진실, 그리고 감정들을 제대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덧붙여 놓는다.

사실 그녀는 여행을 다녀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요즘도 강원도 영월은 가도 다른 곳은 가지 않았다. 영월은 그녀가 태어난 곳, 친정이 있는 시골이었다. 결국 고향마을과 태평4동, 두 곳을 벗어나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셈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길치에 가깝기도 했다. 심지어 그녀는 동네 분위기도 비슷하고 거리도 가까운 상대원마저도 낯설게 느꼈다.

“여기 태평4동 밖에 몰라요. 다른 동네 가면 차비 없으면 나 갈 못 찾아온다니까요. 상대원 가면 차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나 못 찾아온다니까요. (상대원) 가봤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분위기는) 비슷한데두 이상하게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좀 특별한 거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태평동 쪽이)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녀의 남편은 일찍부터 태평동에서 살았다. 집이 거의 없던 시절에 남편은 산 밑에서 불장난을 하면서 놀았다고 했다. 남편은 가난하던 시절을 뚜렷이 기억하였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태평동을 좋아하지 않았다.

“태평동은 이쪽 동네는 못사는 사람 많다고 안 좋아하더라구요. 여기 태평4동이 여기 토백이는 별로 없어요. 다른 데서 살다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더라구요. 태평4동에는 다른데 뭐 신흥동 이런 데는 수진동 이런 데는 자기네가 계속 살아온. 여기 (태평)2동만 해도 자기네 유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태평4동만 이렇게 다른 데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남편은 조용한 걸 좋아했다. 북적거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와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조용한 것이 오히려 싫었다. 그녀가 보험 영업을 시작하던 얼마 전까지 그녀의 집은 동네 아지트였다.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옥수수며 고구마며 찌 먹고 잡담하며 놀던 장소가 되었다. 남편은 혹여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집으로 전화를 했다. 집이 언제나 사람들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해서 귀가한다고 신호를 보내야 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새로운 것을 도모하거나 개척하는 데는 흥미가 없었다.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지 않고, 늘 살아오던 한 곳에서, 편안한 사람들과 편안하게 얹혀 사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그녀의 큰 오빠는 그렇지 않았다.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오빠는 한량이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

전하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계속 뭔가를 저지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오빠 때문에 집안 사정은 늘 쪼들렸다. 산판을 한다고 비싼 기계톱을 사들인 것은 여러 일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옛날에는 산판 한다고 기계톱 있잖아요. 기계톱 나온 거 그 당시만 해도 엄청 비쌌어요. 소 한 마리 팔으면 그거 하나 샀었어요. 그 기계 하나. 예에 그래 가지구 우리 소 팔아 가지구 우리 아버지가 기계톱 두 대 사주고, 그것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산판은 힘이 드는 일이었다. 박영호 씨의 두 번째 이야기에, 산판의 지계질이 싫어서 고향을 떠나는 사연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산판일이 아무나 할 것은 못 되었나 싶다. 1년 만에 산판일을 그만둔 큰 오빠는 오미자를 키웠다. 그러나 그것도 한 번 수확하고 또 그만두었다.

한번은 큰 오빠가 우리 동네에 뽕튀기 기계를 처음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큰 오빠가 그것을 어디서 구해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것으로 맛있는 뽕튀기를 즐길 수 있었다. 처음에 강냉이를 튀길 때 뒤를 막아야 하는데 막지 않아서 뽕튀기가 지붕까지 날리는 일도 있었다. 영화 <웰컴투 동막골>에 나오는 비슷한 장면을 보면서 그녀는 오빠를 생각했다.

오빠는 양복점도 열었다. 달팽이도 키웠고, 담배도 재배했다. 오빠의 양복점이, 오빠의 식용 달팽이가, 오빠의 담배 재배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에도 없지만, 오빠는 늘상 그렇게 새로운 일을 벌였다.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벌였던 큰오빠와 여행마저 실통치 않게 여기는 그녀 자신. 그녀는 그 중간 쯤에서 딸 니리를 키우고 싶었다.

고창 출신의 개목수

태평동 유재씨 이야기





고창 출신의 개목수

...

태평동 유재씨 이야기

1

그는 고창 출신이었다. 2대 부통령을 지냈던 인촌 김성수 씨도 고창 출신이었는데, 인촌의 선조는 고창에서 만석꾼을 했었고,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의 증조부는 고창에서 천석꾼을 했었다. 인촌의 집안은 일찍이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객지로 나가 공부한 후 동아일보도 창간하고 고려대도 창설하였지만, 그의 증조부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자손들을 구학문에 힘쓰게 하는 바람에 집안에 이름난 사람이 생겨나지 못했다.

천석꾼과 만석꾼들이 한 고창 혹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집안의 미래를 걸고 쟁패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렀고, 우리의 주인공은 고창군 고수면 와촌리에서 1942년에 태어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선조들과는 달리, 그는 나라와 고창과 가문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라났다.

“인제 고창 옛날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모양이던데.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 같은 미물들은 그냥 나름대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자랐고. 한마디 얘기해서 시골 동네 애들 뛰어놀 듯이 그냥 막 뛰어놀고.”

그가 국민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은 아홉 살 때였는데,

1950년 무렵에는 흔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가 축구를 시작한 것은 4학년 때였다. 고창군에서는 매년 6월에 국민학교 대항 축구대회가 열렸다. 그해 사람들은 고수 국민학교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했다. 대표 선수들은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 부터,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합숙까지 하면서, 혹은 밤비 속에서 맹훈련을 하면서 대회를 준비했다.

시합 날, 첫 경기에서 상대팀에게 불의의 일격을 맞고 예선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그는 그날의 충격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다. 어쨌든 축구 탓에 학교 공부는 소홀해졌고, 그 바람에 중학교 입시를 앞두고 불안에 시달리기도 했다. 다행히 합격 통지를 받고 중학생이 되긴 했지만, 그 후로 그는 학업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2

그의 집안은 대농이었고, 아버지는 고수면의 유지였다. 나이 차가 좀 나는 형들도 덕분에 동네 유지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가세가 기운 것은 그가 중학교 2학년을 다닐 때였는데 그렇게 된 자세한 사정을 알기에는 아직 어려웠다.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 가서 제과공장을 차려보겠다는 의논을 할 때도 어른들은 그를 끼워주지 않았다.

집이 이사를 가면서 그도 전학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공부를 못해 서울 아이들에게 치일 것이 걱정되었다.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면서 뒤쳐진 공부를 만회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고창에서 중학교를 마친 후 올라가겠다고 말씀드렸다.

혼자 남게 된 그는 학교가 있는 읍내에서 하숙을 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친한 친

구의 제안으로 친구네 집을 하숙집으로 정했다. 친구 집은 학교에서 꽤 멀었다. 그가 원래 살던 집보다 더 멀었다. 그래서 매일 학교를 오가면서 이미 남의 것이 되어버린 옛집 앞으로 지나다녀야 했다.

“친구네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매일같이 우리 집 앞을 지나다니는데, 그 마음이 한참 동안은 굉장히 또 안 좋더라구요. 우리 집이 동네에서 제일로 컸고 이렇게 먼 데서 쳐다봐도 우리 집이 환히 굉장히 큰 집으로 보이는 그런 집이었는데, 어쩐지 어린 마음에도 그 앞을 지나다니기가 영 마음이 안 좋더라 그 말이여.”

3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무렵, 어떤 친구가 그를 집으로 초대를 했다. 후에 서울 음대를 나와 KBS 관현악단을 거쳐 음대 교수까지 하게 되는 양구라는 친구였다. 양구는 일찌감치 서울로 유학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그를 초대한 것이었다.

“그래 거기 놀러갔더니 부모님들이 떡을 해놓고 하여튼 잘 차려 놓았어. 닭도 잡고, 시골에서 닭 잡으면 엄청 큰 손님이에요. 지금 알고 보면, 손님 대접을 어린 학생이지만 대접을 잘 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뭇도 모르고 먹었는데. 근데 그걸 먹는데 그 부모님들이 오시더니 나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서울에서 산다메. 졸업하고 바로 올라갈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다고 했더니.”

양구 아버지는 아들을 서울 사는 그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린 마음에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았다. 친구가 같이 가면 서로 좋은 점도 있지만, 우선 자신이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과자공장을 하는 집안 사정이 어떨지도 장담할 수 없었다. 망설이는 그를 보고 양구 아버

지는 부담 갖지 말라고 했다. 그후 양구는 서울 중구 만리동에서 자취방을 얻어 서울 유학을 시작했다.

양구의 초대를 받고 난 후, 그도 고등학교 원서를 썼다. 담임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제고등학교 원서를 써서 서울로 올라왔다. 배제고등학교는 작은 형이 다니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의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학교라고 했었다. 아닌 게 아니라 보기 좋게 낙방했다. 그리고 2차로 덕수상고마저 떨어지고 나서, 재수를 준비했다.

4

제과공장을 하는 서울집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시골서 혼자 떨어져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는 그것이 그렇게 바쁠 줄은 미처 몰랐다. 일손은 태부족이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가 되어야 작업이 끝났다. 뿐만 아니라 소음도 대단했다.

물론 처음에 오꼬시를 만들던 제과공장은 품목을 점차 고급화 다변화해 가면서 성장을 거듭했다. 가장 단순한 오꼬시라는 밥풀과자는 1957년 무렵에 만들던 과자였다. 후에 공장 내부를 좀 개조해서 아루산도를 만들었고, 돈이 좀 더 모이자 큰 공장으로 옮겨 영양과자며 카스테라 같은 고급과자를 생산했다. 그러는 사이 제과 공장은 아버지에게서 형님들에게로 인계되었다.

“처음에는 오꼬시라고 인제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익혀가지고 쌀같이 만들어요. 고놈을 튀기면 쌀 튀밥처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옛 넣고 재료 다른 것 첨가해서 오꼬시를 만들다가. 나중에 인제 아루산도라고 그런 종류 좀 하다가. 또 영양과자 생과자 하다가. 급기야는 서울에 있는 매점에 들어가는 카스테라 그거를 만들고, 아

버님 하시다 연로하시니까 형님한테 이양하시고.”

어쨌든 제과공장은 바쁘고 혼잡했다. 공장을 겸하고 있는 집은 고등학교를 낙방하고 재수를 결심한 그가 공부를 하면서 지내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었다. 그리고 혹시 그를 초대했던 양구가 그의 집에서 서울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오래 가지는 못했을 곳이었다.

5

그는 제과공장 일을 거들면서 1년을 보냈다. 그러니 다시 입시철이 돌아와 시험을 칠라니 막막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보충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등 공민학교에 들어갔다. 고등공민학교는 가난해서 중학교 진학을 못한 아이들을 위한 중학교 과정의 준교육기관이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야간이 많았다가 주간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그는 거기서 3개월을 공부하고, 서라벌예고로 진학했다.

1958년에 입학한 서라벌예고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학교였다. 어떤 학생들은 가방 속에 책 대신 손도끼를 넣고 다녔다. 쌍절권이나 짱돌을 몇 개씩 넣고 다니기도 했다. 그는 학교가 아니라 깡패 소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술한 인재들을 배출하던, 고향의 고창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옛날에는 고창고보라 해 가지고 5년제 중학교 있을 때, 한갑수 한글학자 그분도 거기 출신이고, 학자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나도 들은 애긴데, 고창고보가 5년제 중학교 있을 적에 서울 배제학당 송실 뭐 하고, 두 군데 시험 보고 떨어지머는 고창으로 왔대요. 전국에서, 고창에 와서 시험 봐서 또 떨어지면 평양에 갔대.”

그는 명문 고창 출신으로서, 거친 학생들에게 맞고 자존심을 구기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보령에서 온 친구와 운동을 배우기로 맘 먹었다. 우선은 복

싱을 한다고 글로브를 사고 체육관에 나가 보았다. 그런데 체육관의 엄한 분위기에 기가 질렸다. 결국은 학교의 특기과정 수업과 겹친다는 핑계를 스스로에게 댈 수 밖에 없었다. 태권도, 유도 도장에도 쫓아다녔지만 모두 며칠을 넘기지 못했다. 교통이 불편해서 시간 맞추는 것이 어렵던 시절이었다.

6

남자들이 가장 신나서 떠들어대고, 반대로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는 농담도 있듯이, 군대 이야기를 싫어하는 독자라면 굳이 이 장을 읽지 말고 바로 다음 장으로 건너뛰어도 무방하다. 우리의 주인공은 독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군대 시절의 이야기를 가장 생동감있게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그렇지만 이 책의 저자인 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반에 반에 반에 반토막으로 줄여 한 장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용산에 집결하여 입영열차를 타고 새벽 2시에 논산훈련소에 도착했다. 3월 초였는데 눈이 많이 내렸다. 지급받은 훈련복에는 이가 득실거렸는데 아무리 털어도 털리지 않았다. 6주 훈련이 끝나고 다시 후반기 4주 교육을 받고 나서 25사단으로 배치를 받았다. 그리고 그 무렵 처음 창설된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다시 12주의 혹독한 신병교육을 받았다.

훈련소 내에도 고등공민학교라는 것이 있었다. 학력이 딸리는 무학자들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사실 당시 신병교육대의 학력 수준은 요즘으로는 상상치 못할 정도로 형편 없었다.

“25사단 신병교육단이 이렇게 학력수준을 보니까 무학자가 181명 중에 약 100명이 넘어. 그 다음에 국졸 그 다음에 중졸 고졸. 고졸이 한 열 명 정도. 그리고 대

줄이 한 4명인가 6명인가 있었어. 근데 소대 편성 분대 편성했는데 딱 가서 인제 보니까 우리 분대에 있는 애들이 전부 무학자야. 나 혼자만 고졸. 그게 인자 배치를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편지 온 놈 읽어줘야 되고 편지 써 줘야 허기 때문
에.”

그때 신병훈련소에서 담배는 776으로 나왔다. 담배 한 갑을 776으로 삼일에 나누어 주었다. 분대원들은 편지를 써주고 읽어주는 것이 고마워서 그에게 담배를 상납했다. 그래서 그는 늘 담배가 풍족하다 못해 남아돌았다. 그가 꼴초가 된 데는 이런 환경적 영향도 있었다.

그 후 그는 자대에서 중대 서무계로 일했다. 전역이 일주일 남은 서무계 사수를 만나 아무것도 인수인계를 못 받는 바람에 초기에는 많은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군대는 요령이라고 서무계 일도 차츰 익숙해졌다. 그는 사단의 행정검열에 1등을 받아 중대장의 특진을 돕기도 할만큼 솜씨 좋은 서무계로 통했다. 그리고 1965년 9월에 전역했다.

7

제대 후 그는 용두동 집으로 돌아왔다. 용두동 집은 원래 제과공장이었는데 좁아서 큰 데로 옮겨갔고, 그가 대신 그곳에 스웨터 하청 사업을 벌여놓고 있었다. 집은 폭 6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뚝방과 마주하고 있었는데, 시유지였던 뚝방에는 무허가 판잣집들이 거대한 판자촌을 형성하고 있었다.

용두동 뚝방의 판자촌에 불이 난 것은 1970년 4월 12일이었다. 한 신문에서는 쌓아놓은 마대가 풍로불에 떨어지면서 발화하여 무허가 판잣집 350동(750세대)이 불타고, 3500명의 이재민과 1천여만 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기록하였다. 그는 처

음에는 불구경을 나갔는데, 사정이 다급해지자 불 속에서 짐을 끌어내는 일을 도왔다.

“그러고 한참 있는데, 우리 공장 애들이 쫓아오더니 사장님 사장님 큰일 났다구. 우리 집도 불붙었다고 이거여. 그런데 우리 집은 지붕은 계와로 었었지만은 목제 집이었던 말이어. 근데 여기에서 불붙은 것이 불이 널러다녔어요. 그때 희한하게 되었어. 바람이 불었어.”

그는 1층 살림집은 그대로 두고, 편직 기계가 있던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곳에는 편직을 기다리는 실과 편직이 끝난 스웨터들이 가득했다. 실들이 모두 화확사라 불이 닿기만 하면 기름에 불붙인 것처럼 타들어갈 판이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집 옆 채소밭으로 정신없이 물건을 내던졌다. 편직기계도 어떻게든 떼어내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한참이 지났다. 편직물이라도 구한 것 같은 안도감을 안고 그는 불 속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집 옆의 채소밭으로 갔다. 그런데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자기가 내던졌던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화재가 진정되고 전후 사정을 알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과자집 아저씨 잘 안다고 하면서 물건들을 자기네 집에 보관하기로 했으며 옮겨갔다고 했다. 그후 물건을 되찾을 길은 없었다.

8

용두동 뚝방과 주변 일대는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다. 판잣촌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 할 때, 그도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당장은 형들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지만 하루 이틀로 끝날 상황이 아니었다. 하늘로 이불을 삼아야 할 판에 당장 잘 곳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했다.

동대문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이재민들에게 다시 집들을 지으라고 독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하기 위해 광주대단지를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화재를 기회로 이재민들이 자연스럽게 광주대단지로 옮겨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민들은 정부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자리에 다시 판잣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 하꼬방촌 일부러 정부에서 불낸 것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몰아낼라 하고, 광주대단지를 마련해 놔는데, 근디 사람들이 그냥 밤낮으로 하꼬방을 또 다시 지어가지고, 야 벼락치대. 그래가지고 근 한 20일 정도 되께 완전히 옛날처럼 들어서 버린 거야. 그걸 동대문 경찰들이 철거반들 데리고 나와서 강제철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경찰이 다시 지어진 하꼬방들을 철거하자 이재민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정부가 가라는 광주대단지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도 이재민 무리에 섞여 트럭을 탔다. 집사람과 첫딸이 함께 있었다. 냄비와 밥그릇은 물론이고 숟가락도 하나 없었다. 이삿짐이라곤 이불 보파리 하나가 전부였다. 정부가 나눠주는 땅이나 받아놓고, 여차하면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성남으로 들어선 날은 1970년 5월 마지막 날이었다.

9

용두동 폭방 화재 이재민들이 트럭을 내린 자리는 후에 성남종합시장이 되었다. 트럭에서 내린 망연한 이재민들에게는 천막이 지급되었다. 두 세대가 24인용 야전 천막 하나를 같이 썼다. 2000세대나 2200세대의 천여 개의 천막들이 펼쳐졌다. 어떤 야전부대 숙영지가 그런 규모였다면 아마도 장관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민들의 천막촌은 그런 느낌과는 사뭇 다른 어수선하고 혼잡한 느낌만 들었다. 그

때 누군가가 그를 찾아왔다.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나보고 아저씨 부탁 좀 합시다. 그래서 예 말씀하시오 뭔데요,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아저씨가 이 천막 열개를 맡어 달라 이거야. 맡아서 인구를 파악 좀 해 달라 그러는 거야. 화재민수습대책위원회에서 나왔는데 도저히 자기네가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가고 현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정확히 파악도 해야 되고.”

그는 천막 열 개를 맡아 조사했다. 천막별로, 세대별로, 가족구성원별로 필요한 사항을 파악한 후에 수습대책위원회에 가져다 주었다. 그날 저녁 대책위 사람이 그를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포장마차로 그를 데려갔다. 막걸리를 앞에 놓고 대책위 사람은 화재수습대책위원회 총무대행을 맡아달라고 제안해 왔다. 글씨도 반듯하고 조사내용도 충실한 게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다. 술잔이 몇 번 더 오가고 나서야 그는 제안을 수락했다. 대책위 사람은 그제야 한시름 놓고 반기는 표정을 지었다.

10

그는 화재수습대책위원회 총무를 맡으면서 점차 천막촌 생활에 적응해 갔고, 53블록 36번 땅도 분양받았다. 대단지 사무소에서는 대책위 사람들을 위해 좋은 블록을 남겼다가 추첨하도록 해 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땅만 파놓고 서울로 돌아가 다시 사업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가 점차 힘들어졌다.

사람들 중에는 그를 아는 경우가 많았다. 용두동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라, 비록 그가 그들을 몰라도, 그들은 그를 과자집 동생, 과자집 아들로 이미 알고 있었다. 더구나 대책위 사무를 보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아 보게 되었

다. 그렇게 되자 언제부턴가는 그에게 딱지를 맡기고 팔아달라는 사람이 하나 둘씩 생겨났다.

“수습위원회에서 사무를 보고 있으니까 딱지를 무딱지를 갖다가 나한테 맡기는 거야. 앞으로 다음 다음 주에나 나올 테니까 좀 팔아줘. 내가 술값 준다고. 내한테 보통 딱지가 20-30장 있는데. 근게 나는 그거를 그 사람들이 팔라달라면 그냥 팔아놓고 있으면. 그냥 오면 돈 줘 버리면 막걸리 한 잔 사준 사람도 있고, 한 500원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무딱지는 철로변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민들에게 철도청장이 발행한, 지번이 결정되지 않은 토지 분양증이었다. 나중에 추첨으로 지번을 결정하게 되는데 운이 좋아 대로변의 지번이 걸리면 몇 십 배 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독자 여러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다.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 중에서 ‘은행동 토박이 장사꾼’이 열네 번째 이야기에서 2천 원씩에 사들여 5천 원에도 팔고 8천 원에도 팔았던 것이 땅 분양증, 일명 딱지였던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딱지는 만철팔천 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한창 오를 때는 3만 원까지도 올랐다가 떨어졌다. 주식처럼 널뛰기가 심했다. 사람들이 자꾸 딱지를 맡기자 그도 차츰 머리가 돌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이 이만 오천 원 받아달라고 맡기면, 거기에 옷돈을 얹어 팔아도 문제가 없을 듯했다. 그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남들이 밀가루죽도 못 먹어 난리이던 시절에 고기 반찬에다 쌀밥 먹고 살았다.

11

사람들은 딱지를 사들여 비싸게 파는 사람들을 나카마라고 불렀다. 중매상인이란 뜻이었다. 그는 딱지 나카마를 하면서 나카마 중에는 직업적으로 이 일에 달

러드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부동산 간판을 걸어 놓고 일을 했다. 대부분 무허가 부동산 쟁이들이었다.

그도 주변 사람의 동업 제안을 받고 천운사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하늘의 운을 받아 일확천금을 벌겠다고 지은 이름이었지만, 천운이 어찌 좋은 쪽으로만 풀리겠는가. 하늘의 운에는 쪽박의 운도 함께 갖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

어느 날 동업하는 친구가 새로운 개발지로 소문이 시끄러운 비행장으로 가자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탐탁치 않았다. 그래도 동업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질 테니 무조건 옮기자고 물려서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을 한번 가보기로 했다.

“국제시장 자리 거기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판인데 같이 동업하는 친구가 오더니 비행장으로 가자. 비행장 순 사기꾼 거길 왜 갈라 하나. 그랬더니 자기가 책임질 테니 같이 가자. 그래서 가지고 비행장 부지를 샀어요. 가서 보니까 서울에 잡동사니들은 다 몰렸고, 난다 긴다 하는, 오토바이 타고 막 헬멧 뒤집어 쓰고, 아주 폼 잡고 와서 그냥. 그때 비행장 부지 난리가 난 거야. 그냥 부동산들이. 우리도 할 수 없이 그리 옮겨 놓고는 천운사라는 간판을 걸고 거기서 하는데.”

12

서울의 온갖, 난다 긴다 하는 잡동사니들이 오토바이에 헬멧 쓰고 갖은 폼을 잡아가면서 비행장 부지에 몰려들어 부동산 간판을 내걸었다. 김창숙이라는 사람이 모란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겠다고 비행장 건너편 논밭을 전부 불도저로 갈아엎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한몫 잡아보려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정부에서 하는 광주대단지는 360만 단지였어요. 그 단지가 이 정도라 그러면 김창숙이는 4200만 단지를 형성을 한다 말이며. 360만 빠라스 알파 해 가지고, 총 4200만 단지. 동물원 식물원까지. 여기 시가지가 들어서면 구가 몇 개 생기고.”

헬리콥터가 날아들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온갖 유명한 사람들이 모란 개발사업 홍보를 위한 찬조연설에 나섰다. 모란개척단장 김창숙은 서슬 퍼런 집권 공화당의 황소마크를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업을 벌였다.

분양지 추첨을 하던 날은 더욱 장관이었다. 24인용 야전 천막이 마흔하고도 한 개가 더 펼쳐지고, 광주경찰서에서 파견 나온 경찰관들도 마흔 한 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어깨에 칼빈 소총을 메고 추첨행사를 관전했다. 그는 거기 땅 120개를 모았다. 20평 짜리 딱지가 매당 3만8천 원에서 십일만 원까지 팔렸다.

“그 시기까지 방방방방 뛰었는데. 내가 잊어도 안 버려요. 그때 4월 18일인가 17일 대통령선거, 5월 21일 날 국회선거. 그 양대 선거가 딱 끝나고 나니까 5월 23일자로 거기에 경고문이 딱 풋말이 붙었는데 불법지역이라고 나온 거여.”

모란 개발 사업이 사기사건으로 공식 확인되고, 김창숙이 안양교도소에 갇히자, 투자자들은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20매의 딱지가 하루 아침에 종이쪽지로 변해버린 그도 위원회의 섭외부장을 맡았다. 그리고 경기도, 내무부, 건설부, 청와대에 탄원서며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단돈 십 원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그후 그는 부동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모란개척단사건에서 쓴맛을 보고 한동안 집에서 쉬던 그는 원양어선을 타게 되었다. 원양어선을 타면 성남 시내에 집을 두세 채 산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는 육항차까지 36개월 간 계약된 고려원양을 탔다.

“배를 인수 맡아 가지고, 일항차가 6개월이에요. 일항차 6개월 간에 200톤을 만선을 시켜가지고 항구에다 푸고, 또 다시 먹을 것 싣고 기름 싣고 도구 정비해서 또 나가서 또 6개월 간 한 것이 이항차. 또 삼항차 사항차 오항차 육항차까지, 육육에 36. 36개월을 계약하고 고려원양을 나가서.”

선장은 다음 계약 때는 그를 갑판장으로 쓰겠다고 했다. 그는 그만큼 눈썰미 좋게 뱃일을 배웠다. 하지만 일은 고되고 힘들었다. 배를 수리하다가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다치기도 했고, 낚싯줄에 채여 다치기도 했다. 독가오리에 쏘이기도 여러 차례였다. 결국 그는 일항차 6개월을 끝내고 배가 트리니다드 앤드 토바고에 기항했을 때 하선을 하고 말았다.

원양어선을 내려, 성남시 태평동으로 돌아왔지만 역시 동네에서는 마땅히 할 일을 찾을 수 없었다. 구린내 나는 부동산 딱지 장사에 다시 손을 대기는 싫었다. 상대원 구보씨의 어머니가 세 번째 이야기에서 생계를 위해 공사장의 잡부가 되어야 했던 것처럼, 그도 동네 사람들을 따라 공사장의 잡부라도 다녀야 했다. 그런데 팽이질, 삼질 같은 일도 뱃일만큼이나 힘들었다.

그때 목수 다니는 어떤 양반이 그에게 목수일을 배워보라고 권유했다. 어차피 노

동판을 다닐려면 잡부보다야 목수일이 낫다고 했다. 머리도 나쁘지 않고 눈썰미도 있으니 금방 배울 것도 같았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정 살피지 않고, 우선 못주머니를 사서 허리에 차고 톱과 망치, 그리고 자를 하나씩 사서 가방에 넣고, 목수 일을 권유하던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현장에 나가서, 이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높은데 올라가서 나보고, 형님 산승각 하나 올려오시오, 다리끼 하나 올려오시오. 이놈의 산승각이 뭔지 알아야지 갖고 가지. 다리끼가 뭔지 알아야지. 뭐 다시 말해봐. 그러면은 또 안들려서 그런 줄 알고 크게 얘기하거든.”

그렇게 2년쯤 얼치기 목수짓을 하고 다녔을 때, 중동에서 해외 바람이 불었다. 동네 사람 중 하나는 건설노동자로 중동 한번 갔다 오더니 다시는 안 간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힘들었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루는 동네 후배가 목수시험 보러 간다며 같이 가자 했다. 중동으로 나갈 목수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2년 남짓 목수 일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없었다. 거절하는 그를 후배는 끌고 가다시피 했다. 결국 후배의 전적인 도움으로 목수시험에 합격되어 이라크로 나가게 되었다.

15

그는 이라크 군인주택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도면을 읽지 못해 찢찢매는 반장과 조장들을 보고, 용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 있었다. 그것을 계기로 그는 현장에서 쓸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1년이 지나 귀국 신청을 할 때 공사부장이 양주를 내놓으며 귀국 연장 신청을 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귀국했다.

“귀국하고 한 1개월 집에서 쉰다고. 근데 꼬챙이 돼 가고 왔어요. 내가 한 72키로 73키로 나가던 몸이 여기 와서 달아보니까 58키로여. 얼마나 땀에 아주 찌들어 버렸는지.”

한동안 쉬고 나니, 다시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다. 현대건설 오만 현장으로 가는 인력을 뽑는다는 거였다. 이번에도 그는 조별로 보는 시험에서 덤으로 합격되었다. 오만으로 나가 이라크를 거쳐 귀국하기까지 1년 7개월의 세월이 흘렀다. 그는 이번에도 역시 도면을 좀 읽을 수 있어서 반장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귀국 후 집에서 다시 쉬고 있을 때였다. 이번에는 동네 친구가 찾아오더니, 자기도 외국을 나가고 싶다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고 물었다. 그 무렵이면 태평동 사람들 중에는 이미 해외 현장에 다녀온 사람도 많았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았다.

“동네 친구 와가지고. 야 너는 꼬떡 하면 외국 가는데 어떡하면 가냐고. 나도 보내주라 이거야. 시험 봐 시험 보면 다 가. 자기 혼자 시험 못 가니까 같이 가서 봐 달라 이거요. 자네는 목수도 아닌데. 내가 잘하면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주는데 나는 그렇게 못혀. 그런게 다른 거로 그냥 잡부로 시험 봐. 잡부로 시험 봐도 같이 가서 한달 같이 가면 시험 본다는 이거요.”

잘 하는 사람 덕택에 덤으로 시험에 합격했던 일이 있는 그였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목공 실기는 그로서도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하여튼 동네 친구의 성화에 그는 이번에도 다시 시험을 치러 갔다. 그리고 운 좋게도 쿠웨이트 현장에서 자신의 도면 보는 능력을 인정해 주던 본부장을 만났다. 처음 두 번은 대리시험 비슷하게 시험을 치렀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수월하게 합격했다. 그리고 총반장이 되어 싱가포르 현장으로 갔다.

원양어선과 해외 건설현장 이야기가 세 토막으로 겨우 끝났다. 사실 우리의 주인공인 그는 군대 이야기만큼이나 이 부분의 이야기에 공을 들였다. 얼치기 개목수가 어떻게 해외 건설현장에서 인정을 받았는지, 사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태평동 사람들에 관한 책의 내용으로 어울리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을까봐 눈을 딱 감고, 나쁜 이야기꾼처럼 디테일을 모두 쳐냈다. 그 대신 남편을 해외로 보낸 아내들의 이야기를 간단히 덧붙여 놓겠다.

남편을 중동에 보낸 태평동 아내들은 매달 일정한 때가 되면 남편을 고용한 회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남편이 열사의 사막에서 몇 시간 고생을 했는지 확인했다. 마치 월말고사 성적을 기록한 통신표처럼, 회사에서 시간을 적어 주었다. 그러면 부인들은 그 쪽지를 들고 은행으로 가서 월급을 받았다.

그의 아내도 매달 조흥은행으로 달려가 월급을 받았다. 한 회사 한 현장으로 남편을 보낸 다른 두 아내들과 함께. 그런데 그의 부인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뭔가가 이상했다. 월급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한 동네에서 셋이, 한 회사 한 현장으로 가다보니까. 둘이는 나를 일 갈친 사람들이고 나를 데코 가서 시험 합격시킨 사람이고. 근데 나는 거기 따라간 사람이여. 근데 돈을 내가 더 보내거든. 그러니 그 아줌마 둘이가 하는 소리가, 어찌 정씨 아저씨는 개목순데 어찌 돈이 이렇게 많냐 이거여. 그럴 거 아니여요.”

아내는 편지를 써서, 밤낮으로 일만 하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라는 부탁을 했다. 아내는 여전히 남편을 개목수 수준의 일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는 1985년 마지막 해외 근무를 철수할 때까지 자신이 반장이라는 사실을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그가 1986년 통장을 할 때만 해도, 태평동 이면도로들은 포장도 안되어 비가 오면 질퍽거렸고, 집안으로도 물이 달라들었다. 수도물 사정도 형편 없었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시장집에서 빨래를 하겠다고 농성을 하기도 했다.

“지금은 어느 곳이든 다 길이 좋고, 상하수도 시설이 참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한 때 물이 안 나와가지고, 오성수 관선시장으로 있을 때, 그때 우리 동네 주민들이 몰려가지고 막 시장집에서 빨래를 하겠다는 둥,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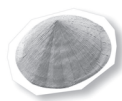
집들은 1980년대 후반까지 블록에 기와를 얹은 형태였다. 그리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을 계기로 이삼층의 벽돌집으로 개량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태평동은 이웃들이 다 형님 동생이었다. 고향 같은 느낌을 만끽하면서 이웃의 일을 자기 일처럼 봐주며 살았다. 그리고 이십 몇 년이 지나 태평동은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되었다. 형님 동생 하던 이웃들은 서울 부자들에게 집을 팔고 떠나버려 이제 1/3도 안 남았고, 빈 자리는 뜨내기 세입자들로 채워졌다.

그는 돌아보면, 자신의 삶도 태평동의 변화도 꿈 같았다. 언젠가 예술고등학교를 나와 원양어선을 탄 것도, 언젠가는 목수 경험도 없이 남의 실력을 빌려서 해외 건설현장에서 반장까지 했던 것도, 모두 하나의 꿈만 같았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두고 하나하나 흠어지는 옛 이웃들. 그들의 힘들고 고단했던 삶은 아랑곳 없이 무심한 세월처럼 질주하는 태평동의 변화가, 그는 못내 아쉬웠다.

호치민에서 태평동까지

태평동 유미씨 이야기





호치민에서 태평동까지

...

태평동 유미씨 이야기

1

그녀는 베트남 사람이었다. 그녀의 고향은 한국과는 달리, 높은 산이 전혀 없는 평지였고, 물이 풍부한 고장이었다. 사람들은 논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면서 살았다. 아빠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 대신 큰 배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배를 택시처럼 이용했다. 아빠는 그것으로 돈을 벌었다.

아빠는 장남이었고 다섯 명의 누이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고모가 되는 아빠의 누이들은 아빠에게서 돈을 자주 빌렸다. 아빠는 돈을 벌면 대부분 아빠의 아빠, 즉 할아버지에게 모두 드리거나, 다섯 고모들에게 빌려주었다. 엄마는 두 딸의 앞날을 걱정했지만, 아빠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보였다.

엄마가 하루는 아이들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고 하자, 아빠는 크게 화를 냈다. 그날 아빠는 엄마를 많이 때렸다.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를 괴롭혔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으박지르기도 했다. 그날 이후 그런 상황은 자주 반복되었다. 그러면서 아빠와 엄마는 사이가 점점 안 좋아졌고, 결국에는 이혼했다.

호치민 시 외곽에서 그녀는 엄마와 언니랑, 셋이서 살았다. 엄마는 학교 선생님 이었고 언니는 집에서 장사를 했다. 그리고 그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직장에 다니면서 살림에 힘을 보탰다. 그렇게 해서 땅도 사고 집도 지었지만, 생활은 늘 어려웠다.

2

그녀는 호치민 시내에 있는 신발 회사에 다녔다. 그곳은 집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거리에 있었다. 그래서 호치민 시내에 방을 얻어 생활했다.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세 명의 직장 친구들과 함께 살았다.

“5만(동) 정도, 한 달 전기하고 수도 따로 계산하니까, 제가 혼자 방 쓰는 거 아니고 같은 여자 친구랑, 같이 해서 계산도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혼자 살면 힘들잖아요. 세 명 친구랑 같이 해서 아침도, 가까우니까 15분 정도 걸어가니까, 도착해서 일하는 거예요.”

호치민 시내에 있는 회사들은 주로 중국이나 대만 사람이 사장이었다. 그리고 미싱이나 다른 작업을 하는 종업원들은 모두 베트남 사람이었다. 같이 살던 친구들은 미싱 일을 했는데, 그녀는 경리를 보면서, 하루 하루의 생산량과 재고를 체크했다. 또 개발 1, 2, 3팀 중에서 어느 팀의 물건이 가장 잘 팔리는지 판매량을 집계했다. 그녀가 작성한 판매량 집계는 매달 개발팀의 월급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녀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베트남 돈으로는 100만 동에서 150만 동 정도였다. 보통 비슷한 또래의 직공들이 8~9만 원 정도 받는 것에 비하여 많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런 생활에 만족하지 않았다. 뭔가 다른 삶에 대한 꿈이 있었다. 특히 외국에 나가 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 베트남에서의 삶은 별로 흥미가 없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열심히 봤다. 베트남에서는 <의가형제>가 베트남국영방송국을 통해 방영되면서 한국드라마 열풍이 시작되었다. 그후 <이브의 모든 것>, <가을동화>, <겨울연가>, <풀하우스> 같은 수십 편의 드라마가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 속 한국은 좋아보였다.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차츰 끌렸고 한국에 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갈 방법은 없었다.

그러던 중에, 중국 회사의 사장이 그녀에게 중국행을 제안했다. 그는 중국에 있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그렇잖아도 학원을 다니면서 중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던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온 셈이었다. 그녀는 중국에 갈 궁리에 바빴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좀 더 솔깃한 다른 기회가 생겼다. 학원에서 알게 된 어떤 언니가, 한국인과 결혼을 주선했다.

“학원에서 중국말 좀 배웠는데, 근데 저기 학원 들어가서 아는 언니가 중국 가면 좀 그렇다. 언니가 너 젊은 사람이니까 중국 가지마라. 한국이나 시집 가라. 제가 근데 원래 한국 드라마 있잖아요, 보니까 좀 좋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언니는 사촌동생이 한국으로 시집 가서 잘 살고 있다고 했다. 충남 어딘가에서 산다는데 한국이 좋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소개해 줄 사람도 자기 아는 사람인데 나쁜 사람은 아니고 집도 살만큼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신랑은 멋있어 보였다. 그녀는 신랑을 처음 만났을 때 한국말을 전혀 몰랐지만, 신랑이 마음에 들었다. 한 일주일 계속 만나면서 언니를 통역 삼아 서로 마음을 나누었다. 한국에 관한 책도 같이 읽고 보았다. 그 후로 그녀는 3개월 다니던 중국어 학원을 그만두었다.

신랑을 몇 번 만나 본 후 그녀는 쉽게 결심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한국으로 시집 가겠다고 말했다. 엄마는, 조금 후에 중국 가기로 했다면서 웬 한국이냐고 깜짝 놀랐다. 선불리 판단하지 말고 아직 언니도 시집을 안 갔으니 좀 더 차분히 생각해 보라고 얼렸다.

“너 조금 있다 중국 가면서 왜 갑자기 왜 이런 얘기하냐고. 그래 제가 아는 언니가 소개해, 몇 번 만나니까 괜찮다고, 그냥 시집가고 싶어요. 엄마가 언니 아직 안 갔는데 너는 왜 먼저 시집 가냐고. 혼자 가면 거기서 외롭고 또 힘들고 어떻게”

엄마의 걱정은 그녀에게 객쩍고 부질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외국에서 혼자 살아갈 자신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후로 베트남에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었다. 뭔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 컸다.

그녀가 보기에 엄마와 아빠는 늘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언제나 서로 싸우고 서로 때렸다. 그녀는 엄마가 왜 그런 아빠와 결혼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그런 생활을 참았지만, 정작 그녀는 아빠 때문에 학교가 싫어졌고, 공부도 싫어졌다. 엄마는 딸들이 자기처럼 학교선생님이 되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반항심만 커져갔다. 대학 시험도 그래서 실패했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사는 것에 흥미가 없었다.

신랑을 한번 만나본 후 엄마는 물렁하니 물러서며 그녀의 결혼을 허락했다. 엄마도 신랑이 잘 생겼다고 했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다고 했다. 그녀는 결혼식을 올리고,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5개월 동안 베트남에 남아서 한국말을 배웠다. 그리고 엄마 곁에서 엄마를 도왔다. 베트남에서의, 엄마와의 마지막 5개월이

조용히 흘러갔다. 그동안 신랑은 결혼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다시 한번 베트남을 다녀갔다.

5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 엄마가 울었다. 언니, 이모, 외할머니도 함께 울었다. 길고 슬픈 울음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울지 않았다. 엄마가 물었다. 엄마도, 언니도 다 우는데 너는 왜 안 우냐고. 그녀가 대답했다. 내가 가고 싶은 마음에 가는데, 그리고 아주 좋은 사람 만났는데 울 일이 아니라고 했다.

베트남은 항상 더운 나라였다. 그런데 그녀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겨울이었다. 2004년 1월 9일, 한국의 겨울은 엄청 추웠다. 나름대로 단단히 준비하고 왔지만 추위는 그 이상이였다. 말할 때마다 입에서 김이 났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보던 한국드라마 속 연기자들의 입에서 연기가 났던 이유를 그제서야 깨달았다.

입국 수속을 하는 내내 그녀는 몹시 추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겨울 외투를 멋지게 걸친 사람들과 함께 입국장으로 나왔을 때, 신랑이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보자마자 준비해 온 두꺼운 점퍼를 입히고, 장미꽃 한 다발을 내밀었다. 장미꽃은 아름다웠다. 같이 나온 신랑의 누나도 예뻐다.

그녀 일행을 태운 차는 공항을 서서히 빠져나왔다. 공항 주변으로 커다란 가로수들이 보였다. 그런데 나뭇잎이 하나도 안 달린, 죽은 나무들이었다. 나무들이 모두 얼어 죽을 만큼 추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걱정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그후 한참이 지나도록 그것이 죽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잎을 모두 떨군 앙상한 나무들이 베트남에서 온 그녀에게는 몹시도 이국적 풍경으로 각인되

었다.

6

차가 공항에서 성남까지 달리는 동안 그녀는 창 밖을 내다보거나 신랑과 짧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집에 도착하기 전 차는 식당에 먼저 들렀다. 태평동 인근의 지리를 어느 정도 알게 된 이후 가늠해 본 것으로는, 아마도 성호시장 앞에 있는 식당이었을 것이다.

된장찌개 백반이 나왔는데, 그것이 스스로 주문한 것인지 신랑이 적당히 시킨 것인지 잘 생각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가 식욕을 자극했던 것만은 분명했다. 낯선 나라의 매서운 추위 때문에 한껏 움츠러든 마음이 한 순간 내려앉았다. 밥은 의외로 맛있었다.

“처음에도 된장찌개도 밥하고, 근데 제가 된장은 찜에 잘 먹으니까, 왜 외국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잘 먹나 궁금해서. 제가 날씨도 추우니까 된장 끓으니까 따뜻하고 진짜 맛있어요. 처음이니까 그래도 맛있고 혼자 밥 한 그릇도 다 먹고 된장 찌그만 뚝배기 다 먹었어요.”

신랑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집은 새로 도배를 해서 깨끗했다. 침대도 새로 사고, TV도 새로 사고, 밥솥도 새 밥솥이었다. 그녀는 감동했다.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새로 장만한 신랑의 마음 씬씀이가 고마웠다.

신랑은 다음날 그녀를 데리고 윗집과 아랫집, 그리고 이웃집을 차례로 찾아갔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제 막 시집온 그녀를 소개했다. 이웃들은 모두 친절하게 그녀를 맞았다. 또 어떤 이웃은 잠시 시간을 내서 그녀를 찾아와, 열심히 잘 살라고

응원해 주었다. 시작은 좋았다.

7

신랑은 상대원의 대한전기에 다녔다. 아침 6시에 나가고 저녁 6시 반에 돌아왔다. 신혼집은 원래 신랑이 동생하고 같이 살던 집이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동생이 따로 방을 얻어 나갔다. 신랑은 엄마를 일찍 잃었다. 혼자 돈 벌고, 혼자 밥 하고, 혼자 시장 가고,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신랑이 몹시 측은해 보였다.

그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랑이 식사 준비를 도맡았다. 밥을 하고 찌개를 끓일 때 그녀는 가만히 지켜보아야 했다. 그래도 그녀는 어깨 너머로 열심히 배웠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았다. 시어머니가 없는 집에서 신랑은 유일한 요리 선생이었다. 처음에 신랑은 늘상 밥통 가득히 밥을 안쳤다. 매 끼니 때마다 새 밥을 지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그녀는 밥하는 것을 금방 배웠다.

신랑은 그녀를 몹시 아꼈다. 그러면서도 신혼 1년이 지날 때까지, 신랑은 맨날 남편이 하늘이라고 우겼다. 신랑의 사고 방식은 평범한 한국 남성들과 매한가지였다. 신랑에게 남성 중심주의는 은연 중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살던 고향 베트남은 달랐다.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남편이 맨날 하늘이니까 여자는 땅.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남자하고 여자 다 똑같아요. 서로가 도와서 사는 거예요. 회사 끝나면 밥도 하고 누가 먼저 오면은 해야 돼요. 같이 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싸워요. 같이 돈 벌어서 같이 열심히 살으면 되잖아요. 좀

몇 번 싸우니까 지금은 둘째 아들 낳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8

큰 애를 낳고 15개월 지나면서 그녀는 모자공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건국아파트 앞에 있는 공장은 집에서 가까웠다. 그녀가 모자공장을 다니기 시작한 것은 우선은 말 때문이었다. 집에서 혼자 지내 가지고서는 한국말을 빨리 배울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한국말이 서툴러 아이와 놀아주기 힘들었다.

더구나 아이는 엄마에게서 한국말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었다. 차라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집에서 엄마하고 지낼 때보다 수월하게 한국말을 익힐 것 같았다. 그래서 아이를 놀이방에 보내고, 대신 그녀는 아이의 놀이방 교육비를 벌러 나섰다. 부업을 나서는 것은 그녀에게도, 아이에게도 말을 배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모자공장은 그녀를 제외하면 모두가 한국 사람들이었다. 말을 배우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말이 배워지는 것도 아니었다. 말을 몰라 사장으로부터 지칭구를 듣기도 했다. 이주민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말 때문에 겪었을 아픈 기억이 그녀라고 없을 수는 없었다.

“한국말이 좀 어려운 말도 있잖아요. 사장님이 저보고 봉다리 가꾸 오래요. 봉다리. 헌데 그 말이 몰라요. 그냥 맨날 봉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 봉다리라고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사장님이 저한테 가르치지도 않고 그것 좀 말이 왜 몰랐냐고, 제가 섭섭해서 그냥 울었어요. 근데 제가 좀 울으니까 사장님이 왜 울으냐고, 사람이 몰랐는데 왜 화를 내요?”

그날 그녀는 신랑에게 하소연을 하였다. 신랑은 일을 그만두고 차라리 정식으로 한국말을 배우라고 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는 사람이 많이 생겼을 때, 그녀는 여성복지회관에서 정식으로 한글을 배울 수 있었다. 한국말은 칠, 팔 같은 리을 발음이 힘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요리도 배웠다. 열심히 참가한 덕분에 그녀는 3개월 후에 수료증과 함께 쌀 10킬로를 부상으로 받기도 했다.

9

그녀는 한국에서 열심히 살았다. 틈틈이 빵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양말 공장에서 미싱도 돌렸다. 또 수건공장에 다니기도 했다. 이런 데는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었다. 형편에 맞게 그녀는 꾸준히 부업을 했다.

한번은 태평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다고 연락이 왔다. 그녀는 꺼리는 것이 없었다.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가한 후로 자치센터 부녀회에서는 축제나 행사가 있거나 혹은 어디 놀러가는 일이 있어도 연락이 왔다. 덕분에 한국 생활이 많이 좋아졌다.

10

그녀는 아이들 교육이 가장 걱정스러웠다. 유치원에서 오는 통신문은 모르는 말들도 많다. 남편이 봐주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겠구나, 염려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베트남 지금은 뭐 유치원도 있고 영어도 해요. 근데 베트남 사람이 월급 좀 작으니까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우리나라는요 애 나고 또 학교 가며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나라는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는 좀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꾸었다. 아이들이 엄마의 이름 때문에 놀림감이 될까 봐 걱정스러웠다. 보통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새로 국적이 나오는데 그녀는 그때 이름을 김유미로 바꾸었다.

“제가 한국 이름이 좋아서 그냥 한국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냥 제가 드라마 보고 그냥 이유미도 있잖아요. 이유미 있으니까 신랑이 이유미가 좋아요. 그냥 저보고 이유미 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는 안 좋아요. 베트남은 다 한국의 성은 김이 젤 좋아요. 우리나라는 김이 젤 좋아요. 이름도 김오빠 이런 거 있잖아요. 김오빠 이런 거 들었어요. 그래 제가 김이 좋아. 내가 김 성으로 했어요.”

신랑은 자신의 성이 김씨여서 다른 성을 골라보라고 종용했지만, 그녀는 김씨 성을 고집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김씨가 되었다. 후에 시집온 언니는 그녀와 비슷하게 김유선으로 이름을 정했다. 그렇게 해서 베트남 출신의 김유선 김유미 자매가 태평동에 나란히 살게 되었다.

11

그녀는 한국이 좋았다. 살기도 편했다. 그래도 가끔은 베트남이 생각났다. 시집온 지 2년이 지났을 때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이 왔다. 거기다 홍수가 나서 집도 엉망이 돼 버렸다고 했다. 신랑은 그 말을 듣고 베트남에 한번 다녀오자고 했다.

고향 마을에서 신랑은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랐다. 대부분은 말이 안 통해서 서로 데면데면한 표정을 짓고 마는데, 신랑은 말을 못해도 행동으로 같이 어울렸다. 엄마가 가르치는 학교 아이들과 서슴거리지 않고 축구도 하고 노래도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신랑을 참 좋아했다. 홍수로 엉망이 된 집을 새로 지어 주는 것을 보고 더욱 그랬다. 돌아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신랑에게 이런 저런 선물을 내밀며 이별을 서운해 했다.

그녀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했다. 평소에는 한국 음식을 잘 먹었지만 임신하고 나니까 베트남 쌀국수 생각이 간절했다. 더구나 한국 음식 냄새를 견딜 수가 없었다. 신랑은 그녀를 베트남으로 보냈다. 베트남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그녀는 엄마랑 언니와 함께, 사람 좋은 남편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한국생활에 대해서도 세세히 이야기 했다.

그때까지도 언니는 시집을 안가고 집에 있었다. 언니는 동생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부러움 속에 들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녀에게 나도 한국 가고 싶어, 했다. 그녀의 신랑 같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했다. 그녀는 한국에 돌아와서 언니의 신랑감을 물색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형부 될 사람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갔다.

12

그녀는 태평4동이 참 좋았다. 무엇보다도 물건 값이 싸서 좋았다. 광주나 상대원 같은 데에 베트남 친구가 사는데 여기만큼 물건 값이 싸지는 않았다. 태평동은 아파트가 아닌데도 집들이 옆으로 나란히 붙어 있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살았다. 처음에는 집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베트남의 고향 마을과는 많이 달라서 답답했다. 집 주변에 나무가 많지 않은 것도 낯설었다. 그런데 조금 살다 보니까

괜찮아졌다.

“저 그냥 사는 집이 더 좋은 거 같아요. 값도 싸고 사람도 많고. 근데 저기 충남에서 살며는 우리나라 같아요. 근데 친구 거기 사니까 친구가 이런 말 했어요. 여기 사는 거 좀 심심해요. 마트도 멀으니까 한번 갔다 오면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여기 살으면 좋은 거예요.”

남편은 태평동이 곧 아파트로 바뀔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녀는 조금은 걱정이 되었다. 그동안 가까이 지내던 이웃들이 모두 갈려들게 되었다. 축제가 있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불러주던 부녀회 회장님과도 헤어져야 할지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파트는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그만큼 돈벌이 좋아질 지도 걱정이었다. 그래서 아파트가 굳이 아니라도 아이들 크는 것에 맞춰 좀 더 넓은 곳으로 집 평수를 늘려 가고 싶었다.

공동수도집과 야채집

태평동 여정씨 이야기





공동수도집과 야채집

...

태평동 여정씨 이야기

1

옛날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먼저 나왔다. 나는 고향 김제에서 어머니 아버지랑 셋이서 살았다. 언니들이랑 오빠가 있었지만, 나이 차가 많아 모두들 출가하여 고향을 떠났다. 엄마는 언제나 위가 안 좋았다. 아마도 위암이었을 것이다. 약이 변변치 않던 때라 엄마는 질경이 뿌리와 쪽파 뿌리를 쥘어서 약으로 대용했다.

“우리 어머니 담빛약 시골약. 뭐 그 질경이 뿌리 해리 땡기고. 우리 엄마랑, 좀 안 아플 때에는 우리 엄마랑 같이 돌아땡기면서 그렇게 허고 그랬었어요.”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열세 살 때 돌아가셨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근처에 살던 큰 집의 큰 어머니가 한 동안 살림을 해 주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새엄마를 얻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새엄마와도 오래 살지 못했다. 아버지는 내가 열여섯이 되던 해 돌아가셨다. 아버지 호적에 오르지도 못한 채, 새엄마는 갈 곳이 망연해졌다. 새엄마는 큰 오빠에게 나를 달라고 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은 호적에 안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따했어요. 나 혼자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정이는 키울 테니까 저기 논 다섯 마지기만 다오. 큰 오빠 보고.”

우리집은 김제에서 큰 부농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는 되었다. 농사도 50마지기
 는 했다. 그래서 큰 오빠가 조금이라도 불쌍하게 생각했다면 새엄마의 요구를 들
 어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큰 오빠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그 후 새엄마는 자기 갈
 길을 갔고, 더 이상 소식을 알 수 없었다.

2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 오빠는 전답을 모두 처분했다. 그리고 나를 성남으로
 데리고 올라왔다. 내가 열여섯 때였으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다. 성남에
 는 이미 둘째 언니네가 들어와 있었다. 툭툭하고 수단 좋은 형부네는 원래 서울 용
 두동에 살았었다.

독자 여러분은 서울 용두동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다. 이미 이 책의 <고창 출신
 의 개목수>의 일곱 번째와 여덟, 아홉 번째 이야기에서 용두동 화재사건을 읽었을
 것이다. 그리고 용두동 화재민들이 대거 성남으로 이주해 가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다. 우리 형부도 그 이주 대열 속에 섞여 있었다.

“형부는 모자원이라는 데에서 여인숙 마냥 크게 집을 지어가꼬 세를 내놔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타버렸잖아. 다 타버렸으니까 근데 형부가 툭툭했어요. 우리 형부
 가 여그 와서 관리장이 되셨어요. 철거민이지. 오셨는데 툭툭하니까 관리장이 됐
 어요. 지금 태평 1, 2, 3, 4동 다 관리를 다 한 거예요. 말하자면 동장보다도 더 높
 았어요.”

형부는 그때 차지철 씨하고도 잘 아는 사이였다. 차지철 씨가 국회의원인 안 됐
 을 때에는 우리 형부네에 와서 수제비도 끓여먹고 갔다. 형부는 또 관리장으로서
 취로사업을 관리했다. 취로사업에 나온 사람들은 형부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고,

그러면 두 사람에게 한 포대씩 밀가루가 지급되었다. 먹고 살 것이 막연하던 시절이라 밀가루는 중요한 생존 품목이었다. 밀가루가 중한만큼, 관리장을 맡은 형부의 위치는 높아졌다.

3

큰 오빠는 김제의 전답을 처분한 돈으로 태평동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지었다. 처음에, 큰 오빠를 따라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나는 성남을 살기 좋은 도시로 상상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내려 을지로5가에서 성남행 버스를 탔는데, 길이 덜컥거리 승객들이 이리저리 쏘리고 넘어졌다. 버스가, 앞으로 성남극장이 들어서게 될 장소에서 멈추어 섰을 때 나는 큰 오빠를 따라 내렸다.

“성남극장, 여기 밑에, 거기 앞애가 차가 섰거든요. 고기서 차를 서서 보니까 여기는 남이장군 묘가 있었어요 밑에. 근데 요기는 민둥산이었어요. 그냥 산. 집이 없었고, 근데 여기를 넘어와야 한 대요, 빨간 황토흙인데, 여기를 넘어와야 동네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넘어가냐고, 우리 있는 데는 산이 없어요. 맨 논만 있지.”

김제는 너른 평야지대였다. 눈 앞으로 펼쳐지는 것은 논뿐이었다. 그런데 빨간 황토흙이 드러난 민둥산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나는 한숨이 나왔다. 어떻게 올라갈지 걱정이 되었다. 큰 오빠를 뒤따라 올라온 곳에는 천막집들이 듬성듬성 자리잡고 있었다. 천막 사이로 대변이 둥둥 떠내려가는 하수도가 보였다. 나는 그것을 보고 기절할 뻔 했다. 천막집은 화장실이 없었다. 공동화장실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요강에 볼 일을 본 후 그것을 하수도에 쏟아버렸다.

길은 비만 오면 폭폭 들어가는 진창으로 변했다. 어디 한 곳 발 디딜 데가 없었

다. 그러면 태평동 사람들은 되도록 천막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긴급하게 밖으로 나서야 하는 사람들은 장화를 신었다. 마누라는 없어도 살지만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했던 데가 바로 여기였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깔리기 시작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4

큰 오빠가 산 땅은 사거리의 세 꼭지에 하나씩, 20평 분양지 세 개였다. 사거리에 면한 분양지 하나는 50만 원이었다. 오빠는 그곳에 집을 지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공동 수도를 설치했다. 물론 태평동 관리장이었던 형부의 주선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몇 개월 동안 수돗물을 팔았다. 그래서 태평4동 1555번지의 우리집을 사람들은 수도집이라 불렀다.

우리집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수도꼭지에 물이 오르려면 12시가 넘어야 했다. 꼭지만 비틀면 하더라도 쏟아지는 물이 아니었다. 12시가 되어 가면 수도꼭지 밑으로 양동이들이 줄을 섰다.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길모퉁이로 해서 양동이 줄은 100미터고 150미터고 이어졌다. 우리는 물지게 하나에 5원이나 10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다.

태평동 공동 수도는 1975년을 전후해서 개별 수도로 바뀌어 갔다. 그때까지 태평동 사람들은 공동 수도에서 물지게로 물을 길어다 먹었다.

“수도는 맘대로 못 났어요. 옛날에는 허가를 받아 가꼬. 공동 수도도집이라고 수돗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한 5~6년 지나니까 돈 조금 있는 사람들은 수도를 놓아줬어요. 인제 옛날에는 수돗물을 많이 사다 먹었죠. 거의.”

내가 인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큰 오빠가 중매를 썼다. 큰 오빠는 성실한 사람이니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 나는 별 부담 없이 남자를 만났다. 남자는 우리집에서 두 블록 밑에 살았다. 나는 같은 동네로 시집가는 것이 탐탁지 않았다. 그래서 내심 없던 일로 하기로 걱정했다. 그런데 뜻밖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인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한번 만나보래서 한번 만나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인제 소문을 짚 내버린 거예요. 인제 그 수도집 동생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거라고.”

큰 오빠는 건축업자였다. 1977년을 전후해서 태평동은 블록 집들을 허물고 2층 벽돌집으로 고쳐짓고 있었다. 오빠는 주로 그 공사들을 했다. 그런데 여동생의 결혼 문제로 나쁜 소문이라도 나면 오빠는 치명적인 손실을 보거나 적어도 동네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오빠는 나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이사를 가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했다.

나는 오빠의 상황을 생각해서 남자를 서너 번 더 만나 보기로 했다. 남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돌다방은 DJ가 없었다. 내가 다니던 회사 근처에는 DJ가 음악을 틀어주는 음악 다방이 있었는데, 나는 ‘눈동자’라는 노래를 들으러 가끔씩 그곳에 들르곤 했었다. 그런데 남자는 다방에서 차를 어떻게 시키는지도 몰랐다. 한 마디로 다방 한 번 가본 일이 없는 순진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순진함이 맘에 들었다.

“근데 우리 아저씨가 그렇게 순진하더라고요. 차를 뭐를 시킬지를 몰라 가꼬는, 콜라 사이다 인삼차 커피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가꼬는 내가 아 이렇게 저기를 안 해는 걸 보니까 사람은 괜찮은 거 같으다. 그래 가꼬 조금 마음은 있었는데. 우

리 어머니가 소문을 다 내는 바람에 얼떨결에 그냥 결혼을 해가꼬.”

6

우리 아저씨는 날 처음 만날 때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위장 취업이었다. 결혼을 앞두고 신부의 호감을 얻기 위한 술책이었다. 결과적으로 남편의 술책은 정확히 먹혀들었다. 나는 남편이 회사 다닌다는 말에 솔깃하여 넘어갔다. 결혼을 하고 나자 남편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알고 봤더니 이미 결혼하기 얼마 전에 그만두었다. 남편은 딱 2개월 동안 직장을 다닌 셈이었다.

“그런 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시집을 안 올까 봐. 직장을 다닌 거예요. 두 달을. 국제전기라고 지금도 내가 잊어먹지를 않는데, 국제전기라고 있어요. 저기 상대방에 가면, 그 직장 다닌다고 하니까 또 솔깃했었는데.”

남편은 원래 큰 오빠랑 같이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오빠랑 함께 집을 지어 이익금을 나누었다. 남편은 태평동 2동과 4동 쪽의 집들을 그렇게 많이 지었다.

남편은 성질이 좀 급했다. 아니 무척 급했다.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지장이 되지는 않았다. 적을 알면 내가 이긴다고 남편이 성질 난 거 같으면 나는 5분 정도 하던 걸 멈추고 기다렸다. 그러면 싸움할 이유가 사라졌다. 30년이 넘도록 나가라 들어가라, 막말하는 싸움은 해 본 적이 없었다.

7

사람이 살다 보면 월세방을 전전할 때도 있다. 우리도 결혼 후에 큰 역경을 만나 4년 4개월 동안 월세방 신세를 졌다. 그리고 전세로, 다시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언제나 함께 살았다. 같이 살아주신 시어머니 덕분에 나는 효부상을 받기도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언니는 기막혀 했지만, 실제로 시어머니는 나의 모든 것을 잘 이해해 주는 좋은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가 요즘 들어 거동이 불편해졌다. 중풍이 오고 노환이 겹쳤다. 대소변은 거의 화장실에서 하시지만 가끔은 실례를 하기도 했다. 1919년 만세운동이 있던 그해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럴 만도 하려니 생각하면서도 가끔씩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어려서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를 생각할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가슴 먹먹함이 밀려왔다.

집안에 큰 걱정거리는 없었다. 아이들이 나쁘게 풀리지 않은 것도 크게 보면 할머니 덕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다만 아이들 결혼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질 때도 있었다. 서른들의, 개인 사업하는 큰 아들은 아가씨가 있는데도 아직 결혼을 안했고,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다니는 딸도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 듯했다. 몇 해 동안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다가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막내는 더욱 그랬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 혼사가 목매거나 성화 부릴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아이들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짝을 찾을 날이 있겠거니, 생각도 들었다.

8

나는 결혼 전에 인천에서 대농그룹에 다녔다. 고향 친구의 소개로 들어간 회사였다. 친구는 작은집이 인천이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연락이 닿아 만났는데, 내가 성남으로 이사한 이야기며, 집에 공동 수도를 설치한 이야기, 12시가 되면 수도물을 사려는 사람이 수십 미터씩 줄을 선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실제로 나는 별로 하는 일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자, 친구는 자기가 다니던 대농그룹을 알아봐 주었다.

“내가 이만저만 해서 성남을 와 있다고 그러니깐은 회사를 알아봐 줬어요. 자기 회사를. 그래 가꼬 대농그룹이었었는데, 그 전 때는 박용학 사장님 유명했죠. 안인숙이 하고 박영일이 박용학 씨 아들이 박영일인 거 같애. 둘이 결혼할 때 저희도 회사에 다녔었어요.”

나는 스타킹 생산라인에서 검사업무를 맡았다. 그러면서 나는 기숙사 사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감을 할 때는 아침마다 기숙사생들을 모아 구보를 했다. 구보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얼마씩 각출하고 노조에서 일부를 지원받아 추리닝을 한 벌씩 만들어주기도 했다. 또 가까운 신협과 연계를 맺어 직원들이 저금을 하도록 만들었다.

“신협에 전격으로 제가 달라들었지. 어떻게 했냐면은 방마다 다 다니면서 출자금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오백 원이 됐든 천원이 됐든, 지네들 용돈에서 잘라서 내노라고. 그래 가꼬 출자금을 다 거둬 갖고 노트에 다 적어요. 누가 얼마 누가 얼마 계산 싹 맞춰 가꼬. 통장하고 신협에 가꼬 가서 저금해다 주고, 그거 월급 탈 때마다 7천에서 8천 정도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몇 백 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회사동료들은 나를 믿고 적금을 넣기도 하고, 보통예금을 하는 사람도 많았다. 80만원이면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월급이었는데, 그 중에서 50만 원을 떼어 적금을 넣는 친구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회사 노조 일을 맡아보기도 했다.

남편은 1981년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으로 취업을 나갔다. 태평동 남자들 중에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지로 취업을 나가 있거나,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남편도 현대건설에서 시험을 보고, 구비서류를 갖춰 사우디로 나갔다. 그리고 1년 뒤 귀국했다가 다시 리비아로 나가서 1년 반을 지내고 돌아왔다.

그 무렵 목이 좋은 위치에 가게 자리가 하나 났다. 남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목돈이 좀 있었던지라 우리집은 가게를 얻어 장사를 시작했다. 상추 배추 알타리 무 등의 야채를 주로 하고, 생선도 가져다 놓고 팔았다. 생선은 성호시장에서 가져왔다. 주변에 큰 마트가 없을 때라서 장사는 눈코 뜰 새 없이 잘 되었다.

“지금은 큰 마트가 있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 가꼬 뭐 물건을 100만 원 어치 가꼬 오면 150만원이 되는 거예요. 저녁에 물건을 싹 팔아 가꼬 텔레비 위예다가 박스를 놓고 거기가 돈을 너봐요. 그런 시절은 안돌아올 거 같아요. 상추박스에다가 너놓고 1시나 되면 다 정리하고 돈 시아러 보면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었다. 남편은 오토바이로 인하병원 사거리까지 배달을 다녔다. 그렇게 6년을 신나게 장사를 했다. 통틀어 10년 장사한 중에 나머지 4년은 장사가 신통치 않았다.

10년 만에 장사를 접고 나는 3개월 동안 잠만 잤다.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장사를 하면 새벽 1시에 문을 닫고 새벽 4시 반에 문을 열어야 했다. 자다가 일어나서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간단히 조리해 놓고 다시 잤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족 셋이 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처럼 기막히고 어이없는 상황도 많지는 않을 것이다. 10년 전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폐렴으로, 남편은 늑막염에다 담낭염 해서 대여섯 가지 병이 겹친 채로, 그리고 나는 요로결석으로 모두 함께 성남병원에 입원했었다.

그때 동서가 병원을 오가며 고생을 많이 했다.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회원들이 여러 형태로 도와주었다. 유희재 언니도 고생을 많이 했다. 언니는 시 부녀회장인데 사람이 워낙 성실해서 동네에 칭송이 자자했다.

“우리 시 회장님 되신 유희재 씨. 그 분이 사람이 성실하셔서 가꼬 많이 도와줘요 사람들을. 그래 저도 언니마냥 따르고, 내가 허리가 안 좋아 가꼬 수술도 했었어요. 한 6~7년 전에. 근데 그분이 또 다 간병도 해주셨고, 그때만 해도 우리 애들이 어리니까 못 해니까. 중학교 땡기고 고등학교 땡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회장이님 유희재 씨가,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허리를 수술했으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머리도 다 감겨주고 다 그런 거 다해 주셨어요.”

나는 가게를 할 때에도 새마을부녀회에 가입해 있었다. 그렇지만 부녀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동장님이 찾아와서 부녀회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통장들이 부녀회장으로 나를 추천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고 난 바빠서 못해요, 거절했다. 그랬더니 동장님이 재차 부탁했다.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마땅한 핑계를 찾아야 했다. 그러다가 우선 생각난 것이 시어머니였다. 나는 핑계에다 얼른 시어머니를 갖다 붙였다.

“우리 어머니가 승낙할 줄 모르고 저기 우리 어머니가 해라고 하면 혈랑가는 몰라도 내 스스로는 못한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인제 통장님이 가서 얘기를, 그 전때는 부녀회장을 통장들이 추천을 해야 했어요. 그래 가꼬는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유 가는 뭐 돌아댕기는 거 좋아하니까 해라고 하라고, 그래 가꼬는 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내가 직장 다닐 때 신협활동과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 결혼 후에도 인형 만들기나 장미꽃 접기 같은 부업을 꾸준히 해온 터라, 나를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성격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후로 내가 부녀회장 일을 꾸준히 해올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 덕분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성질이, 니가 뭐를 해라 그렇게 못해요. 거 마루 좀 닦아라,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당신이 마루를 닦아버려요. 2 000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했어요, 이런 저런 것을 다. 김치도 하고, 나보고 해라고 안 해요. 그니깐 저는 애기들만 키우고 활동만 하고.”

12

폐렴으로 잠깐 병원에 입원했던 시어머니는 퇴원 후에 둘째 아들네로 갔다. 둘째 동서가 애들을 셋이나 두고 일찍 죽어서, 밥이라도 해 줘야겠다, 했다. 그때 시어머니는 이미 여든을 넘은 연세였다. 아무리 평균 수명이 칠십을 넘어섰다고 하지만 여든은 고령이었다. 그런 고령에 둘째 아들네 손주 녀석들을 건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중풍이 찾아왔다. 손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찬 방에서 주무신 것이 원인

이었다.

“가셨는데 한 달도 안 계셨는데. 손이 오른손 힘이 없어요. 힘은 센데 말하자면 이렇게 밥 먹고 그러는 것을 못 해요. 그래 가꼬 인제 안 되겠다. 우리집으로 다시 모셔가꼬, 인제 더는 앓고 고대로 계세요. 발 같은 것은 안 그러는데 손만.”

가끔씩 시어머니는 수저를 달라고 했다. 혼자서도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모양이었다. 수저를 드리면 왼손으로 조금 떠먹다가 가만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면 내가 수저를 받아 밥을 떠드렸다. 막내딸도 성격이 차분해서 할머니 시중을 잘 들었다. 할머니가 대소변 실수라도 하는 날에 내가 집에 없으면 혼자서 옷을 갈아입혀 놓기도 했다.

13

막내딸이 할머니의 대소변 뒤치다꺼리 하는 날이면 나는 웬지 김제의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났다. 어머니는 머리가 꼬불꼬불한 고수머리였다. 아버지는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콩가루 짙은 걸 넣고 간장에 밥을 비벼 주었다. 다른 기억은 별로 없었다. 남편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면 노상 그것을 말했다. 그러면 남편은 다른 추억은 없냐, 묻기도 했다.

엄마는 나에게 아무런 추억도 남겨주지 않고 세상을 일찍 떠났다. 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도 엄마는 내 곁에 있지 않았다. 엄마가 알려주고 엄마에게서 배워야 할 수많은 세상의 지식들을 나는 스스로 터득해야 했다. 출산에 대해서도 나는 책을 통해 배웠다. 아기를 낳는 고통이 그렇게 크다는 것도 큰 애를 낳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엄마가 안계셨으니까 나는 책 같은 것이나 좀 봤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를 그렇게 집에서 나야만 되는지 알았어요. 애기를 그렇게 아파야 낳는지도 몰랐고, 무서워 가고 별별 떨면서 낳아요. 집에서. 처음에는 진짜 애기 낳라고 그라는 줄도 모르고.”

나는 세 살 터울의 두 딸과 함께 뭉가를 하는 것이 즐거웠다. 딸들과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싶었다. 엄마랑 해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딸들과 해 보고 싶었다. 제사 준비, 명절 상차리기, 나물 무치기, 시장가기, 옷 고르기. 그런 것들을 딸들과 함께 하고 있으면 엄마가 느껴졌다. 엄마가 가만히 옆에 와 지켜보는 느낌이었다. 딸들에게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추억 쌓기의 한 방법에 해당했다. 딸들에게서 한 글타자도 배우고 인터넷도 배웠다.

“아이들하고 앉아서 컴퓨터도 할 때도, 야 너 이리 와봐. 엄마 이거 알려 줘. 그러니까 한타 치는 거 그런 거는 많이 해요. 시에 올리는 게 있어요. 우리 활동한 사항을 올리는 것도 경기도에 들어가 가꼬 성남시에 들어가 까꼬 동네방네 코너에 들어가면은 태평4동에 육하원칙을 적용해 가꼬 올리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인제 내가 올려보고.”

14

태평동에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았다. 한때 버스 노선이 좋지 않았을 때, 태평동 고지대는 택시를 타야만 갈 수 있었다. 직장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로 이사 오기를 꺼리는 큰 이유였다. 그러다 보니까 방세가 낮아졌고, 지하방 같은 것은 500만 원도 가지 않았다.

그 후 단대동이나 중동 같은 주변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일부가 태평동으

로 옮겨 왔다. 대부분 없이 사는 세입자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노인네들이 많았다. 임대아파트로 들어가기에는 세 부담이 너무 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태평동으로 흘러들어 왔다. 수입이 없는 노인네들에게 태평동 지하방만큼 적당한 곳은 없었다.

독거노인들은 이나마 갈 곳이 있다는 것에 안도하고 감사했다. 그런 연유로 해서 태평동은 다른 지역보다 독거노인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동에서도 그런 상황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명절이나 연말이 가까워 오면 동장님도 사무장님도 바빠졌다. 후원을 얻기 위해서였다.

“명절 그런 때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쌀 같은 그런 것은 허고, 올해는 거의, 쌀 들어온 데는 쌀로 해주고, 상품권으로 많이 드리는 거 같더라고요. 사실 거 있는 분들은 사시라고. 여기는 거의 상품권 쓸 수 있게 다 해놨거든요. 가게들이.”

물론, 태평동 노인네 중에는 특별한 분도 있었다. 심문보 노인은 일흔을 넘어서까지 골프장에서 일했다. 잔디밭 풀을 뽑느라고 얼굴도 까무잡잡했다. 요즘은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으로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결코 풍족하달 수 없는 생활에도, 그는 추석마다 쌀 10킬로 짜리 10포대를 기증해 왔다. 또 경로잔치가 있을 때면 돼지 한 마리도 잡아 주었다. 몸으로 때우는 봉사활동은 그럭저럭 참여한다고 해도 자기 돈을 쓰는 일에는 선뜻 나서지 않은 세대 속에서 심문보 노인은 특별한 점이 있었다.

태평동은 세월 따라 계속해서 변해갔다. 빨간 황토흙 언덕을 올려다보면서 한숨

지었던 때부터, 천막집이 2층 벽돌집으로 거듭나고, 길들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여가면서 더 이상 장화 타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 되었다.

여름이면 충훈탑 옆에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이 개장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충훈탑 앞으로는 8차선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도로를 타고 가면 둔촌터널 쪽으로 연결된다고들 했다. 그리고 태평동 재개발이 시작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의 태평동이 되어 갈 것이었다.

태평동이 세월 따라 변하듯, 나도 세월 따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다. 공동 수도 물을 팔던 수도집 동생에서, 결혼한 후 야채를 팔던 야채집 주인,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장까지. 그 세월 속에서 큰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과 신기함, 또 막내딸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았을 때도 가졌던 즐거움. 돌아보면, 자식들이 주는 즐거움만큼 값진 것은 없었다.

“우리 막내딸이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1등을 했어요. 맨 처음에 1등을 했는데, 일등을 안 놓칠려고 3년을 계속 일등을 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 가꼬 내가 통지표를 갖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도지사상을 탔어요. 그 때가 좀 좋았던 같아요.”

16

요양원 1층에는 종종 장애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부녀회원들과 함께 한 달에 한번 꼴로 그곳에 들렀다. 아침에 마사지에 필요한 로션이랑 스킨 등을 챙겨 요양원으로 길을 나서면 마음은 편해졌다. 할머니들은 우리가 마사지를 하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1층 할머니들이 끝나면, 2층으로, 3층으로 올라가면서 마사지를 했다. 3층은 증세가 훨씬 나은 분들이었다. 그분들은 우리가 발마사지를 하는

것을 느꼈고, 행복해졌다.

“2층은 조금 중증, 3층은 많이 괜찮으신 분들. 발마사지를 거의 우리 한 달에 한번 정도 가거든요. 우리 회원들이. 약품이 있어요, 로션이랑 스킨이랑 있어 가꾸 하는데. 3층 어르신들은 아주 좋아해요. 중증 어르신들은 해주는지 뭘 해드리는지 모르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였다. 이미 마음은 비웠고, 욕심은 안 부렸다. 나는 봉사활동에 나설 때 즐겁고 행복할 뿐이였다.

과일가게에서 꾸는 꿈

태평동 승태씨 이야기





과일가게에서 꾸는 꿈

...

태평동 승태씨 이야기

1

그는 청송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어느 부농 집안의 양자였는데, 자신이 양자라는 사실을 몹시도 싫어했다. 그래서 술과 노름으로 세월을 보내느라 물려받은 큰 재산을 탕진해 버렸다. 결국 가족들은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부남면으로 이사를 했다.

1970년대 들어서자 나라에서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울산의 현대중공업 등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해졌는데, 그때 가족들은 아버지를 따라 울산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울산으로 옮긴 지 1년 만에, 그는 혼자서 부산으로 떠났다. 그 후로 오랫동안, 아주 최근까지, 그는 부산 시절을 생각하면 목이 메고 감정이 복받치는 느낌을 받았다.

부산에서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새마을학교에 다녔다. 주경야독은 다름 아니라 그것을 두고 이르는 말 같았다. 가족이 부남면을 떠날 때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태였고, 울산에서도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사실 그가 부산으로 갔던 것은 혼자 힘으로라도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인제 정비공장에 들어갔었는데요. 그건 어찌 저하고 안 맞는 거 같더

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일단 공부할 분위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인제 지인의 소개로 양장점을 가게 됐는데, 재단을 배워서 훌륭한 재단사가 되라. 그래서 그걸 낮에는 하고 밤에는 학원 같은데 다니다가 또 새마을학교라는 데 다니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구요.”

2

남포동이나 광복동은 부산의 변화가였다. 거리에는 양복점들이 즐비하였다. 그는 그곳 가게에서 일을 했다. 저녁이면 학원이나 학교에 갔다가 밤늦게 다시 가게로 돌아와 피곤한 잠을 청했다. 굶는 일도 많았다. 피곤한 상태에서 책을 보면서 시력도 나빠졌다. 그래도, 그는, 꿈이 있어서 즐거웠다.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꿈이라고 했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몰아닥쳤을 때 그는 일하던 가게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그때 부산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다. 그는 여름 한 철을 용두산공원에서 보냈다.

“이제 저도 실업자가 됐어요. 그 때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여름에는, 갈 때가 없으니까, 학원은 주로 밤에 가지 낮에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인제 낮에 굶고 물 먹고 책 보고 이런 식으로, 여름 한 때를 거기서 보낸 기억이 나고요. 용두산 공원하면 배고픈 생각뿐이 안나요.”

삶이 힘들 때 친구들은 큰 위안이면서 떨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친구들과 노는 것은 달콤하고 편했다. 놀다보니 힘든 공부가 싫어졌다. 공부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의외로 쉽게 사그라들었다. 글을 쓰는 작가나 정치인이 되고 싶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1막 1장을 펼쳐보지도 못한 너무 큰 꿈이었다. 그래도 부산 초기의 주경야독은 그의 삶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모름지기 그 때 당시에 제가 그래도 인생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까지 오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 제가 그 때 대충대충 살고 했더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것을 늘 찾아다니면서 했으니까, 서울 와서 무역회사도 다니고 또 최종적으로 무역회사 과장까지 쭉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3

그는 군에 입대하기 위해 부산 생활을 접고 가족이 사는 울산으로 돌아왔다. 그는 울산에서 지역방위로 14개월을 복무했다. 울산에 밀집한 산업시설 보호 임무를 띤 해안 경비 병력이었다. 일몰과 함께 야간 진지 근무에 투입되면 일출이 되어야 영내로 철수했다. 야간 근무는 또 다른 자신과 맞서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그런 때면 현실 속의 자신은 한없이 초라하고 처량해졌다.

“야간근무를 서머는 정말 처량하고 시간이 너무 너무 길어요. 원래는 4명이 들어가서 2명은 자고 2명은 보초를 서는데, 거의 고참은 12시까지 떠들고 놀다가 자고, 졸병들은 끝까지 말뚝근무를 서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담배를 배우게 되고, 그때 또,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는 그런 사람이 꼭 되어야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밤이 너무 싫어요.”

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마땅히 할 일이 없었다. 여전히 친구들과 노는 것은 재미있었다. 여자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다. 돈 있는 친구들 곁에서 하루 하루 즐겁게 보내면 그뿐이었다. 당구 치고, 술 마시고, 또 일요일에는 멀리 여행도 다녔다. 엄마와 아버지가 대놓고 욕을 해도, 그는 설악산으로 포항으로 마음껏 즐기며 돌아다녔다.

사실 중학교 졸업장도 없었던 그는 학력 미달이었다. 어떤 곳에서도 이력서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는 비밀 언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여자 친구의 집에 놀러가도, 빈둥거리며 허송세월하는 아이에게 호감을 가져주는 부모는 없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세상에 대해 주눅이 들었다.

4

부산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동조라는 친구가 있었다. 군 생활도 우연히 같은 부대에서 했던 친구이다. 동조는 제대 후 서울로 올라갔다. 어느 날 동조에게서 소식이 왔다. 울산서 사는 게 재미없고 부산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다면, 서울로 올라오라는 내용이었다. 친구를 걱정하며 그냥 한번 와보라고 했다.

그는 서울로 올라왔다. 가방을 만드는, 신정동의 조그만 가내공장이었다. 미싱 몇 대가 전부였는데, 그곳에서 그는 시다로 일을 시작했다. 쪼까이를 들고 실밥 따는 작업을 하기에는 군대까지 다녀온 나이가 너무 많았다. 공장의 다른 아이들은 모두 후배나 동생 뻘이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는 답답했고 자괴감마저 들었다. 갈등이 심했다. 같이 올라왔던 다른 친구는 참지 못하고 울산으로 내려가 버렸다. 하지만 그는 그것마저 불가능했다. 울산에는 그런 일자리마저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냥 꾸욱 참으며 하루 하루를 지냈다. 공장 아이들이 같이 지내는 작은 합숙소는 언제나 시끄러웠다. 아이들은 밤 늦도록 잠을 안 잤다. 매일 밤 술을 마셨고, 아무 일도 아닌데 가위나 칼을 들고 싸우는 일도 잦았다. 이러다 누가 죽어나갈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그가 기숙사 규칙을 만들었다. 어느 소실 속에 나오는 엄석대라는 인물처럼 그는 합숙소의 아이들을 휘어잡아야 했다.

“전부다 한참 후배 동생뻘들이 인제 미싱사고, 나는 나이가 먹었지마는 이제 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쫄병이었고 후배였는데, 몇 개월 지나면서 제가 모든 군기를 잡았죠.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비록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마는 정신상태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청소 같은 거 철저하게 시키고, 12시 넘어가면 무조건 소등하고 술 먹고 들어온 놈들은 무조건 기숙사 안에 못들여 보내는 걸로, 그렇게 규칙을 정했어요 제가.”

처음엔 반항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시다바리와 쌍소리를 들먹이며 대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옳은 일을 한다는 강한 신념이 있어서 꺾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억ვე웠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후배 뻘 되는 아이들과 싸우고 있는 자체가 싫었고, 싸우고 있는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그것을 내색하지는 않았다. 결국 그는 기숙사의 질서를 세웠고, 스스로는 자신감을 얻었다.

5

신정동은 임대료가 너무 비쌌다. 곧 돈으로 감당하기 힘든 곳이었다. 그래서 그는 성남 은행동으로 옮겼다. 은행동에서도 제일 싼 달동네에 10평 짜리 지하실을 얻었다. 그리고 미싱 3대를 우선 들여놓았다. 신정동 가방공장에서 그를 따르던, 솜씨 좋은 아이들이 따라와 미싱을 맡았다. 가방 공장의 시다로 출발한 지 2년 만에,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인제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달 후에는 미싱을 2대 더 사가지고 미싱사 다섯 명 시다 몇 명하고 해서, 또 주변에 동네 주변에 부분 작업을 하는 이웃 아주머니들도 20명 가까이 확보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일이 본격적인 궤도로 올라가나 싶을 때, 자신과는 하등의 상관없는 돌발 변수가 나타났다.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다가 싶더니, 급기야는 여파가 그에게까지 직접 미쳤다.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이 적다,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들고 나와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그의 공장으로 들어오던 원자재와 부자재의 공급이 멈춰버렸고, 그의 미싱들도 따라서 멈추었다.

두 달이 그렇게 지나자 빛이 늘어갔다. 더 이상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직원들에게 사정을 얘기했다. 그리고 일한 날짜만 쳐서 임금을 셈해 주고 내보냈다. 또 미싱을 처분하고 작업장 보증금까지 뺐지만 부분 작업을 담당했던 이웃 아주머니들의 임금을 가려주기에다 벅찼다.

“인제 망하면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한 금액과 나가야 될 지출을 100% 공개를 하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얘길 하고, 그 때 제가 평평 울었죠. 직원들은 저를 이해해 줬어요. 인제 부분작업비를 봉투에 담아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안 받았어요.”

6

그는 스물일곱 살 때 사업자등록증을 내려 다니고, 미싱을 사러 다녔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주저앉아 버렸다. 자신은 크게 잘못된 것도 없는데 처참하게 망해버렸다. 총각이 공장한다고 요모조모 도와주던 친구 어머니의 노고도 수포가 되어버렸다. 그는 울분과 패배감에 휩싸였다. 은행동 뒤쪽으로 이어지는 남한산성에 올라가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주저앉아 5일 동안 깨어나지 못할 만큼의 술을 마셨다.

그를 위로하고 달랜 건 아내였다. 아니 아내가 될 사람이었다. 그녀는 조달청에 다니는 공무원이었다. 그는 그녀를 이대 앞 호프집에서 처음 만났다. 친구의 호출을 받고 억지로 나갔던 미팅 장소였다. 그녀는 예쁜장한 얼굴에 검정색 브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늦게 도착한 그가 인사를 성의없이 한다고 핀잔을 주었다. 그는 경상도 남자가 다 그렇지 않냐고 살짝 비켜나갔다.

그 뒤 우연히, 그는 다른 친구의 생일파티에 갔다가 그녀를 다시 만났다. 알 수 없는 인연의 끈이 맞닿아 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호감으로 이어졌다. 마음을 고백하기로 하고, 그녀를 한강으로 데려갔다. 혹시 거절을 당해도 심난한 심사를 강물에 흘려보낼 수 있는 한강이 좋을 것 같았다.

“나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 하는 일도 보잘 것 없는 일이고, 한강 횡행한 데 거기서, 평생의 반려자를. 다른 데서 하려는 거절을 당할 거 같아서 여기서는 거절당해도 뭐 겁날 것도 없고 괜찮을 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내가 그 때 당시의 내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고 한강을 건너오면서, 자기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

은행동의 하청 공장을 접고 나서 얼마가 지났을 때, 하청을 주던 면목동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하청업체 사람들은 본사를 보통 무역회사라고 불렀다. 같이 일해보자는 일종의 스카웃 제의가 들어온 것이었다. 유일상사의 사장은 젊은 나이에 하청 공장 운영 경험이 있는 그를 높이 평가했다.

“저를 무역회사 생산부에서 일을 배우게 했습니다.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배우면서 책임자로 길르겠다 해서 제가 갔는데, 그 때 이제 가면서 일

본에 한 4개월 연수를 받고 와라. 이래서 일본 현지공장 가서 한 4개월 연수를 받는 와중에 인제 들어왔습니다.”

일본 연수 도중에 잠깐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려 할 때, 여자 친구의 어머니가 결혼하고 가라고 붙잡았다. 급히 결혼 날짜를 잡아야 했다. 그야말로 어جز지로 후딱 해치운 결혼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친형과는 불과 28일 차이를 두고, 달만 달리해서 결혼을 하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여자 친구의 자취방이 그대로 신희방이 되었다.

결혼식 때 들어온 부조금은 26만원 정도였다. 아무리 급작스럽게 결정된 결혼이었지만, 그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조달청 직원이던 신부 측은 하객들이 넘쳐났다. 자신과는 크게 비교되었다. 그럴수록 그는 보잘 것 없는 자신을 믿어 준 여자 친구가 고마워 가슴이 찡해졌다.

결혼 후, 그는 일본 연수를 보류하고 임시 개발실장을 맡았다. 개발실은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된 직원들도 있었다. 디자인과 소재를 결정해서 제품의 최종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데가 개발실이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한 자리가 개발실장 자리였다. 하지만 그는 경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처음에는 스스로 고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장은 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인제 하게 됐는데요. 그 때 일을 참 열심히 배웠던 거 같아요. 밤낮없이 배웠어요. 일을 모르니까.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일을 컨트롤하지 못하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실에 필요한 용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가계산.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참 정말 힘들었습니다. 할일이 너무 많고 힘들었는데.”

그는 일에 빠져 살았다. 일본 연수도 취소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실 업무에 뛰어들었다. 신희이었는데도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새벽 두세 시에 들어오는 남편을 신

부는 곱게 보지 않았다. 선임과장들 중에는 나이 어린 친구의 고속 성장을 못마땅하게 지켜보았다. 심지어는 어떤 이는 그것을 못 참고 회사를 떠났다.

8

3년 쯤 후에 지티케이통상에서 차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지티케이통상은 바이어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는, 에이전트를 겸하는 회사였다. 좀더 큰 회사가 바이어의 주문을 받으면 그것을 집행만 했던 유일상사와는 규모 면에서 다른 회사였다. 유일상사에서 이미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는 마음이 흔들렸다. 특히 자기를 믿고 전폭적으로 밀어준 사장님에게 미안했다. 그렇지만 그는 좀 더 크고 싶다는 자신의 야망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장은 그런 야망을 눌러 앉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너무 빨리 호랑이를 키웠다는 한 마디를 덧붙이며 그를 놓아주었다.

지티케이통상에서도 하루 하루 힘든 날이 계속되었다. 한번은 스웨덴에서 온 바이어를 직접 상대하는 일이 있었다. 헬렌이라는 바이어를 김포공항에서 직접 픽업하여 일주일간 동행하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지만, 그는 가능한 방법으로 헬렌과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했다.

“마지막회의를 하는데 헬렌이 이랬습니다, 정말 미스타 천은 대화는 잘 안됐지만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이 회사를 다시 한번 믿게 됐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뭘 못주겠느냐. 원하는 오다가 있으면 다 말씀하라. 이래서 우리가 그때 오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헬렌의 오더를 계기로 회사는 공장을 확장해 갔다. 하지만 그는 회사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1년 8개월 만에 신병을 얻었다.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인하병원에 입원했다. 진찰 결과 신경성 위궤양이 문제였다. 몸무게가 54키로까지 빠져 있었다. 의사는 무조건적인 휴식을 처방했다. 그를 신뢰하던 사장은 여러 가지 좋은 약재를 구해서 보내주었다. 유급 휴가도 내주었다.

두 달 간의 유급 휴가를 보내면서 그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30명 되는 직원들을 지나 가장 안쪽에 차장인 자신의 자리가 있었다. 책상도 필요 이상으로 컸다. 그는 아침마다 어깨를 곧게 펴고 사무실을 가로질러 자신의 책상으로 가곤 했다. 넓은 책상을 보면서도 그 정도면 자신이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만족하곤 했다. 그런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 큰 책상이 소용이 없었다.

“제가 이제 두 달 동안은 쉬면서 월급 받았는데 석 달째는 못 받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나가고 싶지도 않구요. 일을 하기 싫더라고요. 일 하기 싫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다른 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단순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신흥1동에서, 쌀가게를 하고 있던 옛 친구 동조 곁으로 이사를 했다. 동조는 그를 서울로 불러올렸던 친구였다. 동조는, 그가 그랬던 것처럼, 가방 공장을 운영했었고, 그것을 그만둔 후 쌀가게를 하고 있었다. 그의 퇴직 사유를 잘 알고 있던 터라, 친구는 그에게 장사를 권했다. 장사가 그나마 신경이 덜 쓰이는 단순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돈으로 선금 10만원을 치르고 트럭 한 대를 신청해 주었다. 그리고 오징어 장사를 하는 송형을 소개해 주었다. 송형은 그보다 여덟 살 위였다.

그는 트럭 장사가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청한 트럭이 나오게 되자, 송형에게서 장사하는 방법을 배웠다. 송형은 가락동 가서 물건을 떼는 법, 가끔씩은 산지에서 오징어를 직접 가져오면 좋다는 것, 손님이 많이 드는 장사 길목의 조건 등을 꼼꼼하게 알려주었다.

첫 장사를 나간 곳은 금광동이었다. 단대오거리에서 단대쇼핑을 지나면 갈라지는 길이 나왔다. 거기를 그냥 지나쳐 조금 더 가다보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고 50미터를 더 올라간 자리 좌측에 그는 트럭을 세웠다. 이제 소리를 외쳐 손님을 불러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 속에서는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나, 걱정만 맴돌았다. 겨울 날씨는 몹시도 추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내가 그곳을 찾아왔다. 아내는 추운 날씨에 첫 장사를 나간 남편이 걱정 되어서 출근을 하다 말고 되돌아 온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트럭 장사는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큰 걱정거리 하나를 떠안게 되었다. 오늘은 어디로 장사를 나가나 하는 걱정이었다.

“눈만 뜨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그래서 서울 수원 뭐 안양, 맨날 성남만 다닐 수 없으니까. 그중에 그래도 여기 집 앞에, 여기가 제일 잘 됐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번 오다가 나중에는 토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정해놓고, 약국 코너에 대 놓고, 그 때 한라의원 원장님이 여기 한라의원이 여기 있었는데. 한라의원 원장님이 내가 열심히 하니까 병원문 앞에 대 놓고 해도, 말을 안했어요.”

남시에도 포인트가 있듯이, 장사에도 좋은 목이 있었다. 얼마쯤 지나자 그도 역

시 장사목을 조금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요일별로 갈만한 곳을 미리 정해둘 정도까지 트럭 장사가 익숙해졌다. 그렇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장사를 나갈 수 없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손님이 없었다. 하루 하루의 장사가 날씨에 맡겨졌다.

11

트럭으로 오징어 장사를 할 때, 아내는 아이를 가졌다. 벌써 열 번째 임신이었다. 아내는 결혼 전에 첫 번째 임신을 했었다. 하청 공장이 주저앉았을 때 면목동에서 자취를 하던 아내에게 신세를 졌었다. 그때 아이가 생겼고, 결혼식 때는 임신 3, 4개월 쯤 되었을 때였다. 사실 처가에서 일본 연수를 앞둔 사람을 붙들어 놓고 결혼을 서두른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 부부는 첫 임신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 아내의 자취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은 앞날이 불투명했다. 아내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았다. 더구나 공무원이던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면 사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산아제한이 엄격하던 시대에 임신은 곧 사직과 같은 말이었다. 그는 아내가 조달청을 그만뒤도 충분히 가족 부양의 자신감이 있었지만, 아내를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실상 우리 집사람 의지를 꺾을만한 저의 의지가 약했었어요. 남자로서 판단력도 떨어졌고, 그래서 인제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애기를 없었는데, 그 이후로 첫 애기까지 아홉 번을. 자연적인 유산, 첫 번째는 의도적인 유산이었고요. 형편이 어려워서, 애기도 우리 얻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는 열 번째 찾아온 생명을 또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좋은 병원을 수소문하여 찾아다녔다. 의사들은 아내에게 무조건적인 휴식을 권했다. 그가 신경성 위장장애

로 회사를 그만둘 때도 의사들은 동일한 처방을 내렸었다. 그는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아내를 설득했다. 그리고 직접 아내의 사직서를 만들어 아내가 다니던 조달청에 제출했다. 그렇게 해서 1993년 12월 첫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

12

아기가 태어나 가족은 세 식구로 늘었다. 그 무렵 그는 신경성 위장장애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아내는 11년 다니던 조달청을 사직했다. 집사람이 별지 않게 되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개척할 시점이라고 느꼈다. 트럭을 몰고 떠돌아다니는 장사는 수입이 일정치 않았다. 그것으로 가정을 안정되게 유지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날도 그는 태평동 한라의원 앞에 차를 세우고 장사를 시작하였다. 주기적으로 오는 여러 곳 중에서 길목이 가장 좋은 곳이었다. 차를 세운 코너 건물에는 부동산, 사진관, 그리고 정육점이 쪼르륵 문을 열고 있었다. 그중에 사진관 형님은 오다가다 아는 체를 잘 했다. 그도 깎듯하게 인사를 하고 잘 지냈다. 그날도 사진관 형님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어이 자네 말이야 자동차로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가건물 있는 거 얼마 안 되니까 이걸 얻어라. 얼마예요. 이랬더니 200만원에 16만원이래요. 안 그래두나두요 지금 뭘 가게를 하나 하고 싶은데. 참 자동차로 돌아다니면서요 가게 하나 번듯한 가게 하나 얻어서 탁 하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진짜 너무 너무 부러웠구.” 그는 처음에 트럭 장사를 가르쳐 준 송형을 찾아갔다. 그리고 가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의견을 물었다. 송형은 가게를 얻되 과일 장사를 하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동 트럭 장사를 2년 만에 접고, 가건물을 계약해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다.

과일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아내는 백일 된 아기를 업고 가게 일을 도왔다. 그는 건강이 완전하기 않았기 때문에 일을 좀 하면 피로를 많이 느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는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도 과일 가게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가게는 간혹 세일 행사도 했다. 더운 여름에 딸기 50판을 들여놓고 세일을 한 적도 있었다. 송형이 도매상에게서 싼 가격으로 딸기 100판을 사들여 그의 가게에 50판을 보낸 것이었다. 용달차로 가져온 딸기를 가게에 들여놓자, 가게는 온통 딸기뿐이었다.

“아침에 2만3천 원이었는데 만8천 원 계산해 주니까 한 90만 원 정도 돼요. 90만 원 정도, 다 망해봐야 뭐 90만원이네. 9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 때 당시. 그래서 에이 다 망하겠나! 한 절반 망하겠지 망해도, 그렇지만 세일해주는 효과는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저녁 무렵부터 세일 행사가 시작되었다. 그 날 저녁으로 다 팔지 못하면 더운 날씨 때문에 딸기는 쉬 물러져 버릴 것이었다. 세일은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때 난 데 없이 세 명의 남자가 들이닥치며 그를 찾았다. 남자들은 주머니에 드라이버, 과도 같은 것을 꽂고 있었다. 알고 봤더니 윗동네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남자들은 저울을 획 집어던졌다. 딸기판 하나를 엮어버렸다. 드라이버로는 여기저기를 푹푹 찔러댔다.

그는 세 남자를 맥주집으로 끌었다. 그리고 가게 홍보 차원이니 오늘날 이해해 달라고 사정 얘기를 했다. 강경하게 나오던 남자들도 맥주가 들어가자 누그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중 한 남자는 과도를 탁자에 꽂으며 여전히 강경했다. 그도 더 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맥주 테이블을 뒤엎어버리며 마음대로 하라고 강경하

게 나갔다. 두 남자가 말리고 한 남자의 기세가 누그러들면서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그 후에도 한 남자는 술만 먹으며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14

건물 옆으로 늘어낸 가건물 과일가게는 비좁았다. 아기를 낳힐 장소는커녕 밥 먹을 공간마저 없었다. 아기는 업고, 밥은 서서 먹을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가건물이라 늘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윗동네 과일 가게 남자는 잇을만 하면 가건물 가게를 불법건축물이라고 구청에 신고를 해댔다. 그럴 때마다 구청에서는 가건물을 철거하라는 공문이 날라왔다.

그러던 차에 가게 자리가 하나 났다. 사진관과 나란히 붙어 있던 정육점이었다. 정육점의 주인아줌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장사 인심을 잃고 있었는데, 갈수록 장사가 안 되자 권리금 천만 원에 가게를 내놓았다. 가게를 인수하고 싶었지만, 아파트 분양금을 넣고 있던 때라 가진 돈이 많이 부족했다. 주변의 상인 중에도 탐내는 사람이 몇 있었는데, 일단은 그에게 양보를 하며 사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도 송형에게 상의를 하고 그에게 급전을 빌렸다.

가건물 3개월 만에, 그는 정식 건물에 가게를 가졌다. 정육점 가게는 뒤쪽에 방이 하나 딸려 있었다. 자리도 꽤 넓었다. 무엇보다도 구청의 단속이 없어서 좋았다.

“장사가 너무 잘 되가지고요 이틀만 하면 몸살이 나요. 아침을 빨리 먹으면 12시 1시고, 3시 4시 돼서 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지쳐가지고 아마 배고파서 몸살 났던 거 같아요. 시장을 가면 막 살게 많으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밥 시간 놓쳐 버리구요. 집에 갖다놓고 밥 먹어야지 그러면서 와서 물건 내리면서 손님 계속 와요.

그러면 또 팔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장사는 몸살이 날 정도로 잘 되었다. 일요일도 쉬지 않았다. 명절 아침에도 그는 가락동 시장으로 과일 떼러 갔다. 그 덕분에 아이들은 명절 문화라는 것을 몰랐다. 아이들은 명절이면 늦잠을 실컷 잤다. 그가 하루 장사를 끝나면 시간은 12시를 넘었다. 그러면 그는 그 시간에 가게 앞을 쓸었다. 저쪽 약국에서부터 이쪽까지 마당을 쓸듯이 도로를 쓸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 태평동이 고요해졌다.

15

그는 꾸준히 과일 가게를 했다. 그러는 동안 둘째도 태어났다. 아내도 가게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장모님이 맡아서 키워주었다. 그의 아내는, 남매로 자라고 공무원 생활만 해서 그런지, 처음에는 장사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다. 개인 기업체에서 일했던 그와 달리, 그의 아내는 우월감, 무사안일주의에 깊이 젖어 있었다. 그러니 손님들에게 뻔뻔하고 불친절하기 일쑤였다.

“공무원은 굉장히 우월한 사회 분위기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장사를 할려니까 이게 됩니까.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화가 나서 사과 진열하다가요 진열판을 엮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과가 막 내리막길을 줄 줄줄 흘러내려 가지고, 저 학교 앞까지 막 온 천지가 사과 아닙니까.”

그는 간혹은 강압적일 때도 있었지만, 아내의 불친절한 태도를 고쳐야 했다.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게, 그리고 최고 품질을 유지하는 가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느 수준의 가격대에서 품질을 유지할지 고민도 많았다. 어떤 때는 좋은 것만 갖다 놓으면 손님들은 비싸다고 도망가 버렸고, 또 어떤 때는 과일이 맛이 없다고 쓴 과일은 쳐다보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품질이 좋은 쪽을 고집했다.

그렇게 아홉 해가 지났을 때 과일 가게가 들어있는 건물 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내놓았다. 건물이 팔리면 과일 가게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닦아놓은 기반이 물거품이 될 판이었다. 그는 돈을 긁어모았다. 하지만 건물을 인수하기에는 형편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그는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친목계를 같이 하던 형님들이 형편대로 도와주어서 집을 살 수 있었다.

16

송형은 이름이 병길이었다. 병길이 형은 새로운 일을 넘보기를 좋아했다. 한번은 여주에 땅을 산 적이 있었다. 땅을 사면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와이프 몰래 빌려주었다. 그런데 와이프의 반대가 너무 심해 돈을 돌려줘야 할 판이었다. 결국 병길이 형은 돈을 구하지 못해 찢찢매게 되었다.

그는 과일가게가 잘 되었다. 하루 장사가 끝나면 여전히 가게 앞 도로를 마당처럼 쓸었다.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잔금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때였다. 그는 병길이 형에게 신세를 갚고 싶었다.

“나는 그 형님한테 큰 신세를 졌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시기에 아파트 들어가기도 싶더라고요. 또 아파트 들어가면 내가 출퇴근 비용이 또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요. 처분해서, 형님 제 돈을 쓰세요.”

병길이 형은 땅을 개발하여 식당을 짓고 세를 주었지만, 여전히 빚으로 고생이 많았다. 끝내는 장사를 포기하고 과일 농사를 짓기에 이르렀다. 병길이 형이 기르는 사과는 경기도에서 사과 대상을 받을 만큼 품질이 좋았다. 그는 빌려준 돈 대신 사과밭과 배밭을 통째로 한번씩 받았다. 병길이 형은 그렇게 빚을 갚고, 세주었던

식당에 손두부집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다.

17

그는 태평동에서 17년 동안 과일 가게를 해 왔다. 시작할 때 백일이었던 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다.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았다. 5년이 지나서 가게를 내놓기도 했었다. 애초부터 5년 정도 해서 밀천이 모이면 다른 데로 뜨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상대로 5년 만에 돈을 꽤 모았다.

“가게를 내 났는데 보러 온 사람이 한 두 명이었는데. 그 때 권리금 3천만 원 정도 내놔거든요. 권리금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제 한 두 사람 와 보더니, 가게 한 쪽만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개를 가건물과 본건물을 터서 하는데 한쪽만 달라고.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두 칸 되잖아요. 정육점 한 칸 과일가게 한 칸. 한 칸만 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은 처분을 못하구요.”

사실, 처음 오륙년이 17년 세월 중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던 시기였다. 그리고 나서 IMF 일 년 전부터 서서히 내리막길이었고, 요즘 들어서는 많이 부진했다. 그때부터 닦아놓은 기반과 쌓아온 신뢰를 가지고 장사를 유지하였다. 어린이집이나 관공서 납품, 이바지 같은 중요한 선물, 등의 판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품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18

긴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태평동 터줏대감이 되어갔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통장으로 추천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는 매번 거절하다가 다섯 번째 제의를 받고

더 이상 물리칠 수 없었다. 주민자치 시대에 주민들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가 통장이라는 자리였다.

태평4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네였다. 노인들, 특히 고령의 할머니들이 유독 많은 동네였다. 어쩌면 노인들은, 그가 처음 태평동 과일 가게를 냈을 때 거기서 과일을 사주었던 손님들이었을 것이었다. 그러다 한 시절이 지나면서 나이 들고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것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통장 일에 열정적이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통장을 하고 통장협의회를 책임지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로가 파였거나, 울통불통하거나, 비가 와서 물이 잘 안 빠진다거나, 모기가 너무 많이 생긴다거나, 또 도로 가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생긴다든지 주민들 간에, 이런 저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동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노력했다. 영장산 공용 주차장 옥상 위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차양막을 설치해서 날씨에 영향을 덜 받고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것도 그가 구청에 건의를 함으로써 가능했다.

19

현재의 태평동은 3년 안에 철거가 시작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그는 영장산 밑 구릉지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전망 좋은 아파트촌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했다. 바람도 시원하게 부는 친환경적 아파트를 예상했다. 영장산 터널이 개통되면 서울의 위례 신도시와도 터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가까

운 거리가 될 것이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구역지정이 돼서, 이제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받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 동의를 끝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될 것이고. 그런 절차가 한 2-3년 안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싫든 저희들은 이제 아마 3년 안에는 철거가 되지 않나 싶어요. 남문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쪽으로는 철거 대상 지역이구요, 아랫역 지역은 고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는 태평동이 아파트촌으로 재개발되어도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부산에서 힘든 세월을 보냈던 것과는 달리, 아이들은 멋지게 개발된 새로운 아파트촌에서 스스로 꿈을 키우며 커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행복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가끔씩은 영장산에서 약진로를 가로지르는 구름다리를 건너 남한산성 쪽으로 먼 산행을 다녀오곤 할 것이다.

구술자료

태평동 박영호 · 정형주 녹취록

일러두기

- * 조사자와 구술자만을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전사하였다.
- * 구술 대상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에서는 문단을 나누고 구술자 표지를 첨가하였다.
- * 호응이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어구는 따로 문단을 나누지 않고 괄호 () 속에 전사하였다.
- * 이해하기 어려운 어구는 이중괄호 () 속에 표준어를 병기하였다.

구술자료

태평동 박영호 · 정형주 녹취록

구술자1 : 박영호

구술자2 : 정형주

조사자 : 장노현

* 2009년 10월 11일 박영호 선생님 정형주 선생님 서사인터뷰 녹음합니다. 예

구술자1 : 예 그러니까 진 뭐 시골서 살 적에는 진천이 여기가 참 가까운 저기래도 정말 그 전에는 중부고속이 없고 저쪽 영등포 저쪽으로 해서 비포장으려다 땡기는 길로다 땡길 적에 가까운 길이라든 하루 종일 가고 하루 종일 오고 정말 이렇게 땡기면서, 나도 여기를 들어와 가지고서 한 삼년 간을 여 진천 가서 농사도 지며 여기 와서 장사도 하며 이렇게 왔다갔다 지내. (3년 정도요?) 예 예 예 하다가 인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여기다 그냥 진천 인제 땅은 전부 저기를 하고, (거기에 땅 있어요?) 예 예 있는 거 동생한테 전부 인계를 하고, 전부 인감 떼어줘서 동생한테 전부다 하고, 여기 올라와서 인제 처음에는 인제 뭐...

조사자 : 근데 진천에서 왜 이렇게 떠나실 생각을 하셨어요?

구술자1 : 아 인제 우리 거가 아주 산골인데 정말로 나무 장사하기 싫어서 정말 떠났습니다. (나무장사.) 예 지게 지기 싫어서 한 마디로는.

조사자 : 나무장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해 주십시오.

구술자1 : 근데 거기가 그때 내가 그니까 40년 전 저기에는 나무장사 아니고 솔직히 거기가 전부 산악지대예요 진천이. 산악지대기 때문에 여름에 이렇게 농사를 조금 지면은 가을에 한 10월 달쯤 정도 되면은, 인저 그전에 산에 인저 발매라고 그래요. 저기 목상들이 허가를 내가지고서 산을 발매를 해요. 그럼 뭐를 하느냐 하면은 숲도 굵고 또 소나무 같은 거는 또 인저 그때는 한옥집을 짓고 많이 이런 걸 하니까는 서까래 감 기둥 감 이런 거를 뽑아내서 인저 한 3, 4월 끼정은 인저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니까 순전 지게질 노동이지 한 마디로 말하자면은, 시골에서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밥을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요. 이래서 또 한 4월 달 되면 농사를 여름에 조금 짓고 또 인제 그 이듬해 가면 또 그라고, 살아봤자 참 뭐 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년 먹고 사는 게 고기서 먹고 사는 거야 승부가 없이 그것이. (뭔가 승부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게 없어요 예. 농촌이라는 게 뭐 지금도 농촌이 그렇지만 그때는 더 했습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되도 발매 산에 쫓아댕기면 죽어라고 일을 하는 사람은 남한테 쌀을 안 꾸러댕겼지만, 솔직히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이 장내쌀이 그때가 얼마야. 장내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땐 시골서, 쌀을 한 가마 갖다 먹으면 가을에 열닷말을 줘요. 그럼 그 이자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걸 그렇게 줘요. 그러면 겨울에 가서 나무장사래도 하고 뭐를 하고 하는 사람은 장내쌀을 놔. 담은 한 가마를 놓던 두 가마를 놓던. 그러면 한 가마 놓면 열닷말, 두 가마 놓면 세 가마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있는 사람들은 쪼금 승부가 쪼금 있어 남한테 인저 쌀 안 꾸러댕기고 밥 안 얻어먹으러 댕기고 있는데, 그것도 아닌 사람은 솔직히 농촌에서 남한테 쌀 얻으러 댕기느라고, 그것도 신용이 좋아야 주제 신용 안 좋으면 안 줘요 쌀도 또, 하하. 지금도 누가 돈 꿔 달라면 신용없는 사람은 돈 꿔줍니까? 안 꿔주지요. 똑 같아요 그때도요 예. 그런 식으로 다가 솔직히 제가 정말 삼십 몇년 넘도록 저기서 살다가 군대 제대해 가지고 나와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이제 이건 아니다 여기서 이저 일 하다가는, 제가 인제 애덜이 아들 둘 딸 둘 인제 사남매를 뒀는데, 이걸 공부에는 도저히 희망.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자식 공부를 어떻게 시킵니까 이거를. 도저히 되지를 안하는 일이다. 그래 가지고서 그때 인저

제가 인저 조금 인저 그 뭘 지독하게 해갖고 좀 여유돈이 쪼금 있었어요 인저. 그래가지고서 인저 69년도에 여기다가 40평을 산 거야. 지금 산 고 옆에 저기를. 거 주소를 그때 산 거예요. 샀는데

조사자 : 요쪽에 성남이란 데를 어떻게 아셨어요?

구술자1 : 아 성남에를 쥔 침에 알기는 고때 인저 우리 고모부라는 양반이 막내 고모부가 여길 먼저 인저 저 인저 음성에 사셨는데 이 양반이 장사를 하러 땡기고 나보다 더 발이 넓게 돌아댁기신 양반이 여기 개척질을 한다는 거를. 저는 몰랐죠 인저 그거를 몰랐는데. 우리 고모부라는 양반이 야 너 조금 저 그니까 처조카지 제가 인저. 그래서 고모부라는 양반이 거기 너 조금 여유돈이 있으면 거기다 좀 사놓고서 글리 저기 하는 게 아무케도 지금 사 놓면 농사지면서 얼르던 거기가 조금이라도 올르고 떨어질 거는 아니다. 인제 이래서 40평을 사놓았어요 쌀을 얼마 팔아가지고서.

구술자1 : 사났는데 여기가 내가 인제 그때 조금 비싸게 샀어요. 그때가 인자 가격 이. 그러다가 여기가 그때가 70 (또 잊어버리니까 내가) 75년도간 여기 데모 난지가 74년돈가 75년돈가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여기 데모 나가지고서 서울꺼정 밀고 나가고 그때 성남 아주 다 그냥 쓸어서 쓴다고 이럴 적에 솔직히 정말 그때 데모가 나고 나가지고서는 참 여기 땅금이 쌌어요. 푹 떨어져 가지고선 (얼만지 기억나세요?) 20평에 4, 5만원 가는 것이 좋은 땅이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2, 3만원 가고, 2미터 도로 같은 데는 2, 3만원 가고, 4미터 4미터 코너 같은 데가 그런 데가 5만원 가고 이렇게 값어요. 데모 나기 전에는 10만원 20만원 가던 땅이. (푹 떨어졌네요?) 그러게 푹 떨어졌지요.

구술자1 : 그제 인저 그것도 데모도 또 왜 났냐 하면 서울서 이렇게 저기 해서 땅 20평짜리 분양을 전부 요렇게 해줬는데. 그 20평짜리 분양지를 솔직히 정말 서울서 그 김현욱 시장님이 여기 살 적에 돈 일이백 원 주고 산 거를 이 저기를 한 20평의 분양지 땅 값을 갖다가 이삼십만 원씩 뒀. 그때 이삼십만 원이면 컷습니다. 쌀 한 말에 그때 쌀 한 가마에 칠팔만 원 갈 제니까는 육칠만 원에서 크게 팔만 원 가고 그럴 땡니다 그때가 예. 그러니까 몇 십만 원이면 엄청 크죠. 그때 성

남시 사람이 땅값 땀에 데모를 한 거지 누구 미워서 데모 난 건 아니에요 솔직히.

구술자 : 그때 우리가 요기 인제 지금 인하병원 뒤 아시는지 몰라 인하병원 지금 짓는데 먼저 시청이 거기 있었고 지금 인하병원 됐다 폐쇄된 걸 지금 건물 크게 왜 짓는 거 있죠 그 뒤에가 전부 공땅이었었어요. 그래 거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김현욱 시장이 온다고 와서 해명을 해 준다고 했는데 모여 있는데 안 오더라고. 그래 이제 저녁 때 그때가 한 내가 알기로는 한 2시 정도 됐을까 그니까. 뭐 우리는 그때만 해도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병이고 나 같은 사람은 인제 거기 또 인제 서울하고 연락하는 사람이 주동자들이 있었고, 이러는데 김현욱 시장이 못 온다고 인제 뭐 이런 연락이 왔다고 그라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들고 인나서 거기 바로 시청이 시청 자리 인하병원 자리가 시청이었었어요. 그니까 뭐 젊은 애들 뭇이 그 데모를 할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데모가 갑자기 인나더라고 그 것이. 젊은 애들이 갓길로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들어가서 막 시청 때려부시니까 그 뒤에는 사람이 수천명 모여 있으니까 누가 뭐 직원들이 누가 뭐랄 사람이 있어 허허.

구술자1 : 그래 막 불을 싸질르고 이라니까 그 소방서가 지금 어딴냐면 저기 저 성호시장 고개 가는데 고 잔등에 고기가 경찰서가 고기 저 신흥3동 지금 경찰 파출소가 경찰서 자리였어어요. 그래 막 고기서 소방차가 오고 막 그냥 이려고 가는데 소방차가 와서 시청에 불지른 걸 끌라고 이라는데 사람들이 꼭 막히니까 그때는 복개가 안 됐으니까는 거 앞에가 복개가 안 되고 다리만 있으니까는 다리에 사람이 꼭 서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그박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래 그제 인제 성남시가 데모가 된 건데. 솔직한 말은 그때 와서 김현욱 시장이 와서 인제 땅값을 내려 준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랬으면 원래 데모는 없었을 거예요. 데모를 할라고 모인 거는 아니예요. 인제 이렇게 저 타협을 할라고 상의를 할라고.

구술자1 : 그때는 이 정부 지금은 뭐 청와대 뭐 무슨 이렇게 뭐 장관들 뭐라고 그러지만 그땐 서울시장이 전부 주도를 했어요 여기를. 서울시장이면은 대통령보다

끝밭이 시었었어. 여기서 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지. 대통령은 뭐 그런 거 지시할 저기가 아니고. 서울시장 그 때 김현옥씨라고 그 양반이 시장할 적이 그냥 이걸 그냥 전부다 해가지고 그 양반이면 뭐 말 한 마디며는 참 천 원짜리가 백 원도 되고 백 원 짜리가 십 원도 되고 할 수 있는 저기가 됐었어요. 그 김현옥 시장 하나며는.

구술자1 : 그래서 인저 여기가 인저 그렇게 되서 여기로 인저 들어와서 이적꺼정 그렇게 살았어요. 살고 인저 뭐 제가 인저 그러다보니까 여기 와서 인저 장사를 하면서 인저 살다보니까 뭐 인저 그 때는 방범위원장이라고 그라고 또 인저 통장 뭐 새마을 지도자 뭐 인저 이런 거를 맡아갖구서 이렇게 쪽 살어나온 게 인저 최종에는 솔직히 저 노인회장까지 맡게 됐네요. 어떻게 인저. 살어 나온 과정은 그 래요 허허 뭐 또 딴 거.

조사자 : 처음 그 성남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 3년 정도는 왔다갔다 하시면서 농사 도 짓고 장사도 하고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왔다갔다 할 때 뭘 주로 타고 다니셨고.

구술자1 : 아 그 때는 아 여기가 인저 그 때 여기 땡길 적에는 이 서울루 해가지고 영등포로 해서 진천을 갈라며는 천안으로 해서 천안서 이렇게 진천을 넘어 땡겼어요. 넘어가는데 이 여기 저 광나루 다리라고 지금 말하자면 천호동 그쪽으로 다가 광나루다리 하나 뻥이 없었어요. 이 밑에 그 저 이 다리 놓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호동으로 광나루 다리 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라니까 하루 종일이 걸리는 거예요. 진천 그 가까운 데를 가는데도. 이렇게 땡긴 것이 한 3년간 왔다갔다 농사를 지으면서 다녔지요. 인저.

조사자 : 이쪽에는 누가 사시고 계셨는데?

구술자1 : 우리집 식구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애덜은 거기서 인저 제일 큰 애가 인저 국민학교. 둘째도 진천서 국민학교 백옥서 진천 백옥면 살았으니까 백옥면서 거기서 인저 둘은 거기서 하나는 5학년 때 하나는 3학년 때 인제 일리 개네들은 인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오고 둘은 인저 여기 와서 인저 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인저 왔다갔다 할 적에는. 그 때 저기로서는 교통이 이 저 시골로

내려가는 이 저기 다리가 성남에서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광나루 다리 그전에는 광나루다리라고 했어요 그거를 저. 천호동에서 이렇게 나... 지금은 폐쇄되고 없지마는 그 다리가 인제. 그렇게 땡겨가지고서 그렇게 하루 종일 걸리고 진천서 올라오면 또 인제 하루가 걸리고 인제 이런 식으루다가. (버슨가요? 타고 다니신 게?) 버스지요. 버스지. 솔직히 콩나물시루라고 그러나 뭐라나 그 한군데 밖에 없으니까 그 길이. 그러면서 인제 그렇게 다녔지요.

조사자 : 3년 해보시니까 농사를 다 접고 올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구술자1 : 그러니까 거기서 3년을 왔다갔다 하니까 여기도 안 되구 거기도 안 되구 이런 실정이죠. 농사도 거기서 꼭 박혀서 지어야 농사꾼이 되고 뭐 하는데 벌써 마음은 여기와 떠나 있는데 남 주기 싫으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제 동생이 거기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저 내거하고 개 앞으로 있던 거 하고 그냥 인감 줘서 니가 다 지어라 농사짓고. 하고 여기 와서 (땅 명의를 동생한테) 그렇지요 동생한테 싹 넘겨줬죠. 넘겨주고서 (팔고 올라오셔도 될 텐데) 에이 그거 아 또 동생인데 그걸 팔으면 아 또 여기 와서 또 어차피 고생하는 거 고생하면 밥은 먹고 살겠더라구요. 쌀장사 뭐 연탄장사하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천서 지게질하기 싫어서 여기 올라왔다가 여기 올라와서 지게질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연탄 배달하느냐구 하하하하하하.

조사자 : 그러면 그렇게 올라오셔서 맨 처음 시작한 장사가 연탄장산가요 쌀장산가요?

구술자1 : 아니 제일 처음에는 인제 이 슈퍼 구멍가게 조금 하다가 쌀 허가 내기가 여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쌀이 지금은 아무나 팔잖아요. 그전에는 이 연탄 쌀을 팔...쌀을 팔면 연탄 허가를 내줬어요. (아 같이 하라구!) 예 예 예. 같이 하라구 어차피 쌀장사가 연탄을 만져야 되니까는.

조사자 : 그런 게 있나요. 왜 그렇죠?

구술자1 : 아 인제 연탄만 하려는 두 가지를 해야 그거 인제 (수지가) 그렇죠. 쌀을 가져가면 불을 때야 밥을 해먹으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다 해가지고 또 여

기서 어떻게 인저 처음에 구역이 어떻게 되냐 하면 성동구청 여기 관할이었어요. 여기 행정이. 행정이 성남이 성동구청 관할해서 이 쌀 허가를 내주고 세무소는 이천 세무소에서 세금은 이천세무소에서 세금을 받아가고. 근데 여기 들어와서 솔직히 정말 시골서는 나무장사하고 농사짓던 놈이 여기 와서 뭐 탄 거는 할 게 없는데 쌀 만지던 놈이니까 쌀장사 밖에 할 거 없어요. 그 때는 전부 정부 양곡이니깐요. 그래서 성동구청에를 여기 쫓아다니니까 시골 참 촌놈이 성동구청에 가서 참 누가 맥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걸 할라면. 하하하하 이래가지구서 그래두 참 아닌 게 아니라 참 어떻게 자꾸 쫓아다니니까 아는 사람이 생기더라구. 그것이 하하하하하. 인저 뭐 그냥 안 되면 쫓아 가구 또 안 되면 또 쫓아 가구. 이래가지구서 쌀장사를 여기가 제일 처음 성남시에 쌀장사가 몇 명이었냐 하면 16명 밖에 없었어요. 이 큰 바닥에. 정부에서 허가내준 쌀장사가 16명이야. 그 때 요 밑에 그 저 백세현 씨가 제 1위루다가 쌀장사를 허가를 낸 거였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응 그 때 내가 널 적에가 그 다음에 케이스루다가 백.. 그 때 백 몇 명인지 자세히 모르겠네 120명인가 130명인가. 요기 인제 고걸 늘쿠는 케이스에 제가 들어간 거야. 하두 쫓아가니깐 그냥. 성동구청에를 아는 놈도 없는데 그냥 쫓아가 가지구 대가리 디밀구 사정을 한 거지. 뭐 밥 먹고 살라면 어떻게 할 수 없구. 하니까 쌀장살 하겠다 나는. 그러니까 아주 허가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주는 거냐 그거를 당신만 해주느냐고. 근데 2차 나올 적에 제가 쌀장사를 하고 쌀장사를 여기서 일찍 시작했어요.

구술자1 : 그 때는 쌀을 이렇게 갖다놓으면 배급제로 이렇게 노나 줬어요. 그냥 이렇게 쌀을 파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때는 쌀을 파는 게 아니고 솔직히 여기 사람들이 일반미는 같은 거는 먹도 못하고 정부 양곡 주는 것만 갖고서 그제 거기다가 옛날에는 참 뭐 저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 같은 것이 참 뭐냐 안남미 쌀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거에다가 보리쌀 눌러가지구서 혼합곡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잡숴보셨는지는 몰라도 혼합곡이라고 해서 그제 얼마냐 하며는 응 인저 보리쌀이 20% 쌀이 80%를 이렇게 섞어서 인제 그걸. 아주 섞어서 나와요 혼합곡이라고. 이런데도 여기 사람들은 그를 보리쌀 눌린 걸 더 섞어

다 거기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그랬어요.

구술자1 : 그러니까 여기 성남에서 참 솔직히 정말 초단기 70년 초반에 이렇게 들어 온 사람은 참 여기서 그랬었어요. 내가 참 엇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가 ..아트센터 내가 여기 지은 거 초단기에 참 이렇게 그 저기해가지고 여기 정말 마누란 없이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는 말이. 포장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비만 오며는 이 비가 오며는 그냥 비탈이니까 골목이 저서 막 이렇게 그냥 막 장마가 지면 흙이 패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요런 뚝으려다 양쪽으로는 가운데는 패였으니까 뚝으려다 하나까는 리어커도 못 끌고 천상 지게로 연탄을 저 다줘야 되니까 지게질을, 아까 지게질을 더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게질을, 이렇게 지금처럼 포장이 돼 있으면 리어카라도 끌지요. 지금 같으면 차도 쪼그만 게 많으니까 뭐 지금도 뭐 오토바이도 좋고 뭐도 좋네 그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는 인저 지게로다가 인저 천상 지고. 또 물지게 마냥 우리 집식구는 물지게 마냥 맨들어 갖구 거기다가 양쪽에다가 한 다섯 장씩 열장이라도 물지게 마냥 지구 갖다 날르구. 그렇게 해서 먹고 살은 데가 여기요.

구술자1 : 그래서 그 때 지금 그렇게 인제 여기가 성남시가 여기 와서 인저 브로커 집 전부 집 기와도 못 입혔어요 지붕에다가. 돈이 없어서. 루뽕집이지 루뽕집.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서 그만치도 못사는 사람은 또 인저 이렇게 저 다루끼라고 말뚝 이렇게 세워가지고 루뽕으려다 돌리고 쪼금 나은 사람은 브로커라든가 쑥고 참 이렇게 조금 살고. 이 기와 올린 집이 몇 집 없었어요 여기 초단기에. 나도 이렇게 살았지요. (70년대 초반에) 그렇지요. 그렇게 살은 것이 한 15년 넘겨 그렇게 살았습니다. 70년도에서 부터 80년대 꺼정 그렇게 살은 거지 얼추 인저. 80년대. 그 때서부터 지금 이렇게 3층집이 전부 저 있는 게 그러니까 80년 저 저 중순서부터 이적꺼정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기가 예. 그 도로포장도 됐고. 인저 지금 이렇게 참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니까는 지금 뭐 이렇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보리밥이라도 해서 이웃사람 불러서 신작로에서라도 참 이렇게 노나서 이렇게 밥이라도 말어 먹고.

구술자1 : 솔직히 지금 이렇게 요기 가운데 버스. 동사무소 있는데서 버스 다니는

길 밀치루는 그렇게 단합 안 됩니다. 그렇게 안돼. 고짜으로는 너는 너 나는 나 무슨 도시에 아파트 생활마냥 그렇게 단합 안돼요. 근데 이 우로는 또 여기는 시골 집안들 같애요. (이쪽에는요?) 요 우로는 그래요. (원래 아는 사람은?) 원래 아는 사람은 하나도 아니죠 전부 남남이죠. 전부 남남이죠. (꼭대기까지 올라와) 올라와 빈촌이 외래 더 이렇게 단합이 되더라구요. 제가 여기서 볼 적에. 그러며는 지금도 여기가 그래 우리 노인정인데 여기 지금 저 한 60명 되는데 누가 할머니가 하나 빈대떡 해먹자 그러면. 밀가루 요만치 가져오고 누가 호박 하나 갖고 오고 누가 깻잎 따오고 뭐 뭐 갖고 고추 따오고 뭐 하고 하면 금방 금방 빈대떡 만들어요 그냥. 할머니들이. 지금 그래요. 근데 노인정도 저 밑의 노인정은 안 그래요. 그저 화토 안치면 사람 안 모여. 안 모여. 근데 우리는 화토를 치나? 절대 화토. 아니 오후에 조금씩 해서 할머니들 10원내기라도 치라구 그래두 화토 절대 안 칩니다. 안쳐요. 그리고 오전에 한 3시 전에 이런 때는 술을 절대 점심 먹을 적에 제가 없으면 또 어떨 땐 한잔씩 먹을 수도 있나 봐요. 저 있으면 절대 안 먹요. 세시 넘어야 술을 먹으라고 그래 나는. 암만 할머니들이고 할아버지들이고.

조사자 : 아까 그 쌀을 배급제로 했다는데. 배급제는 어떻게 해서 쌀을 어떻게 나눠주는 겁니까?

구술자1 : 고고는 인제 아이 인제 고게 인제 이렇게 쌀이 인제 쌀장사 허가가 인제 예를 들어 나오.. 제가 100명인지 120명인지 이렇게 됐으면. 인제 이저 쌀로 된 것이 뭐 예를 들어 다섯 가마 또 인제 혼합곡 된 것이 뭐 인제 뭐 예를 들어서 다섯 가마 뭐 인제 이렇게 나오며는 그거를 쌀이 인제 나오며는 인제 통장이 인제 이렇게 그 때는 여기 통장이라고 안 그러고 이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통장 보는 사람을 이장이라고 그랬었는데. 도시가 아니니까. (무슨 리였나요 여기가 탄 리였나요?) 탄리요. 예 예. 그래서 인제 요기 저 이장들이 인제 이렇게 전표를 끊어줘요. 식구가 몇 식구가 이렇게 저기가 되면 그걸 갖고 오면 뭐 예를 들어 반 말을 준대든가 인제 얼마를 준대든가 이런 식으루다 인제.

조사자 : 이장이 식구 수대로 전표를 끊어주고.

구술자1 : 전표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저 이렇게 내가 인저 쌀장사를 하면서
알으며는 그 집이 인저 이렇게 몇 식구. 연탄 같은 거 배달하고 뭐하고 하니까
알며는 몇 식구라는 것을 알으니까 얼마 이렇게 주고, (그냥 더 줘 버리면 어떻
게 돼요?) 이저 탄 사람을 탄 사람이 못타가니까 더 줄 수가 없죠. 봐 주고 싶어
도 못 하죠 그거를. 탄 사람이 오면 못주면 그 사람이 또 왜 내 목어치 왔는데 안
주느냐고 항의를 하니깐, (그러면 받아오시는 양이) 그렇죠 양이 한계가 돼 있
으니까, (식구수 만큼) 그러면요, 요렇게 인저 내가 위치가 예를 들어서 100집이
다 몇 집이다 요렇게 거기서 되면 고 숫자 내에서 정부에서도 내 주니깐 누구를
더 주고 싶어도 못 주죠 그거를.

조사자 : 그러면 거기 그 돈이 없어서 못 사먹는 사람도 있나요? 쌀은 배급

구술자1 : 물론 그런 양반들이 많이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런 사람들한
테는 돈 있는 사람이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때는
그 인저 밀가루 가지고 풀대죽을 쑤 먹고 인저 쌀이라는 거를 구경 못한 사람들
이 많았었어요. 그 때

조사자 : 암튼 자기가 자기 앞으로 나온 배당분도 사 먹지 못하는 사람도.

구술자1 : 못하는 사람이 있으며는 조금 인저 저기한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는 조
금 인저 이렇게 더 달라는 사람은 늦게 인저 이렇게 저기가 어느 정도 파악되면
늦게 고거를 더 주지요 사러오는 사람한테 고런 식으로. 배급제나 뭐든지 마찬
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배급제하고 사는 것 하고) 그렇지요. 저기해 갖고
그런 식으로다 해서 성남시가 인저 살아 나온 거지요. 초단기 때는.

조사자 : 연탄하고 쌀을 언제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술자1 : 연탄하고 쌀하고가 그러니까 여기 인저 20년 한 20년 했지요. 인저 여
기 와서 20년하고 20년 방앗간하고, (슈퍼도 하셨다고?) 예 슈퍼는 인저 쌀하고
겸하면서 슈퍼를 조금하다가 쌀장사를 바로 했으니까는 그냥 연결이 바로 된 거
고, 예. 그 그걸 치우면서 방앗간으다가 인저 전환이 된 거죠. 그러구 나서는
쌀이 뭐 시골서도 오고, 또 인저 이 쌀 허가증이 인저 그 때는 필요가 없이 또 막
팔고, 인저 그렇게 전부가 살기가 이렇게 좀 저기가 됐으니까는.

조사자 : 그러면 이렇게 방앗간으로 옮긴 게 배급제가 안해도 되는 상황에

구술자1 : 그렇죠. 쌀 허가가 배급제가 아니고 그 때는 쌀이 막 인저 돌아가서

조사자 : 언제쯤부터 배급제를 안해도 될 만큼 쌀이 좀 많아졌나요?

구술자1 :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저기며는 한 80년 지금 80년도 80년 말이며는 지금 한 20년 한 25년 한 25년 전 고 때는 배급제는 안됐었어요. (25년 전) 예 25년전. 지금 현재 25년전. 고 때는 그렇게 배급제는 안됐었어요.

조사자 :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보다 훨씬 뒤까지 배급제 비슷하게 했네요. 80년대까지 했으면

구술자1 : 그렇죠. 예 예.

조사자 : 그 때 쌀은 그렇고, 연탄은 풍부하게 나왔나요?

구술자1 : 연탄두 그렇게 풍부하진 못했어요. 연탄두 한 차가 들어오며는 그냥 뭐 솔직히 그 또 뭐 한장 한장 사 때는 사람이 있고 또 100장씩 저축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는 많이 갖다 달래도 한장 한장 사 때는 사람 때문에 연탄을 한 차 또 받을라며는 예를 들어 일주일에 내가 연탄을 한차 받는다며는 또 한 일 이백장은 넘겨 놔야지 한 장씩 사 때는 사람을 또 못 때게는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 추운데서 자게 놔둘 수 없으니까는, 놔두고 왜 안 파는 사람도 있고 참 그게 인제 이걸 한장 한장 사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연탄 들어올 때꺼정은 이게 비축량이 있어야지. 그래서 달라는 사람도 그 때두 연탄도 맘대로 못쫓어요. 지금은 참 없지마는 그전에는 깨진 것이 연탄을 내리다가 뭐 하다 하다보면 깨진 게 있어요. 깨진 게 있으면 깨진 거를 찍으러 땡기는 사람이 있어 또 인제 이렇게 틀에다 놓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또 인저 (그런 게 있었구나!) 예 예. 이래서 다시 인저 연탄을 인저 만들어서 팔고 그랬었어요. 연탄도 그렇게 풍부하던 못했었어요.

조사자 : 암튼 그 때 시절은 장사를 하더라도 동네 사정을 훤히 알고 있어야지만 장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니면 지금처럼 물건이 있고 돈을 준다고 해서 확 팔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구술자1 : 그렇죠! 그렇게 전부 돈을 줘서 싹 팔아버리며는 뒤에 한 장씩 때는 사람

은 그 사람들은 춘 데서 자고 밥을 못해 먹고 하니까는 그게 안 돼죠. 그러니까 비축량을 항시 몇 장 얼마씩은 뒤야지요. 그 연탄 내가 연탄을 인저 연탄도매상에서 인저 주며는 내가 예를 들어서 2,000장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거를 열흘을 팔아라 5일을 팔아라 거기서 인저 그것도 배당이 되니까요. 예 그러며는 5일도 막 하루에 다 팔아버리고 한 장도 안 냉기며는 한 장 한 장 사 때는 분은 안 돼죠 그것이. 그런 거를 우리는 비축량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안주면 괜히 혼나요. 또 거기서 또 그 연탄 왜 그 연탄 준거를 홀랑 다 팔아먹고

조사자 : 혼나는 건 어떻게 혼나요?

구술자1 : 아 뭐 그러면 연탄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뭐 인저 막 저기를. 그 때는 허가가 최고 인저 그 여기가 있어야. 허가장이 없으며는 그런 걸 못 주니 안주니까요. 쌀이구 연탄이구 인제 허가를 내야 되니까는. 여. 인저 허가가 없으며는 그런 걸 안주니까 그게 제일 무섭죠. 그 정부에서 뺏어가면 장사를 못하니까. 인제 이리다가 80년도 인저 그 때 그것이 허가가 없어지고, 신고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가게서도 팔고 와서 팔고 인저 이래 가지구 연탄이구 쌀 이구가 다 완화가 되빠린 거죠 이제. 이래서 고 확 풀리니까는 쌀장사 연탄장사가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그 때는 인제 방앗간으루다 돌려야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방앗간으루다 얼른 돌려서 저는 이렇게 장사에 그래도 빨리빨리 돌리는 바람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큰 여기 와서 고생은 이렇게 안하고 힘은 드는 일은 했어도 고생은 안하고.

구술자1 : 그래서 제가 인저 한 5년 전 고관절 수술을 양쪽 다리수술을 다했어요. 그래서 요건 아니 한 개는 게 10년 됐는데 한 5년 인제 한쪽 다리하구서 인자 하구서 장사를 하다가 지금 인자 아들한테 물려준 지가 한 5년 되요. 제가 인저 손피구 바쁠 적에만 가서 대목 때구 뭐 이렇게 바쁠 적만 도와주구. 지금 아들이 하고 있어요. (방앗간을?) 예 방앗간을 지금 저 그 자리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사자 : 방앗간 대목 되며는 아직도 이렇게 막 사람이

구술자1 : 대목에는 그래도 좀 많이 떡을 인저 지금은. 그전에는 송편 같은 거를 인저 이렇게 하면 8월 추석 같은 때는 송편 같은 것이 인제 빵아다가 자기네 집에

서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은 빵아가는 그렇게 분들이 적어요. (30:09) (예 그렇죠!) 지금은 그냥 조금씩 사서 그저 몇 키로씩 사다가 접시 담아놓고 제사지내고 그냥 간단하게 하느냐고 파는 것을 많이 팔지 빵는 것이 해마다 줄더라구요 이게. 올해도 해보니까 올해는 더 줄더라구. (바뀌는 시점에서) 예 지금 바뀌고 전부. 파는 거는 그전보다 좀 더 팔고 이 빵가는 양은 훨씬 줄었어요.

조사자 : 바뀔 때 빨리 방앗간으로 바꾸셨고 또 지금 뭐가 바뀔 텐데 지금 또 뭐가 바꾼다면 뭐 어떻게 좋을 까요?

구술자1 : 글쎄요 저는 이제 손을 뗐으니까 인저 뭐하고, 인저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고 인저 뭐를 하고 그러니까 모르지요 뭐 아들놈이 지가 알아서 하겠지요.

조사자 : 아드님한테 뭐 조언을 해 주신다거나

구술자1 : 근데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나두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거를 갖다 뭐 장사꾼이 장사를 해야지 뭐를 어디다 또 뭐를 하며는. 지금 있는 기계니까 어차피 방앗간을 또 해야지요. 어서 얻어서 하든지 고걸 정부에서 어따 어떻게 할런지 그걸 모르지요 그건. 아직 그거는 모르는 저기로 다 돼있어요. 그거는 인제 지금 뭐 어디로다가 이전을 어떻게 할라는지 그냥 팔어먹고 어따 그냥 내보내는 건지 아직 재개발에 대해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따 미리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지금 내보낼지 지금 어따 얻을지. 그거 기계라는 것이 하나 몇 백만 원씩 그래도 좀 기계 값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그거를 갖다 그냥 처분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런 생각은 어따가 해도 기계는 써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사자 : 지난 작년에 저쪽 상대원 쪽에 얘기를 하다가 그 쪽에 구술하신 분이 좀 이제 젊은 분인데. 그 분은 도시가스 연탄에서 도시가스로 넘어오는 그 시절을 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얘기하시는 게 그 이전 걸 맞춰주시니까 정확하게 이쪽의 빨감과 연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 같아요.

구술자1 : 도시가스도 여기가 여 태평동이 여기도 도시가스가 제일먼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도시가스도 들어온 지 건 20년 돼요. 예 예 여기 들어온 지도. 들어

온 지가 건 20년 되요 여기가. 여 성남에서는 여기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조사자 : 그 집 같은 거 아까 얘기해 주셨고, 루핑집 이런 거 얘기 해 주셨고.

구술자1 : 루핑집이죠 여기. 기와 올린 집이 없고 전부 참 부로껴 참 이루다 지어가 지구서 아룻목에서 연탄 아궁지에다 불을 때구 거기 뭐냐면 옷목에다가 좀 물 떠다 놓으면 옷목의 물은 얼었어요 밤에.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런 시절에도 살았어요 우리가. 뭐 그거를 그렇게. 하하하 그런 시절은 한 20년 살은 거예요. 성남시 생기구 한 20년 동안 그런 시절에도 살았었어요.

조사자 : 그 시절에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장사 연탄이나 쌀장사 하셨는데. 주변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구술자1 : 그러니깐 여기서 주변사람들이 그 때 인저 먹구 살기가 어디 큰 공사판 같은 게 없으니깐은요. 70년대만 해도 인저 저 뭐 도로 저기 하고 취로사업 그 저 그 박정희대통령이 그 밀가루 대통령이라구 소리가 들릴 정도로다가 어디 가서 일 조금하면 뭐 5일하면 밀가루 한포 주구 뭐 이런 식이루 그런 걸루다 연명을 해서 살은 분들이 많지요. 이게 오죽하면 여기저기에서 박정희대통령이 밀가루대통령. 그래두 그런 양반이 외국에서 갔다가 밀가루라도 끌어다 댔으니까는 솔직히 살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러해서 산 거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만약 정말 제 욕심이나 차리고 이럴 거 같으면 그런 걸 못했죠. 그래도 박정희대통령은 참 어떡하든지 국민들이 밀가루래두 먹여 살릴려고 그 외국 나갔다가 그런 걸 끌어다가 참 정말 해서 밀가루 대통령 아니라 무슨 대통령 소릴 들었어도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는 살렸다고 봅니다 예. 박정희대통령 보다 경제 더 살린 사람 없어요. 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인저 그 때야 뭐 참 6.25나고 왜정 때 저기되고 나라 수습하고 뭐하다가 참 이렇게 저길 했지만은 최고 어려울 때 말은 게 참 박정희대통령이 말아가지구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닦구 참 이렇게 정말 보리밥이라도 참 배불리 먹게 맨들어 준 대통령은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이라구래요 정말. 나 지금도 어디 가서 저거예요. 제가 거기를 살아나왔으니깐요.

조사자 : 집에 대한 얘기 하셨고. 그 쌀이나 이런 거에 얘기 하셨고. 연탄 얘기 하셨고. 이제 부식같은 거 반찬 아까 슈퍼도 하셨다는데 그 때 뭐 슈퍼에서 팔던

그런

구술자1 : 그니까 고런 거를 정말 얘기를 하면 그 때 참 콩나물 한 관이며는 인제 100원에 우리가 놔요 한관에 100원 (어느 정도 양이 되나요?) 그니까는 한관이 면은 요만하게 요렇게 된다고 보면 열목을 놔놓면 요만큼씩 하지 인제, 100원을 뽑으려 10원씩을 받을라며는 인제 요만큼씩 인제 양을 봐 인제 그러면 인제 10원 더 주구 사가는 사람도 없으니깐요 그 때만해도, 그러면은 그걸 조금 더 얻어 갈라고 5원어치 사가. 5원어치를 두 번을 사가며는 10원이 되는 거죠 인제. (조금 더 양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저 한 관에서 100원이 안 나와. 모잘러 모질러 100원이 못나와 이것이 5원씩 사가며는. 하하하하

구술자1 : 그러고 인제 그 때 저기하면 그 때는 자전거도 없구 오도바이도 없구 인제 솔직이 정말 지게루다가 지구 땡기면서 저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서 호박 같은 거 하나 정말 솔직히 호박 하나 10원 20원 하는 것 지게로다가 저 봤자 천 원어치도 못 지고 올라와요 여기 오는 거를. 그러면 그게 몇 푼이나 남겼어요 그거 남는 거. 순전히 채소 호박 콩나물 이런 거 팔았다는 것이 전부 지게루다가 저다 팔은 거지요 인제. 지금 말하자면 저 밑에 중앙시장하고 저 넘어 성호시장하고 인제 거길 땡기면서 인제 그렇게 하다가 인제 지게루 하다가 80년도 초반에 그 래도 인제 오도바이를 한대 샀어요. 허름한 거를 오도바이 90짜리를 하나 사가 지구서 채소 같은 거를 날르고 하니까 참 훨씬 좀 낫더라구요. 지게루 지구땡기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골서 지게질하기 싫어서 올라와가지고 성남 와서 지게질을 더 많이 했다는 게 연탄 날라야지 채소 지고 날라야지 전부다 그런데서 지게로루다 저와야지 지구 올라와야지 뭘루다 어떻게. 미구 올라와 봐야 몇 개나 미구옵니까 그 때 솔직히 정말. 호박하나 이만큼씩한 게 그게 뭐 한 20원 30원 가는데 천 원어치를 못져. 지게에다 지면 한 천원어치면 이 밀빵에다가 지면 천원어치도 못지고 올라와요 그게. 전부 남아야 천원인데 거기서 저 2-300원 냉길려고 그 짓을 할라니까 그 지게질을 참 많이 한게 어쩔 수가 없는 지게질을 한 거지 먹고 살라니까는.

조사자 : 그래서 그 때 뭐 콩나물 채소

구술자1 : 그렇죠. 그런 거 팔면 뭐 술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는 그래두 차루다 배 달을 해주니까는 그런 거는 앉아서 팔고, 예 인저 채소류 같은 거는 전부 인저 지게루 받아와야죠. 날마다 가서 해와야지. 조그만 또 시들으면 또 밀지고 또 파는 거고 싱싱한 때 안 팔으면 또 밀지고 팔어요 그게. 이 야채라는 건 그렇더라구요 내가 해보니까는, (그렇겠죠) 고런 이 야채는 솔직히 거기서 이게 오토바이 같은 거나 차 지금 같으면 차 같은 것이 얼른 띠어갖고 얼른 와서 팔으려는 뭐 가락시장이나 지금은 좋은데 가서 이렇게 띠어서 팔아도 싱싱한 걸 얼른 놓고 파는데, 솔직히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에서 지게루 지구오다 보면 오다가 또 몇 번을 쉬어야 오고 이라다 보면 집에 오면 축~ 늘어져가지고 이 벌써 상품 가보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 오면, 허허허 그 인제 속도가 느리니까 그게 그런 식이 되요 올라오면, 또 인저 한번 가 갖구서 찢금 지고 올라오긴 싫잖아요. 여러번 땡기기 싫으니까 그 너머 거 잔뜩 지고 올라오면 몇번 쉬어야 오니까 오다 보면 뭐 또 참 아닌 게 아니라 오다가 참 담배한대 피고 쉬어 앉았구 하다보면 몇 시간 오니까는 그 인저 값어치가 툭 떨어지지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여기 와서 성남시 와서 살아온 길입니다 예!!

조사자 : 그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밖으로 다니면서 물건을 가져오시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집에서는 사모님이? (그렇죠. 팔고) 역할분담을 (예! 예 인저 그렇게 해야지요 뭐) 사모님은 언제 어디서 만나셨어요?

구술자1 : 아 그건 저 진천서 저는 진천 백옥면이라는 데서 컸고 인저 우리집 식구는 저 안성 안성 저 경기도 안성여자예요. 안성인데 안성 그 금강면이라고 백옥면하고 금강면하고 산하나 넘어 차이야 거기가. 근데 이저 그 말하자면 뭐야 그 처이모부 되는 저 이모되는 분이 인저 그 동네 사셔서 안성 거기 살고, 근데 그 처이모 되는 양반 그러니까 시누이지 시누이가 우리 동네 살았었어요. 인저 한 동네 저 저 진천에 우리 동네에. 인저 그 인저 친구. 애들하고 나하고도 친구구 이렇게 같이 쭉 지내는데, 인저 그 인저 그러니까 시누 되는 양반이 인제 자기 올케한테 인저 우리집 식구를 얘기한 거지. 그 동네 이런 저 신랑감이 하나 있으니까 그 저기를 해가지구 와서 한번 보라구 말이지 이래가지구서 그 인저 이모되

는 양반이 왔어요. 와가지구서 뭐 그때야 농사짓고 한여름에 그 때 뭐 인저 저기..그 땐 솔직히 옷이나 있었나 뭐 등걸잠뱅이 입고 뭐 참 진짜 정말 뭐 논두렁 깎고 풀 베고 그라는데 머리는 시골서 뭐 머리카락을 줄 알았어! 터벅하니 좀 하구 있는데. 보구 와서 인저 보구서 어떻게 뭐 그렇게 시커멓구 뭐래두 마음에 들었는지 어떻했는지 그 자기 인저 친딸이 아니구 저기니까 이종이니까 저기니까 그랬는지 된다 그러구. 우리어머니가 또 인저 가서 아가씨를 인저 본 거구. 나는 솔직이 장가들라고 할 때까지꺼정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있는지 눈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못 보구 장갈 들러간 거지 가기를.

조사자 : 거기서 그렇게 만나셨고 (예, 그렇죠 그런 식이루다) 성남으로 오실 때는 그 어떤 의견을 내시던가요 사모님이?

구술자1 : 아 고거는 인저 제가 고걸 애길 할라면 조금 참 저기한데. 우리 집식구가 이 속 때문에 위가 좀 좋지않아가지고서 참 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골서 농사 지면서도 정말 솔직한 말이지 병원애를 제주 (자주) 땡기고 뭘을 이렇게 잘 먹덜 못하고 인저 위가 이렇게 되서 위를 이렇게 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꼭 오백 원짜리 돈짜마냥 이렇게 금방 터질 거마냥 말랑말랑해. 위가 두꺼운 위가 한쪽 구석땡이가 요렇게 이래가지고서 고게 헐어서 빼게지면은 뭘 못 먹는 거야. 인제 그래서 그 고생을 하다가 인저 여기 오는 계정에 아까는 뭐 지게질 참하기 싫어서도 왔다 그랬지만. 인저 그때 지금 우리 인저 막둥이가 지금 몇 살이여 저 마흔세 살인가 인제 고 고 때 서너 살 때까지. 인자 그 인자 젖을 솔직히 못 먹고 컸어요 개가. 인제 우리 집식구 아파갔고, 그땐 다 참 뭘 동네에서들은 다 얼추 죽는다고 그랬었어요. 정말루다가. 이래가지고서 아이구 어차피 죽을 바에는 또 물이라도 갈어먹으며는 또 사는 수도 있다. 인제 이 여기 또 그때 내가 40평 사는 것도 있겠다 인저. 집은 안 지었어도 가서 인제 판넬로다 이렇게 판자집을 지어가지고서 인제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침은 동기는 지게질도 하기 싫고. 인자 이라고 솔직히 정말 우리 집식구도 아파가지고서 인저 정말 그런 고생을 끝에 정말로 다가 성남애를 온 거는 그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도 참 지금 72인데도 지금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거 보면 정말 거기 있었으면 죽었을란지

모르는데 지금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정말. 하하하 이 인제 물을 갈아먹고 여기 와서도 고생 많이 했어요. 아파가지고서.

조사자 : 뭐라고 하시나요? 여기 와서 사는 거에 대해서

구술자1 : 그니까 뭐 자기가 아프니까는 맨날 뭐 이런 저기로 하고 참 했는데 인제 지금은 그렇게 덜 아프다고 그래요 고게 지금 외려 인제 나이 먹을수록 인제 지금 그게 많이 인제 저기 해서 말하자면 지금도 돼지고기도 먹고, 지금도 자꾸 주의를 하죠. 인제 잘 체해요. 그것이 인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잘 체해드라고요. 내가 이렇게 죽. 지금 내가 올해가 톱 50년인데 결혼한 지가 50년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뭐를 맛있게 먹으면 체해요. 뭘 맛있게 먹으면. 근게 맛있으면 많이 먹잖아요. 뭐 고기 같은 거고 뭐도 상추에다 싸먹고 하면. 저 벌써 보면 알아. 상추에 이렇게 많이 먹는 거 보면. 아우 조금 먹어라고. 두었다 더 먹더라도 조금 먹어라고 그라지. 그걸 조금 많이 먹으면 조금 체하는 율이 많더라고 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조사자 : 그 체한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어떤 뭐 자주 복용하는.

구술자1 : 근게 처음에 그거는 여기 와서 뭘여 그거 암포젤이라 고라나 미제 암포젤 그것도 참 많이 그것도 하고 별 거 다 했는데도 그게 별효과는 없더라고요. 누가 또 뭘 뱀을 잡아서 뱀을 많이 먹으면은 또 괜찮다. 그래서 여저기 70년도 한 75년 여기 내가 한 삼사년 있다가 저기 되니깐 그때는 여기 뱀이 많았었어요. 여기 남한산성에. 예 예 뱀 잡으러 땡기는 사람이 있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을 일 년 사가지고 뱀을 잡아다가 그것도 달여 맥여봤고. 그랬는데 그 별 효과는 없구요. 그런 거는 효과가 별로 없고.

조사자 : 그럼 뭐가 효과가 있으신 거 같았어요? 그니까 지금은 많이 건강해지셨다고 했잖아요.

구술자1 : 예 예 지금 이렇게 몇 년 동안 조금 덜 체고 할 적에는 마 (마?) 예 예 마를 인저 지금 저 뭐 이렇게 산마 같은 거 이런 거면 좋은데 그건 비싸요 여기 저산에서 직접 캐오는 거는 비싸고 인저 재배한 마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거는 싸요. 그래 마하고 인저 우유 좀 넣고 또 인저 과일 제일 싼 과일. 지금 같은

면 배 같은 게 싸잖아요. 사과 같은 거. 그런 것도 한 쪽씩 넣고 해서 마 넣고 해서 갈아가지고. 해서 그냥 한 컵씩 그거 지금 그거 먹은 지가 한 근 칠팔년. 그거 먹고서는 젤 킬 체하는 거 같아요. 지금 생각에. 마가 나는 그거 암포젤이니 뭐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암포젤도 있지만 미제 암포젤은 더 끈끈한 게 좋아요. 진짜 짬뽕짬뽕 한 게. 그놈을 또 그놈을 사러 돌아댁기느라고 참말로다. 그것도 미군부대 댁기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지 그제 또 사집니까 그것이 우리도 어딴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을 또 수소문해서 더 비싸게들 주고 해서 먹어보고 그랬는데도 그제 뭐 별 효과는 못 본 거 같고요. 이 마 내 그래서 조금만 위가 나쁘다 그러면 마 먹으라고 권해 마 먹으라고. 거 비싼 마 여 산에서 캐서 이렇게 한 거 그런 거는 1키로에 한 2만5천원 3만원 달라고 그라는데 그제 좋기는 좋죠. 좋은데 그런 거 비싼 거 말고 조금 더 많이 넣면 되니까. 1키로에 5천원이면 사요. 지금 모란장에 가면은요. 1키로면 5천원이면 사는데 4키로 사봤자 2만원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이 (그거 얼마나 먹어요?) 한 한달 먹어요. 한 2만원 갖고 한달 먹으면 그거 저 4키로면 많아요. 한 봉다리 돼요. 그제 그놈을 찢러갖고서 갈아먹으면. 그제 또 마가 물러가지고서 잘 갈려요. 믹서에다가 껌데기 인제 쪽쪽 까갖고서 툇 찢라 넣고서 인제 그 저 배하고 우유 조금 거기다 넣고 해가지고서 갈아서. 뭐 저기는 어떤 때는 좀 나하고 한 두 컵 맨들어 가지고서 한 컵씩 먹고 인제. 이제하고 거 우유 마가 젤 많이 난 거 같어. 이제꺼정 약으루다 별 약 다 해봤지만. 탄 거는 뭐 그렇게 뭐 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고요. 마는 효과를 많이 본 거 같아요 마가.

조사자 : 아까 그 80년 중반 쯤에 방앗간으로 이렇게 옮기셨다고 했는데 방앗간은 언제가 가장 전성기였나요? 잘 되시던가요 가장 잘된 시기가 한 20년 하셨으니까.

구술자1 : 그러니까는 방앗간이 지금 한 지금 내가 참 저기가 저 80년도부터 저기 해가지고서 했는데 고때만 해도 요렇게 됐는데 90년도 들어와서 부터는 이 지금 잔치를 해도 솔직히 자녀들 저기를 해도 솔직히 딱 한 쪼가리를 안 해요. 솔직히 김치 한 쪼가리 안 담고 전부 부페 다 갖다 전부 부페 다 갖다 전부 맡겨놓고 지

금 하지. 지금은 참 정말 결혼을 한다 뭐 한다 해도 떡을 한 말 해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솔직히 정말 방앗간이 좀 부진한 편이에요. 정말 제 아들이 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정말 힘들어요 방앗간이. (90년대 넘어서면서) 예 예 넘어서면서 힘들어요 이것이. 힘들고 그냥 참 그래도 나는 이렇게 여기저기 그냥 그래도 아는 친구들 좀 있고 뭐해서 그냥 이렇게 근실히 이렇게 운영해 나가지. 솔직히 정말 지금 방앗간 새로 채리는 사람은 솔직히 까먹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예 예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기계 사지. 지금 또 여긴 그래도 내 집에서 내가 아니까는 뭐 품값 안나가지 집세 안 나가지 이런 거는 저기하지 세 얻어갓고 해 갓고는 지금은 솔직히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조사자 : 장사가 한참 잘 되시던 때 그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구술자1 : 그니까 음 지금 80년도 그때 방앗간 처음 했을 적에는 솔직히 잘 됐었어요. 예 잔치집이 있으면 보통 그래도 참 자녀들 보내면 떡 한 켤 조금하는 사람이 한 닢말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가마 두 가마꺼정 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가마씩이나?) 그렇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저 일주일 하면 5일간은 또 이것저것 다 하느냐고 하고 곤방곤방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밤 세우는 거지 뭐 어찌다가 그때는. 그런 식으로다가 참 그때는 전부 했었어요. 솔직히 정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한 서너 가마 할라면 밤 세워서 해야지 고거를. 인저 하는데. (두 가마를 하면 떡이 얼마나 나와요?) 어 많이 나오죠. 이것 저것 하니 까는 인절미니 뭐니.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인저 손님 상에 전부 이렇게 퍼놀라고 하니까는 인저 몇 가지를 하니까는 뭐 보통 잘 하는 사람은 넷 가지 다섯 가지 한 양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두 서너 가지 하는 사람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하지. 인저 하니까는 뭐 그렇게 양은 많지 않아요 하나가. 한 가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술자1 : 그거를 갖다가 인제 동네 분들이 전부 또 모여서 접시를 담아서 손님 접대를 하고 인저 이런 식으로 다 옛날엔 그런 식으로다 전부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부페로다가 전부 해가지고서 인제 부페에다가 떡이고 부페에서도 떡은 나와 나도 먹고 가보지만 부페에서도 떡은 나오는데. 큰 공장 같은 데서 갖

다 인제 대량으로 갖다 디밀지 인제 우리 같은 소규모에서 그런 데 디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고서 여기로 말하면은 여기 저 곤지암 나가는 데 이런 데 갖다가 저쪽에 가면 큰 공장 같은데 이런 데서 대량으로 일꾼 보면 몇 십 명씩 두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데 디밀고 이런 식으로다 해가지고 솔직히 소규모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은 저뿐 아니라 열추가 다 고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하하 지금 방앗간 뿐이 아니라 전체 장사가 그래요. 예 방앗간 뿐 아니라 어느 장사가 다 그래요 지금 현재가. 남의 세 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고역을 겪고 있어요. 인제 우리는 다행히 참 뭐 인제 지가 조금 못해서 조금 바쁠 적에는 내가 가서 거들어줘서 인제 품값은 안 주니까는 하고 세를 안 주고 하니까 뭐 그냥 그냥 연명해 나가는 거지. 그냥 저기 하는 사람 세주고 뭐. (전화벨이 울렸다)

조사자 :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회 관련해서 하시는 일들을 이쪽 부분을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언제부터 이쪽 노인회 이전에 어떤 다른 활동을 하신 게 아까 뭐 있으시다 했나요?

구술자1 : 예 우리 인제 저기 참 저저 정회장님하고 저하고 한 9년 전서부터 환경지킴이라는 인제 저기를 맺어갖구서 남이 참. 내가 이 말을 회장님이 하시라고 내가 지금 안할라고 지금 내가 하는 건데. 어 참 솔직히 정말 지금 태평4동 뿐이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지금 남이 몰라 태평4동에도 요즘 붙인 것이 요만한 전단지 가 조금 하나라도 붙어있는 집이 있을란지 때문예요. 붙어있는 집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아주 9년 전서부터 그거를 전부 남의 대문꺼정 전부 닦아서 싹 없애기로다가 했었어요. 그거를 없애기로 그것을 한 4년 간 인제 해내려 오다가 인제 요 밑에 노인정을 저기 해가지고 우리가 2동 동사무소 앞에 마을 금고 뒤에 복지관을 그 지하실을 거기서 인제 우리가 그걸 모여서 그런 거를 했어요. 근데 인제 그걸 거기서 내노라는 바람에 여기로 이 밑에 노인정 쓰는 거를 이 2층을 얻어가지고 인제 여기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인자 여기서 하다가 봉사 활동을 여기서만 하다가 요 밑에 노인정 회장이 인제 뭐 또 조금 저기가 돼 갖고 내놓게 되가지고서 어차피 여기 인제 봉사대 회장을 맡아왔고 하면서 그냥 아래

위층 노인정까지 맡아갖고 하자 인제 해갖고서 인제 노인회장을 맡게 된 거예요.

조사자 :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구술자1 : 인제 봉사활동의 저기는 우리가 새마을 참 정회장님은 참 여기 동네 새마을회장님도 하셨고 인제 저기를 동네도 하셨고 저기하다 저두 동네 이 태평 4동 태평2동 2.4동 갈리기 전서부터 인제 동네 새마을회장을 많이 해가지고 한 10여년 넘게 해가지고서 하다보니까 이 새마을이라는 건 봉사 밖에 하는 게 없어요. 새마을은 봉사에요. 거기 인제 새마을이 딴 거 없어요. 지금두 우리가 새마을노인회를 만든 것도 새마을정신이 있기 땀에 이런 거 만드는 거지. 솔직히 새마을이 없으면 솔직히 딴 거마냥 밥을 맥여 누구 거를 저걸 하고 어디가 뭐하는가 하면 새마을 분들 늙은이들이 뭐를 새마을을 할라고 그래요 그거를.

조사자 : 그러면 그 새마을 새마을운동? (그렇죠. 새마을운동) 젊어서부터 이렇게

구술자1 : 그렇죠 젊어서부터 새마을을 한 거죠. (이쪽에 옮겨오신 이후에) 그렇죠. 여기 오면서부터 방법위원장 뭐 통장 새마을협의회장 뭐 새마을지도자 뭐 인제 이런 거를 쭉 해 내려왔으니까는 그 정신 갖고 인제 봉사활동도 그게 인제 계기가 된 거죠. 그 지금 새마을에 좀 저기해서 오래 하시던 분덜하고 또 인제 고런데 조금 일을 좀 노인 양반들이 하고 싶어하는 양반들 모아서 처음에는 몇 명이 하다가 이젠 이렇게 지금 인제 이렇게 노인회장까지 맡게 된 거예요.

조사자 : 새마을 지도자, 방법회장.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하시게 됐을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때는 누가 이렇게 방법회장 새마을회장 이런 것들을 관에서 이렇게 줘.

구술자1 : 아니죠. 그건 관에서 권한 건 아니죠. 개인이 인제 그 저기해 가지고 단체를 저기해서 친구 친구끼리 해가지고서 모여서 인제 이렇게 방법위원장도 하고 할 적에도 여기가 정말 굉장하 그때만 해도 못 살았을 적이니까 (70년대) 그죠 저 대원들이라고 그래요. 방법대원들. 밤에 인제 이렇게 돌아댁기면서 인제 방법대원들이 그때 인제 한 집에 돈 300원씩인가 한 달에 받아가지고 인제 그걸 받아요 인제 집집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인제 봉급을 주고 그라는데 그거를

인제 300원도 안내요. 솔직히 정말 저 한집에서 돈 300원 내라는 것도 안내면 참 정말 없는 거 저기에서도 거 대원들 봉급은 줘야지 어떻게. 참 봉급도 안 주면 참 내 주머니 떨어 봉급도 줄 적도 있고. 또 일년에 또 하복도 동복도 옷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애로점에 참 많이 참 있었죠. 고걸 돈이 제대로만 갚히면은 고고 인제 고거 돌아가게 할당을 해도 안주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게 그런 애로점이 많았었어요. 그게.

조사자 : 그 때 그 봉급까지 지급해 가면서 방법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

구술자1 : 그 인제 동네 자치 인제 동네 저기를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인제 모여서 하는 거죠.

조사자 : 경찰력이

구술자1 : 그죠. 경찰 파출소에서 모여서 파출소에서 인제 근무를 하는 거죠. 예. 예 지금은 인제 파출소들이 비어서 있고 순사들도 하나도 없지만은 그때 내가 방범위원장 할 적에 거기다 뒤에다가 순사들이 이렇게 있으면 순사들하고 대원들 하고는 대원은 민간인이고 지는 봉급 타먹는 놈들이고 그라니까는 뭐 아주 뭐 정말 하빨이들이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팔세를 많이 받아 개네들이. 내가 들어가면 못 그라고 내가 없을 적에는 쥐잡듯 잡고 그냥 이래요. 그래서 그쪽 뒤에다가 창고를 하나 크게 사무실을 지어가지고 대원들 거기와 있으라고 해서 그것까지 지어주고 참 그렇게까지 하고 해서 이 방법활동을 했어요. 그니까 치안을 위해서 인제 하던 거죠. 그라다가 새마을을 인제 한 거죠. 거기를 떠나서.

조사자 : 방법활동하시고 하면 시간도 좀 뺏기고 할 텐데 생업을 하시는 데

구술자1 : 그때는 뭐 장사하면서 해니까는 주로 인제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 하는 거니까는 인제 활동은 파출소 같은 데 이린. 켈 많이 뺏기는 것이 새마을에서 솔직히 많이 뺏기는데요 일은 정말 솔직히 새마을에는 밤에 안 하고 낮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새마을은 많이 뺏겨요.

조사자 : 어떤 일들을 하셨는데요. 새마을

구술자1 : 새마을에선 여기 지금들은 새마을을 별 그렇게 많이 안하지만 우리 그 전에 참 정회장님도 아다시피 하지만은 그때는 일주일내 이 나가서 거리질서를

아침마다 나가서 거리질서 해야지 또 인제 일 년에 몇번 또 연수원 교육 가야지 또 여기 또 저기로 되면은 갈봄 이렇게 저기 되면 이런 대청소 나가야지 밤이면 또 인제 불법광고물 내는 거 차 갖고 땡기면서 그것도 들여놓고 또 걷어들여야지. 그전에는 참 단계는 일이 좀 많았었어요. 새마을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게 그러면 70년대 말쯤인가요?) 그렇죠. 그때는 참 일이 많았었어요 이 새마을 일이. 지금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몇 분이 있기는 있어도 그렇게 뭐 우리 그때마냥 그렇게 심하게 안하더라고요. (70년대 방법활동 하시고 새마을운동 하시고) 그때는 참 솔직히 이 방법은 밤에 활동하는 거니까 잠깐 끝나고서 인제 이런 거를 좀 하고 하니까는 낮는데 솔직히 새마을은 낮에 하는 일이 참 많았었죠. 식전이면 참 아침에 나가서 또 한시간씩 한시간 반씩 또 거리질서 해야지 학생들 이렇게 오고가는 거 인제 교통정리하고 차 인제 이렇게 나오면은 하고. 그런 식으로 다 해나와서 살아나온 거죠.

조사자 : 그렇게 쪽 오시다가 새마을노인회 (예 예 예 새마을노인회) 그건 몇 년도에 만드셨는지요?

구술자1 : 새마을노인회는 금년서부터 인제 하는 거예요.

구술자2 : 새마을노인회가 아니고 노인새마을회.

구술자1 : 노인새마을회. 이게 인제 노인새마을회 이라는 것이 인제 이렇게 인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인제 그전에 우리가 하던 우리 젊어서는 저기했는데 지금 부진해 나가고 그라니까는 지금 이렇게 노인네들이 한번 새마을을 이뤄놓고 보자 해가지고서 인제 노인새마을 인제 성남시에서 해서 태평4동에서 발족을 처음 인제 한번 해 보는 거죠. 전국에 어디 이런 저기가 없어요. 전국에 없어요. 이런 것이 이름이. 예.

조사자 : 인제 박영호 선생님 얘기는 그 좀 많이 들었고. 노인새마을회에 관련되서는

구술자1 : 예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안할라고 내가 좀 하하하

조사자 : 이쪽 정형주 선생님이

구술자2 : 현재 회장이니까

구술자1 : 아니 현재 회장이라도 대충 요렇게만 저기를 해서

조사자 : 일단 정형주 선생님 얘기를 또 한 시간 정도 듣고, 그 답에 그 같이 노인
새마을회 얘기 할 게 더 남아있으면 하시죠.

조사자 : 정형주 선생님도 (인제 순번이 나한테 왔어요 히히) 인제 쪽 아까 그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선생님도 인제 개인적인 살아오신 과정들을..

구술자2 : 오기를 잘했네요. 오늘 저 뭔가 내 검진 결과가 종합검진을 해는 것이
있는데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고, 또 최근에 인제 어떻게 마음이 변
했냐며는 인제 요정도 됐으면 물러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에서 모든 면에서 원
래도 안하지만 얼굴 내놓거나 어디 가서 말을 하거나 뭐 어디 초청받아서 요런
거는 전혀 안 나가고, 동사무소도 오랫동안 한 번씩 가고, 그럴 정돈데 그런데
오늘 오길 참 잘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왜냐며는 이 그 이때까지 이렇게 내가
안 해봤지만 요렇게만 하려는 뭔가 그냥 무난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다. 그
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십시오.

조사자 : 인제 그 태어나신 때부터 쪽 얘기 좀 하시죠! 그러면, 아까 이쪽 선생님처
럼

구술자2 : 저기 살면서 제일 내가 새록새록 느낀 것이 나는 인복이 많다. 참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좀처럼 찾아보기 없는?? 그런 부모. 또 우리 형제들 칠 칠남
맨데 (아 칠남매?) 형제들이 다 참~ 참 좋은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우리 인제 처
요. 처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참 운이 좋구나. 전연 불만이 없는. 부부가
되두 이렇게 만나서. (그러기 힘들죠!) 그러게 아들 딸들 손자 손녀까지도 그 순
박한 할머니의 그 모습을 닮고 성질을 닮아갖고, 애들도 그냥 지금 나같이 이러
게 추접하게 됐어도 손녀들이나 이 늙은이에가 막 뽀뽀를 하고, 그리고 저 뭔가
작은 우리 저 애들 한 달에 한번 딱 딱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하도 좋아하고 든든하고, 그러니까 아 나는 첫째 복이 (복이 많
으시다!) 복이 많다. (특히 사람 복이 많다.)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은 참으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랬지만 참 훌륭한 분이었다. 훌륭
한 교육자고 몸으로 가르친 교육자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참 어렵게 살아왔지만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시구나) 또 하나 결론을 얘기하면, 나에게 소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 뭔가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중학교 다니실 때) 중학교 다닐 때 왜정 땀대 우리나라 독립만 되면 난 내일 죽어도 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해방을 맞이했죠. 우리 그 뭔가 예~또 하나 소원이 있다면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아버지가 장사를 좀 겸해서 했어요 농사하고, 그런 관계로 그렇게 어렵게는 안 살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뭔가 그 중학교까지 다니게 됐고, 근데 우리 가족들을 참 행복한 가족들로 만들고 싶다. (예!)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일체 그 모험을 하질 않아요. 그렇게 오늘까지 발 한번 채어본적도 없고 뽀 한번 맞아 본적도 없고 누구한테 무슨 한 대 한번 쥐어박혀 본 적도 없고 그 당시의 상을 그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지금 여든한 살까지 한번도 어디 끌려가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봉변당해 본 적도 없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잘~살아왔다. 세상 참 잘 살았다. (예 그러시구나!) 예~ 나한테는 우리 인자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되고 또 성남에 들어와서 정말 성남에서 뼈를 묻기로 결심하고 들어선 뒤로, 성남이 잘 되는 것이 내 또 소원중의 하나예요. 근데 성남은 내 소원대로 잘 됐습니다.

조사자 : 왜 성남에 뼈를 묻을 정도로 성남에 애착을 갖게 되셨나요?

구술자2 : 인제 거기서부터 얘기를 풀어가면, (예!~) 저기 저~ 내가 그 일제시대에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다니구 중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심훈 선생이 쓴 그 상록수란 소설을 읽었어요. 그 소설이 얼마나 내 정신을 홀랑 뺏어가 버렸는지, 나도 꼭 이런 뭔가 주인공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이 꼭 느껴졌어요. 그래서 인제 결심을 하고 또 그런 때 듣고 배운 것이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와서 딱 딱 꽃힌 것이 뭐냐 하면 조우라는. 조우는 비철 조자 구석 우자. 이제 불가에서 나온 말인데, 조우란 말이 내 귀를, 평생을 지배를 해요. 구석을 비춘다. (그늘진 곳을 비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욕심 많게 그렇게 범위만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한 군데라도 효과적으로 내 정성을 쏟아본다 그런 뜻도 있고, 또 그렇게 인제 그냥 화려하고 범위가 크고 요런 것이 아니라 비록 범위는 조그마하

고 그러지만 거기서 참되게 한번 해본다. 또 조우란 말 뿐만 아니라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내 인생관이 되어버린 또 하나의 말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떠나라. 뒤돌아보지도 말아라. 이루어놓고 그냥 쥐 버리고 미련 없이 돌아.... (돌아서서) 그렇게 때문에 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까 이력서가 이력서가 까득해요. 학교에서 토스해 버리고 토스해 버리... 그래 놓고는 돌아보도 안해. 아무리 좋은 것이. 미련도 없이 떠나요. 깨끗하게. 허 우리 박희장님이 증인이자마는. 그런 몇 가지 (인생관을 가지고?) 인생관이.

구술자2 : 그리고 또 하나 내 처지가 그렇게 된 것이 뭐냐 하면 가난한 집. 뭔가 칠형제의 칠남매의 맏이다 보니까 나 하나만 의지하고 있고 나 하나만 농업학교까지 가르쳤고 (농업학교?) 네! 가르쳤고. 내가 굉장한 책임감 느꼈어요. (책임감이 크다) 나는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되 사회가 하지마라는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 공산당운동에 여순반란사건 때 몰살당했는데 나는 피해 나왔어요. 바로 전에 빠져나온 뒤로 그 다음날 저녁에 여순반란사건이 나가지고. 몰살당했는데 거기서도 살아나왔지요. 뭐 민주화운동 무슨 학생운동 그런 운동이 많아도 우리 내 절대절명인 우리 가족들의 안전. 나로 인해서 장남이 흔들려 버리면 뿌리 채 흔들리는 것 아니냐. 나는 사회가 말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구술자2 : 그래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안해 노니까. 아 사실 새마을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박희장님하고 나하고는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이제는 꿈이 되었습니다. 꿈이 되었어. 근데 이런 그 자리까지 내가 올 수가 있고. 대충 기억나는 대로 허자면. 몇 가진데 나의 참 절대절명의 인생관이 있었어요. 대충 아우트라인만 얘기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물으십시오. 물으면 또 답하고.

조사자 : 아까 그 여순반란사건! 하루 전에 빠져나오셨다고. 그 쪽 언저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술자2 : 인제 거까지 갈라머는 조금 더 뒤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고 거기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이제 일제시덴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최근에 박희장님도 아는데 돌아가셨습시다만 (최근예요?) 예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장수하셨네요!) 네 돌아가셨는데 박종근 선생님이라고 그 분이 나를 물을 들여놔어. 무슨 물을 들여놔나 하면 반일사상을 갖게. 초등학교 때 나를 이쁘게 봤던지 자기가 숙직이 되면은 불러가지고 거 앉아서 나를 일본은 결코 멀지 않아서 망할 것이다. 우리는 독립한다. 그런데 일본 놈들한테 반일감정 반일사상을 심어줬어. 초등학생이 참 어려운 짓을 한다고요. 막 에~ 밤에 가서 학교에 쓸 들어오는 전분이 그 때 당시 어려운 시기니까. 전분가루가 구루마를 싣고 들어오면 친구들하고 같이 그 전분가루를 가지고 올라가서 학교 뭔가 기왓장을 하얗게 입혀 놓는다든지 그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미 있는 행동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교장도 너 농업학교 합격을 했는데. 합격통지서가 왔는데. 내가 너 한번 너 해코지 할라면 얼마든지 해코지 해. 너 신중하게 처신을 해라. 몇 번을 경고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조회 때 그 일본 놈 교장이 굉장히 국수주의잔데 전부 국수주의자지. 국수주의자니까 일본을 저거 하는 뭔가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내가 애들보고 쿡 찌르면서 우리 독립운동 만세를 한번 외쳐버릴까. 어떤 시대든 초등학생이. 독립운동 만세 대한독립운동 만세 할까. 그런 거 하고는. 근데 이제 워낙 어릴 때니까 실행에는 못 옮겼죠. 근데 아까 저것은 그냥 은근히 데모를 하는 거고.

구술자2 : 그렇게 하다가 인제. 그~ 해방이. 아니 농업학교를 들어갔는데 다니면 서도 굉장히 안 편한 중학교 생활을 한 거죠. 순전히 일만하지 공부합니까 하나도. 일만 하는데. 에~ 그 때 인제 항상 독립만 된다 며는 내가 지금 당장 죽는 다 해도 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골똘히 가지고 있는데. 독립이 됐어요. 독립이 되서 그야말로 그냥 인제 길길이 날뛰 거죠. 그래도 한번 마음은 우리 가정이 위태롭게 된대거나 우리 형제간이 불행하게 된대거나 하는 짓은 결코 안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천농업학교가 공산당 소굴이여. 해방이 되니까 어디서 수업을 이렇게 기른 놈들이 막 그냥 괴상스런 놈들이 딱 강당이고 옥상이고 버티고 공산주의를 맘대로 외치고. 그 때는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의 기둥이 우리 가장이 불안. 가정을 불안스럽게 하고 우리 가족의 장래가 안에 먹구름이 뭔가 덮지 않도록 한다는 결심이 딱 있으니까. 뭐냐 공산주의자

들 모임에도 이렇게 슬슬 뒤로 꿈무늬를 빼고, 그러다 기미가 좀 이상하니까 빠져나온 것이 그 여순반란사건 나기 하루 저녁 전에 빠져나왔어.

조사자 : 그래갖고 어디로 가셨나요?

구술자2 : 다행히 깨끗하게 살았지. 그렇게 저렇게 산 것이 죽을 꼭 죽을 고비에서 산 것이 일곱 번이 되요. 그래 오늘까지 아무 탈없이 이렇게 초지일관 그 살아왔는데.

조사자 : 그럼 화순에서 사시다가 여순반란사건 직전에 어디로 옮기신 거죠?

구술자2 : 아 집으로. 고향이 화순이니까

조사자 : 화순으로 가신 거예요?

구술자2 : 화순으로 갔죠.

조사자 : 그러면 농업학교는 순천에 있던 (순천에 있죠) 그럼 거기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화순으로 가서가지고서 어떻게 하셨나요?

구술자2 : 인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에~ 그 뒤부터서 또 인저 낭인생활을 하는 거죠. 낭인생활을 하는데, 사범학교에 1년 기간, 단기 인자 교사양성을 하는데

조사자 : 사범학교도 순천에 있는 사범학교 순천사범학교? 순천사범이죠.

구술자2 : 광주로 광주사범으로 가서.

조사자 : 광주로 가셨나요? 사범학교 가신 건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아까 기억이 64년이라고 하셨나요? 사범학교를 가신게 64년 63년 이쯤이신가요?

구술자2 : 64년이 아니라, 하여튼 뭔가 저거 나기 전에 바로 뒤에 거기서 와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사자 : 6.25나기 직전에 (6.25나기 직전에) 전에 사범학교를 가셨나요? (사범학교를)

구술자1 : 50년에 6.25가 났으니깐 45년에 해방이 되고 50년에 6.25가 났거든요.

조사자 : 48년쯤이나 48년 49년쯤에 사범학교를 가셨나요?

구술자2 : 사범학교를 다녀가지고 인제 뭐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심훈 선생의 그 소설에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나는 그럼 페스탈로찌와 같은 교사가 되 보겠다.

그 때만해도 친구들이 뭐 군대로 간 놈은 나중에 뭐 대한민국의 오성장군이 돼, 같이 책상에서 공부한 놈이. 그리고 뭔가 교수를 꿈꾼 놈은 저기 저 뭔가 연세대 대학원 원장까지 한 애도 있고, 그런데 나는 해필 선생이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 나는 새싹을 올바로 길러야 되겠다. 그리고 교성 페스탈로찌처럼 한 생애를 보내겠다. 그렇게 인제 가서 열심히 정말 아주 그냥 이름난 선생님이었죠. 가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선생을 했는데.

조사자 : 사범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발령이 나신 거예요?

구술자2 : 바로 났어요. 사범학교 다니면서 발령이 다 났어요.

조사자 : 그럼 50년. 전쟁 통에도 교사를 하셨겠네요?

구술자2 : 전쟁 통에도 교사를 했죠.

조사자 : 그 때 상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학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술자2 : 근데 뭐 공산당이 맘대로 활동을 하고 어~뭐 경찰도 그냥 좌우중립이다 중립 표방하고. 에~ 그러니까 나는 인제 거기에서도 내 길이 있으니까 내 길을 간다. 그래가지고 저 뭔가 방학해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을 한 3주쯤 했어요. 대한민국 땅을 한 3주쯤 돌고, 내 길을 정할라고 해서 그래서 선생이 된 거 아닙니까. 선생이 됐는데 에~ (화순 지역에서 선생님?) 네. 화순 지역에서

조사자 : 아까 네 군데 정도를 옮기셨다고 했나요?

구술자2 : 하나 둘 셋 네 군데 네 군데 선생을 했는데, 아주 참 페스탈로찌가 된 양 그냥 그렇게 유리조각을 쥌는 교성. 학생들 위험하니까. 그렇게 교사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아~~

조사자 : 그 때 아이들은 상황이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죠?

구술자2 : 그런 정도는 아니구요! (그런 정도는 아니구요) 초등학교가 부담도 많지 않고 거기 초등학교 땡기는 데는 어렵지 않게 모두 다녔어요. 근데 내 생각에 인제 자꾸 회의가 생겨. 뭐냐 하면 내가 과연 내 일생을 바쳐서 교사로서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느냐? 뭐 하루가 가면 달라져요 아이들이. 아무리해도 세상을 따라가지 나를 따라오진 않더라구. 세상은 그 때 자유당시대에 얼마나 부패해

있었어요. 그래선 어느 날 밤 딱 어~ 뭔가 학교 교장하고 장학사가 마치 와 있었어요. 둘이 있는데 갑자기 탁 난데없이 그 선생 하나하면 큰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시골에선 해당인데, 한마디 탁 던지고 나와 버려요. 나는 학교를 떠납니다. 그러니깐 영문들이 어리병병하지. 아 교사 중의 교사고, 그렇게 열성을 보이더니 아 나는 교사를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나와 버려 갖고, 그 뒤에 방향을 전국 3주를 하게 되요.

조사자 : 세 바퀴를 돌았다는 건가요? 세 바퀴를, 우리나라를 세 바퀴를 돌았다는 건가요? (세 바퀴) 3주 동안 돌아다니셨다는 건가요? (3주가 아니라) 세 바퀴 돌았다는 얘긴가요?

구술자2 : 세 바퀴, 세 바퀴 돌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그냥 그 정치 없이 떠나서 나온 곳이 대전으로 와가지고 대전에서 8년간 학원을 해요. 요새 같으면 보습학원. 정식으로 그 때도 인가를 얻어서 했으니까, 8년간 그거를 해서, 목구멍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거기서 기반을 닦고 결혼도 하고 (거기서?) 예,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은데, 주의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는 두 사람이 만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처지로 봐서 도저히 뭐야 누구 보고 결혼하자는 말을 못할 처지인데, 마침 목이 이렇게 목 디스크가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심하게 고생을 하다가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급하니까 누구하고든지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누구하고 처음에 이 얘기를 해서 나하고 내가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이 그것이 성사가 안 되고,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지금 우리 부인이지, 우리 집식군데, 보니까 이 사람은 영 요 여자는 아닌데 행위나 모든 것으로 봐서 아닌데, 저런 양반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가, 해서 참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안됐드라 이 말이며, 그럴 때 나는 또 어떻게 그 그 사람 동생 처남한테 생각하다 생각하다 간접적으로 청혼을 해봤어, 누나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하고 결혼 생각이 있냐, 근데 뭐 우리 집식구는 부산에서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니까, 부산에서 아주 뭐 남포동 대신동으로 도시에서 뽕뽕거리고 크다가 몇 년 간 어려운 사정이 있어가지고 대전까지 와서 살게 되고, 나를

평소에 이렇게 봐 왔던 우리집 식구가 참 저기하고 하면 아닌데 안 되는데. 그러다가 나한테서 청혼이 들어오니까 예스했다구. 그제 정말로 우리 박회장은 알지마는 참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그러니까 자식들 손자들까지도 내 맘에 어긋난 일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을 했냐면은, 보습학원을 거기서 한 8년간 운영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오지요. 서울 와서는 또

조사자 : 그 때 당시 보습학원은 지금처럼 막 이렇게 야간에도 운영하고 하셨나요?

구술자2 : 보습학원을? 보습학원 그래 않지! 낮에만 (낮에만!) 하기 나름이니까

조사자 : 70년도였죠? (방과 후에) 방과 후에. (방과 후에만 하니까) 방과 후에만. 많았나요. 학생들은? 학생들이 많았나요?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구술자2 : 그 때도 어려운 때니까 그럴 때. 많을 때는 100명에서 150명. 유지는 되요.

조사자 : 그 때는 그 주산학원 이런 게 잘 될 때 아닌가요?

구술자2 : 예. 나는 초등학교 출신들. 초등학교 선생을 했으니까. 초등학교 출신들 보습학원. 거기서 한 8년 살다가 인제 서울로 올라오지요. 서울로 올라와서 무엇을 하나 면은. 그 뭐가요. 할 것이 없으니까. 주택수리센터를 해요.

조사자 : 보습학원을 잘 하시다가 왜 서울로 오셨어요?

구술자2 : 그 타격을 받은 것이 무슨 누구한테 소개받아 사업을 하나 시작한 것이 (보습학원 말고 다른 걸 더) 시작했는데. 그래 갖고 폭삭 망해 버리니까 또 정처 없이 떠나 서울로 왔죠.

조사자 : 그 얘기는 하기가 좀 꺼려 (응?) 사업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얘기를 하신 좀.

구술자2 : 사업이. 그 때 와이샤쓰를 일일이 대려입던 시대에 와이샤쓰를 풀막이 해서 저저 해도 막 다들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와이샤쓰 있어 개발됐어요. 나 보고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아~ 이거 되겠다. 그것을 중부권 대리점을 맡아가지고 그냥 실력 있는것 해가지고 그 폭삭 망해부렸어요.

조사자 : 보습학원까지 다 (보습학원까지 뭐하고) 말아먹.. (거기서 살 수가 없게

해서) 아 그래서 서울로 오셨구나.

구술자2 :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지요. 와서 주택수리센터를 하는데 주택수리센터가 되겠다 여기 성남이. 왜냐 새로 집 짓고 뭐 그러니까. 서울서 좀 해보니까 굉장히 험 만해요.

조사자 : 그 때 주택수리센터를 선택하신 건. 그 전에 뭐 주택 관련해서 뭔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구술자2 : 자신이 없고 서울에 오니까 그런 일헌 사람들이 많이 고향사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맡기는 내가 맡고 일은 그 애들이 하고 해서.

조사자 : 그래서 일을 잡아다가 이렇게 주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다.

구술자2 : 예 예. 그래서 주택수리센터를 하는데 성남에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한번 성남이 어떤 텐가. 거 가면 일거리가 많겠다.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일거리는 많겼어요. 많겼었는데. 그 때 인제 문제가 생기는데. 예 알음으로 들어왔다가 무슨 광경을 보냐 하며는. 큰 대형 트럭에다가 한 네 세대를 네 세대를 실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 12월 말 경에 실어다가 이 태평동 저 입구 그 자리에다 막 동토에다가 막 푸는 거예요. 집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한겨울에!) 그 광경을 보고 순간적으로 나는 이 분들과 같이 살아야겠다. 그리고 성남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내 피. 내 백골을 여기다 묻겠다. 그런 결심을 거기서 하게 되요. 그분들하고. 그 분들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아이들과 오돌오돌 떨고 그 참 실의에 빠진 그 아낙네와 그 남편과 그 네 가족을 한 차에다 실어다 뺐으니까. 그러니까 막 추운 동토에다가 이불이나 요런 것만 갖고 천막만 치고. 거기다 퍼 놓고 가는데.

조사자 : 그런 차들이 그렇게 계속 들어왔나요? 그렇게 가족들을

구술자2 : 그대로 차근차근 들어왔어요. 차근차근

조사자 : 하루에도 몇 트럭씩? (응?) 하루에도 몇 차씩

구술자2 : 아 그냥 여기저기서 물꼬가 터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심을 굳게 한 것은

조사자 :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고 하던가요? 그 때.

구술자2 : 그 사람들은 인제 강제 철거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울에서!)

구술자1 : 서울 저기 저 저 마장동하고 저 제기동하고, 마장동 제기동 거기 사람들이 여기 전부 들어온 거야. 화물차에다가 그냥 저 저 천막 싣고 다 갖다 부운 사람들이. 마장동 제기동, 제기동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술자2 : 그 때 그 인제 동기는 그렇고, 나는 그런 것을 은근히 원하고 있었어요. 빈민과 같이, 그 왜정 때 저 뭐가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정말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조사자 : 그런 생각을 계속 해오셨는데, 그런 광경을 보시니까 이제 불이 붙었구나!

구술자2 :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나는 성남을 떠나지 않는다 죽어도, 그러니까 지금 태평동 여기서 지금까지 사는 거여.

조사자 : 그 때 바로 여기로 이사 오신 거예요 서울 쪽에서? (서울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구술자2 : 하하하 기구하게 오지요. 돈 한 푼도 없으니까, 애들 형제하고 우리 집 식구하고 네 사람이 인제 거기서는 갈 때까지 가니까, 돈 여유가 하나도 없어. 큰 제일 큰 누이동생 보고 5만원만 꿔주게, 내가 나중에 줄 테니까 5만원만 꿔주게 하니까, 5만원을 꿔줘서 3만원은 자동차 차 빌렸고, (차 빌렸고) 예, 나머지 2만원은 내 인제 우리 가족들을 그게 생명선이야, 2만원 갖고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해야지.

조사자 : 그러면 그 때 부인하고 애가 (애 둘 형제하고) 형제 둘이 있었고

구술자2 :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에~ 그냥 뜬금없이 난데없이 (난데없이) 난데없이 이사 들어와 가지고 인자 주택수리센터를 여기서 현 거예요. 서울에서 좀 하다가 와서 그 때 주택수리센터를 여기서 인자, 처음에 집 한 채를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서 지으니까 손해는 안 났어요. 근데 쉬운 것이 아니여 그제. (그렇겠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서 셋방으로 셋방으로 해서 애들을 그래도 그리 굶기질 안 허고, 나에겐 사흘도 굶고 일주일도 굶고 많이 굶었지요. 그래서 참

보냈는데 여기서 에~

조사자 : 주택수리센터 하실 때 이쪽 근처에 집들을 좀 많이 짓고 하셨나요? 주택 수리센터 하실 때

구술자2 : 집은 한 채 밖에 못 하고, 주어도 내 전문이 아니라 허도 못 하고, 여긴 장래 보기가 아니니깐 미련도 안 갖고 치워버리고, 인저 낭인으로 이렇게 골목 옮겨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기웃하니까 인자 사람들도 만나고.

구술자2 : 또 그 무렵에 송동장님을 누구여 송동장 송일성이.

구술자1 : 송일선이 송일선.

구술자2 : 하루는 갑자기 너 정형 새마을지도자 안 핏겨여? 그래서 미쳤어! 그리고 말았는데, 동네 소문이 어떻게 도냐 하면 나는 원래 그 뭐가 학교를 가나 어디로 가나 녀마주의마냥 줍고 끌고 허는 것이 그냥 내 몸에 배겼어. 그래서 인자 우리 아들덜 둘놈 신자루 신자루 이런 거 하나씩 들리고 나도 하나 들고 셋이 이 만큼 씩 한 걸 데리고 근처 산애를 아침 등산 갔다가 오면서 거기다가 인저 쓰레기가 맨이니까, 쓰레기를 하나씩 주서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어 똥똥하고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우면 거 애들하고 뭐 주서가지고 다니는데 담배꽂초도 줍고 뭐도고, 소문이 나가지고, 어~ 그것이 동장이 그 소릴 들어가지고 너, 너라고 했다 자네라고 했다. 자네 새마을지도자 핏겨여. 저 뭐가. 미쳤어! 그리고 웃고만 말았는데, 마침 그 때 내가 인쇄소를 참 어렵게 시작해 가지고 그것도 돈을 그 아는 사람한테 꺾다가 5만원을 꺾다가 고철을 인저 버리기 직전인 그걸 갖다가 조금 찌그덕 찌그덕 해서 목구멍 풀칠이라도 그래도 할라고 하는 판입니다. 인자 인쇄소를 시작을 해서, 근데 그 소문이 그렇게 퍼지는데, 아 정형주구나. 이제 동장이 알았어. 그래갖고 너 저거 새마을지도자 해, 내말 듣고 해, 난 인자 그리고 왔는데,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았쥬. 근데 아 뭔 어느 해 뭔가 명절 때 내 책상 위에 저 뭔가 인쇄소 책상 위에 양말이 두 커리가 담긴 보따리 요런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준 거라고, 미친 자식이 나를 새마을지도자를 시켰으면 시켰다고 말을 허거나, 글 안하면 시키지 말거나 그러지. 새마을지도자를 해놓고 한참 지날

때 까지 말이 없어. 그랬더니 뭣이 날라왔어. 그래서 운명처럼 받아들였어요. 내가 조국을 위해서 혈 일은. 또 이 성남시를 위해서 혈 일은 다른 게 없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없는 사람들끼리 마음 선량한 사람들이 한번 뭉쳐서 지역을 가꿔 봐야겠다.(1:38) 인자 그래 그러면서 꿈을 꾸는 것이 인자 이상향이야. 이상향. 에~그래가지고 지금까지니까 뭐 그 기간이 근 40년 돼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하게 된 것이고. 어~ 나는 굉장히 행운아예요. 새마을에 불림을 받았어. 뭐가 아 그냥 내가 새마을운동 하나까 풍채는 괜찮하니까 시에서도 자기들끼리 논란이 생기고. 그 사람이 정치나 그런 거 할라고 그러지 뭐 참말로 새마을운동 허겼냐. 뭐 끝까지 배타한 것도 총무국장은 정형주하면. 아이 말도 마라 해버리고. 아~ 인제 그런데 차차차차 인제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구술자2 : 그래가지고 한 2년 후에 연수원을 갔는데. 새마을연수원이 그 때는 들어가기 여간 어렵고.

조사자 :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였나요?

구술자2 : 뭐가 수원 (수원에?) 예. 새마을연수원에 인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아 뭐가 에~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뭐 그냥 각계 각층에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농촌에서도 모이고 배우도 오고 뭐 뭐 정치한 사람도 오고 뭐. 아 이렇게 왔는데. 에~ 내일 내일 아침에 학생장 우리가 선출해서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시키더라구요. 여기서 선출하는 것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아니 난데없이 정형주 지도자 교무실로 오라고 해서. 가니까 그 사람 난 옆에 끼어 앉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를 학생장으로.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참 그 교사를 했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진실할 것이고. 또 말도 그렇게 엉터리로 허지도 않을 것이고. 생각도 바를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수들끼리 골라낸 것이 나여. 그래 학생장이 돼 가지고. 정말 인자 제대로 교육받으면서 12일간을 교육 받으면서. 정말 인자 독립투사가 내 꿈이었으니까. 하하 독립투사는 못됐어도 아주 당돌하게 하는 거지. 우리 운명을 얘기 하고.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훌륭한 여러분들이 새마을운동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결정될 것입니다. 어이구 뭐 보니까 이게 잘 골랐거든. 그 때부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몇 년 후에 그 성남시의회를. 아 저 뭔가 대한민국 새마을회가 조직이 될 때에 조직 멤버로 들어가서 서울에 가서 역할을 하고, 또 여기서도 뭔가 아~ 자동적으로 그냥 시협의회 회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인제 새마을에 완전히 몰입 한 거죠. 허허허 그래 그래가지고 여까지 살아왔어요.

조사자 : 수원 새마을교육원에서는 무슨 교육을 받았나요? 그 때.

구술자2 : 아! 그 때 유명했어요. 그 교육 한번 받고, 받아야 새마을 운동한다. 받고 제대로 자기 정신 차릴 놈 없을 정도로 훌륭한 정말로 참 뭐 애국지사들이요. 그 시방 그 때 그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박회장님하고 같이 가서 만날 사람들이 한 40명 만나게 되는데, 에~그 사람들하고 인연이 맺어지고, 그래가지고 인자 성남시에서 이제. 딱 나는 오래하지 않아요. 뭐든지 봐가지고 야 이거 됐다. 이 걸려봐 가지고 제대로 걸어간다 싶으면 손 놔버려요. 노면 다시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래 2년간 성남시협의회장을 하면서 그 김 전회장이 얼마나 내가 정열적으로 막 했던지 하루는 김준 원장님이 만났더니. 정회장 정말 애썼어. 대한민국에 오늘 지금 에~ 행정수도는 서울이고, 새마을 수도는 성남이야. 참 굉장히 입이 무겁고, 성남을 그렇게 평가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2년을 했어도.

조사자 : 그 2년이 언제 언제 몇 년도였나요?

구술자2 : 80년대 (80년?) 80년 일년 전 아니면 일년 후 (80년 1년) 80년까지, 79년에서 80년까지. 협의회장을 할 때. 그것도 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조사자 : 그 때 가장 중점을 뒀서 했던 사업이랄까 뭐 일은 어떤 거였죠?

구술자2 : 지도자들의 (교육) 교육 이전에, 파악 지도자에 대한. 밤에 이 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지도자 집을 한 그 때 천 명 됐는데, 여자가 절반 남자가 절반. 여자 집은 못 가고, 성남시에. 한 천 명 되는데. 남자 집 400 몇 십 명 되는 집을 새벽에 방문을 해요. 보면 그 집 봐서 그 주변 보고, 또 그 사람 깨워서 나오는데 나오는 모습 보고, 부스스해 가지고 걸음도 똑바로 못 걷고, 집 주변 보면 전연 정비도 안 돼 있고, 인제 그것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새벽에 만

나서. (매일 새벽에 다니시나요?) 매일 새벽. 그 다녀가지고 그 중에서 체크를. 그 쓸만한 사람을 체크를 해. 그 사람들을 총무를 맡기고 마을 총무를 맡기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뭇을 하는가 하면 환경정비기동대를 만들어요. 기동대 하하. 여기 계시는데. 기동대를 만들어가지고. 에~ 그러니까 뭔가 아주 악명이 높았지요 내가. 왜 악명이 높냐 하면. 우리 뭐 저거. 푼푼 30명이 푼푼 히고 힘도 깨나 쓰고 운동꺼나 한 애들을 모아 환경정비기동대를 만들어가지고. 아~ 아주 그냥 맘대로 지맘대로 어지러놓고 늘어놓고 막 지어놓고 꾸정물을 만들고 막 해 놓은 것을 가서 전부 작살을 내버려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작살 뭔가 작살로 전부 해버리고. 거 싹~ 청소해버리고 다시는 못 넘게. 아 근데 아 저 깡패 같은 놈도 같이는 가도 혼자는 나중에 거기를 못 간대요. 맞아 죽을까 봐서. 근데 나는 당당하게 그 이튿날 가 봐요. 가봐. 아주 나한테는 감히 손을 못대. 그래가지고 성남을 상당히 그렇게 대한민국의 새마을 지도자들 정신 자세 또 뭐 그냥 그 시 우리 시에서 현거. 그냥 내가 생각해도 2년 딱 하고 벌써 그 흐름을 알고 그만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딱 그만두고 나와서. 또 나는 언제든지.

조사자 : 그 때 그 때 같이 (같이 했지요) 같이 30명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 때 같이 멤버였던

구술자2 :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사자 : 그 뒤로 2년 이후에 손을 떼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운영 해가는 새마을 운동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구술자2 : 그~ 나는 벌써 모든 경우에 내 선배 투사들을 생각해요. 독립투사들. 그 사람 가서 자기 빼도 못 찾고 자기 죽은 자리도 모르고 시체로. 그런 불우한 운동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감옥에 가서 총살당하고. 한테 나는 내가 새마을을 택한 것은 내 일신상은 아무 일 없고. 나는 그 손해를 봐도 조국을 위해서 떳떳하게 내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그 내가. 저 후회도 안하고. 나는 그 때 이미 교회에서 장로 반열에 올라있었어요. 장로 반열에 올라있고. 또 교사 출신이고 사회의 벌써 지도층이고. 근데 내가 생각해서 요 길이다 하면 해야지. 남의 눈치 보고 남의. 나는 뭐 당당하게 했어.

조사자 : 80년대 그 초반 이후에 80년대를 쭉 지나가면서 새마을운동은 잘 되던가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던가요?

구술자2 : 그 때 한참 잘 됐지요. (성남에서도?) 네 성남에서. 성남에서 제일 잘 됐어요.

조사자 : 보통 새마을운동 하면 농어촌 쪽에서 보통 많이 된다고 배워왔는데.

구술자2 : 그 때도 당연 주류는 농촌이죠. 우리는 비주류고. 그런데 성남에서 유독 바람이 일어났어요.

조사자 : 도시 새마을 성남에?

구술자1 : 도시 새마을은 성남이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그렇죠!)

구술자2 : 그러니까 이제 애~ 또 더 물으실 거 있으면 물으시고

조사자 : 저 80년대면 성남이 이쪽 태평동이 이제 천막촌에서 지내온 게 10여년 지났을 무렵인데. 그 때는 인제 천막집이나 루핑집 같은 것들은 좀 없어지고, (많이 정리가 됐죠) 많이 정리가 되고 벽돌집이 좀 들어서고 하던 시기였죠.

구술자2 : 흙벽돌집이나 좀 들어서고

조사자 : 그래도 아직도 도시가 도시 기반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은 초기의 모습일 텐데.

구술자2 : 아까 뭔가 박희장님 말씀하셨듯이 저 뭔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80년대도?) 그 80년대 7. 80년대 우리 태평동. 제일 지금 취약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은행동 저 꼭대기하고 성남 요기 요기 뭔가 태평 영장산 밑에 태평2. 3동 그쪽이고. 그래서 항상 늦고 뭐 취약했지요.

조사자 : 근데 인제 그런 상황이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도 아직은 좀 곤궁했을 때고 그 사람들 살아가는 생활형편도. 그러다보면 집 주변에 이렇게 정리 안 되고 어수선하고 골목길이 좀 뭐 쓰레기도 좀 쌓여있을 수 있고 어떤 쓸데없는 건물들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새마을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집주인의 허락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치워버린다거나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마찰도 좀 있었을 거 같아요!

구술자2 : 아 굉장했죠. 정형주가 여기 와서 초창기에 주례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내가 새마을지도자를 한 뒤로부터는 주례도 안 세웁요. 정형주 주례 세우면 손님이 이제 하나도 안 온다고. 그렇게 악명이 높았어요.

조사자 :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그냥 새마을운동을 하기 위해서

는
구술자2 : 그런데 그런데 뭐가 아~ 그러니까 인자 (사명감?) 사명감이죠. 요걸 요 상태로 놔두고는 하두명년이다. 요것은 해놓으면 성남시가 발전이 굉장히 빠르고, 너희들도 너희들 환경이 달라져야 너희도 달라지지. 이런 환경이 돼 놓고 끝까지 살 것이냐. 나는 그 때 교회에서는 장로 반열이고 학교 같으면 친구들 다 뭐가 교장도 돼 있고 할 판인데 나는 그런 것을 무릅쓰고 그 일선에 서서 막 부딪친 거예요. 아 어떤데 가면 칼을 갈아놓고 기다리는데도 있어. 이 새끼들 오면 다 찢러죽여 버린다고. 아 그리고 내 후임이 나 끝난 뒤 나갔다가 그냥 여기 여기를 채여가지고 한번 딱 나갔다가 그냥 무서워서 못나가고. 근데 나는 그것을 그냥 참 일년 가까이 (그러셨구나!) 땀기면서 단호하게 당당하게.

조사자 : 그럼 그 때 철거하고 그랬던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구술자2 : 아 뭐 그냥 말할 것도 없지요. 자기 집안에 놔두 될 만한 것들을. 집집마다 쓰레기통이 없는 집이 없고 문 앞에. 뭐 그냥 옆에다가 오만 골목길도 그냥 리아카도 못 땀기게 막 뿔을 갖다 놓고, 부로커로 쌓아놓고 심지어는 쪽 허니 벽돌로 쌓아놓고 장사를 하고. 내가 딱 언제 며칠날 너희들 철거하러 가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딱 사전에 통지를 해 놔요.

조사자 : 집밖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좀

구술자2 : 그러니까 골목을 이만큼 요만한 골목을 요만큼 차지해서 벽돌을 쌓아놓고, 거기서 영업을 해. 그래도 누구도 가서 말 한마디 못해요. 내가 저거 한다. 아무 날 내가 여기 철거하러 온다. 무지하게 그 무리를 현 거죠. 아 그러면 에~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나한테 저항한 놈이 없어요.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가 그렇게 무작정 한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거든. 자 너는 좋다 너는 좋아고 얼마나 동네사람들이 불편하냐. 또 만일에 불이 났다고 생각

해보자. 백가지 생각해도 니가 철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해. 왜 설득을 거의 해서 숨을 죽여놓고 들어가니까. 그런데는 어려운 데는. 근데 연탄광 같은 거 요런 거 밖에다 쌓아놓은 것은 수두룩하고. 또 그냥 가게마다 요렇게 해서 밖으로 내가 지고 그냥 가게다 뒀을 채워갖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깨끗하게 깨끗하게. 한번 처음부터서 내가 느슨하게 했으면 못 헐 텐데. 단호하게 그렇게 하니깐 꼼짝 못 해.요. 꼼짝 못해.

조사자 : 큰 길을 중심으로 하셨죠? 큰 길을!

구술자2 : 큰 길은 그런 데가 별로 없는데. 또 시에서 그런 것을 알아서 하고 (조그만 골목길들) 예.

조사자 : 72년도에 인쇄업 쪽 인쇄업을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인쇄업 인쇄 (예!) 72년도에 그게 잘될 것 같더라는 판단을 하신 건가요?

구술자2 : 예~달리 내가 돈 5만원가지고 시작했는데. 기계 그 뭐가 다 (인쇄기계) 인쇄기계 낡은 거 하나만 달랑 놓고 시작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헐게 없고. 그래도 그가 제일 그런 기계라도 갖다가 헐 수 있으며는 그것이 유일하게 그것 뿐이에요.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 보다는 예~ 저기 달리 길이 없으니까 그걸 시작한 거죠.

조사자 : 주로 뭘 인쇄하셨나요? 인쇄했던...

구술자2 : 인쇄 뭐 보통 인쇄소. 뭐 뭐 (책을 만드신 건 아니 거 같고? 책을 만드신 건) 책을 만든 건 아니고 무슨 그런 시설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광고지 뭐 전단지?) 전단지나 요런 거 찍어 달라고 하지.

조사자 : 그럼 어떤 전단지들이 그 때 주로 어떤 내용의 전단지들이 많이 찍었나요?

구술자2 : 소상공인들의 선전광고고 선전 짜라시. 예. 그런 것들 했는데. 인쇄소를 하면서도 항상 빗쟁이를 면치 못한 것이 뭐냐 하면. 우선 내가 정신이 판 데 가 있고. 생업에 저길 않고. 아 잊지 못할 얘기가 있는데. 예~~

조사자 : 그 인쇄업을 하실 땐 아직 새마을운동 시작을 안 하실 때죠.

구술자2 : 아니요. 새마을회장을 하고 그럴 땐데요 (인쇄업을 하시면서도?) 예 인

새업을 오래됐으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인쇄업을 했으니까. (처음 초기에는) 초기에는 그렇게 뭐 조그만 거 얻어다 하고 그런데, 저기 저 음 김규철씨라고 태평 그 때 여기 4동 2, 4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는 이가 있는데, 선배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한마디로 어~ 잘 못된 분이 이사장을 해요. (새마을금고?) 예, 나한테 원한을 가져요. 원한을 왜 갖냐 하면 예~ 자기들이 그 뭔가 어디 회원들 데리고 어디 갈라고 저것을 잡아놨는데, 다른 사람이 또 차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가니까 방해가 되거든, 근데 그 사람 그 차를 교섭해 준 사람이 누구나 하면 나라고, 나보고 좀 해줄 수 없냐고 해서 그까짓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해 줬는데 그것이 인제 그 사람이 나에게 양심을 품게 된. 그런데 새마을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 내 새마을운동을 도와 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예~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어렵게 들어왔으니까 보증을 하나 부탁하더라고. 마을금고에 빚을 얻을 때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그 사람이 못 갚은 거예요. 못 갚으니까 우리 인쇄소 내 절대 이걸 누구도 그래선 안 되는데 소위 그 사람이 나하고 잘 아는 이사장인데 예~ 그 양심 가지고 거기다 인쇄기계에다가 달랑 인쇄기 5만원짜리 가지고 찌그덕 찌그덕 먹고 사는데 차압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제 죽으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가족회의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식구는 아무 소리도 않고 있고 아들들 둘은, 나는 막다른 골목인데, 나는 내가 참 생명처럼 애끼던 내 운동을 접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사는 길은 있는 건데, 아버지! 그렇게 소원하는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그만둔단 말입니까! 하십시오. 저희들이 인수하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냥 앞으로 봐도 절벽인데 아 이놈들이 그냥 생각을 가꿔온 건지 어떻게 한 것인지 나보고 용기를 내서 잃지 말고 인쇄하라고.

구술자2 : 그래가지고 다시 또 사는 것은 그 시유지에다 이렇게 쳐 놓고는 그 속에다 저 모래를 깔아놓고 우리 내가 저 모래를 깔아놓고 정식 흙벽돌집도 아니고 그냥 천막 속에다가 모래를 깔아놓고 거기서 인자 모래 위에다 뭐 좀 깔아놓고 (70년대?) 80년대 (80년대에요?) 예, 80년 81년 성남시회장하고 뒤편하고 할 때 (그 때) 참 책피하기가 말할 수 없고, 그냥 총무국장이 정회장님 한번 만납시다.

가니까 그냥 대뜸 혼을 내고 야단을 친다고.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냐고. 자식들을 뒤흔려 낳았냐고. 뒤흔려 장가는 가가지고 아들을 낳가지고 그 둘로부터 돌아보지도 않고. 시 안 해도 할 사람이 있어요. 현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인자 가족회의를 붙여서 난 딱 접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인저 또 그계 고비들이 많았어요.

조사자 : 그럼 80년 81년 그 때 그렇게 새마을 지도자를 하셨고. 그거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는 새마을과 관련된 일을 안 하셨나요?

구술자2 : 그러니까 83년도에 새마을금고 차압당한 지 얼마 안 되서 바로 또 금고 이사장이 돼요. 거기는 인제 참 선고를 받았지. 전국에서 태평4동 2-4동 거기 금고하고 중동에 금고 하나 하고 둘이 선고를 왔어. 여기는 더 이상 지속이 안 된다 해가지고 폐업처분이 될(될 상황에서) 상황인데. 이 지역에서 동장 이하 뭔가 유지들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든 살리 뭔가 해봐야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장이 이사장은 내가 정형주 씨를 설득을 해볼 테니까 한번 다시 지속해보자. 다 나를 이사장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인자 뭐 내가 잘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동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설득을 하기로 했다고. 그 말이 들어와서 이선웅 동장 같으면 설득할 것도 말 것도 없다. 나는 한다. 내가 그걸 짊어지고 내 죽어도 내가 필요하다면 가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인제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참 선풍적인 처음부터 5년간은 아무 것도 없는데 빚만 한 1억4천이 있는데 그걸 갚기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세월을 보내서 5년간 이 뭔가 저 현상유지도 안 되다가 5년 만에 겨우 뭔가 에~ 나머지 5년간 5년간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그런 정신으로.

조사자 : 새마을금고를 살리셨나요?

구술자2 : 뭐가 살릴 정도가 아니라. 뭔가 성남시에서는 하나도 기라성 같은 그 뭔가 금고들이 날 차근차근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일이고. 경기도에서도 한 4-5위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한 12-3위. 그러고

조사자 : 뭘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잘 운영이 되신 거예요?

구술자2 : 나는 솔직한 얘기가 아~ 그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 우리 박회장님하고 이루어놓은 것도 불과 10년간 우리가 정말 받쳐놓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제일 새마을 평을. 공공적으로 떠도는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태평동이 제일 깨끗하대요. 소문으로 막 나돌았지. 아닌 게 아니라 아까 그 나중에 읽어보면 알지마는 정말로 그냥 나무랄 수 없을 만큼 해가지고. 지금 어디 가당이나 합니까! 지금 새마을이 어디 아무리 어렵다고 아 그냥 전관에도 없는 것을 태평4동이 시금석이지. 이게 돌이나 금이나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조사자 : 80년도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시면서 시간을 세월을 다 보내셨고. (10년간) 10년간 했고, 90년대는 주로 뭘 하셨어요?

구술자2 : 인제 새마을금고 이사장하고 나오면서 바로 뭇을 시작하냐 하면 농촌살리기운동.

조사자 : 여긴 농촌도 아닌데? 여긴 농촌도 아니잖아요!

구술자2 : 아니라도 대한민국 농촌을 살리는 도시하고 연대가 잘 되야 되거든. 농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뭇가 다사리 생협운동을 해요. (생협운을?) 예. 7년을 딱 하다가 한마디로 해서 거덜이 났지. (생협이?) 생협도 거덜나고 우리 살림살이도 거덜나고 지금도 그 후유증은 (생협이 잘 운영이 안됐나요?) 우리 나도 지하 지금 뭇 200만원도 안 되는 지하서 지금 살고. 우리 큰 아들 놈도 지금 뭇가 그 전세 집안을 다 까먹고 월세 살림살고 있고. 우리 작은 아들은 당당히 뭇가 새마을금고에서 잘나가는 인제 뭇가 에~ 과장 과장으로서 한 달에 월급 5-6백만 원씩 받고. 그래도 지 형 아버지가 죽은데 저는 가만히 살 것어요. 맨 보증서고 뭇 히고 그러니 세 집이 다 거덜이 나갔고 있어 현재. (생협 때문예요? 생협하시면서) 원인은 생협이죠. (그게 어떻게 잘???)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물건을 사다가 도시에서 팔아서 그 농촌도 유익하고 도시도 유익하다 논리는 그런데. 이 그것은 적잖이 손해가 나요. 여러 가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하니까. 7년 만에 허다 허다 그만뒀죠. (8-90년대?) 예.

조사자 : 2002년도에 인쇄업을 그만 두셨다고 했죠? 그럼 2002년도까지 인쇄업을 계속하시고 있었어요?

구술자2 : 저 그 성남시에 아니 저저 경기도에 저것이 있습니다. 저 뭇가 품앗이은행 뭇가 봉사은행. 그것을 인제 시작을 해요. 우리 박회장님이 같이 하니까. 에~

아 인저 뭐 좀 도시 또 정비사업을 할라고 보니까 봉사자들이 없어. 그 문제가 봉사자들을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봉사은행을 만들었어요. 봉사은행을 만들어가지고 (그건 경기도에서) 여기서 한 몇 년간 굉장히 뭐 그냥 매스컴이란 매스컴은 다 동원됐어. 그렇게 쇼킹한 그것이 뉴스였어요.

조사자 : 봉사은행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을 해내셔서

구술자2 :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어려우실 텐데 그러지 말고 성남시하고 같이 합시다. 성남시에서 예산을 대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허자고, 그래서 에~ 내가 혼자 3년간 통장까지 만들어서 품앗이도 마을금고 형식으로, 봉사를 허며는 금전처럼 인제 (통장에다가 찍어주나요?) 찍어주죠 통장을 만들어서. (몇 시간) 몇 시간 허며는 또 여기서 자기가 받아가며는 빼고 금전하고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한 인기를 얻어가지고 어~ 성남시에서 잘하고 있으니깐 경기도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경기도봉사은행으로 하자. 해가지고 지금은 경기도봉사로 댔습니다. 회원이 몇 십만 명이 돼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그때 내가 에~ 그 봉사자 관리시스템이고 그것은, 근데 봉사를 있게 만드는 품앗이은행도 동시에 개발을 했어요. 근데 품앗이은행은 지금 잠자고 있는데.

조사자 : 품앗이 은행은 조금 어떻게 다른가요? 봉사하고

구술자2 : 한가지예요. 품앗이 은행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것은 봉사실적 관리한 거고, 요것은 인제 봉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에~ 같은 일이 회원이다. 다음달 우리 그 저것이 프로그램이 우리 회지에 전국 나가는 회보에 다음 달 프로그램 지금 나갈지 의논해 가지고 그것을 제일 먼저 넣을라고 했어요. 품앗이은행을, 품앗이은행을, 그러니까 결국 그 노인새마을이라는 것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노인복지를 한다면 먼저 노인들의 현주소, 무엇이 가깝고 무엇이 괴롭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허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다음 달 인제 에~ ..프로그램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무슨 일이든지 요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인자 자기가 건강이 안 좋다. 또는 무엇이 뭐 그냥 가전 제품이 고장났는데 뭐, 열쇠가 구멍이 막혀가지고 안된다. 하여튼 무엇이 되고

무엇은 안된다가 없어. 살아가는데 괴로운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여 올리라 이 말이야.

구술자2 : 여기는 지금 뭔가 저 저것도 H-H봉사단도 지금 내일 신부님을 만날 거예요. 그전에 거기서 돈은 현찰은 대 주고 우리가 저것을 에~ 봉사는 우리가 하고 해서 굉장한 거기도 스토리가 있어요. 정말 그 정말 숨은 얘기들이 있어. 그래도 지금 벌써 우리 박회장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동에서 인저 그 어려운 사람이 동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줘요. 그럼 우리는 일을 해서 고쳐주는데, 돈은 그럼 필요한 돈을 어떻게 허냐. 천주교에서 돈을 대 줬어요. 그러다 천주교가 그 다른 사업 뭐 건물 고치고 하느라고 그 ?빚잔치를 하느라고 그걸 깨버렸어. 그래서 난 내일 만나가지고 그걸 다시 복원하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그냥 그 뭔가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혼자 사는데 노 인네가 보름간을 떨고 잤는데 인자 죽었구나 시점에 나를 만났어. 그래 무슨 소리냐고. 당장 우리 멤버 불러다가 가서 밤에 고쳐. 밤에 고쳐.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따뜻한 방에서 자게 한다거나. 집이 막 천장이 새가지고 방에다가 그 수중 펌프를 두 군데다 해서 서서 다 젖고 물이 차고, 그런 것을 또 내가 알아가지고 즉시 일하는 사람 데려다가 밤에부터서 그 이튿날까지 해서 물 깨끗이 잡고, 그리고 인자 메칠 후에까지 있어. 도배 다시 다 해 가지고 (그게 폼앗이은행인가요?) 그것은 폼앗이은행에서는 그거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인제 H-H봉사단원 (H-H) H-H home house (아 H-H봉사단) 봉사단이 이때까지 있었어요. 있었는데.

조사자 : 그 봉사 그렇게 그 어떤 문제 해결하는 그 사람 그 분들은 다 이렇게 봉사단에 속해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나타나며는 (그럼!) 가서 하고.

구술자2 : 이제 뭐 도배를 하는 사람. 뭐 인제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전기 고치는 사람. (모이게 됐나요?) 그것이 H-H봉사단이 우리 주변에서 노인이다 아니다를 물론하고, 기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다 규합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것을 몇 건이나 했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끝난 뒤에 몇 건이나 우리가 했냐 그러니까 한 200건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봉사활동하신 적이) 그런 애긴 정말로 전부 다 내놓고 그 놈 하나만 내놓도 정말 참 값진 얘기죠. 그것을 다시 살려볼라고 내가 내일 신부님하고 약속을 해 났어요. 앞으로 우리 태평4동은 정말 잘 나가게 될 겁니다. 이번 또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서 25일 날 전국의 그 새마을 참 핵심 멤버들이 교수부터서 무슨 장관부터서 뭐 이 사람들이 한 40명이 모이는데. 에~ 모여서 대단한 우리 백그라운드죠. 에~ 그래서 또 만들고, 지금 뭐 우리한테는 우리가 그 그것을 거기까지 올 때까지 10년 걸렸는데. 그냥 한번 해봅시다 해서 노인봉사대 만들어 가지고 시작한 지 한 10년 만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된 건데. 태평4동 참 앞으로.

조사자 : 노인 그 노인새마을회라 그랬나요? (노인새마을회) 노인새마을회하고 H-H봉사단 하고 그 답에 뭐 그 품앗이 품앗이은행 이런 거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구술자2 : 다 한울타리 (노인새마을회에 통합되는 건가요?) 통합 되죠. (노인새마을회라는 게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속에서 어떤 활동들이 그렇게 나뉘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뭐 똑같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주체가 달라지면

조사자 : 그러면 박용호 선생님이 그런 어떤 그 노인새마을회 (회장이라고) 회장이시니까 H-H봉사단도 관여를 하시고 품앗이은행 이런 것도.

구술자2 : 다 해야죠. 다 해야죠! 나는 인제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나는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나는 인제 숨어서 시나리오만 쓰는 거예요.

조사자 :그러면 HH봉사단이나 이런 것이나 또는 품앗이은행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장 큰 그 뭐야. 앞으로 어떤 일들을 더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안이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구술자1 : 그니까 H-H봉사단은 인제 지금 인제 없는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 이 산악 여기가 산동네라고 저기 해가지고선 주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개 여기가 서울서 집 사놓고 집주인은 서울 가 있고 여기서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인제 대개 없는 사람들은 지하실에 살아요. 근데 2층이나 3층 같은 데 사

는 사람들은 솔직히 정말 그런 고통을 좀 덜 겪는데, 지하실 사는 사람이 참 우에서 물이 내려온 게 하수도가 맥힌다 뭐 보일러도 또 보일러 수명이 또 지하실은 짧어요 이게 예 짧아요 습기가 저기 되고 환풍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솔직히 자기네들 보일러가 절단나면 원리는 참 집주인이 곤처 줘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사놓고 어디가 주소 저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 그러니까 우선 이 사람들은 보일러가 고장 나면 물을 못 때니까 참 그런 것도 가서 고쳐 주고, 인제 도비 같은 게 참 몇 년 안 했으면 시커메 갖고 인제 이 습기 차니까 지하실 같은 데는 이런 데 2층 같은 데는 몇 년 놔둬도 이렇게 깨끗한데 지하 같은 데 또 그렇지 않아요 또 얼마 안 하면은 이렇게 습기가 차 갖고 이렇게 얼룩이 지고 또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러면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봉산가요 아니면 뭐가) 봉사조 완전 봉사조 (조금이라도) 아 보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는 재료대만 그 아까 인제 그 정회장님이 그 천주교에서 얻어다가 요런 거를 했지, 그 사람들은 이 품 값이라도 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니까는 이렇게 봉사정신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한 마디로, (연세들이 좀 많으신) 그니까 많은 사람도 있고 전기 같은 거 전공같은 건 조금 인제 50대도 있고 다 인제 대개 한 6.70대 다 그러죠. 일하는 분들은 가서 또 뭐 세멘 같은 거래도 저기하고 도비 같은 뭐 이런 다 하는 사람들은 나이 먹은 집에서 얼추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구성이 많이 된 거니까는 인제 나이를 좀 먹은 분들이 한다고 봐야죠. (요즘은 동에서 동이나 이런 데서 시나 이런 데서 지원이 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제, (그래요) 예 지금 동이나 이런 데서 그 지원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좀 내가 엇그저께도동에 가서 참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이나 여기 참 여기 저저기 팀장이나 복지팀장하고 이적까지 정말 이 노인정에 이 추석 때고 구정에 쌀 한두 포 싹은 줍니다. 이렇게 동에서 인제 없는 사람 독거노인들 주고 나머지는 노인정을 이렇게 주는데 올해는 쌀 한포가 안들어 왔어요, (그래요) 예 동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동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복지팀장하고 내가 셋 불러다 놓고서 어디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참 이 독거노인들 주느라고 참 못 줘서 미안하다

고, 참 이라고 말하니 뭐라 그랍니까 이거를. 그니까 노인정에서 구에서 쪼금 나오는 거 갖고 정말 쌀까정 팔아서 정말 이렇게 점심 저녁은 안해 먹고 점심을 여기서 해 먹어요. 이 밑에서. 그니까 그런 것까정 팔아가지고 참 이렇게 할라니까 힘드는 점이 좀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도 그걸 또 못 지원해 주는 데는 못 지원해주는 대로 또 우리가 가서 말하면 또 어려워 생각을 하고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조사자 : 얘기들을 인제 많이 하셔가지고 대개 하신 거 같은데

구술자2 : 아니 (더 하실 얘기가 있나요) 예. 내가 인제 몰아가지고 어~여기 그래서 빠질까 봐서 내가 정리를 해왔는데 예~ 우리는 학교일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우리 장래는 초등학교생들인데. (예)맨 좀도둑 본드 같은 거 말고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가면서 해. 이 애들을 어떻게 바로 세워 주냐. 그래가지고 그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시장이 그 때 뭔가 오성수 시장이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처지였어요. 그 건물을 하나 지어준 거예요. 정회장님 이런 좋은 일 하실라며는 건물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 지금 새마을 금고 뒤에 있는 건물 뭐냐며는 지금 뭔가 치매노인들 관계하는 불교재단이 있어요. 무료로 나를 보고 지어줘서 거기다가 공부방을 만들어 가지고 한 200명. 그러니 그 때 방 한 칸에 사람들 몇 씩 모여서 사는데 뭐 있어요! 거기다가 한 200명을 수용해 가지고 무료로 다 우리가 관리해 주고 거기서 공부방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잘 유지해 나왔는데 엇그저께 넘어갔어요. 탄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뭐냐면은 그것이 그 공부방이 예~ 이 새마을금고에서 우리가 세웠고 새마을금고에서 여태까지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넘어갔어요. 일반 사람한테 돈 받고 넘겨줘서 우리가 그 공부방을 운영을 했던 것인데. 못허것다 (왜 갑자기 넘어갔나요) 마을금고 재정상 (마을금고 재정이 어려워서) 마을금고. 예. 그것을 내가 했던 것이 예~이 뭔가 도서관하고 어 그것하고 제일 첨에 손댄 것인데. 예~ 도서관은 학교로 넘어갔고 학교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인제 앞서가는 도서관이 돼가지고. 예~ 교실 두 칸인가 세 칸에다가 책이 뭐 몇 만권이나 될런지. 하여튼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되고. 문고 문고에서 허든 것이 내가. 하여튼 뭐 그때

당시는 내 전성기니까. 시장하고 동사무소 옥상에서 회의해서 격에 안맞게 시장이 오고 교육장이 오고 뭇이 오고 지금 다 불러들여요. 내가 가장 시장이 만나면 서 누구 좀 뭇 좀 합시다 회의를 하는데 우리 태평4동에 이것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주장하면 굉장히 반응이 컸어요. 그러가지고 경기도교육감한테는 또 교실 두 칸 만들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정회장 말 깊이 받아들였다. 그러가지고 한 3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져서 골목에서 그 정말 문 열어 놔도 손님도 안 오던 것이 학교 가서 교실 두칸 딱 차려놓고 책 만권쯤 넣어놓으니까. 거기서 그냥 독서왕으로 뽑힌 놈은 전교생 앞에서 왕관을 옛날 왕관을 씌워놓고 대관식을 해요. 에 뭐 미치지 학생들이. 너도 책 읽고 나도 책 읽고. 이 내가 한 그만두기 일 년 전에 통계가 한 3만4천권이 했어요. 그럴 정도로 문고가 있고. 경기도 인저 시범도서관이 있고.

구슬자2 : 에~ 그답에아까 그 그 그렇고 봉사은행은 그렇고. 그래서 경기도 봉사는 그렇고. 미련 없이 미련 없이 돌아설 땐 딱 줘버려.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새마을금고도 10년 만에 딱 그랬지. 또 봉사은행도 그랬지. 에~ 노인봉사대 이게 인자 진짜 큰 이벤트였어. 노인봉사대가 결국은 10년 만에 대한민국 새마을 지도를 바꾸는 발판이 됐어요. 아 이제 노인들만 한번 해 봐라. 이번에 그 저 뭔가 저거 보니까 홍보지 보니까 남자 새마을지도자단체는 하나도 안 오르고 여지도자들만 이렇게 올라가지고 전멸이여. 그런데 우리 남자들이 인자 하나 딱 올라간 거야 노인들이. 반듯이 대한민국 나중에 두고 보시... 새마을은 에~ 정말 난 이 자리에서 얘기지만 사람이 두 사람이 딱 뜻이 맞으면 무서운 힘이 나옵니다. 나보고 여기까지 하라면 전혀 절반도 못 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박회장님이 있으니까 밤에 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혼자선 죽어도 못나서. 그냥 두 사람이 손을 딱 잡고 가면 되듯이 새마을도 전부 이렇게 그냥 난마처럼 얹혀 있는데 뒀에서 가닥을 잡아요. 둘이 있으면 딱 가닥을 잡았다구요. 하나 하나 둘이 딱 의논해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백그라운드인 과거의 장관들 뭐 연수원장들 이런 사람들 그 모임에서 우리 관계자들 3-4명이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할라고 그래요. 에~ 그래서 새마을운동도 반드시 여기서 다

시 불이 불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구술자2 : 여기까지 오기도 어려워요. 몇십 년간을 했고 거기서 10년간은 대단한 성과를 올렸고, 노인봉사대랑.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저것을 하는데 에~ 이제에는 불이 안 꺼집니다. 아주 뭔가 그 노인들이 와서 내가 인제 꽃을 가꾸는데, 꽃을 가꾸는데 노인들이 와서 한 번씩 와서 싹 일을 인제 노인지도자들이 와서 해주는데, 보며는 마치 뭐냐며는 뭔가 그 메칠 굵은 누에가 뿔을 보면 와삭와삭와삭 정신이 없잖아요. 그것이 그 방불해 방불해. 그러듯이 이 양반한테 노인들 한 패 데리고 와서 그 꽃을 가꾸는데다가 한 만송이 가꾸는 데다가 막 풀어 놔두면 막 정말로 앞도 뒤도 안보고 열심히 한다고요. 그래서 난 용기가 충천해 있어 지금. 아 뭔가 내가 전국을 3주할 때에 양양에서 가니까 양양학교 교장실에 가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일을 시켜놓고 이북 출신들이 있고 이남 출신들이 있고 그 강원도 가면 뭐 수복지역 있고 무슨 있잖아요. 그래서 섞어 살거든 지금은 인자, 헌데 요즘은 죽여도 살리도 못 할 정도로 자세가 틀렸고 요즘들은 보니까 아 그냥 맹렬한 기세로 항상 시키는대로 해. 이남 출신이고 이북 출신이고 환허다. 그렇듯이 지금 젊은 사람들 시켜놔 두면 꼭 이북 출신 같은 이남 출신 같은 것이여. 우리 노인들 시켜놓으면 그냥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조사자 : 노인봉사대는 아까 H-H봉사단 그거가 그건가요?

구술자2 : 아니 노인봉사대가 따로 있고, H-H봉사단이 또 있고, H-H는 가정집 고쳐주고 문제 하는 건만. (노인봉사대는 또 따로 있고) 네, 따로 있고 그런데, 에~ 저.....그리고 에~대충 다했네. 노인새마을회가 인제 드디어 인제 구성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 되냐 안 되냐를 알라면 그 사람들 리더 몇 사람만 딱 겪어 보면 알아요. 그런데 나는 된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어요. 어찌 그러냐 우리 박회장님 말이죠. 에~ 정말 칭찬하자면 칭찬할 것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도저히 저러면 안 되는데 고치면 쓰것다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 지금 우리 기금이 기금이 약차합니다. 기금이 약차한데, 그 기금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박회장님 혼자 해서 발표도 얼마가 가도 발표하라면 없으니까 발표를 안 하고 수입지출하고 해서 살림살이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 하나

가 아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회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 쓸데없는 소리 말어. 응 어머니가 아버지 벌어들인 돈 가지고 살림을 할 때 어머니가 허면 그만이지 보고를 가족들한테 다 해야 되냐. 오히려 그 얼마 있다 뒤흔다 그러면 인자 말이 거기서 뭐 생기며는 부작용만 커. 아 어머니가 믿고 뒤흔다 두면 그거로 끝이지. 내가 그리고 또 단체생활을 1-2년 한 사람이나. 그런 어리석은 짓거리는 안해. 근데 박회장님이 뭐 남들한테 발표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얼마나 갖다 그 사람들 입으로 속 들어가 버리고 말 안터라구요. 어머니와 같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또 얼마만큼 매사에 적극적이냐 하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한거 참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또 이웃 간에 하는 거. 나도 그 같이 반평생을 같이 해 보며는 고쳐줄 점이 하나도 없어. 성실하고 참 농촌출신답게 소박하고 성실하고 또 깨끗하고 아 그러니까 둘이 딱 그렇게 맞으면 무서운 것이 없어요.

조사자 : 두 분이서 처음 만난 건 어디 어디.

구술자2 : 그 무렵이여. 같이 들어올 때.

구술자1 : 여기 같이 들어와서 인저 새마을하면서 같이 인저 만난 거지.

조사자 :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구술자1 : 처음엔 인저 여기 들어와서 인저 새마을 같이하면서 인저 서로 인저 그 때서부터 인저 이적 손잡고 인저 이적끼리 살아나온 거죠 뭐. 인저 밥이야 따로 해먹었지만. 행동은 일추 비슷하게 나는 집에서 앉은장사를 했고. 인저 회장님은 또 인저 인쇄업을 시청. 지금 시청 옆에 거기서 해으니까 시청 같은 데 뭐 이런 인쇄물 같은 거 관공서 인쇄물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성남에서는 제일 크게 했지요. 인저 관공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걸 하고. 나는 인저 개인장사니까. 하면서 인저 새마을을 하다가 인저 노인봉사대를 하다 인저 또 이렇게 해서 아까 봉사대 무슨 뭐 봉사은행 또 인저 노인새마을 이런 거를 구성해 나오는 것 이게 이제끼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 인저. 주로 인저 정회장이 인저 저기를 많이 짜가지고 저는 인저 ◎아가는 편이지요 많이 인저.

구술자2 : 말하자며는 인자 시나리오 쓰는 사람은 시나리오 작가고 인자 그 연출

은 이제 맡아서 하고, 회장님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지마는 에~아무튼 한번 지켜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시라고, 우리 두 사람이요 한 번도 다투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저번 때 에~ 노인새마을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가족들이 어찌 반발을 하는지 당신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할라고 그러냐. 결사반대해 가족들이. 그러니까 인자 내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그 때에 박회장님이 무심코 박회장님 한마디 한 것이 인저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지. 근데 딱 한번 해본 일이 있고, 그 외에는 부부간도 그렇게 살아올 수가 없어. 이제까지 아까 신의랄지 정직 이런 것은 타고 난 것이고.

조사자 : 그 마지막으로 인제 한 질문 하나 정도만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 새마을운동 초기에 그 새마을운동을 하는 정신이랄까 이런 거하고 지금 노인새마을회가 가야 될 정신이랄까 이런 거 하고 뭐가 달라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술자1 : 그런데 그 때 우리가 여기 초단기 농촌에서 새마을을 하다가 지금 인제 도시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서서 우리가 여기를 도시로 보지 농촌으로는 안보잖아요. 농사꾼이 아니니까는. 했을 적에 솔직히 정말 농촌새마을 못지않게 여기 성남이 새마을운동이 있었어요. 정말로 아주 잘되나가고 어느 지금도 아마 성남이 전국에서 새마을운동이 제일 낫다고 봐요. 많이 지금 죽었어도 지금 부녀회들 여자들은 그래도 어느 선에서 그래도 좀 각동의 지도자들이 부녀회들이 있고 좀 많이 저기 하는데 남자들은 지금 불이 얼추 꺼져가요. 지금 꺼져가는 상태예요. 각동에 다 그래요 어디가나. 그 때 우리가 할 때하고는 전혀 틀린 그 새마을이죠. 불이 꺼져가는 새마을이 되었어요. 이로서 이걸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래가 지곤 이걸 불이 꺼지는 거다. 그래가지고 야 노인네들이 한번 이걸 해보자 꺼지는 불을 한번 인나코 ((일으켜)) 보자 해서 인저 노인새마을을 지금 인저 이 해서 이거를 참 안 되는 거를 참 정회장님이 @어댕겨 또 정모. 지금 지회장이나 성남시 그 이런 저기를 하고 지금 현직들 먼저 하던 분들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서 인저 그 사람들한테 인저 좀 얻어가지고서 다시 태평4동에서라도 노인새마을을 만들어서 참 확산해 나가보자 해가고서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 지금 아직

태평 4동만 하나까는 지금 아직 이렇다 하는 공고는 별로 없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인제 앞으로 이것이 각동에서 퍼져 나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이것이.

조사자 : 그러시구. 정형주 선생님께서는 살아오시면서 제일 제일 기뻐던 때는 언제세요?

구술자2 : 제일 기뻐던 때는 해방 됐을 때하고 독립됐을 때. 뭐 더 이상 기뻐던 때는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그렇게 기쁜 적은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기쁜 적은 없었고. 내나 관련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감 때문에. 그 뭐 단순한 성취감이 아니라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이 한 80여명 되는데. 우리 아버지 자손들이. 전부 서울로 다 소원대로 다 올라갔고. 다 올라가서 다 어지간끔 다 살아요. 또 뭔가 인재도 뭐 고루고루 많이 나왔고. 어~ 우리 가정이 안정이 되고 그것이 철저한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고. 에~ 우리 가정은 더 인제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뭐 아까 그런 얘기를 자세히 안했는데 그 흔한 자가용 한 번 못 타보고. 내 통장 다 갖고 사는데 나는 통장 한번 못 가져 보고. 어 뭐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지마는 속으로는 나는 집구석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다 거지들이 돼갔고 응 저기 그 새마을운동 한다고 땡기는데 저기 아 오직하면 가는 데마다 비난이예요. 말으면서도 당당하게 지금까지 왔는데. 에~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자기가 일 잘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까 그런 것 우리 애들이 그런 정신을 갖고 뒷받침을 했지만. 자랑을 못해요. 아버지 대통령훈장 받았다. 자식놈들 싹 해서 상장 하나. 박회장도 우리집 찾아오지만. 한 장 걸린 거 없어요. 상장이 여기 여기 보면 상장 뭐 뭐 해서 그득하지요. 뭐 시장 요놈까지 다 따지면. 뭐 근데 그거 한 장 우리가 걸어논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 보기 미안해요. 지 집구석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거마저 자랑하고 앉았다고. 어~ 그렇고. 애들한테는 또 미안해서 못 걸어 놓고. 애비 그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해서 나는 확신을 가지는데. 그 애들은 앞으로 잘 살 거예요. 근

데 에~ 잘살 수. 부자로는 못살 거예요. 그러나 걱정은 않고 살 거라고. 그 애들도 벌써 애들도 아 돈을 많이 가지면 뭣 허는 거예요. 자기 살만큼 필요하면 되는 거지. 손주들도 그래 벌써. 그런데 저기 에~ 그 자랑도 못 허고. 그 기쁜 표시한 번도 못해 봤지만 왜 기쁜 적이 없어. (예. 그렇지요.! 네) 요런 게 이루어질 때 마다 그야말로 기쁘지요.

조사자 : 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예. 거의 세 시간 가까이 되는데 너무 긴 시간을 뻗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술자1 : 별 참 말도 할 줄 몰르는데 괜히 떠듬떠듬.

태평동 구술대상자 조사 카드

1. 구술대상자

이름		남, 여
출생연도/출생지		
현거주지		
학력		
직업		
가족관계		
태평동 거주기간	년부터 년까지 (년간)	
약력		

2. 조사 관련

사전 접촉	조사자		
	일시		
	장소		
1차 인터뷰	조사자		
	일시		
	장소		
2차 인터뷰	조사자		
	일시		
	장소		

구술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구술 정보 제공자	이름						
	주소						
구술 일시		2009년 월 일			2009년 월 일		
구술 장소							
구술 내용		구술자의 개인생애					

1. 본 구술정보는 "성남문화재단"이 동네만들기사업 이야기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채록된다. 이 채록 작업은 장노현(한국중앙연구원)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아래 조사자들이 조사에 공동 참여한다.
조사자1(), 조사자2(), 조사자3()
2. 구술정보라 함은 상기 구술정보 제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사인터뷰 녹음 자료 및 진사자료, 이를 재구성한 재구성자료, 그리고 구술 상황을 기록한 화상자료 등을 의미한다.
3. 본 구술정보는 필요시 음성파일 및 자료집 등의 형태로 만들어져 활용될 수 있다.
4. 본 구술정보는 본 사업을 의해 재구성 작업을 거쳐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며, 또한 구술정보 조사자 등의 추후 연구 작업에 반복 이용될 수 있다.
5. 본 구술정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익명을 사용하도록 한다.
6. 구술정보 제공자가 원할 경우, 조사자는 출판된 책이나 기타 자료집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술정보 제공자의 요청 사항)

본인은 구술정보 제공자로서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본 구술정보가 연
구 및 교육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술정보 제공자

장노현(張魯鉉) _ jnohyun@hanmail.net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소설과 디지털서사를 전공했고, 이후 문화콘텐츠와 인문정보학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였다.

1990년대 후반 한국문화 대표사이트인 ‘디지털한국학’ 사이트를 기획·개발하였고, 2000년대 들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의 초기 기획 및 개발을 이끌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디지털서사 연구와 구비문학 사업에 참여하고, 각종 문화콘텐츠 사업의 기획과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 《하이퍼텍스트 서사》《상대원 사람들 이야기》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다매체 환경에서 문학의 정체성과 연구방법 모색> <소설 속 지명정보 활용방안 기초연구>, <디지털 서사의 서사구성 원리>, <인문학적 문화콘텐츠와 창의성> 등 다수가 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cf.or.kr / www.snart.or.kr

성남문화재단은 2004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2005년 10월에 있는 성남아트센터 개관 준비에 집중되었으며, 개관과 함께 문화도시 정책부서인 문화기획부가 2020년까지의 3단계 15년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재단 정책사업을 펼치게 된다.

문화도시 정책의 핵심사업은 '사랑방문화클럽'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포함한 5대사업을 통해 '시민이 도시를 창조하는 주체다!'라는 모토를 실현하기 위한 세밀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부터 추진된 문화도시 프로젝트의 모든 내용은 책으로 발간되어 30여권에 이른다.(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야기북' 시리즈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중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장노현 박사와는 2007년도에 '사랑방문화클럽'의 클럽 대표들에 대한 '서사 인터뷰'를 시도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2008년도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와 2009년도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를 함께 작업해 오고 있다. 향후 성남문화재단의 '이야기북'은 스토리텔링 클럽이나 집필 커뮤니티(writing communitie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성남문화재단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창작자가 되는 것이다. 동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면서 창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네의 역사다. 이것이 바로 성남문화재단이 추구하는 살아 있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이야기다.

“성남극장, 여기 밑에, 거기 앞애가 차가 쏘거든요.
 고기서 차를 서서 보니까 여기는 남이장군 묘가 있었어요 밑에.
 근데 요기는 민둥산이었어요. 그냥 산. 집이 없었고.
 근데 여기를 넘어와야 한 대요, 빨간 황토흙인데.
 여기를 넘어와야 동네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넘어가냐고.
 우리 있는 데는 산이 없어요. 맨 논만 있지.”

-공동수도집과 야채집_태평동 여정씨 이야기 중에서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태평동 이야기북 2
 2009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757 성남아트센터
www.sncf.or.kr / www.snart.or.kr



9 788996 340331
 ISBN 976-89-963403-3-1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태평동 이야기북 2
2009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 성남아트센터
www.snct.or.kr / www.snart.or.kr



9 788996 340331
ISBN 976-89-963403-3-1